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872-01

202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 2021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2021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1. 11. 30.

연구수행기관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의식(용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광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 박금영(위드유인지창의연구원 대표) 이현주(중원대학교 교수)
연구보조원	강민준(신한대학교 박사과정)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021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2021.11.30.

국가인권위원회



# 목 차

## 요약문

### 제1장 서 론 .....1

1. 조사 목적과 의의 .....1
2.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5

### 제2장 선행 연구자료 분석 .....20

1. 주요 인권침해 사례 분석 .....20
2. 현행 법령/제도 분석 .....22
3. 훈련병 인권 관련 외국군 사례 분석 .....32

### 제3장 훈련병 인권상황 실태 분석 .....37

1. 설문조사(폐쇄형 질문)을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37
2.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을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66
3.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71
4. 소결론 .....74

제4장 군 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76

- 1. 군 훈련소 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76
- 2. 군 훈련소 의료지원체계 개선 .....81
- 3. 훈련소 일상생활에서 훈련병 인권 보장 .....85
- 4. 군 훈련소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선 .....91
- 5. 군 훈련소 인권침해 피해 구제제도 개선 .....94
- 6. 군 훈련소 상담체계 개선 .....97
- 7. 법령 및 제도 개선 .....101

제5장 결 론 .....104

부 록

- 1. 설문조사(폐쇄형 질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108
- 2.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354



## 표 목 차

<표-1> 실태조사 연구범위 .....	6
<표-2> 연구 체계도 .....	8
<표-3> 군대 인권 관련 주요 연구자료 .....	10
<표-4> 문헌연구 자료 .....	11
<표-5> Pilot Study 참여 인원 .....	12
<표-6> 설문조사 항목 구성 .....	12
<표-7> 설문조사 참여부대 및 신분별 인원수 .....	13
<표-8> 통계 처리 과정 .....	15
<표-9> 전화 면접조사 참여 인원 .....	16
<표-10> 전화 면접조사 시 질문 문항 .....	16
<표-11> 훈련병 인권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현황 .....	22
<표-12> 군대 인권 관련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 .....	23
<표-13> 외국군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 상황 .....	32
<표-14> 생활관 형태와 생활관에 대한 인식 .....	38
<표-15> 훈련소 목욕/샤워시설 실태에 대한 인식 .....	39
<표-16> 훈련소 식당 실태에 대한 인식 .....	39

<표-17> 훈련소 화장실 실태에 대한 인식 .....	40
<표-18> 훈련소 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 .....	40
<표-19> 훈련소 급식 만족도 .....	41
<표-20> 지급받는 일용품 수량 적절성에 대한 인식 .....	42
<표-21> 지급받는 일용품 품질 만족도 .....	42
<표-22> 휴식 및 취침 시간 보장 실태에 대한 인식 .....	43
<표-23> 군매점 이용 여건에 대한 인식 .....	43
<표-24> 흡연 금지에 대한 인식 .....	44
<표-25> 입소 후 신상정보, 편지공개, 소지품 검사, 개인용품 사용 .....	44
<표-26> 공중전화 이용 가능 시간 .....	45
<표-27> 공중전화 평균 이용 횟수 .....	45
<표-28> 1회 통화 가능 시간 .....	45
<표-29> 공중전화 대수의 적절성 .....	46
<표-30> 외부와 연락할 여건에 대한 인식 .....	46
<표-31> TV 시청 여건 .....	47
<표-32>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만족도 .....	47
<표-33>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 .....	48
<표-34> 군 외부로부터 소식/정보 접촉 여건 .....	48
<표-35>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 .....	48

<표-36> 훈련병 두발 손질 .....	49
<표-37> 두발 손질 여건 .....	49
<표-38> 두발 기준의 적절성 .....	49
<표-39> 인권침해 경험 횟수 .....	50
<표-40> 훈련병 인권 침해자 .....	51
<표-41>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시기 .....	51
<표-42> 인권침해 피해 신고 경험 .....	52
<표-43>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52
<표-44> 인권침해 피해 신고 후 부대 대응조치 .....	53
<표-45> 인권침해 당했을 때 부대 관계자의 옹호 정도 .....	53
<표-46> 인권침해 시 구제제도, 기관, 기구 인식도 .....	54
<표-47> 인권침해 시 구제제도, 기관, 기구 이용 경험 .....	54
<표-48>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지 여부 .....	55
<표-49>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경험 .....	55
<표-50>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경로 .....	55
<표-51>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시 도움 정도 .....	55
<표-52> 마음의 편지 제출 경험 .....	56
<표-53> 마음의 편지 제출 후 조치결과 통보 여부 .....	56
<표-54> 마음의 편지 도움 정도 .....	56

<표-55> 외부에서 소원수리 접수 여부 .....	57
<표-56> 소원수리 조치결과 통보 여부 .....	57
<표-57> 소원수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 .....	57
<표-58>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 여부 .....	57
<표-59> 신고자 신상정보 공개 시 처벌됨을 인지 여부 .....	57
<표-60> 1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	58
<표-61> 진료 요청 후 진료받기까지 소요시간 .....	58
<표-62> 1회 진료 시간 .....	58
<표-63> 1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 .....	59
<표-64> 2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	59
<표-65> 진료 요청 후 진료받기까지 소요시간 .....	59
<표-66> 1회 진료시간 .....	60
<표-67> 2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 .....	60
<표-68> 본인 필요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인식도 .....	60
<표-69> 훈련병 교육기간중 스트레스 받은 정도 .....	60
<표-70> 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경험 .....	61
<표-71> 훈련소 입소 후 격리기간 .....	61
<표-72> 훈련소 입소 후 격리 시 불편했던 점 .....	61
<표-73> 훈련소 입소 후 격리기간 중 야외활동 허용 여부 .....	61

<표-74> 훈련소의 코로나19 대응 수준 적절성 여부 .....	61
<표-75> 훈련소 입소시간 중 인권교육 받은 횟수 .....	62
<표-76> 훈련병 대상 인권교육 진행자 .....	62
<표-77> 훈련병 대상 인권교육 방법 .....	63
<표-78>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	63
<표-79> 인권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	63
<표-80> 훈련병 군인화 과정에서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 .....	64
<표-81> 격리기간 중 인권침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	64
<표-82> 훈련소 내 훈련병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	65
<표-83> 입대 전/후 훈련병 인권상황 비교 .....	65
<표-84> 하루빨리 개선해주기를 원하는 사항 .....	66
<표-85> 인권보장을 이유로 교육훈련 거부 사례 .....	68
<표-86> 훈련병들의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포함)로 피해 본 사례 .....	69
<표-87> 대·소변기 설치 기준 .....	77
<표-88> 병사 1인당 1일 주식 기준량 변화 추이 .....	78
<표-89> 진료과정에서 훈련병과 기간병 차이 여부 .....	83
<표-90> 생활관 설계지침 .....	84
<표-91> 간부 양성과정별 핸드폰 사용 허용 여부 .....	86
<표-92> 간부 양성과정별 TV 시청 허용 여부 .....	87

<표-93> 간부 양성과정별 흡연 통제 여부 .....	88
<표-94> 간부 양성과정별 영내 매점 이용 허용 여부 .....	90
<표-95> 신병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교육 횟수 .....	91
<표-96> 인권교관 교육과정 .....	93
<표-97> 인권교육 내용 .....	96
<표-98> 훈련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는 경로 .....	97
<표-99>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원 자격 .....	99
<표-10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전 교육 프로그램 .....	100
<표-101> 2021년 8월 1일 훈련소별 식단 .....	103

# 요약문

## 1. 실태조사 목적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보장 욕구가 증가하였고, 경제발전과 복지수준이 향상되면서 신병훈련소에서의 인격적인 대우와 민주적인 교육훈련 방식, 수준 높은 의식주 생활환경, 신뢰성 있는 의료지원체계 등에 대한 훈련병들의 기대치는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군에서 운영하는 신병훈련소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훈련병들이 입소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게 다가오게 된다. 훈련병들이 군대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인화 과정에 의욕적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각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병훈련소의 제반 인권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각종 사례, 예를 들면 훈련병에 대한 미흡한 의료 조치, 교관 및 조교에 의한 부당한 군기훈련, 군매점 이용 제한,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제한, 흡연 및 물품 소지 제한, 인터넷 편지 전달 불만족, 소원수리 조치 미흡 등에 대한 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생활관·식당·화장실 등 시설 환경을 확인하며,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를 분석한 다음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는 격리조치의 적절성을 따져보고, 훈련소 의료지원 및 방역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군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행복추구권 등 자유권, 인격권, 건강권, 안전권 등)을 조사해서, 훈련병들의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 2.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 가. 조사범위

실태조사 범위는 크게 6개 분야로 나뉘 ①훈련병 인권침해 사례·유형 및 발생원인 분석, ②훈련소 시설 및 생활환경 진단, ③훈련병 의료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운영실태 분석, ④훈련병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규 현황 분석, ⑤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⑥외국군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보호 관련 규정과 제도 분석 등으로 설정하였다.

### 나. 조사 방법

코로나19 4단계 방역조치로 인해 부대방문과 심층면접조사가 제한되었으므로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화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 1) 문헌연구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자료를 수집하려고 문헌연구를 진행하였으나,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과 관련된 선행연구자료들은 거의 없는 실태였다.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했던 「군인권 결정례집(제1·2집)」에만 일부 수록되어 있었다. 따라서 「군인권 결정례집(제1·2집)」과 훈련소 관련 진정 기록,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 중에서 5년 이내에 발생했던 사례를 수집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군인복무기본법, 군 인권업무 훈령, 부대관리훈령 등 훈련병 인권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령을 분석해서 상호 충돌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었다. 외국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과 관련된 자료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획득해서 분석하였으며,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미 8군 KTA(KATUSA Training Academy)로부터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 2)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설문지 구성을 위한 Pilot Study - 설문지 구성/제작 - 설문조사 진행 - 설문결과 통계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 (1) Pilot Study

2021년 7월 16일 책임연구원 등 5명이 육군훈련소를 방문해서 사전 준비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훈련병, 훈련소 운영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제한된 범위지만 사전에 Pilot Study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설문지 문항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방문기간 중 화장실·세면장·생활관·식당 등 훈련병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훈련병 생활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 (2)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제한되는 것을 고려해서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은 문헌연구와 Pilot Study를 통해 수집했던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구성하였으며, 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실태조사의 계획단계에서는 심층면접조사를 포함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훈련병 및 훈련소 운영요원들과 대면접촉이 제한됨에 따라 설문지에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으며, 응답자들이 제시한 의견은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3) 설문조사 참여부대 및 인원수

설문조사는 2021년 8월11일부터 8월27일까지 9개 부대 1,8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참여했던 부대와 인원수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 설문조사 참여부대 및 인원수

· 참여부대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수	9개 부대	육군훈련소, 사단신병교육대 (1, 12, 28, 53, 55)	기초군사 교육단	기본군사 훈련단	교육 훈련단

· 인원수

구분	계	훈련병	훈련소 운영요원			
			지휘관/ 교관/조교	감찰/ 군사경찰	의료인력	상담관
인원수	1,818명	1,348명	388명	30명	35명	17명

(4) 결과분석

2021년 8월 현재 각 군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있는 훈련병, 지휘관/교관/조교, 감찰/군사경찰, 군 의료인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방법인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해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법’을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ver21.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소속·보직·계급으로 구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3) 전화 면접조사

신병훈련소 지휘관, 훈련소 의료인력, 신병훈련소를 갓 수료하고 자대로 배치된 전입 신병 등 28명을 대상으로 핸드폰을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체험했던 신병훈련소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개인 의견도 동시에 청취하였다.

### 3. 훈련병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 가. 설문조사(폐쇄형 질문)을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각 군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은 신병훈련소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훈련소 급식, 화장실 등 생활시설, 두루마리 화장지 등 일용품,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 외부와의 소통수단, 흡연, 영내매점 사용, 군의료지원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하면서 1인 생활공간이 매우 좁아졌으며, 인원수 대비 화장실 숫자가 부족하고, 급식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식 맛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및 부대별로 영내매점(PX) 사용 기준과 TV 시청 기준이 다르며, 공중전화 사용 시간 및 횟수 등도 부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부대별로 허용 여부가 달랐으며,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금지는 전 군 모든 훈련소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2)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침해 피해

훈련소 입소 후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은 거의 없었으나, 부당한 군기훈련을 받았던 경험은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병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부당한 군기훈련 등은 주로 조교에 의해서 이뤄지며, 성추행과 성희롱은 교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훈련병들이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피해 신고 후 부대조치에 대해서는 47%만이 적절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휘관 등 관계자들이 훈련병의 입장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권침해 피해 시 구제

훈련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들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훈련병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편지(93%), 국방헬프콜(86.5%), 병영생활전문상담관(66.4%), 국가인권위원회(61.2%), 국방부 및 각 군 인권센터(59.6%), 인권상담관(52.1%) 순이었으며, 직접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마음의 편지(4.3%), 병영생활전문상담관(1.4%), 국방헬프콜(0.2%) 순이었다. 훈련병들이 입소 기간 중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와 기관/기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편지와 국방헬프콜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와 기관/기구들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도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군 의료 지원 및 코로나 예방 활동

훈련소 입소 후 군대 1차 의료기관(의무대 등)에서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35.8%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진료요청 후 실제로 진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요청 당일(59.9%), 요청 후 1일(36.2%)로 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진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는 요청 후 3일 이상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훈련병들에 대한 진료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훈련소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군 인권교육 및 전반적인 인권의식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교육을 몇 회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총 4회 이상(29.4%)이 가장 많았으나,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27.3%나 되었다. 특히, 공군의 경우 응답자 149명 중에서 96%가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sup>1)</sup> 육군훈련소의 경우에도 응답자 299명 중에서 35.8%가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은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입소초기에 진행함으로써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을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심층면접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설문조사에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제기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훈련병

훈련소 입소기간 중 공중전화 이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전 군 공통적으로 ‘손편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인터넷 편지, 간부 핸드폰, 국방일보, 애플리케이션(더 캠프) 등을 꼽았다. 신병훈련소 입소기간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표-2> 하루빨리 개선해주기를 원하는 사항

- 주말에는 핸드폰 사용을 허가해 달라.
- 흡연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
- 두루마리 휴지 보급을 2배로 늘려 달라.
- 온수/냉난방시설, 화장실 시설을 개선해 달라. 화장실 칸수가 너무 적다.
- 공중전화 이용 횟수와 1회 이용시간, 설치 대수를 늘려 달라
- 소대장·분대장들의 지시사항이 통일되지 않아서 혼란을 준다.
- 식단이 부실하고 밥맛이 없다. 식단표가 안 지켜진다.
- 영내 매점 이용 횟수와 1회 이용시간을 늘려달라.
- 격리기간 중 자기계발이나 체력단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1)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군의 경우 인권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법무관이 군법교육을 실시하면서 인권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훈련병들은 교육일정상 인권교육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몸이 아플 때 전문병원에서 제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생활관 2층 침상 단점을 개선하고 개인당 생활공간을 확대해 달라.
- TV 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 편지 발송 소요시간을 줄여주고, 우표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개인정비시간을 보장해 달라
- 낡고 곰팡이 피고 냄새 나는 수통과 방탄헬멧을 교체해 달라.
- 화장실 사용시간/샤워시간을 늘려 달라
- 취사장 위생상태를 개선해 달라. 식판을 깨끗이 세척해 달라.
- 배식량이 너무 부족하다. 급식량(특히 반찬)을 늘려 달라.
- 택배와 소포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 개선해 달라.
- 훈련복, 침구류(모포, 베개, 내피 등) 세탁상태가 너무 나쁘다.
- 조교의 욕설을 근절해 달라.
- 세탁기 · 건조기 · 선풍기 · 에어컨 고장 시 신속하게 고쳐 달라.
- 사물함 도난사고를 예방해 달라.

## 2) 지휘관/교관/조교

훈련병들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주로 어떤 문제를 제기 혹은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급식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 제기가 가장 많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흡연 허용 요구, TV 시청 허용 요구, 시설물 개선 요구, 생활용품 부족함에 대한 불만 제기, 1회 이용 가능한 전화 통화 시간 증가 요구, 훈련병 상호간 갈등 문제 제기, 영내매점 사용 기회 및 이용시간 확대 요구, 휴대폰 사용 승인 요구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훈련소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증진 등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훈련병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관 및 조교들의 인권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훈련병들에 대한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으며, 훈련병이 교관과 조교의 인권을 침해해도 대응수단이 없으므로 허위신고 근절 방안과 허위신고 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되었다.

반면에 훈련목표 달성과 교육 시간에 맞추기 위해 샤워시간·세면시간·용변시간 단축, 집합시간 강요, 인터넷 편지 미전달 등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했던 경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각 군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지 3개월 이하의 전입 신병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소 입소 후 불편했던 점은 격리기간 2주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게 한 것, 화장실 위생상태 불결, 핸드폰 사용 통제, 세면 및 샤워시간 부족, 단체생활하는 것, TV 시청 통제, 열악한 시설 환경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2) 훈련소에서 지급되는 일용품은 비교적 충분하였으나, 면도날과 두루마리 화장지는 부족했다고 응답하였다.

3) 마음의 편지나 소원수리는 1명만이 대대장과 중대장이 주관할 때 제출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대대장을 통해 조치 결과를 설명 들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다고 응답하였다.

4) 코로나19 격리기간 중 불편했던 사항은 1명만 급식량이 부족해서 불편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불편함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5) 훈련소 생활시설과 냉난방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화장실 대변기는 고장 난 것이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6) 훈련소 입소기간 중 주로 지휘관·인권교관에 의해 인권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전원 부정적이었다.

7) 식사시간을 짧게 줄 때와 씻는 것을 통제할 때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 라. 소결론

실태조사 결과 각 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침해 행위(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부당한 군기훈련 등)가 발생하는 빈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권보장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생활시설(생활관, 식당, 화장실)이 대부분 노후되었으며, 급식의 질이 높지 않은 가운데 급식량도 부족하고, 군대 외부와의 소통과 정보교류에 필요한 TV 시청·공중전화 사용·핸드폰 사용 등도 제한받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과 영내매점 사용기준은 각 군별 또는 부대별로 상이하여 훈련병들 간에 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해소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권과 관련하여 훈련병들은 군대 1차 의료기관 의료인력들이 매우 불친절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진료 요청 후 군대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까지 3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를 요청하는 훈련병을 대하는 교관 및 조교들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격리기간 동안 사용하는 세면장과 화장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기간 중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로 지휘관과 자체 교관으로 진행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의료인력과 군사경찰 및 감찰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훈련병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기관/기구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상태이며, 소원수리와 마음의 편지 제도에 대해서는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제도 개선요구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 4. 군 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 가. 군 훈련소 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 1) 생활관

각 군 신병훈련소 생활관은 침대형이 41.2%, 침상형이 58.8% 수준으로 여전히 침상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훈련소의 경우 침대형으로 일부 개선했으나 기존 생활관에 2층 침대를 설치하다 보니 1인당 생활공간이 턱없이 좁아지고, 천장 높이도 낮아져서 2층 침대에서 생활하는 훈련병들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실정이다.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조하려면 내부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침대를 설치하도록 생활관 개선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 2) 화장실

생활관 시설에서 화장실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인원수 대비 화장실 대변기 개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훈련병들은 기상 후 짧은 시간에 용변을 해결해야 하므로 동시에 많은 인원이 화장실에 몰리게 되는데, 현재 기준에 맞춰 6명당 1개를 설치하면 병사 1인당 5분씩 용변을 보더라도 30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신병훈련소의 경우 대변기 숫자를 증가시키고 고장난 대변기는 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보수팀을 운영해야 한다.

#### 3) 급식

많은 훈련병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급식량이 적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국방부가 병사 1인당 1일 주식(主食) 기준량을 300그램으로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활동량이 많고 영내매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훈련병들에게는 부대급식이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급식기준량을 늘려야 한다.

신병훈련소 급식과 관련된 또 다른 개선 요구는 맛좋은 음식을 제공해 달라는 것인데, 각 군 신병훈련소뿐만 아니라 일반 야전부대에서도 군대 급식이 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군대 급식을 마련하는 조리병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조리병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이유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조리병 지원을 기피하므로 총원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리병 총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대 시기 선택권·조리사 자격증 수당 지급·휴가일수 확대·전역시 중소기업 취업 추천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4) 일용품

훈련병들이 훈련소 입소기간 중 지급받는 일용품 중에서 두루마리 화장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실제 소비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두루마리 화장지 개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 병사들의 피복류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육군과 공군은 신병훈련소에서 얼룩무늬 전투복을 개인피복으로 지급받아서 훈련복으로 사용하다가, 수료 후 소속대에서도 계속 착용하므로 신병훈련 기간 중에도 군복(훈련복) 상태가 양호하다. 그런데 해군의 경우에는 해상전투복만 개인피복으로 지급하고 훈련복으로 착용할 얼룩무늬 전투복은 부대피복으로 운영함에 따라, 앞기수 훈련병들이 사용했던 것을 뒷기수 훈련병들이 계속해서 사용하는데 관리상태가 일부 부실하여 곰팡이가 피고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로 인수인계가 되고 있다. 해군도 신병훈련소 입소시 얼룩무늬 전투복을 개인피복으로 추가 지급해서 양호한 군복을 착용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해군 병사들의 피복류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수통 및 방탄헬멧 등 개인 장구류와 모포 등 침구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립해서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침구류 및 군장류 관리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 나. 군 훈련소 의료지원체계 개선

### 1) 의료인력 확충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신병교육대 의무대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군의관 2명 등 10-11명의 의료인력이 기간장병 200여 명과 훈련병 700여 명 등 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사단신병교육대의 특성상 근육통과 타박상, 복통과 허리통증 등 다양한 부상과 질병 환자가 하루 평균 50-60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면 대부분 일과시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진료를 요청하므로 2명의 군의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태였다.

따라서 군대 1차 의료기관의 진료여건을 개선하려면 군의관 인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대급부대에는 군의관이 미보직될 정도로 군의관에 대한 수요대비 총원율이 낮은 이유는 군의관의 정원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군사법원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법무관 정원 감축분을 군의관 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군의관 정원을 확대하면 총원 가능한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배정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2)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에서 다수의 훈련병들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군의관의 불친절’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 단기복무 군의관이 환자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연차별로 근무지를 배정하는 것보다, 1년 동안 환자들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 근무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군의관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훈련병들이 제기했던 또 다른 문제점은 군의관의 처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증상이 다른 질병인데도 처방약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거나,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일 수 있으므로 처방과정에서 군의관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주도록 군의관 양성과정 교육에 반영해서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투약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색상과 형태(알약, 캡슐 등)를 다르게 구매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3) 인권교육 강화

신병훈련소 의료인력 중 20%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은 의료인력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더구나 응답자의 28.6%가 진료과정에서 기간장병들과 훈련병들 간에 차이나 차별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그만큼 의료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국방부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면 인권관련 업무종사자인 의무병과의 장교, 준·부사관 및 군무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외부강사 및 군내 인권전문가를 초빙하여 1박 2일 이상의 집체교육 또는 당일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 군 신병훈련소 의료인력을 소집해서 집체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교육기관의 장인 신병교육대장이 소속대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방부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 내 최고 상급자가 책임지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4)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군부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전염성 환자

는 침실·식당·세면장·화장실·목욕탕·이발소 및 매점 등을 따로 사용하도록 격리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전염성 환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육군훈련소처럼 대규모 훈련소에는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관 등 일부 활용 가능한 공간이 있지만, 이마저도 많은 훈련병들이 동시에 입소하면 분산 수용이 어렵고 분산 수용하더라도 세면장·화장실 등 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사단신병교육대처럼 소규모 훈련소에 많은 훈련병이 동시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 초기에 장기간 격리시킬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가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입소 기수별로 생활관을 분리 운영하면서 입소 기수별로 관리하고, 전염병이 확산되기 시작하면 권역별로 격리수용시설을 마련해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다. 훈련소 일상생활에서 훈련병 인권 보장**

### **1) 핸드폰 사용**

현재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는 입소 초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기간에는 가족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핸드폰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정상적으로 신병훈련 일정이 시작되면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외국군 신병훈련소 사례와 우리나라 간부후보생들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각 군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에게도 휴일에는 핸드폰을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병훈련의 특성상 평일에는 교육훈련 종료 이후에도 보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미인식된 상태이므로 평일 일과시간 이후까지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훈련병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할 경우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선행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 2) TV 시청

현재 간부후보생들은 공통적으로 TV 시청을 전면 통제하고 있지만,<sup>2)</sup> 신병훈련소는 부대별로 상이하다.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의 범위도 부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TV 시청 문제는 부대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TV 시청 기준안을 국방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3)</sup>

다만, 훈련병에게 주말과 공휴일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게 된다면, 외부와의 소통, 외부 정보에의 접근 욕구는 핸드폰으로도 해소할 수 있으므로 TV 시청 허용 여부는 별도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3) 흡연

군인이 작전활동을 할 때 흡연을 하면 적에게 노출되는 위험 때문에 각급 부대에서는 경계근무를 나가는 군인들이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신병훈련소와<sup>4)</sup> 간부양성 교육기관에서도 군인화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흡연을 금지시키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 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에 따르면 군 교육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장병들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병훈련소에서 흡연권을 전면 보장하게 되면 혐연권과 충돌이 발생할

---

2) 공통적으로 생활관에 TV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육군규정120 '국방 IP TV 운영·관리'에 따르면 제공 가능한 서비스에는 상용 IPTV 서비스 프로그램과 국군방송, 국방 CUG(담당부서 제공) 등이 있다. 따라서 규정상으로 볼 때 일반 방송프로그램을 시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4) 육군의 경우 신병교육지침서에 장성급 지휘관 판단아래 흡연 가능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일부 육군 사단신병교육대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수도 있으며, 2009년 군에서 면세 담배를 없앨 때 명분이었던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과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흡연권을 전면 통제하면 육군 신병교육지침과 충돌이 발생하고,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흡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권을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4) 영내매점

현재 육군 훈련병들은 신병훈련소 입소기간 중에도 영내매점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군·공군·해병대 훈련병들은 사용할 수 없다. 육군 신병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에게도 영내매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공군·해병대가 계속해서 금지하는 것은 각 군별 차별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해군·공군·해병대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명시된 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을 반영해서 신병훈련소 내에 매점을 설치하고 훈련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당 이용 가능 횟수, 1회 이용 시간, 이용 방법, 구입 가능한 품목<sup>5)</sup>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 라. 군 훈련소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선

#### 1) 인권교육을 독립과목으로 반영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입소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소별로 교육횟수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부대에 따라 인권교육을 군법교육 시간과 지휘관 시간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인권교육은 모든 신병훈련소에서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최소한 2시간 이

---

5)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병들이 자해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여 유리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상 전문교관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도록 신병 교육과목과 시간 편성을 조정해야 한다.

## 2) 인권교관의 전문성 제고

신병훈련소에서의 인권교육은 주로 지휘관(36.8%)이나 자대 인권교관(42.5%)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분석해 봤을 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로 양성교육 기간이 짧고 교육내용은 광범위하다. 더욱이 지휘관들은 대부분 이런 양성교육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군대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대폭 개선해서 교관들의 전문성을 함양시킨 다음에 활용해야 한다. 인권 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군법무관을 활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전문강사를 지원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지휘관들은 부임 전 보수교육 과정에 인권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해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킨 다음에 보직을 부여해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마. 군 훈련소 인권침해 피해 구제제도 개선

### 1) 마음의 편지(소원수리 제도 포함) 제도 개선

신병훈련소 수료 직전에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접수하는 현재의 방법은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시켜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 조치 결과 통보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훈련병들이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기수 훈련병 입소 시 앞 기수들이 제기한 소원수리와 마음의 편지 조치 결과를 소개해주는 것도 유용성을 인식시키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음의 편지 조치 결과 통보시 개인에게 직접 알릴 내용은 개별적으로 통보하되, 전체 훈련병들에게 알릴 내용은 점호시간에 당직근무자들이 직



접 설명해줌으로써 훈련병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 알리는 방법과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은 훈련병들이 병영일과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방송에 집중하거나 게시판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조수단으로 활용해야한다.

## 2) 구제제도/기관/기구 홍보 강화

인권침해 피해시 구제제도/기관/기구에 대한 인식도가 높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제도와 기구를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신병훈련소 홈페이지 등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나 훈련병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병훈련소 입소 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병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이 너무 다양하므로 짧은 시간에 구제제도와 기구들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므로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증가시켜 편성하고, 구제제도에 대한 소개교육은 군법시간과 지휘관시간에도 포함해서 반복교육이 이뤄지도록 각 군의 신병훈련지침이 수정되어야 한다.

## 바. 군 훈련소 상담체계 개선

### 1) 상담 절차 개선

훈련병들이 훈련소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는 절차는 지휘계통을 통해 인트라넷으로 신청하거나, 화장실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를 이용해서 훈련병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주로 부대에서 판단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상담관들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훈련소 입소 초기 대기기간을 활용해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소개교육을 실시해서 존재 자체를 알리고, ‘생명의 전화’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화기 설치 위치를 다른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전 할 필요가 있다.

## 2) 상담관 인권교육 강화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26.7%는 1회, 13.3%는 2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은 도움 및 배려 훈련병<sup>6)</sup>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훈련병들과 상담하고 구제제도를 소개해야 하는데, 배치 전 소집교육시 받는 인권교육은 1시간 동안 인권지킴이 활용방법을 소개받는 것뿐이다. 따라서 보수교육 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추가로 설치해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사. 법령 및 제도 개선

### 1) 군대 인권개념 재정립

2000년대 이후 군대에 인권개념이 도입되면서 장병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일부 향상된 것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군대에서 장병들이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에 소홀히 하거나, 훈련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줄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군대에 갓 입대한 훈련병들부터 군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 그리로 차별과 다름이 무엇인지도 인식시켜서 전우들 간에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군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줘야 한다.

---

6) 신병훈련소에서도 도움 및 배려병사를 선정하여 상담, 정신과 진료, 1:1 밀착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2) 훈련병 인권 관련 법령 보완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하면서 좁아진 1인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신병 훈련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도록 국방부의 병영시설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훈련병의 경우 영내매점 사용도 제한되므로 1일 주식 기준량을 증가시키도록 국방부 급식운영지침도 수정해야 한다.

군 인권업무 훈령에는 인권관련 업무수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관련 업무 수행자들은 최소한 2박 3일 이상 집체교육을 받도록 교육 일정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에도 구제제도에 대한 소개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한다.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서는 훈련소 지휘관으로 하여금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육군 신병훈련지침에서는 장성급 지휘관이 흡연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휘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제도들을 식별해서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5. 결론

각 군 훈련소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사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훈련병들의 인권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행복추구권 등 자유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받다가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1차 의료기관에 가면 군의관 등 군의료 인력들이 불친절하게 진료하는 경우가 있었고, 훈련소 운영요원이나 다른 훈련병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구제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인식도도 낮았다. 군 내부적으로 인권관련 업무수행자들에 대한 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인권교육의 효과성도 높지 않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있으나 훈련병들의 자발적인 이용도는 높지 않았고 부대계획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 등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전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TV 시청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군·공군·해병대도 훈련병들에게 영내매점 이용을 허용하되, 흡연문제는 혐연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 군 공통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 보급기준을 증가시키고, 해군 병사 피복류 지급기준을 개선해서 훈련복을 추가로 보급해야 한다.

생활관과 화장실 등 병영시설은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하고, 신병훈련소 급식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면 이용할 수 있는 구제기관/기구에 대한 소개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의료인력·상담관 등 인권관련 업무수행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한다. 마음의 편지는 훈련병들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제1장 서론

## 1. 조사 목적과 의의

### 가. 조사 목적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도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일반국민들과 동등하게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나, 신병훈련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양성하는 ‘군인화 과정’이라는 이유로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일부에서는 차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이유로, 혹은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일부 제한할 수도 있으나,<sup>7)</sup> 흡연 금지·영내 매점 이용 금지·TV 시청 금지 등은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훈련을 빙자하여 지휘관·교관·조교 등이 폭언·욕설·부당한 군기훈련<sup>8)</sup>(얼차려) 등을 가하는 것은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훈련병들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부대 이전이나 통·폐합이 예정된 부대는 20여 년 동안 병영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열악한 시설 환경하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점도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므로 대한민국 남성 대부분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병훈련소에 입소해야 한다. 신병교육은 훈련병들로 하여금

---

7)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군인의 기본권과 제한) ②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8)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의2(군기훈련)를 참조.

입대 전까지 가지고 있던 개성과 행동양식을 바꿔서 군대 조직이 원하는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춘 전투원으로 탈바꿈하도록 요구하는 일종의 조직사회화<sup>9)</sup> 과정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민주화·다원화·정보화 시대로 급격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일반사회 구성원들의 가치체계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군대 사회의 문화적 지체 상황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훈련병들은 입영과 동시에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단절된 가운데 생소한 군대 사회와 접하게 되면서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되며, 이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상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놓이게 된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보장 욕구가 증가하였고, 경제발전과 복지수준이 향상되면서 신병훈련소에서의 인격적인 대우와 민주적인 교육훈련 방식, 수준 높은 의식주 생활환경, 신뢰성 있는 의료지원체계 등에 대한 훈련병들의 기대 수준도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군에서 운영하는 신병훈련소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함으로 훈련병들이 입소 후 겪게 되는 심리적 충격은 매우 크게 다가오게 된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군대 사회에 원만하게 적응하는 것은 과거 세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병훈련소의 제반 생활환경이나 제도들을 일반사회 발전 수준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

훈련병들이 군대 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훌륭한 전투원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각 군에서 운영하는 신병훈련소 인권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신속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제기된 각종 사례, 예를 들면 훈련병에 대한 미흡한 의료조치, 교관 및 조교에 의한 부당한 군기훈련, 군매점 이용 제한,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제한, 흡연 및 물품 소지 제한, 인터넷 편지 전달 제한, 소원수리 조치 미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생활관·식당·화장실 등 훈련소

---

9) 조직사회화란 직무능력의 개발, 적합한 역할 행동의 학습, 소속집단과 그 집단규범에의 적응 그리고 조직가치의 내면화 등을 포함하는 총괄적인 과정을 말한다.

시설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확인하며,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실태를 분석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군 당국의 방역지침과 예방활동은 그 자체로 합목적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감염병 예방이라는 이유로 시행되는 과잉 격리조치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따져보고, 격리조치로 인한 훈련병들의 기본권 제한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법익형량 분석을 통하여 의료 및 방역체계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은 훈련병들이 각 군 신병훈련소에 입소하여 수료할 때까지 겪게 되는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인격권, 건강권, 안전권에 대한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인권침해 피해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제제도 운영실태와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 상담체계 운영실태 등을 분석해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 나. 조사 의의

훈련병들은 군대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직업군인들과 달리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때문에 입대한 일반국민들이다. 이들은 입대 직전까지 군대업무와 무관한 학업이나 사회활동을 하였으나, 단기간의 신병교육을 마친 다음에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이 없었던 분야에서 군대업무를 수행할 사람들이므로, 군대사회와 처음 접촉하는 훈련소에서는 일반사회와 유사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서서히 군인화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군인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강인한 체력과 전투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훈련병들의 경우에는 이제 막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단계에 있으므로, 갑작스럽게 모든 환경을 바꿔버리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증가시키고, 자칫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복무에 대한 자신감마저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군인화 과정에 의욕적으로 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신병훈련소의 제반 인권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신병훈련소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한 다음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이때 기초자료로 수집된 현황들은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균형 있게 수집되어야 하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군대 자체적으로 지휘계통을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하면 응답자들이 자신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까 봐, 혹은 우리 부대의 명예가 손상될까 봐 왜곡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은 각 군별로 다를 수 있고, 훈련소의 규모와 주둔지역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같은 훈련소라고 하더라도 훈련소장 등 당시 지휘관의 성향과 인권 감수성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특정부대를 대상으로 조사해서는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 대상에 각 군을 대표하는 대규모 신병훈련소는 전부 포함하고, 육군 예하 사단신병교육대중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대들을 다수 포함함으로써 수집된 기초자료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큰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군사기밀보호법과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아무나 군부대를 출입할 수도 없고, 현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것도 제한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sup>10)</sup>에 근거해서 국방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각 군 신병훈련소를 직접 방문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맞춰 전화 면접조사를 진행했으므로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특히 각 군 신병훈련소를 최근에 수료하고 자대에 전입한 전입 신병들로부터 자신들이 훈련소 입소기간중 체험했던 인권상황에 대한 증언을 수집함으로써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했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었다.

---

10)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2. 조사범위와 조사방법

### 가. 조사범위

이번 실태조사에서 조사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크게 6개 분야로 나뉘 ①훈련병 인권침해 사례·유형 및 발생원인 분석, ②훈련소 시설 및 생활환경 진단, ③훈련병 의료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운영실태 분석, ④각 군 훈련소의 훈련병 인권보호와 관련된 법규 현황 분석, ⑤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운영실태 분석, ⑥외국군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보호 관련 규정과 제도 분석 등으로 선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이번 실태조사는 각 군 신병훈련소 인권상황을 유형별(건강권, 안전권, 자유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로 실태 조사해서 문제점을 식별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된 각종 사례, 즉 미흡한 의료조치, 폭언·욕설, 부당한 군기훈련, 영내 매점 이용 제한, 전화 및 인터넷 사용 제한, 흡연 및 물품 소지 제한, 인터넷 편지 전달 제한, 소원수리 조치 미흡, 코로나19에 대한 과잉격리 등에 중점을 두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한 다음,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조사범위를 선정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범위에 훈련소 생활시설을 포함한 것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훈련소 생활환경은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장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sup>11)</sup> 훈련병들이 교육훈련 시간 중에는 최악의 전장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극한 상황도 체험해야 하지만, 일과시간 이후에는 쾌적한 환경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

11)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의 원인도 훈련소 화장실 배수관이 노후하여 용변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육군훈련소 사건을 계기로 신병훈련소 시설을 개선하였으나 1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훈련병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된다.

나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 향후 부대 이전이나 통·폐합이 예정된 신병훈련소들은 20여 년 가까이 시설개선이 안 이뤄지고 있으므로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 보장 측면에서 훈련소 생활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sup>12)</sup>

<표-1> 실태조사 연구범위

분 야	내 용
훈련병 인권침해 사례/유형 및 발생원인 분석	·인권침해 발생 유형 및 빈도 ·인권침해 발생 원인 및 가해자 유형 ·인권침해 피해 시 구제제도 운영현황 및 효과성 ·인권침해 피해 시 대응 형태
훈련소 시설 및 생활환경 진단	·노후 생활시설 보유 실태 ·급식 및 휴식 환경
훈련병 의료지원 및 상담지원체계 운영실태 분석	·의료접근권 보장 여부 ·의료지원체계에 대한 만족도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시스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접근성과 만족도
훈련병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규 현황 분석	·군인복무기본법 ·군 인권업무훈령, 부대관리훈령 ·국방시설관리규정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실태 분석	·훈련병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훈련소 운영요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인권교육의 실효성
외국군 사례 분석	·훈련병 인권보장 실태

12) 수도권 00사단 신병교육대의 경우 물탱크 저수용량이 부족하여 무더운 여름에도 훈련을 마치고 샤워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지휘관·교관·조교, 군 의료인력, 상담관 등)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 파악을 조사범위에 포함한 것은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들이 스스로 인권의식이 없으면 훈련소 운영요원과 다른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훈련소 입소기간 중 또는 수료 후 자대생활에서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훈련소장 등 지휘관들에게 인권의식이 없으면 소속대교관과 조교들에 의해 훈련병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묵인할 가능성이 있으며,<sup>13)</sup> 교관 및 조교들의 인권의식이 높지 않으면 교육훈련 현장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 그리고 훈련소 의료인력들의 인권의식이 높지 않으면 훈련병들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효과적으로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훈련병들과 직접 접촉하는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의한 훈련병 인권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훈련소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인권교육 운영실태 파악도 조사범위에 포함하였다.

## 나. 조사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부대방문과 심층면접조사가 제한되었으므로 문헌연구, 설문조사, 전화 면접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 1) 연구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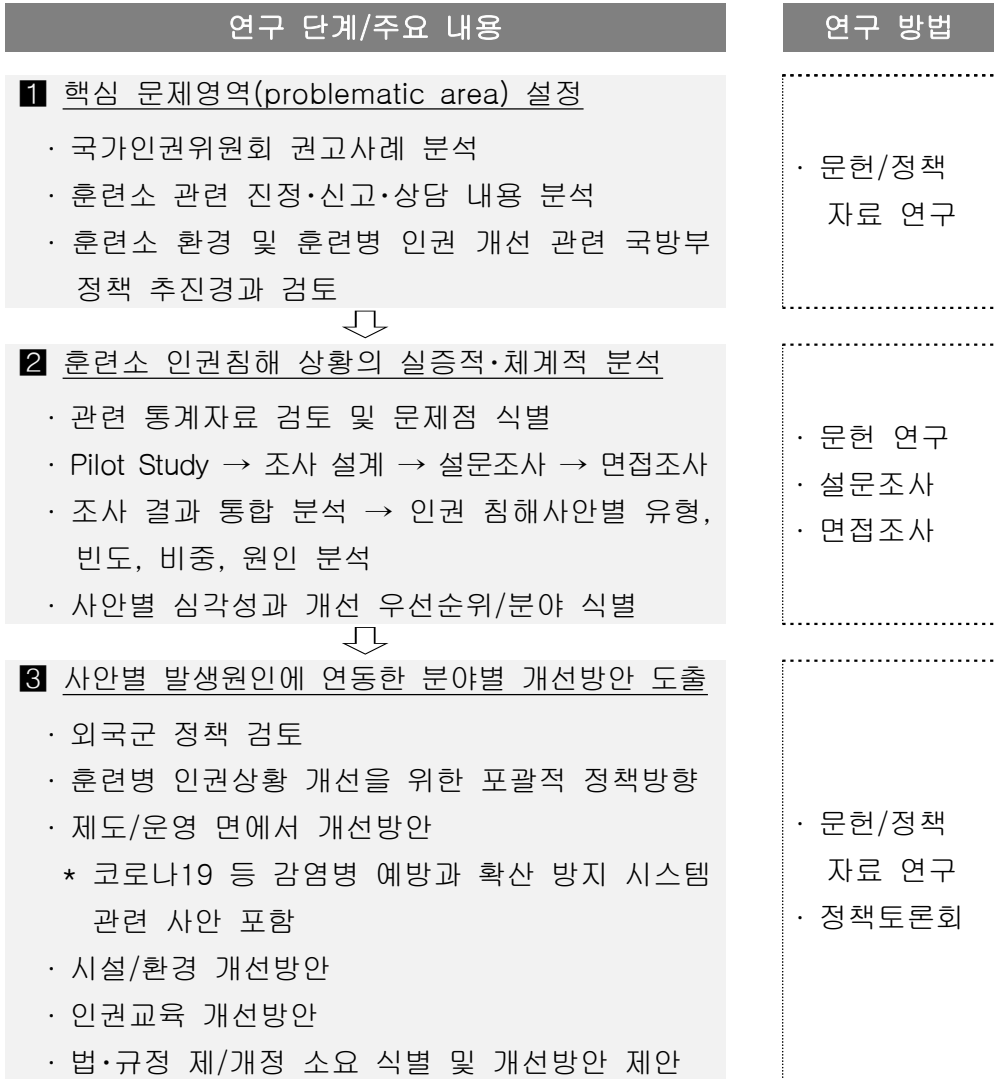
실효성 있는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계별 연구체계도를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3단계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먼저 1단계는 훈련소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출발점으로서,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 사항을

---

13) 국가인권위원회 『2018년 부서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부대에서 인권교육을 받았으나 인권상황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던 사람들의 44.2%는 그 원인이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표-2> 연구 체계도



및 군내 침해구제·상담 관련 기구/부서에 접수된 진정, 신고, 상담 내용, 국회 및 언론에서 다루어진 훈련소 인권침해 사례들을 수집해서 핵심 문제영역을 설정하였다. 이후 2단계에서는 핵심 문제영역에 기반한 조사 설계(설문조사/면접) 및 시행을 통해 침해 유형과 비중을 분석하였으며,

훈련소 운영 및 시설 등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점검해서 인적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문제점들을 추가적으로 식별하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침해 사안별 심각성과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3단계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단계로서, 인권침해 사안의 발생 원인에 연동하여 침해구제 및 상담제도 개선, 의료지원체계 개선, 훈련소 운영 관련 법·규정의 제·개정 소요, 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특히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인권의식 제고와 이를 통한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보완방안도 도출하였다.

이번 실태조사 시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훈련병에 대한 의료지원체계 개선 측면에서 다루었으며, 훈련소 시설과 생활환경에 대한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훈련병 만족도를 기초로 국방부가 추후 병영시설 개선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안을 제시하였고, 군인복무기본법과 군 인권업무훈령 등 군 인권과 관련된 법령과 각 군 규정에 대해서는 상호 충돌되는 부분이나 미비한 부분을 발췌함으로써 국방부와 국회가 추후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2) 문헌연구

훈련병 인권상황과 관련된 기존 연구자료와 인권침해 사례 수집은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그런데 의외로 최근 10년 이내에 훈련병들의 인권상황과 관련해서 학자들에 의해 심도 있게 진행했던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나 학술논문으로 발표된 논문자료들은 거의 없었다. 군대 인권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군 장병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연구주제도 군대 의료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인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장병들의 의료접근권 보장실태와 민간 전문병원 이용실

태, 의료전달체계 및 의료정보체계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인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전체 장병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했던 보고서이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인 「부서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부서관들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었으며,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보고서인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는 병사들의 의료권 보장실태에 대한 연구보고서이다.

<표-3> 군대 인권 관련 주요 연구자료

구분	제 목	연도	발행처
1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국가인권위원회
2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	국가인권위원회
5	군 인권실태 설문조사	2017	한국국방연구원
6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제1집)	2017	국가인권위원회
7	2018 부서관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8	국가인권위원회
8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 결정례집(제2집)	2019	국가인권위원회
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9	국가인권위원회
10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2020	국가인권위원회
11	2020 국방통계연보	2020	국방부

이처럼 훈련소 인권상황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들은 거의 없는 실태이며,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도 2017년과 2019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했던 「군인권 결정례집(제1·2집)」에 일부 수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했던 「군인권 결정례집(제1·2집)」과 훈련소 관련 진정 기록, 국회에서 지적된 사항, 언론에 보도되었던 사항 등을 주요 자료로 활용했는데, 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했던 사례들만 활용하였다.

아울러 군인복무기본법, 군 인권업무훈령, 부대관리훈령 등 훈련병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현행 법률·규정·제도 등을 분석하여 훈련병 인권상황과 관련된 문제점이나 상호 충돌 부분, 보완 소요 등을 도출하였다. 외국군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과 관련된 자료는 국방부 인권담당관실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획득해서 분석자료로 활용하였으며, 한국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군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과 관련해서는 평택에 있는 미8군 KTA(KATUSA Training Academy)를 통해 관련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활용했던 문헌자료들은 <표-4>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4> 문헌연구 자료

- 훈련소 인권침해 관련 진정/신고/상담 및 보도 자료
- 훈련소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보고서 중 인권침해 관련 기록
- 국가인권위원회의 군대인권 관련 연구용역보고서
- 한국국방연구원의 군대인권 관련 연구보고서 및 실태조사 자료
- 군인복무기본법, 군 인권업무 훈령, 부대관리 훈령, 군 환자관리 훈령, 군 감염병예방업무 훈령,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등
- 미8군 KTA 훈련병 인권 관련 규정 등

3) 설문조사

훈련소 인권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는 설문지 구성을 위한 Pilot Study - 설문지 구성/제작 - 설문조사 진행 - 설문결과 통계분석 순으로 진행하였다.

(1) Pilot Study

Pilot Study는 2021년 7월 16일 책임연구원 등 5명이 육군훈련소를 방문해서 사전 준비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병, 훈련소 운영요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제한된 범위지만 사전에 Pilot Study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설문지 문항을 구성할 수 있었으며, 방문기간 중 화장실·세면장·생활관·식당 등 훈련병들의 생활공간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함으로써 추후 훈련병 생활환경 개선 수요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표-5> Pilot Study 참여 인원

구분	계	훈련병	훈련소 운영요원				
			지휘관	교관/ 조교	인권업무 담당관	의료인력	상담관
인원	1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2) 설문지 구성

설문조사 질문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제한되는 것을 고려해서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함으로써 응답자들의 답변을 통해 설문조사 통계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Pilot Study와 문헌연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조사 항목은 <표-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6> 설문조사 항목 구성

차 원	세 부 항 목
차원 1 개인(공통)	- 소속 - 보직 - 직책 - 신분
차원 2 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훈련병, 지휘관)	- 생활관, 식당, 화장실 - 목욕 및 샤워 시설 - 급식 - 일용품 양과 질 - 휴식 및 취침시간 - 영내 매점 - 흡연 - 신상정보, 편지 공개 - 개인 화장품/세면용품 - 공중전화 사용 - 외부연락/소통 방법 - TV 시청 여건 - 인터넷 사용 - 핸드폰 사용 - 종교 활동 - 두발 손질



차 원	세 부 항 목	
차원 3 인권침해 실태 (훈련병, 지휘관)	- 발생 빈도 - 인권 침해자 - 침해 신고	- 침해 대응 여부 - 침해 구제기관/기구 인지 - 마음의 편지
차원 4 군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공통)	- 인권교육 실시 횟수 - 인권교육 진행자 - 인권교육 진행 형태 - 인권교육 도움 정도	- 인권교육 여건 - 인권 제한에 대한 인식 - 언론보도에 대한 반응 - 인권보장과 훈련 영향도

### (3) 설문조사 대상부대 및 참여 인원

이번 실태조사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 4단계 조치상황으로 인해 연구원들이 직접 대상인원들을 모아놓고 설문지를 작성토록 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각 군 신병훈련소 정문에서 부대 관계자들에게 설문지를 인계한 뒤 부대 관계자들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연구원들이 부대 정문에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sup>14)</sup>

설문조사는 2021년 8월11일부터 8월27일까지 9개 부대 1,8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부대와 신분별 인원수는 <표-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7> 설문조사 참여부대 및 신분별 인원수

#### · 설문조사 참여부대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부대수	9개 부대	6개 부대	1개 부대	1개 부대	1개 부대
비고		육군훈련소, 사단신병교육대 (1, 12, 28, 53, 55)	기초군사 교육단	기본군사 훈련단	교육훈련단

14) 해병대는 부대장 승인하에 연구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 신분별 참여 인원수 : 총 1,818명

신분별	계	훈련병	훈련소 운영요원			
			지휘관/ 교관/조교	감찰/ 군사경찰	의료인력	상담관
계획	1,905명	1,350명	450명	47명	38명	20명
실시	1,818명	1,348명	388명	30명	35명	17명
비고	95.4%	99.9%	86.2%	63.8%	92.1%	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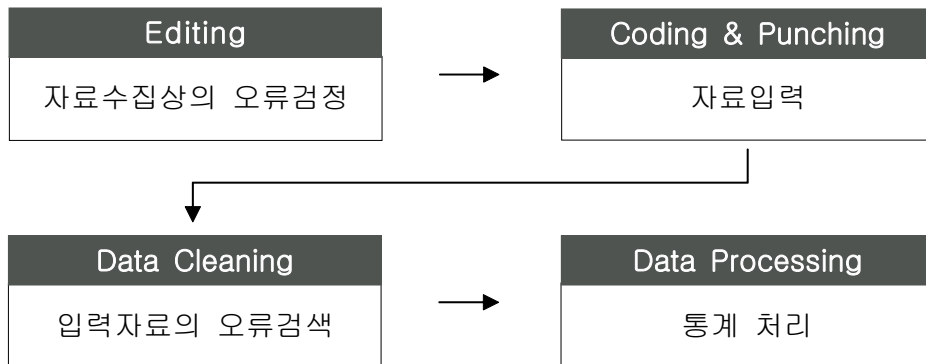
설문조사 대상부대 선정은 총 26개소의 신병훈련소<sup>15)</sup> 중에서 각 군의 특성과 규모, 주둔지역,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서 9개 부대를 선정하였다. 육군은 육군훈련소뿐만 아니라 사단신병교육대(사단신교대) 중에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전방지역과 후방지역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며, 특히 향후 신병교육대가 폐지될 예정인 00사단 신병교육대를 포함시킴으로써 통폐합 계획으로 인해 장기간 시설보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신병훈련소 생활환경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해군·공군·해병대는 연간 입소하는 훈련병들의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각각 1개씩 신병훈련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3개 부대를 모두 포함하였다.

#### (4) 설문조사 결과분석

이번 설문조사는 2021년 8월 현재 각 군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있는 훈련병, 지휘관/교관/조교, 감찰/군사경찰, 군 의료인력, 상담관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방법인 층화추출방법을 사용해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 기입법’을 적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표-8>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절차에 따라 SPSS ver 21.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소속·보직·계급으로 구분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15) 한국군의 신병훈련소는 육군 23개소(육군훈련소, 각 사단 신병교육대 22개소), 공군·해군·해병대 각 1개소 등 총 26개소이다.

<표-8> 통계 처리 과정



#### 4) 서면조사

설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을 개인의 진술을 통해 파악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설문지에 담지 못한 내용을 파악하고, 설문지에 나타나는 응답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층면접조사를 계획하였으나, 지난해부터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전 군이 방역 4단계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훈련병 및 훈련소 운영요원들과 대면접촉을 하는 것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심층면접조사를 대체해서 설문지에 개방형 질문을 추가함으로써 응답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6)</sup>

#### 5) 전화 면접조사

신병훈련소 지휘관, 훈련소 의료인력, 신병훈련소를 갓 수료하고 자대로 배치된 전입신병들은 핸드폰을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법을 적용해서 훈련병 인권상황과 해당 훈련소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였다. 전화 면접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표-9>에서 보는 바와 같다.

16) 육군훈련소장(소장 000)과 해병대교육훈련단장(준장 000)은 책임연구원과 직접 대면하여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9> 전화 면접조사 참여 인원

구분	계	전입 신병	KATUSA	KTA 교관	학사 장교 후보생	신병훈련소		간부 양성기관		
						대대장	군의원	육사	중앙군사학교	부사관 학교
인원	28명	9명	2명	2명	2명	4명	6명	1명	1명	1명

· 전화 면접조사 시 질문내용 : 설문조사지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질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10> 전화 면접조사 시 질문 문항

· 신병교육대장

1. 훈련병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2. 훈련병이 TV를 시청할 수 있는가요?(평일 일과 후/공휴일로 구분)
3. 훈련병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4. 훈련병이 영내매점을 사용할 수 있는가요?
5. 훈련병 두발 손질은 누가 하는가요?
6. 훈련병을 대상으로 소원수리(또는 마음의 편지)를 언제, 몇 번 정도 받는가요? 받는다면 조치결과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려주는가요?
7. 생활관에 온수 공급과 에어컨 사용 시 제한되는 것이 있는가요?
8. 생활관은 침대형인가요?, 1인당 생활공간은 충분한가요?
8. 훈련병에게 인권교육은 언제 몇 시간 정도 실시하며, 교관은 민간인 감사인가요?, 군인인가요?
9. 훈련병 인권관련 민원 때문에 조교나 교관의 신상에 피해를 준 경험이 있는가요?
10. 훈련병 인권관련 민원 때문에 정해진 교육훈련을 축소하거나 생략했던 경험이 있는가요?
11.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전입신병

1. 훈련소 입소 후 훈련병으로써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2. 훈련소에서는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 2-1. 훈련소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시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2. 훈련소에서 인터넷 사용을 금지시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 교관/조교 등으로 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경험이 있나요?
  - 3-1. 있었다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이유로?
  - 3-2.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유는?
4.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차려를 받은 적이 있나요?
  - 4-1. 간부(교관, 장교, 부사관)가 교육훈련 중 일차려를 시킨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유는? 어떤 유형을 얼마나 오랫동안 시켰나요?
5.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 영내매점(PX)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 5-1. 있었다면, 카드나 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나요?
  - 5-2. PX에 물건은 충분하였나요?
6. 훈련병이 흡연을 할 수 있었나요?
  - 6-1 있었다면,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나요?
  - 6-2 훈련병들에게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 훈련병이 클렌징 크림 등 화장품이나 샴푸 등을 사용할 수 있었나요?
  - 7-1, 칫솔, 치약, 비누 등 개인 지급 보급품 중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8. 훈련소 입소 시 휴대했던 개인 물품이나 현금은 어떻게 보관했었나요?
  - 8-1 카드나 통장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는가요?
9. 지인들이 보내준 인터넷 편지를 출력해서 전달받았던 적이 있나요?  
언제 전달해주나요?
10. 소원수리나 마음의 편지를 제출해 본 적이 있나요?
  - 10-1. 있었다면 언제쯤, 누가 접수했으며, 소원수리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나요?
  - 10-2 소원수리와 마음의 편지 조치 결과에 대해 만족하였나요?
11. 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격리되어 생활했던 적이 있었나요?
  - 11-1 있었다면, 어디서 며칠동안 격리되어 생활했었나요? 격리기간 중  
통제는 누가 했으며, 수면을 취하거나 식사하는 데 불편함은 없었나요?
  - 11-2 격리기간 중 급식, 세면, 샤워, 화장실 사용실태는 어땠나요?

12. 훈련소 입소 후 몸이 아픈 적이 있었나요? 몸이 아팠을 때 누구에게 말했으며, 진료는 어디까지(대대의무실, 지구병원, 통합병원) 받았나요?
- 12-1. 있었다면,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조교나 훈육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 12-2 있었다면, 진료를 요청했던 질병이나 부상은 어떤 종류였나요?
13. 몸이 아플 때 자유롭게 진료를 받을 수 있었나요?
- 13-1. 있었다면, 진료 요청 후 진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 13-2. 만약 훈련 중 질병이나 부상이 있음에도 진료를 꺼리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4.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확산될 때 훈련소 내에서 조치하는 대응책은 무엇이 있었나요?
15. 훈련소 생활기간 중 화장실, 식당, 생활관 시설에는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 15-1. 있다면, 어떤 점이 불편했었나요?
- 15-2. 화장실 대소변기 개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 15-3. 세면장에 물은 잘 나오나요. 온수는 충분히 공급되었나요?
- 15-4. 샤워장에 물은 잘 나오나요. 온수는 충분히 공급되었나요?
- 15-5. 식당은 냉난방이 잘 되었나요?
- 15-6. 생활관은 냉난방이 잘 되었나요?
- 15-7. 생활관 침구류는 제대로 세탁되었나요?
16. 훈련소 입소 직후 두발 손질을 했나요? 앞머리는 어느 정도 짧게 깎았나요?
- 16-1. 훈련병 이발은 누가 해줬나요?
17. 훈련소 입소 후 훈련기간 중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17-1. 있다면,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동안 받았으며, 어떤 방법으로 했나요?
- 17-2. 강사진은 민간인이었나요? 군인이었나요?  
군인이라면 법무장교? 자대 인권교관? 군사경찰?
- 17-3.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은 도움이 되었나요?
18. 훈련소 교육훈련과 생활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었나요?
19. 훈련소 생활 중 애로사항이 있어서 병영생활 상담관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20. 군대 생활을 하다가 인권을 침해당하면 구제받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 20-1. 훈련소에서 침해피해시 구제제도에 대해 소개받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누가 소개해줬나요?
21. 고충 또는 인권침해 상황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 21-1. 힘들거나 불편한 점, 그리고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껴지는 상황이 사람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요?
- 21-2. 아니면, 훈련소 운영체계나 시설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하는지요?
22. 공휴일에 종교행사에 참석했었나요?
- 22-1 종교행사에 참석하게 된 것은 개인의 의지였나요? 강요에 의해 참석했나요?
23. 급식환경은 만족스러웠나요?
- 23-1. 밥, 국, 기본반찬, 메인반찬으로 나눠볼 때 급식량은 충분하였나요? 부족했다면 어떤 것이 부족했나요.
- 식사시간 중간에 맛있는 반찬이 부족해지면 부대에서는 어떻게 조치했나요?
- 23-2. 식사시간은 얼마정도 주나요? 식사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시간에 쫓겨 밥을 못먹은 경험이 있나요?
- 23-3. 훈련소 급식 메뉴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과 비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23-4. 훈련소에서 먹는 급식과 집에서 먹는 식사, 입대전 학교에서 먹었던 급식중에서 선호도를 고른다면 1, 2, 3순위는 무엇일까요?
- 23-5. 매달 메뉴표를 게시해 두나요? 메뉴표와 배식되는 음식이 일치하나요?
24. 하루 취침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자다가 보초서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 잠을 깨운 적이 있었나요?
25. 훈련소 생활중 개인 물품이나 보급품을 분실한 경험이 있나요?.
- 25-1. 있다면, 어떤 것을 분실했고, 그 사실을 훈육관에게 말했나요? .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26. 일과를 마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나요?
- 28-1.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나요?
27. 훈련병이 TV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 \* SNS상의 식판사건에 대한 개인의 의견/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 의료인력

1. 의무대 의료인력 편성 현황은 어떤가요?
2. 군의관의 전공과목과 진료가능한 과목은 무엇인가요?
3. 1일 평균 진료 인원과 주된 방문(진료) 사유는 무엇인가요?
4. 2차 진료기관은 어디이며, 이동하는데 얼마나 소요되나요?

## 제2장 선행 연구자료 분석

### 1. 주요 인권침해 사례 분석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각 군 훈련소에서 발생했던 훈련병 인권침해 사례는 문헌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수집하였다. 사례 수집 및 분석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행했던 『군 인권 결정례집 1,2』 과 각종 언론보도 자료를 활용하였는데, 최근 5년 이내에 발생했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함으로써 현재 각 군 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수집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안전권 침해

##### 육군훈련소 위험한 국궁 연습

2017.9.28.(군인권결정례집) 육군훈련소 연대장이 연병장 내에 국궁 과녁과 사대를 설치하고, 훈련병들이 통행하는 도로를 가로지르는 국궁연습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안전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훈련병들의 안전권을 침해.

#### 행복추구권 침해

##### 배끓고 병 걸리는 육군훈련소 - 시설 및 훈련병 생활여건 열악

2018.3.17.(세계일보 보도) 식당에 늦게 온 훈련병에 대한 찬밥 배식, 한겨울 냉수 샤워, 기침소리 가득한 침상형 생활관, 수박 겉핥기식 소원수리 등 육군훈련소 운영 전반의 문제점을 보도. 후속 보도에서는 배식 불평등, 질병 예방관리 체계상의 미흡함 등이 다루어지면서 육군훈련소의 시설 및 생활여건, 의료체계 등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을 지적.

#### 인격권 침해

##### 훈련병 성추행 의혹

2021.5.11.(세계일보 보도) 육군훈련소에 입소했던 훈련병이 같은 생활관내 동기 훈련병이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여친 인적사항, 친구 직업 써 내라는 신병훈련소**

2016.10.13.(중앙일보 보도) 육군훈련소에서 작성하는 병영생활지도 기록부에 가족의 학력과 종교, 직장 직위, 월수입, 주거 형태, 게임 아이디, 여자친구의 직업과 나이, 연락처 등 개인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작성하도록 요구받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받고 있다.

행복추구권 침해

**코로나19 격리기간 중 과도한 인권침해**

2021.4.26.(청와대 국민청원)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잠 잘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며, 3일 동안 양치를 못하고 샤워는 14일 동안 하지 못하며, 21일 동안 PX와 전화를 사용하지 못한다.

통신의 자유 침해

**훈련병 핸드폰 사용 통제는 인권침해**

2020.10.19.(군인권센터) 국방부가 훈련병의 핸드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와 정보접근권을 침해하는 방침이므로 시정 권고를 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

행복추구권 침해

**훈련병 식발 강요는 인권침해**

2020.1.13.(YTN뉴스) 아들을 공군에 입대시킨 부모가 훈련소에 입대한 신병에게 식발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 침해

**훈련병에 ‘이성친구 낙태경험’ 묻은 육군훈련소**

2021.5.12.(SBS보도)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을 상대로 작성케한 관찰·면담 체크리스트 32개 문항중에 ‘이성친구의 낙태 경험’, ‘가족중 전과자’ 여부를 묻는 질문이 포함되어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침해했다는 논란

앞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신병훈련소 내에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 행위는 주로 행복추구권 등 자유권 영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군대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침해하는 원인은 ‘훈련소는 민간인을 군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군인화 과정을 담당하는 특수한 곳’ 이라는 인식이 훈련소 운영요원과 국방부 등 상급부대 지휘관들에게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련병도 군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들에게 부여된 기본적 권리는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는 한 함부로 침해당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계 12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11> 훈련병 인권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접수 현황(2002.1. 이후)

구분	총계	의료조치 미흡	폭행 및 가혹행위	부당한 제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 및 종교	기타
건수(건)	120	42	41	9	8	4	16
비율(%)	100	35	34.2	7.5	6.6	3.3	13.3

## 2. 현행 법령/제도 분석

군인들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군인사법」, 「군형법」 등에 따라 헌법에서 명시하는 기본권을 일반 국민보다 좀 더 많이 제한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각급 제대 지휘관들에게 부여되는 지휘책임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므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지휘관들의 지휘감독 활동에 따라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훈련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군대 인권과 관련된 현행 법령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군대 인권 관련 주요 법령과 내용은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2> 군대 인권 관련 주요 법령 및 행정규칙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11조(평등대우의 원칙)** 군인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신의 비밀 보장)** 군인은 서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 한다.

**제17조(의료권의 보장)** 군인은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6조(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 ① 소속 부대(기관)의 장은 진료가 필요한 장병이 지체없이 군보건의료기관 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9조(위탁진료 대상)**

② 위탁치료는 ... 훈련병...에게 적용한다.

**제56조(전역절차 및 장애보상)** ① 장정 중 공무와 연관되지 않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여 진료 중 사망한 자는 참모총장(의무실장)에게 통보하여 계급(이병)과 군번을 부여받아 현역병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② 공무와 연관된 질병·부상으로 입원 진료 중인 장정의 심신장애 전역절차와 장애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현역병에 준한다.

□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금연운동)** ③ 각급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명시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연 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5. 군 교육시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의 경우 시설 전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건물·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해당된다.

⑤ 제3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아니 된다.

□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수사업무 종사자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 군사법경찰리가 군 수사절차상 준수하여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사건관계인인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 고소인,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계급, 직위,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수사업무 종사자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체포·구속의 최소화)**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변호인의 접견·교통 보장)** ①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 □ 군 인권업무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군 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병 및 군무원의 인권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군 인권교육의 목표)**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하는데 있다.

**제18조(교육대상)** ① 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 1. 훈련병 인권교육

**제19조(교육시기 및 시간)** ① 병 인권교육은 복무단계와 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훈련병 인권교육(교육기관) : 각 군 훈련병 교육기간(육군 신교대 포함)중 1시간 이상

**제20조(군 교육기관의 인권교육)** ① 병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15조부터 제19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교관의 정의 및 임명)** ① 인권교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권교관으로 임명되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2조의 연수과정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군 법무관 중 인권관련 업무 유경험자

3. 그 밖에 임명권자가 인권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28조(교육운영)** ② 인권관련 업무종사자의 인권교육은 법무관리관이 연수과정으로 운영하되, 각 군 법무실장 및 군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인권상담관 임명등)** ① 국방부, 국방부 직할부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사단급, 전단급, 비행단급 이상 부대는 인권상담관을 운영하되,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단급, 전대급 부대에 인권상담관을 운영할 수 있다.

□ 군 감염병 예방업무 훈령

**제12조(감염병 예방조치의 시행)** ③ 각급 기관 등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이 유행하면 그 전파를 막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 내 감염병 또는 식중독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시키는 것

④ 각급 기관 등의 장은 감염병 또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부대 등의 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
2. 집회, 모임, 그 밖의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 있는 음식물의 보급,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폐기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13.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군병원 등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시키는 것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의무부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감염병환자들을 격리·수용하는 등 적절한 관리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의무부대 등의 장은 의무부대 등의 격리수용 능력이 초과할 때에는 각급기관 등의 장에게 의료시설 이외 목적으로 설립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리수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중사의 일시적 제한)** 각급 부대의 장은 제1군감염병환자 및 제3군감염병환자 중 결핵·한센병환자 등이 진단된 때에는 이들 감염병 환자가 발병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신병교육대, 보충대 또는 훈련소 등에서 실시되는 교육훈련 업무

## □ 군사경찰 범죄수사 규칙

**제3조(인권 보호)** ①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속·공정·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반말·폭언·강압적인 말투·비하하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32조(내사의 기본)** ① 내사는 청탁에 의하지 않아야 하며 항상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세부 업무)** 상담관의 세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갈등관리 및 지휘조언

4. 군내 사용하는 인성검사 분석 및 후속조치 조언

**제21조(업무수행 및 관리운영)** ④ 상담관은 부적응 장병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상담관은 신병교육부대 지휘관으로부터 부적응이 예측되는 병의 인성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인성검사 결과를 분석 및 평가하고 대상 병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신병교육기관의 지휘관 및 장병 배치부대의 상담관에게 통보

3. 상담관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다. 다만, 위기 상담 소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

**제22조(상담내용의 비밀보장)** 상담관은 상담내용의 비밀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 중 자해, 자살의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 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 침해 사례를 인지 시에는 대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부대관리 훈령

### 제17조(병영생활 행동강령)

3. 구타·가혹행위, 인격모독(폭언, 모욕을 포함한다) 및 집단따돌림, 성 관련 위반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

### 제17조의 2(사적지시 및 운용 금지)

① 군인·군무원 등은 사적인 목적을 위해 장병 등을 운용하거나, 지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제18조(위반자에 대한 처리지침)** ② 구타·가혹행위자 및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자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징계처벌을 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와 경미한 구타·가혹행위, 사적지시 및 운용금지 위반 행위도 처벌한다.

③ 집단따돌림(일명 ‘왕따행위’를 말한다) 등 인격적 모독과 고통을 가한 경우 주모자와 적극가담자는 처벌한다.

④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지휘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⑤ 지휘관은 위반사실 신고자에 대하여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가해자와의 공간적인 분리, 조력인 또는 대리인의 지정 등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제24조(용모 및 두발)** ①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제36조(음주 및 흡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하며, 담배는 시설물내(금연통제구역)에서 피울 수 없으며 시설물 외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한다.

**제44조(자율활동시간)**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 표에 명시된 자율활동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3조(물품반입 및 소지의 제한)** ① 외출·외박 및 휴가 등 부대로 복귀하는 때에는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특히 폭발물, 흉기, 주류, 핸드폰·MP3·PDA 등 개인 휴대 통신장비, 부적합한 도서·유인물·음반·디스크·테이프 등을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② 영내에서 소지할 수 있는 개인물품은 군에서 지급된 보급품에 한한다. 다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군대 내 성범죄 관련 법령

- 군형법 제92조

범죄행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추행	미수범
형량	5년 이상 유기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2년 이하 징역	처벌

- 부대관리훈령 제251조(성폭력 처리기준) ①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고는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성희롱, 그 밖에 성폭력은 징계 또는 현역복무부적합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의5 제1항 관련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징계사유		처 리 기 준		
		가 중	기 본	감 경
강간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강제추행·추행		파면~해임	강등	정직~감봉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성매매		파면~강등	정직	감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기타 품위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성폭력 등 사건 목인·방조행위	지휘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기타 간부	해임~강등	정직	감봉~근신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군인복무기본법으로부터 군 인권업무훈령에 이르기까지 국방부가 군대 인권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법령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거나, 규정하고 있는 기준이 다소 느슨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피해를 예방하는 데 부족한 면이 있으므로 개정 또는 보완해야 할 여지가 있다.

### 3. 훈련병 인권 관련 외국군 사례 분석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에게 입소기간 동안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고 흡연마저 통제함에 따라, 사회일각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외국군 신병훈련소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방부 인권담당관실과 합동참모본부를 통해 외국군 사례를 수집해서 비교해 보았다. 비교 대상 국가는 이스라엘, 미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독일 등 7개국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안보상황이거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국가 중에서 선정하였다. 실태조사를 위해 각 국 주재 국방무관들에게 의뢰했던 질의내용과 회신결과는 <표-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13> 외국군 신병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

#### □ 질의 내용

1. 입소 후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격리하는 기간과 격리장소
2.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개인소유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4.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공휴일에는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5.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훈련소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6.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공휴일에는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
7.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평일 일과시간이후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
8. 신병 훈련기간중에도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는 개인적으로 자유 시간을 보장받는지 여부

□ 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격리하는 기간과 격리장소

국가	내 용
이스라엘	확인 불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대 2주전부터 체온측정 및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대한 개인용 건강관찰시트를 작성, 입대 후 제출</li> <li>- 개인용 건강관찰시트 작성 이외에도 가족 등 평소 교류가 있는 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입대 전에 지역협력본부 담당자와 상담실시 후 입대 결정</li> <li>- 입대 예정인원이 코로나19에 감염 되었을 경우 완치 후 입대할 수 있도록 일정 조정</li> </ul>
러시아	2주간 군관구별 훈련소 별도 생활관에서 격리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소시 입소 시간 기준 72시간 이전에 실시한 PCR 테스트 음성 결과지를 지참하여야 함.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나 감염 증상을 보일 경우도 입소 불가함.</li> <li>- 입소 시간까지 부득이하게 PCR 테스트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 입소는 허용되나 테스트 결과 수령까지 내부 독방에 격리됨. 결과가 음성일 경우 훈련에 합류 가능하며 양성이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퇴소 조치됨</li> <li>- 코로나 감염 및 유증상으로 입소가 불허된 훈련생들은 다음 기수들과 함께 입소 가능함</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병은 훈련시설 입소시 일상적으로 격리하지 않음. 대신, 입소 48-72시간 전에 코로나 감염여부를 식별하기 위해 온라인 코비드 설문지를 작성함. 훈련병은 훈련시설(막사)에만 있지 않고 휴가나 허용되는 일부 주말에는 귀가 가능. 무증상감염자를 확인하기 위해 훈련소에서 주 2회 신속검사장치(LFD)를 통한 검사 시행.</li> <li>- 신병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시에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교육개시일을 10일 연기하여 참석할 수 있음. 훈련 중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으면, 별도의 숙소에서 10일간 격리해야 함.</li> <li>- 최근 해외에 다녀왔다면, 해당 국가의 요건에 따라 격리해야 하며, 격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훈련에 참석할 수 없음.</li> </ul>

국가	내 용
독일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입소 시 접종증명서 제시, 미접종자의 경우 입소 시 코로나테스트 후 음성이면 입소 / 양성이면 재 검사 실시하여 최종 음성 판정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 실시.
미국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음성으로 판정되면 별도의 격리조치 없음
한국	입대후 2주간 별도의 공간에서 격리조치 실시, 최종적으로 음성판정되면 정상적인 신병교육 진행

□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개인소유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내 용
이스라엘	사용 가능
일본	평일은 교육훈련 이외 시간,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 가능
러시아	신병 입소시 핸드폰은 일체 반입 불가, 일반 버튼식 핸드폰 (통화만 가능한)은 휴대해서 입소 가능, 입소시 부대에 제출하고 휴일에 지휘관 승인하 사용 가능
프랑스	훈련병들은 핸드폰 소유가 가능하나 교육훈련 중에는 사용 불가하며, 식사시간 및 일과시간 이후 개인 자유시간 중에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
영국	훈련에 전개되는 경우가 아니면 일과시간 이후 사용 가능
독일	사용 가능
미국	사용 불가
한국	사용 불가(입소시 휴대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

□ 평일 일과시간 이후/공휴일에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내 용
이스라엘	사용 가능
일본	- 훈련병을 위한 별도의 인터넷 P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핸드폰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 가능
러시아	사용 불가
프랑스	일과이후 개인 자유시간에는 핸드폰 사용 가능
영국	일과시간 이후 사용 가능
독일	사용 가능
미국	사용 불가
한국	사용 불가

□ 훈련병이 신병 훈련기간중 훈련소 내에서 흡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국가	내 용
이스라엘	흡연구역 내 가능
일본	지정된 장소에서 가능
러시아	일과시간 외 정해진 장소에서 흡연 가능
프랑스	확인 불가
영국	2022년 1월부터, 영국 육군은 Tabacco Free Working Environment(TFWE; 담배 없는 근무환경)제도를 채택하여, 모든 국방부 건물에서 흡연금지할 계획임. 단, 각 부대의 역할, 인프라시설, 요구사항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 훈련장소에 따라 TFWE 정책의 예외 달라짐.
독일	흡연 가능
미국	흡연 불가
한국	흡연 불가

□ 평일 일과이후/공휴일에는 TV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	내 용
이스라엘	시청 가능
일본	일과 이후, 주말, 공휴일에 대원막사에서 시청 가능
러시아	평일에는 불가. 공휴일에는 시청이 일부 가능하나 채널 선택을 지휘관이 해서 애국심과 교양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위주로 시청시킴
프랑스	확인 불가
영국	근무 중이지 않으면 가능
독일	시청가능
미국	시청 불가능
한국	신병훈련소별로 다름

□ 일과시간 이후와 공휴일에는 개인적으로 자유시간을 보장받는지 여부

국가	내 용
이스라엘	보장 됨
일본	-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면회 가능 - 주말 및 공휴일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 내 외출 가능
러시아	- 평일 점심 및 저녁식사 이후 일일 3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짐. - 휴일에는 일일 4-5시간이 자유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자율적 체육활동 시간으로 할애
프랑스	- 저녁식사 종료 후부터 취침시간 전까지 개인 자유시간이 보장. - 12주 훈련기간 중 3회 휴가(각 72시간, 금~일)가 주어짐.
영국	대부분 보장받음.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정상 근무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훈련, 저녁브리핑, Ranges 등)에 따라 다름.
독일	보장 됨
미국	- 평일에는 17시 일과종료 이후 20시까지 개인시간이 보장됨 - 주말과 공휴일에는 통제받는 것이 없음
한국	보장 됨

## 제3장 훈련병 인권상황 실태 분석

### 1. 설문조사(폐쇄형 질문)을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 각 군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은 신병훈련소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훈련소 급식상태 불만족, 화장실 등 생활시설 노후, 두루마리 화장지 등 일용품 부족,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 보장 미흡, 외부와의 소통수단 제한, 흡연 통제, 영내매점 사용 제한, 군의료인력에 대한 불만족 등 여러 분야에서 개선소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가. 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생활관을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하면서 1인 생활공간이 매우 좁아졌으며, 인원수 대비 화장실 숫자가 부족하고, 급식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음식 맛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및 부대별로 영내매점(PX) 사용 기준과 TV 시청 기준이 다르며, 공중전화 사용 시간 및 횟수 등도 부대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은 부대별로 허용 여부가 달랐으며, 핸드폰 사용 금지와 인터넷 사용 금지는 전 군 훈련소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 1) 훈련소의 생활시설

각 군 신병훈련소 생활관 형태는 <표-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침상형이 다수인 실태이다. 다만 육군훈련소(98.0%)와 해군(98.7%)은 대부분 침대형으로 개선되었으나, 육군의 사단신병교육대(20.4%)와 공군(0%) 및 해병대(1.0%)는 침대형으로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침상형 생활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방부 병영문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침대형 생활관으로의 개선사업은 보다 신속하게 진행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훈련병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에서 1인당 생활면적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 수준(49.6%)인 것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면서 생활관 건물을 새로 증축하지 않고 기존 건물에 2층 침대를 설치함으로써 천장의 높이가 낮아지는 효과를 초래하였으며, 침대 크기로 인해 내부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14> 생활관 형태와 생활관에 대한 인식 (단위:%)

□ 생활관 형태

구분	침대형	침상형
비율	41.2	58.8

□ 생활관에 대한 인식

구분	양호	보통	불편
시설상태	46.0	42.7	11.2
1인당 생활면적	24.6	49.6	25.8
냉난방 상태	67.0	27.6	5.5

훈련소의 목욕 및 샤워 시설, 온수 공급, 양치/세면 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양호하다는 응답이었지만, 사용 인원 에 따른 공간면적에 대해서는 <표-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도가 보통 수준(51.2%)이므로 생활관 개선 사업 시 샤워 및 목욕시설 공간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 목욕/샤워 시설에 대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23.5%에 이르고 있으며, 육군훈련소는 온수 공급에 있어 24.2%가 불편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특히 유념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15> 훈련소 목욕/샤워시설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양호	보통	불편
목욕/샤워 시설 상태	<b>45.7</b>	41.6	12.6
온수 공급	<b>67.2</b>	23.5	9.3
사용인원 대비 공간면적	20.7	<b>51.2</b>	28.0
양치/세면 여건	<b>45.8</b>	41.5	12.7

훈련소 식당에 대해서는 <표-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부분과 식사 시간 보장 부분에서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지만, 사용 인원 대비 공간면적에 대해서는 사단신병교육대(18.6%)와 공군(16.1%)에서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16> 훈련소 식당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양호	보통	불편
식당 시설 상태	<b>61.1</b>	32.5	6.5
사용인원 대비 공간면적	39.6	<b>48.0</b>	12.4
식사 시간	<b>58.5</b>	35.6	5.9

훈련소 화장실은 <표-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보통 수준(42.6%)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사용 인원 대비 화장실 수는 26.1%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용 시간에 있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해군은 27.7%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신병훈련소의 특성상 화장실은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화장실 수를 늘려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장실 대변기 수는 훈련병들이 편안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시간과도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표-17> 훈련소 화장실 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양호	보통	불편
화장실 시설 상태	39.6	<b>42.6</b>	17.8
사용인원 대비 화장실 수	33.7	<b>40.3</b>	26.1
이용시간	<b>49.0</b>	36.3	14.7

훈련소 생활시설 상태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표-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활관과 식당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나, 화장실은 47%가 긍정, 32.1%가 보통, 20.9%가 불편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군·공군·해병대의 경우 신병훈련 기간 중에는 영내매점을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육군 훈련병들과 차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해군·공군·해병대도 육군과 동일하게 훈련병들이 영내매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육군의 경우에도 영내매점 사용시기와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이 부대별로 상이하므로 국방부가 전 군 신병훈련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내매점 사용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8> 훈련소 시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단위:%)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①+②	③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④+⑤
생활관	23.3	42.3	<b>65.6</b>	24.7	7.9	1.8	9.7
목욕/샤워 세면장	20.6	34.7	<b>55.3</b>	29.3	11.5	3.9	15.4
화장실	18.9	28.1	<b>47</b>	32.1	15.3	5.6	20.9
식당	28.7	37.3	<b>66</b>	25.0	6.3	2.6	8.9
영내매점	29.5	25.7	<b>55.2</b>	33.0	4.6	7.3	11.9

2) 훈련소에서 제공되는 급식 및 보급품

훈련소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표-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맛, 위생,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으나, 급식량에 있어서는 해병대의 36.5%, 공군의 23.5%, 사단신병교육대의 25.1%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하였다. 메뉴는 육군훈련소에서 23.4%가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으며, 각 군 공통적으로 자율배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응답도 32.2%로 나타났다. 훈련소 급식부분에 있어서는 급식량을 늘려서 자율배식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9> 훈련소 급식 만족도

(단위:%)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①+②	③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④+⑤
맛	20.0	43.8	<b>63.8</b>	26.0	7.7	2.4	10.1
양	16.8	31.2	<b>48</b>	28.6	17.4	6.1	23.5
메뉴	19.5	33.6	<b>53.1</b>	32.2	12.1	2.5	14.6
위생	25.8	33.8	<b>59.6</b>	26.6	10.1	3.7	13.8
영양적으로 균형있는 식사	31.0	39.3	<b>70.3</b>	23.3	4.8	1.6	6.4
자율배식	15.8	20.3	<b>36.1</b>	31.7	20.0	12.2	32.2
전반적 만족도	17.9	38.4	<b>56.3</b>	30.4	9.7	3.6	13.3

훈련소에서 지급되는 일용품 중에서 칫솔, 치약, 비누는 <표-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없어 보이나, 두루마리 화장지는 해병대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들이 공통적으로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 훈련소의 경우 40.6%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화장지 보급기준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20> 지급받는 일용품 수량 적절성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충분	적당	부족
칫솔	48.6	41.5	9.9
치약	53.5	39.9	6.6
비누	57.7	37.0	5.3
화장지	41.9	33.0	25.0

각 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지급하는 일용품의 품질은 <표-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두루마리 화장지의 경우 공군에서만 25.2%가 나쁘다고 응답하였다.

<표-21> 지급받는 일용품 품질 만족도 (단위:%)

구분	좋다	보통	나쁨
칫솔	58.0	37.8	4.2
치약	69.6	29.7	0.7
비누	59.8	37.5	2.7
화장지	63.1	32.1	4.8

### 3) 훈련소 생활 중 휴식과 사생활 보장

훈련병들에게 주어지는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은 <표-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39.4%에 불과하고, 23.7%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특히 공군 훈련병의 61.5%, 해군 훈련병의 35.3%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일과 후 개인정비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과 운영에 대한 개선안이 필요하다. 휴무일 휴식시간에 대해서도 육군은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이나, 공군 훈련병의 53.0%, 해군 훈련병의 34.2%는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야간 취침시간도 해군의 31.3%, 공군의 20.1%가 부족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해군과 공군은 훈련소 훈련병들의

일과시간 이후 휴식여건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22> 휴식 및 취침시간 보장실태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충분	보통	부족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	<b>39.4</b>	36.9	23.7
휴무일 휴식시간	<b>52.3</b>	29.5	18.2
취침시간	<b>53.9</b>	32.6	13.6

훈련병들이 훈련소 영내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는 <표-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용 시기와 1회 이용시간, 이용의 편의성, 구매 가능한 물품의 범위에 대해 공통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다수이므로 훈련병들의 영내 매점 이용여건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군, 공군, 해병대는 영내 매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데, 육군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훈련병들에게 영내 매점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표-23> 영내 매점 이용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긍정	보통	부정
이용 시기/시간 등 편의성	3.9	46.9	<b>49.1</b>
구매 가능한 물품 범위	34.8	26.9	<b>38.2</b>

훈련소 입소기간 중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훈련병들의 인식은 <표-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흡연제한은 적절하다’ (21.2%), ‘단체생활에 필요하다면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34.8%)로 과반수가 신병훈련기간 중 흡연금지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나,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 (14.2%), ‘흡연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7.2%) 등 흡연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도 31.4%가 되므로 군인화 과정의 특성과 훈련병들의 흡연 욕구를 고려하여 흡연

허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24> 흡연금지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훈련의 일환으로 흡연 제한은 적절하다	단체생활에 필요하다면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굳이 흡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흡연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잘 모름
비율	21.2	<b>34.8</b>	14.2	17.2	12.7

입소 후 훈련소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인터넷 편지의 내용이 공개된 경험이 있는지, 생활관 개인사물함이나 소지품에 대해 부당하게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개인이 구매한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표-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당한 요구나 편지 내용이 공개된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며, 개인용품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5> 입소 후 신상정보, 편지공개, 소지품 검사, 개인용품 사용 (단위:%)

구분	①자주 있음	②가끔 있음	①+②	③별로 없음	④전혀 없음	③+④
신상정보 과도한 요구	1.4	8.8	10.2	34.7	55.0	<b>89.7</b>
편지 내용 공개	3.0	8.2	11.2	17.8	71.1	<b>88.9</b>
사물함/소지품 부당한 검사	0.7	2.2	2.9	10.1	86.9	<b>97.0</b>
개인 구매 화장품/세면용품 자유 사용	65.6	28.7	<b>94.3</b>	3.7	2.0	5.7

훈련소에서 가족, 친구와의 통화 등 외부와의 소통에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가능한 시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표-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이 정비시간과 공휴일에 이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표-26> 공중전화 이용 가능 시간 (단위:%)

구분	언제든지 가능	정비시간 및 공휴일
비율	0.9	<b>99.1</b>

훈련소 입소기간 중 공중전화 이용횟수는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주일에 1회 미만(52.6%)이 가장 많았으나, 육군훈련소는 80.6%가 주 2-3회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중전화가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주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이용 횟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7> 공중전화 평균 이용 횟수 (단위:%)

구분	주 0-1회	주 2-3회	주 4-5회	주 6회 이상
비율	<b>52.6</b>	31.2	5.2	11.0

공중전화 사용 시 1회 사용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표-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분(49.2%)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육군훈련소는 75.8%가 ‘10분 이내’ 라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해군은 ‘3분 이내’ 라는 응답이 98%였다. 일반적으로 지인과 안부전화를 할 때 3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시간이므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8> 1회 통화 가능 시간 (단위:%)

구분	3분 이하	3-5분	5-10분	10-20분	20분 이상
비율	12.6	<b>49.2</b>	35.9	2.2	0.1

훈련소 내에 설치된 공중전화 설치대수는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표-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충분하다는 응답이 51.6%, 부족하다는 응답이 48.4%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해군에서는 69.1%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는데 이것은 앞서 해군 훈련병의 98%가 1회 통화시간이 '3분 이내'라고 응답했던 것과 연관이 있어 보이므로 공중전화 증설 필요성은 해군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표-29> 공중전화 대수의 적절성 (단위:%)

구분	충분	부족
비율	51.6	48.4

훈련소 입소기간 중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에 대해서는 <표-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4%가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입대 후 사회와 갑자기 단절된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전달수단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30> 외부와 연락할 여건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모름
비율	13.5	40.0	53.5	35.1	6.3	41.4	5.2

훈련소 입소기간 중 TV를 시청할 수 있는지, 시청 가능한 시간과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표-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를 시청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응답이 44.4%로 가장 많았고, 주로 시청하는 프로그램은 교육용 프로그램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TV 시청 여건은 부대별로도 상이하여 육군훈련소에서는 67.6%가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에 육군 사단신병교육대에서는 37.5%가 자유롭다고 응답하였다. 각 군 및 부대별로 TV 시청 여건이 다른 것은 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전 군 신병훈련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주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청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31> TV 시청 여건 (단위:%)

구분	자유롭다	교육용 영상	TV 보기 어려움	주말에는 자유로움
비율	18.3	18.3	<b>44.4</b>	19.0

훈련소에서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인 TV와 국방일보에 대한 만족도는 <표-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40.6%, 32.5%, 불만족도는 각각 39.4%, 35.1%로 만족도와 불만족도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와 갑자기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전달 매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32>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에 대한 만족도 (단위:%)

구분	①매우 만족	②대체로 만족	①+②	③보통	④대체로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④+⑤
TV	22.5	18.1	<b>40.6</b>	20.0	12.1	27.3	39.4
국방일보	15.4	17.1	32.5	32.4	13.4	21.7	<b>35.1</b>

신병훈련소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9.6%가 사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전 군 공통적으로 훈련병에게는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33> 인터넷 이용 가능 여부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0.3	<b>99.6</b>

훈련소에서 군 외부소식이나 정보를 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반응은 <표-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반응(36.5%)보다는 부정적인 반응(60.5%)의 비율이 훨씬 높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34> 군 외부로부터 소식/정보 접촉 여건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비율	8.7	27.8	36.5	39.8	20.7	<b>60.5</b>	3.0

훈련소에서 종교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76.1%가 긍정적인 응답이고 8.7%가 부정적인 응답이므로 훈련소에서 종교의 자유는 비교적 잘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35>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비율	47.4	28.7	<b>76.1</b>	5.6	3.1	8.7	15.2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두발 손질은 <표-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대별로 비치된 이발기를 사용해서 훈련병들끼리 손질해준다는 응답이 63.3%에 이르고 있으며, 20.1%는 부대에 배치된 이발병(기간병)이 손질을 해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두발 손질 방법과 두발 손질

기준에 대해서는 <표-37>과 <표-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두발 손질은 개인의 외모와 관련된 부분이므로 미숙련된 훈련병들끼리 손질하도록 하는 현재의 제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7)</sup>

<표-36> 훈련병 두발 손질 (단위:%)

구분	외부 이발사	부대 이발병	훈련병끼리	기타
비율	3.1	20.1	<b>63.3</b>	13.6

<표-37> 두발 손질 여건 (단위:%)

구분	불편하지 않다	매우 불편하다
비율	<b>75.4</b>	24.6

<표-38> 두발 기준의 적절성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비율	21.8	38.2	<b>60.0</b>	15.1	13.9	29.0	10.9

## 나.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침해 피해

훈련소 입소 후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을 당한 경험은 거의 없었으나, 부당한 군기훈련을 받았던 경험은 11.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병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부당한 군기훈련 등은 주로 조교에 의해서 이뤄지며, 성추행과 성희롱은 교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었다. 훈련병들이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더라도 94.1%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피해 시 부대조치에 대해서는 47%만이 적

17) 2021.10. 25 국방부는 병사들 두발 형태도 간부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간부와 병사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절했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휘관 등 관계자들이 훈련병의 입장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인권침해 피해 경험

훈련소 입소 후 인권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성희롱·성추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없었다는 응답이었으나, 부당한 군기훈련에 대해서는 11.5%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으로 볼 때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훈련병들이 부당하다고 인식할 수 있는 군기훈련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39> 인권침해 경험 횟수 (단위:%)

구 분	해당 없음	5회 이하	10회 이하	20회 이하	그 이상
구타	99.7	0.2	0.1	0.0	0.0
가혹행위	97.7	1.9	0.4	0.0	0.1
언어폭력	92.7	5.7	1.2	0.1	0.3
성희롱	98.9	0.6	0.4	0.0	0.1
성추행	99.8	0.1	0.1	0.0	0.1
부당한 군기훈련	89.5	6.2	2.4	1.2	0.7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유형별로 구분해봤을 때, 응답자 전체 1,348명 중에서 피해사례 수가 많지는 않지만 <표-4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부당한 군기훈련 등은 주로 조교에 의해서 이뤄지며, 성추행과 성희롱은 교관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훈련소 운영요원인 교관 및 조교 선발 후 임무투입 전 직무교육에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근무기간 중 수시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40> 훈련병 인권 침해자

(단위:%)

구분	피해 사례 수	지휘관	부대 간부	교관	조교	동료 훈련병	기타
구타	7	14.3	14.3	14.3	<b>28.6</b>	0.0	28.6
가혹행위	36	8.3	0.0	16.7	<b>47.2</b>	0.0	27.8
언어폭력	134	0.7	2.2	9.7	22.4	9.7	<b>55.2</b>
성희롱	65	3.1	9.2	38.5	0.0	4.6	<b>44.6</b>
성추행	37	2.7	8.1	<b>48.6</b>	32.4	0.0	8.1
부당한 군기훈련	44	2.3	11.4	22.7	<b>61.4</b>	0.0	2.3

<표-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소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중 가혹행위·언어폭력·부당한 군기훈련은 주로 일과시간중에 발생하고, 구타·성희롱·성추행은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은 주·야간 모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야간 인권침해 예방 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41>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시기

(단위:%)

구분	일과시간	일과시간 후	둘 다
구타	33.3	<b>66.7</b>	0.0
가혹행위	<b>57.7</b>	23.1	19.2
언어폭력	<b>44.6</b>	38.0	17.4
성희롱	6.3	<b>75.0</b>	18.8
성추행	0.0	<b>66.7</b>	33.3
군기훈련	<b>60.6</b>	21.3	18.1

훈련병들이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 본인이 겪

은 피해 사실을 보고나 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표-42>, <표-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94.1%가 보고나 신고를 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훈련병들이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고도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받을 것 같아서’, ‘부대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이것으로 볼 때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침해피해 구제제도에 대한 인식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42> 인권침해 피해 신고 경험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5.9	<b>94.1</b>

<표-43> 인권침해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단위:%)

구분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처벌받을 것 같아서	보고나 신고를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군대에서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부대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기타
비율	11.2	27.0	<b>44.9</b>	6.1	10.7

훈련병들이 인권침해 피해를 보고 혹은 신고를 한 이후 부대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표-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응답이 4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11.8%로 나타났으며, 훈련소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지휘관 등 관계자들이 훈련병의 입장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줬다고 느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표-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이것으로 볼 때 신병훈련소 지휘관과 교관 등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표-44> 인권침해 피해 신고 후 부대 대응조치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비율	23.5	23.5	<b>47.0</b>	5.9	5.9	11.8	41.2

<표-45> 인권침해 당했을 때 부대 관계자의 옹호 정도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지휘관	27.9	16.2	<b>44.1</b>	8.9	7.3	16.2	39.7
부대간부	28.1	17.4	<b>45.5</b>	11.2	7.3	18.5	35.9
교관	24.2	16.7	<b>40.9</b>	13.4	10.2	23.6	35.5
조교	22.3	15.6	<b>37.9</b>	15.6	14.0	29.6	32.4

#### 다. 인권 침해 피해 시 구제

현재 군 복무 중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훈련병들이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제도·기관·기구는 <표-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의 편지(93%), 국방헬프콜(86.5%), 병영생활전문상담관(66.4%), 국가인권위원회(61.2%), 국방부 및 각군 인권센터(59.6%), 인권상담관(52.1%) 순이며,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은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음의 편지(4.3%), 병영생활전문상담관(1.4%), 국방헬프콜(0.2%) 순으로 응답하였다. 훈련병들이 입소기간 중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제도와 기관/기구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편지와 국방헬프콜을 제외한 나머지 제도와 기관/기구들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도는 비교적 낮기 때문에 각 기관/기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46> 인권침해 시 구제제도, 기관, 기구에 대한 인식도 (단위:%)

구분	들어본적이 있다	들어본적이 없다
마음의 편지	93.0	7.0
국방헬프콜	86.5	13.5
인권센터(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59.6	40.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66.4	33.6
인권상담관	52.1	47.9
성고충전문상담관	44.3	55.7
국가인권위원회	61.2	38.8
국민권익위원회	42.4	57.6
군인권센터(민간시민단체)	42.1	57.9

<표-47> 인권침해 시 구제제도, 기관, 기구 이용 경험 (단위:%)

구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
마음의 편지	4.3	95.7
국방헬프콜	0.2	99.8
인권센터 (국방부, 육·해·공군, 해병대)	0.0	100.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1.4	98.6
인권상담관	0.1	99.9
성고충전문상담관	0.0	100.0
국가인권위원회	0.0	100.0
국민권익위원회	0.1	99.9
군인권센터(시민단체)	0.0	100.0

신병훈련소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표-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5%가 알고 있다고 응



답하였으며, 42.3%는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상담경험에 대해서는 <표-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없다는 응답이 94.7%가 되므로 훈련소 내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의 활동에 대해 소개교육을 강화하고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역할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48>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지 여부 (단위:%)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비율	57.7	42.3

<표-49>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경험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5.3	94.7

훈련병들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는 경로는 <표-5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소에서 지정(81.3%)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담관과의 상담이 훈련병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표-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 유경험자의 74.7%가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표-50>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경로 (단위:%)

구분	직접 전화 요청	간부가 요청	훈련소에서 지정
비율	4.0	14.7	81.3

<표-51>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 시 도움 정도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비율	18.7	56.0	74.7	21.3	4.0	25.3

훈련소 입소기간 중 지휘관(자)에게 ‘마음의 편지’를 제출해본 경험과 효과에 대해서는 <표-52>, <표-53>, <표-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만 제출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마음의 편지를 제출한 후 74.2%는 조치결과를 통보받았으며, 조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78.7%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52> 마음의 편지 제출 경험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4.3	95.7

<표-53> 마음의 편지 제출 후 조치결과 통보 여부 (단위:%)

구분	받았다	못 받았다
비율	74.2	25.8

<표-54> 마음의 편지 도움 정도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비율	52.5	26.2	78.7	14.8	6.6	21.4

훈련소 입소기간중 상급부대나 감찰부서에서 소원수리를 받아간 적이 있는가, 조치결과를 통보받았는가,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표-55>, <표-56>, <표-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0.8%만이 소원수리를 제출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원수리 제출 사례 수가 많지는 않지만 소원수리 제출자 중에서 50%만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가운데, 조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6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대원 간 접촉도 제한되겠지만 훈련병들에 대한 소원수리 접수 및 처리와 처리결과 통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55> 외부에서 소원수리 접수 여부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0.8	<b>99.2</b>

<표-56> 소원수리 조치 결과 통보 여부 (단위:%)

구분	사례 수	받았다	못받았다
비율	14	<b>50.0</b>	<b>50.0</b>

<표-57> 소원수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비율	43.8	25.0	<b>68.8</b>	18.8	12.5	31.3

병영생활 중에 군인이 다른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력 등)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6.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런 일로 신고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군인들 상호간에 인권침해 행위를 인지 시 보고·신고 의무와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상보호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권교육에 포함해서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58> 인권침해 목격 시 신고의무가 있음을 인지 여부 (단위:%)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비율	<b>86.4</b>	13.6

<표-59> 신고자 신상정보 공개 시 처벌됨을 인지 여부 (단위:%)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비율	<b>67.5</b>	32.5

## 라. 군 의료 지원 및 코로나 예방 활동

훈련소 입소 후 군대 1차 의료기관(의무대 등)에서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6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8%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진료요청 후 실제로 진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표-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청 당일(59.9%), 요청 후 1일(36.2%)로 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진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4%는 요청 후 3일 이상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훈련병들에 대한 진료소요 기간은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60> 1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35.8	64.2

<표-61> 진료 요청 후 진료받기까지 소요시간 (단위:%)

구분	요청 당일	요청 후 1일	요청 후 2일	요청 후 3일 이상
비율	59.9	36.2	2.5	1.4

훈련소 입소시간 중 군대 1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1회 진료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62>에서 보는 바와 같이 91.5%가 5분 이내로 응답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표-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1.5%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므로 훈련소 의료지원체계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62> 1회 진료 시간 (단위:%)

구분	2-3분	5분 내외	10분 이상
비율	39.0	52.5	8.5

<표-63> 1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보통	④부정	⑤매우 부정	④+⑤
비율	20.5	31.5	<b>51.5</b>	28.6	9.7	9.7	19.4

훈련소 입소 후 군대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8%가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진료 요청 후 실제로 진료를 받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표-6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청 당일(33.1%), 요청 후 1일(46.6%)로 주로 당일 또는 다음날 진료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7%는 요청 후 3일 이상 소요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훈련병들에 대한 2차 의료기관 진료대기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의료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64> 2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8.8	<b>91.2</b>

<표-65> 진료 요청 후 진료받기까지 소요시간

(단위:%)

구분	요청 당일	요청 후 1일	요청 후 2일	요청 후 3일 이상
비율	33.1	<b>46.6</b>	7.6	12.7

훈련소 입소기간 중 군대 2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경험을 토대로 1회 진료시간을 조사한 결과 <표-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67.8%가 5분 이내로 응답하고 있으며, 2차 의료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표-6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으므로 훈련소 의료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66> 1회 진료시간 (단위:%)

구분	2-3분	5분 내외	10분 이상
비율	13.6	<b>54.2</b>	32.2

<표-67> 2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보통	④부정	⑤매우 부정	④+⑤
비율	24.8	38.5	<b>63.3</b>	23.9	7.7	5.1	12.8

훈련소 입소기간 중 본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군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표-6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3%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표-68> 본인 필요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인식도 (단위:%)

구분	①매우 긍정	②긍정	①+②	③부정	④매우 부정	③+④
비율	34.5	47.8	<b>82.3</b>	14.5	3.2	17.7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생활하는 동안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느꼈는지에 대해서는 <표-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1.3%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반면에 7.8%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표-69> 훈련병 교육기간 중 스트레스 받은 정도 (단위:%)

구분	①매우 많이 느낌	②조금 느낌	①+②	③거의 느끼지 않음	④전혀 안느낌	③+④
비율	18.6	52.7	<b>71.3</b>	20.9	7.8	28.7

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격리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표-70>, <표-71>, <표-72>, <표-7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7.6%가 격리된 경험이 있으며, 격리기간은 대부분 10일 이상이며, 격리기간 중 야외활동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화장실 사용이 가장 불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70> 훈련소 입소 후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경험 (단위:%)

구분	있다	없다
비율	<b>57.6</b>	42.4

<표-71> 훈련소 입소 후 격리기간 (단위:%)

구분	5일 미만	5-10일 미만	10일 이상
비율	5.8	17.6	<b>76.5</b>

<표-72> 훈련소 입소 후 격리 시 불편한 점 (단위:%)

구분	급식	세면	샤워	화장실	기타
비율	20.4	3.3	18.9	<b>25.3</b>	32.1

<표-73> 훈련소 입소 후 격리기간 중 야외활동 허용 여부 (단위:%)

구분	허용	통제
비율	22.1	<b>77.9</b>

코로나19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훈련소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표-74>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4%가 적절했다, 11.8%가 부적절했다고 응답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표-74> 훈련소의 코로나19 대응 수준 적절성 여부 (단위:%)

구분	①매우 적절	②대체 로 적절	①+②	③다소 부적절	④매우 부적절	③+④	잘 모름
비율	32.5	48.9	<b>81.4</b>	8.8	3.0	11.8	6.9

## 마. 군 인권교육 및 전반적인 인권의식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교육을 몇 회나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표-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회 이상(29.4%)이 가장 많았으나,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도 27.3%나 되었다. 특히, 공군의 경우 응답자 149명 중에서 96%가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을 하였으며,<sup>18)</sup> 육군훈련소의 경우에도 응답자 299명 중에서 35.8%가 전혀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은 입소 초기에 실시해서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75> 훈련소 입소시간 중 인권교육 받은 횟수 (단위:%)

구분	전혀 안받음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이상
비율	27.3	17.5	13.8	12.0	<b>29.4</b>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은 <표-76>, <표-77>, <표-7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인권교관(42.5%)과 지휘관(36.8%)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강의식 형태(48.5%)로 진행되고 있었다. 인권교육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83.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76> 훈련병 대상 인권교육 진행자 (단위:%)

구분	지휘관	인권교관	군 법무관	민간인 전문강사
비율	36.8	<b>42.5</b>	13.8	6.9

18)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군의 경우 인권과목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법무관이 군법 교육을 실시하면서 인권교육을 병행하고 있었으며, 설문조사에 참가했던 훈련병들은 교육일정상 인권교육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77> 훈련병 대상 인권교육 방법 (단위:%)

구분	강의식	설명+동영상	동영상만
비율	<b>48.5</b>	42.5	9.0

<표-78>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단위:%)

구분	①매우 도움 됨	②대체로 도움 됨	①+②	③별로 도움 안됨	④전혀 도움 안됨	③+④
비율	29.8	53.5	<b>83.3</b>	13.7	2.9	16.6

훈련소에서 훈련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여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표-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표-79> 인권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①매우 양호	②다소 양호	①+②	보통	③다소 미흡	④매우 미흡	③+④
교육시설의 적절성	32.4	32.0	<b>64.4</b>	28.1	5.2	2.4	7.6
교육 내용(교재, 콘텐츠)의 적합성	35.1	31.5	<b>66.6</b>	25.6	5.5	2.3	7.8
강사의 자질 (전문성)	37.6	31.0	<b>68.6</b>	25.0	4.8	1.7	6.5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 관심도	42.8	28.2	<b>71.0</b>	24.5	2.9	1.7	4.6

훈련병은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가는 과정)’에 있기때문에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예: 핸드폰 사용, 흡연 허용 등)가 많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표-8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훈련병은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이므로 일반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는 응답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장병과 비슷한 수준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는 응답이 28.4%로 뒤를 이었다.

<표-80> 훈련병 군인화 과정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일반장병과 비슷한 수준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이므로 일반 장병들 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잘 모름
비율	23.4	28.4	<b>42.4</b>	5.9

최근 훈련소에서의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격리조치(양치·세면·샤워 제한, 화장실 이용 통제 등)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표-8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문제보다 과장되었다는 응답이 53.4%이며, 현실이 잘 반영되었거나 현실보다 축소되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것은 훈련소에서의 격리조치에 대한 언론보도가 다소 과장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81> 격리기간 중 인권침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현실은 더 심각하다	현실이 잘 반영	실제문제보다 다소 과장	실제문제보다 매우 과장	잘 모름
비율	4.0	19.0	<b>33.3</b>	20.1	23.6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입대 전에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때 훈련병들의 실제 인권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표-82>, <표-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9%는 실제 인권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14.9%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다만, 입대 전에 생각했던 것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좋다는 응답이

60.4%이며, 반대로 생각보다 나쁘다는 응답은 9.4%였다.

<표-82> 훈련소 내 훈련병 인권보장 수준에 대한 인식 (단위:%)

구분	①매우 잘 보장	②대체 로 보장	①+②	③별로 보장안됨	④전혀 보장안됨	③+④	잘 모름
비율	29.9	49.0	<b>78.9</b>	12.0	2.9	14.9	6.2

<표-83> 입대 전/후 훈련병 인권상황 비교 (단위:%)

구분	생각보다 좋다	생각과 같다	생각보다 나쁘다	잘 모름
비율	<b>60.4</b>	25.2	9.4	4.9

## 2.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을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심층면접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설문조사에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직접 기술하도록 하였는데 제기된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훈련병

1) 훈련소 입소기간 중 공중전화 이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전 군 공통적으로 ‘손편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이어서 인터넷 편지, 간부 핸드폰, 국방일보, 애플리케이션(더 캠프)<sup>19)</sup> 등을 꼽았다.

2) 군대 1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던 이유는 ‘군의관이 성의없이 대충 진료한다’, ‘군의관이 불친절하다’, ‘군의관이 전문성이 없다’, ‘병명에 상관없이 처방약이 동일하다’, ‘1차 의료기관이라서 검사장비가 부족하다’,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표-8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표-84> 하루빨리 개선해주기를 원하는 사항

- 주말에는 핸드폰 사용을 허가해 달라.
- 흡연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
- 두루마리 휴지 보급을 2배로 늘려 달라.
- 코로나19 방역관련 격리기간이 너무 길다. 줄여 달라.
- 온수/냉난방시설, 화장실 시설을 개선해 달라. 화장실 칸수가 너무 적다.

19) ㈜Enable Daon Soft가 육군과 협업하여 군과 사회의 소통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한 앱 까페인데 군 복무 및 병역 관련 통합 지원 서비스로 입대 전, 군 복무, 전역 후 까지 군인에게 필요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공중전화 이용 횟수와 1회 이용시간, 설치 대수를 늘려 달라
- 소대장·분대장들의 지시사항이 통일되지 않아서 혼란을 준다.
- 식단이 부실하고 밥맛이 없다. 식단표가 안 지켜진다.
- 영내 매점 이용 횟수와 1회 이용시간을 늘려달라.
- 격리기간 중 자기계발이나 체력단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 몸이 아플 때 전문병원에서 제때 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 격리기간동안 세면과 화장실 사용 여건을 개선해 달라.
- 생활관 청소도구가 부족하다. 추가로 보급해 달라.
- 생활관 2층 침대 단점을 개선하고 개인당 생활공간을 확대해 달라.
- TV 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
- 편지 발송 소요시간을 줄여주고, 우표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개인정비시간을 보장해 달라
- 취침시간이 부족하다.
- 낡고 곰팡이 피고 냄새 나는 수통과 방탄헬멧을 교체해 달라.
- 화장실 사용시간/샤워시간을 늘려 달라
- 취사장 위생상태를 개선해 달라. 식판을 깨끗이 세척해 달라.
- 배식량이 너무 부족하다. 급식량(특히 반찬)을 늘려 달라.
- 택배와 소포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 개선해 달라.
- 훈련복, 침구류(모포, 베개, 내피 등) 세탁상태가 너무 나쁘다.
- 이발병을 배치하는 등 이발여건을 개선해 달라.
- 조교의 욕설을 근절해 달라.
- 생활관 내 수용 인원수를 줄여 달라.
- 세탁기·건조기·선풍기·에어컨 고장 시 신속하게 고쳐 달라.
- 사물함 도난사고를 예방해 달라.
- 훈련병끼리의 성추행·성희롱·언어폭력이 심하다.

## 나. 지휘관/교관/조교

1) 훈련병들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주로 어떤 문제를 제기 혹은 호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각 군 응답자 208명 중에서 58명이 급식의 양과 질에 대한 불만 제기가 가장 많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흡연

허용 요구, TV 시청 허용 요구, 시설물 개선 요구, 생활용품 부족함에 대한 불만 제기, 1회 이용 가능한 공중전화 사용시간 증가 요구, 훈련병 상호간 갈등 문제 제기, 영내 매점 사용 기회 및 이용시간 확대 요구, 휴대폰 사용 승인 요구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소원수리 내용에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 것은 훈련병들이 제기한 개선요구 사항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였다.

2) 훈련소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증진 등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훈련병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관 및 조교들의 인권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훈련병들이 ‘을질’을 하고 있으나 마땅한 통제수단이 없으며, 훈련병들이 허위사실을 제기하여 교관과 조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도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교관과 조교가 훈련병 인권을 침해하면 바로 처벌을 받는데, 훈련병이 교관과 조교의 인권을 침해하면 별다른 처벌없이 상급부대에서 묵인한다. 훈련병에 의한 허위신고 근절 방안과 허위신고 시 처벌 대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이어서 핸드폰·흡연·TV 시청 허용, 급식의 량과 질 개선, 시설물 개선, 의료체계 개선, 신병훈련소 1회 입소인원 감축 등이 제시되었다.

3) 교육훈련 중 훈련병들이 인권보장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8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85> 인권보장을 이유로 교육훈련 거부 사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성을 높이지 않고 착하게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올라가면 인권을 따진다.</li> <li>· 발목 통증을 호소하며 교육훈련을 거부했는데 교육훈련이 종료되자 바로 회복됐다가에, 얼차려 지침에 따라 규정된 얼차려를 시행하려 했더니 인권보장을 주장하며 거부.</li> <li>· 피부가 약하다는 이유로 화생방 훈련을 거부.</li> </ul> |
|---|

- 체력평가 진행 중 팔굽혀 펴기를 할 때 완전히 올라오지 않아서 완전히 올라오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뭐라 하나, 인권 침해다"라고 주장함.
- 교육훈련시간 도중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므로 교육시간에 왜 잠을 자고 있는냐고 질책했더니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얼차려마저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음.
- 정당한 지시에도 불만을 가지고 하기 싫으면 "인권, 인권" 함.
- 교관이 훈련결과 보고를 위해 사진촬영 시 훈련병이 "사진 찍지 마십시오. 인권침해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교관에게 대들었음.
- 더운 여름에 "뛰어" 라고 지시한다고 민원을 제기.
-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각개전투 행군을 열외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훈련을 거부.
- 저녁 정호 시 관물대 개방을 요구했으나 인권을 내세우며 거부

4) 훈련목표 달성 등 직무상의 이유로 훈련병 인권을 침해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교육 시간에 맞추기 위해 샤워시간·세면시간·용변시간 단축, 집합시간 강요, 인터넷 편지 미전달 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5) 훈련병들의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포함)로 인해 자신이나 동료의 피해를 보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표-8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86> 훈련병들의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포함)로 피해 본 사례

- 생명이 달린 훈련 중 훈련병이 돌발행동을 해서 옷을 잡고 위험하다며 뒤로 뺐는데 나중에 훈련병의 멱살을 잡았다고 신고.
- 훈련병이 분대장의 엉덩이를 갖고 놀리자 분대장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니 감찰 설문에 적어 분대장 보직 해임.

- 훈련병이 둔부를 만져서 조교가 욕설했다가 징계받고 전출.
-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훈련병들을 강하게 이끌다가 마음의 편지로 인해 징계받고 긴급 누락.
- 훈련병이 하사 분대장에게 초콜릿, 감동이 하사님이라는 발언을 하여 별점을 주고 넘어갔으나 마음의 편지에는 “체벌 당함” 이라고 적어서 분대장이 진술서를 작성하고, 사과를 한 사례가 있음. 훈련병은 정작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야전으로 감.
- 몇몇 훈련병들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조교들에게 설문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조교들이 훈련병 눈치를 봐야 했다.
- 교관이 훈련병에게 했던 말을 훈련병은 다른 내용으로 알아들어 소원수리하였고 이에 교관이 상급자로부터 질타당한 적이 있음.
- 교관이 훈련병의 빼놓아진 방탄헬멧을 바로 잡아 주고자 헬멧을 잡고 똑바로 돌린 행위를 훈련병은 헬멧을 막 잡고 흔들었다고 하여 교관이 일정기간 직무정지 당함.
- 교관이자 조교로서 정당한 상황, 근거에 의한 통제를 취했지만 단지 통제받는 입장인 훈련병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지적 및 경고를 받는 사례를 종종 목격.
- 조교 직책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데, 폭언, 욕설도 아닌 집중을 안 한다고 다소 큰소리로 말한 것 때문에 보직 해임.
- 악의적 목적으로 평소 마음에 안 들던 조교분대장이 욕설, 폭언했다고 마음의 편지에 적었고 이를 같은 생활관 동기들이 동조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기정사실화 하였고 이로 인해 조교분대장이 징계 받음.
- 관물대 검사가 기분 나빴다는 설문조사 내용으로 조교가 불려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훈련병들에게 사과함.
- 전혀 없었던 일을 작성한 훈련병들 때문에 몇 달간 감찰부에 조사 받으러 다니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 당함.
- 통제간 소리를 질렀던 조교가 있었다. 훈련병이 잘못된 상황이었고, 사실조사를 통해 제대로 밝혀졌지만 보여주기식으로 조교가 징계 받음.



### 3. 전화 면접조사를 통해 식별된 훈련병 인권상황

코로나19 4단계 방역상황으로 인해 훈련병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가 제한됨에 따라, 각 군 신병훈련소를 수료한 지 3개월 이하의 전입신병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최근에 신병훈련을 마친 사람으로서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훈련소에서는 어느 정도 인권이 제한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소 개선 필요성이 있지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별문제 없는데 민감한 소수 인원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가 이것에 과민반응하는 상황이다’라는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에 ‘문제가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2) 훈련소 입소 후 불편했던 점은 격리기간 2주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게 한 것, 화장실 위생상태 불결, 핸드폰 사용 통제, 세면 및 샤워시간 부족, 단체생활 하는 것, TV 시청 통제, 열악한 시설환경이라고 응답하였다.

3) 훈련소에서 핸드폰과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입소 초기 격리기간 중에는 핸드폰 사용이 가능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훈련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훈련소에서 핸드폰과 인터넷(PC방) 사용을 통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핸드폰은 일과 이후와 주말에는 허용하는 것이 좋다(3명)는 의견이 금지해야 한다(2명)는 의견보다 우세하였다<sup>20)</sup>. 그러나 인터넷(PC방)은 통제하는 것이 좋다(8명)는 의견이 허용하는 것이 좋다(1명)는 의견보다 크게 우세하였다.

4) 훈련소 입소기간 중 교관 및 조교로부터 폭언이나 욕설을 들은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응답이 8명, ‘있었다’는 응답이 1명이

---

20) 나머지는 모르겠다는 의견이었다.

었다. 폭언을 들었던 이유는 '식사 후 큰 걸음으로 복귀하지 않아서'였으며 군기훈련도 병행해서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5) 교관 및 조교로부터 구타, 가혹행위,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원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6) 교관 및 조교로부터 부당한 군기훈련(얼차려)를 받은 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전원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7) 영내 매점을 사용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해군, 공군, 해병대는 규정상 사용이 불가능했으며, 육군은 주 1회 사용 가능하였다고 응답하였다.

8) 훈련소 입소기간 중 흡연은 전원 완전 통제받았으며, 흡연 통제에 대해서는 '완전 통제하는 것이 맞다'(5명)는 의견이 '시간을 정해서 허용해주는 것이 좋다'(1명)는 의견보다 우세하였다.

9) 입소 시 개인적으로 휴대했던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훈련소에서 지급되는 일용품은 비교적 충분하였으나 면도날과 두루마리 화장지는 부족했다고 응답하였다.

10) 인터넷 편지는 매일 일석점호 시간에 받았으며(8명), 주 1회 모아서 받기도 했던 것으로(1명) 나타났다.

11) 마음의 편지나 소원수리는 1명만이 대대장과 중대장이 주관해서 제출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조치결과는 대대장을 통해 설명 들었으나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니었다고 응답하였다.(물품 부족과 조교들의 무리수에 대해 적었는데 답변이 와달지 않았다.)

12) 코로나19 격리기간 중 불편했던 사항은 1명만 급식량이 부족해서 불편했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불편함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13)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의무대 진료 시 불편했던 사항은 2명이 피부과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적절하게 진료를 잘 받았다는 응답이었다.

14) 훈련소 생활시설과 냉난방 수준은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화장실 대변기는 고장 난 것이 많았다고 응답하였다.

15) 생활관 침구류 상태에 대해서는 육군과 공군은 세탁상태가 양호했다는 응답이었으나, 해군의 경우에는 매트리스에 곰팡이가 심하고 훈련복과 군화도 세탁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응답하였다.

16) 훈련소에서 머리손질은 공군은 민간인 이발사가, 해군은 이발병(기간병)이, 육군은 동료 훈련병 중 한 명이 머리손질을 해줬다고 응답하였다.(육군의 경우 머리카락 길이가 6mm가 되도록 짧았다고 응답)

17)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교육은 얼마나 받았으며, 누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했으며, 교육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권교육을 받은 기억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주로 지휘관·인권교관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교육효과에 대해서는 전원 부정적이었다.

18) 훈련소에서 교육훈련과 생활관 병영생활에서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1명만 식사시간을 짧게 줄 때와 씻는 것을 통제할 때 인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19) 상담과 관련하여 1명만 입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질병 문제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했던 경험이 있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전원이 알고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20) 훈련소와 자대에서 인권을 침해당하면 피해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훈련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1) 훈련소에서의 급식의 양과 맛 수준에 대해서는 부대별로 응답내

용이 각각 달랐으나, 식사시간은 공통적으로 충분히 줬다고 응답하였다. 선호하는 급식형태는 빵식이었으며 집밥, 학교급식, 훈련소 급식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본 결과 1순위는 공통적으로 집밥이었으나 2순위는 훈련소 급식과 학교급식이 동일한 비율로 응답하였다.

22) 일과 후 자유시간과 TV 시청 여부에 대해서는 자유시간은 공통적으로 주어지고 있으나, TV 시청 시간은 부대별로 다르다고 응답하였다.

#### 4. 소결론

실태조사 결과 각 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직접적인 인권침해 행위(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부당한 군기훈련 등)가 발생하는 빈도수는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유권과 행복추구권 분야에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소 생활시설(생활관, 식당, 화장실)이 대부분 노후되었으며, 급식의 질이 높지 않은 가운데 급식량도 부족하고, 군대 외부와의 소통과 정보교류에 필요한 TV 시청·공중전화 사용·핸드폰 사용 등도 제한받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과 영내 매장 사용기준은 각 군별 또는 부대별로 상이하야 훈련병들 간에 차별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해소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권과 관련하여 훈련병들은 군대 1차 의료기관 의료인력들이 매우 불친절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1차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진료 요청 후 군대 1·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까지 3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는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진료를 요청하는 훈련병을 대하는 교관 및 조교들의 인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격리기간 동안 사용하는 세면장과 화장실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격리기간 중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주로 지휘관과 자체 교관으로 진행되어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인권교육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의료인력과 군사경찰 및 감찰요원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훈련병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기관/기구에 대한 인식도는 비교적 낮은 실태이며, 소원수리와 마음의 편지 제도에 대해서는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제도 개선요구가 매우 높은 상태이다. 인권과 교육훈련이 충돌되는 여러 사례를 봤을 때 훈련병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시 인권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서 훈련병과 교관 및 조교와의 갈등을 예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훈련병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훈련소 교관 및 조교요원 등 훈련소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4장 군 훈련소 훈련병 인권상황 개선방안

### 1. 군 훈련소 시설 및 생활환경 개선

#### 가. 생활관

2005년 000GP 총기난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국방부 병영문화개선대책에 따라 병사들의 생활관이 침상형에서 침대형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군 신병훈련소 생활관은 침대형이 41.2%, 침상형이 58.8% 수준으로 여전히 침상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1)</sup>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한꺼번에 모든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 그런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생활관을 현장 확인했을 때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10-10, 2021.07.30.)<sup>22)</sup> ‘생활관 설계지침’에 따르면 병사들의 생활실은 침대, 관물함, 공용탁자 및 의자, TV 설치대, 총기함, 신발장 등 비품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해야 하는데, 현실은 기존 건물에서 침상을 제거하고 2층 침대를 설치하다 보니 침대 크기로 인해 1인당 생활공간이 턱없이 좁아지고, 천장 높이가 낮아서 2층 침대에서 생활하는 훈련병들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는 상태였다.<sup>23)</sup> 벽걸이 에어컨이 한쪽 벽면에 설치되어 있으나 2층 침대로 인해 공기순환이 방해를 받아 누구는 춥다고 하고 누구는 덥다고 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조하려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서 내부공간을 확장한 다음에 침대형으로 개조하도록 생활관 개선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21) 일부 부대를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전군의 실제 개선 수준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2) 국방부 군 시설사업 관리 훈령 제52조(시설기준 적용범위)에 따라 마련된 기준이다.

23) 임시방편으로 침대봉 길이를 줄여서 높이를 낮추는 부대도 있다.

## 나. 화장실

2005년 육군훈련소에서 노후된 화장실 배관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중대장에 의한 인분사건이 발생하면서 전 군 신병훈련소 화장실이 개선되었으나, 이후 15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면서 또다시 노후화된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육군훈련소 격리병사들의 생활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육군이 긴급하게 컨테이너로 된 화장실 몇 개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은 못 되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관 시설에서 화장실이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 이유는 인원수 대비 화장실 대변기 개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잦은 고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숫자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방·군사시설 기준(DMFC 3-10-10, 2021.07.30.) ‘건축 바닥면적 기준’을 보면 <표-8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6명당 대변기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훈련병들은 기상 후 짧은 시간에 용변을 해결해야 하므로 동시에 많은 인원이 화장실에 몰리게 되는데, 현재 기준에 맞춰 6명당 1개를 설치하면 병사 1인당 5분씩 용변을 보더라도 30분이 소요된다. 따라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이 발생하게 된다.

<표-87> 대·소변기 설치 기준

시설구분		구분	대변기 1개당 수용인원	소변기1개당 수용인원	비고
주거시설	일반부대	병사	7	16	-
	교육부대	남	6	9	-
		여	3	-	-
행정시설		남	18	18	
		여	4	-	
교육시설		남	144	48	변기 최소 2개 설치
		여	31	-	

오늘날 군대에 입대하는 훈련병들은 비교적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다가 입대하는데 자신의 생체리듬에 맞춰 용변을 보지 못한다든지, 1~2분 만에 용변을 보라는 것은 병영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병훈련소의 경우 군대일과에 적응하지 못한 훈련병들의 생체리듬을 고려해서 대변기 숫자를 증가시키고 고장 난 대변기는 즉시 수리가 가능하도록 시설보수팀을 운영해야 한다.

#### 다. 급식

이번 실태조사 시 급식 분야에서 도출된 문제점의 하나는 급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설문조사와 서면조사에서 훈련병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급식량이 적어서 배가 고프다는 것이었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표-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가 병사 1인당 1일 주식(主食)<sup>24)</sup> 기준량을 수차례 줄여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2021년 국방부 급식운영 지침’에 따르면 훈련병은 훈련 강도를 고려하여 주식비를 10% 증가 운영하고 1인당 1,000원을 신병훈련 증식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급식비가 1인 1일 8,790원인 가운데 주식비는 710원에 불과하므로 10%를 증액하다고 하더라도 71원밖에 되지 않는다.<sup>25)</sup> 육체적으로 힘든 훈련을 하는 훈련병들에게 끼니당 100g의 쌀을 급식한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할 수 있다.<sup>26)</sup>

<표-88> 병사 1인당 1일 주식 기준량 변화 추이

연도	2017년	2021년
주식 기준량	400g → 360g	<b>360g → 300g</b>

24) 백미를 기본으로 하되 흑미, 찹쌀, 현미, 검은콩, 보리쌀, 밀쌀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 국방부, 「2021년도 급식운영지침」

25) 1인 1일 급식비는 8,790원인데 그중에서 주식비는 710원, 부식비는 6,939원, 후식비는 1,141원이다. 국방부, 「2021년도 급식운영지침」

26) 백미 100g으로 밥을 지으면 200g 내외가 되는데 이것은 시중에서 많이 판매되는 햇반 1개 정도의 양이 된다.



따라서 훈련병들에 대한 주식 기준량은 증가시켜야 한다. 자대에서 생활하는 기간병들은 일과시간을 전후하여 영내매점에서 선호하는 음식물을 자유롭게 구매해서 취식할 수 있으므로 부대 급식량을 줄여도 되지만, 영내매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훈련병들에게는 부대급식이라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신병훈련소 급식과 관련된 또 다른 개선 요구는 음식의 맛이 없으므로 맛좋은 음식을 제공해달라는 것인데, 각 군 신병훈련소뿐만 아니라 일반 야전부대에서도 군대 급식이 맛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군대 급식을 마련하는 조리병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취사를 하는 군대급식의 특성을 고려해서 대대급 이상 부대에는 민간인 조리사들이 배치되어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대 조리병들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인데, 조리병들의 전문성이 낮은 이유는 요리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조리병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병무청에서 병역 판정 시 적성분류 우선순위에는 ‘요리’가 전체 12개 분야 중 3순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리’ 특기병의 경우 2003년 이후 거의 매년 부족한 상태로 총원되고 있다. 2019년도 육군 징집병의 적성별 소요 대비 총원율을 보면 조리병은 54.6%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며, 모집병의 경우에도 총원율이 90% 미만으로 나타나는데,<sup>27)</sup> 이와 같은 현상은 군에서 조리병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함에 따라 비선호 특기로 인식하여 입대 장정들이 지원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조리병들의 부족한 곧 각급부대 급식의 질과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조리병 총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대 시기 선택권·조리사 자격증 수당 지급·휴가일수 확대·전역시 중소기업 취업 추천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7) 2019년 육군 조리병의 경우 1,653명이 입대키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1,425명만 입대함에 따라 86.2%의 총원율을 나타내었다. 병무청, 『모집자원 획득 효율적 수행방안』(대전: 병무청, 2020), p.84.

## 라. 일용품

훈련병들이 훈련소 입소기간 중 지급받는 일용품 중에서 두루마리 화장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실제 소비량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두루마리 화장지 개인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해군의 경우 병사들의 피복류 지급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육군과 공군은 신병훈련소에서 얼룩무늬 전투복을 개인피복으로 지급받아서 훈련복으로 사용하다가, 수료 후 소속대에서도 계속 착용하므로 신병훈련 기간 중에도 군복(훈련복) 상태가 양호하다. 그런데 해군의 경우에는 해상전투복만 개인피복으로 지급하고 훈련복으로 착용할 얼룩무늬 전투복은 부대피복으로 운영함에 따라, 앞기수 훈련병들이 사용했던 것을 뒷기수 훈련병들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관리상태도 일부 부실하여 곰팡이가 피고 세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위생적이지 못한 상태로 인수인계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고려했을 때 신병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에게 다른 훈련병들이 착용했던 피복류를 재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군 복무 후 전역하면 예비군 군복으로 계속 활용할 수도 있으므로 육·해·공군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모든 훈련병들에게 훈련복을 신품으로 지급해서 군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해군의 경우 신병훈련소 입소시 얼룩무늬 전투복을 개인피복으로 추가 지급해서 양호한 군복을 착용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병사들의 피복류 지급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훈련소에서 사용하는 수통 및 방탄헬멧 등 개인 장구류와 모포 등 침구류에 대한 관리기준을 재정립해서 이러한 품목들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침구류 및 군장류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sup>28)</sup>

---

28) 병사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포, 침낭 등 침구류와 수통 등 일부 장구류는 신병훈련소에서 개인별로 지급한 후 전역 시 군복무 기념품으로 가져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 2. 군 훈련소 의료지원체계 개선

### 가. 의료인력 확충

2020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군의관 2,381명, 간호장교 527명, 의무부사관 801명, 간호군무원 193명, 약사장교 14명, 방사선사 115명, 의무병 6,336명 등 총 11,015명의 의료인력이 군대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장병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sup>29)</sup>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기간 중 1차 의료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단신병교육대 의무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군의관 2명, 의무부사관 1-2명, 간호장교 1명, 의무병 6명 등 10-11명의 의료인력이 신병교육대 기간장병 200여 명과 훈련병 700여 명 등 총 9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sup>30)</sup> 사단신병교육대의 특성상 근육통과 타박상, 복통과 허리통증 등 다양한 부상과 질병 환자가 하루 평균 50-60명씩 발생하고 있으나, 응급환자가 아니면 대부분 일과시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진료를 요청하므로 2명의 군의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훈련병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수밖에 없는 실태였다.

군대 1차 의료기관의 진료여건을 개선하려면 우선 군의관 정원수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일부 대대급부대에는 군의관이 미보직될 정도로 군의관에 대한 수요대비 총원율이 낮은 이유는 군의관의 정원수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족한 정원수는 군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군사법원이 축소되면서 발생하는 법무관 정원 감축분을 활용하면 된다. 군의관 정원을 확대하면 총원 가능한 의사 면허증 소지자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중보건의 배정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전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를 형평성 있게 수행하고, 군대 1차 의료기관들의 의료서

29) 국가인권위원회, 『2020 장병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군 의료체계 실태조사』, pp. 248-252.

30) 각 사단 신병교육대별로 기간 장병과 훈련병 인원수는 다를 수 있다.

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로 지정되는 인원수를 축소하고 군 의관을 확대 총원하면 될 것이다.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의료복지를 위한 공중보건의 총원문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의를 고용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에서 다수의 훈련병들이 1차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군의관의 불친절을 가장 많이 제기했던 이유는 특정시간대에 진료 희망인원들이 집중됨에 따라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차 의료기관에 복무하는 군의관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군의관으로서 의대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획득할 때까지 수년 동안 힘들게 수련하다가 군에 입대했으므로 환자 진료에 대한 의욕이 다소 저하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단기복무 군의관이 환자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처럼 연차별로 단계화해서 근무지를 배정하는 것보다, 1년 동안 환자들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다음 연도 근무지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군의관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훈련병들이 서면조사에서 제기했던 또 다른 문제는 군의관의 처방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증상이 다른 질병인데도 처방약은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군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형태와 색상이 유사하거나 모든 질병에 공통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로 인해 발생하는 오해일 수 있으므로 처방과정에서 군의관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주도록 군 의관 양성과정 교육에 반영해서 강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통적으로 투약하는 약제의 경우에는 색상과 형태(알약, 캡슐 등)를 다르게 구매해서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다. 인권교육 강화

군 의료인력들이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았던 횟수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1회(42.9%), 없다(20.0%), 2회(14.3%), 4회 이상(14.3%), 3회

(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인권교육은 민간인 강사(51.7%), 지휘관(34.5%), 교관(13.8)에 의해서 ‘설명 + 동영상’ (51.7%), ‘강의식’ (44.8%)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료인력들에게 진료과정(신청, 대기, 진료 등)에서 기간장병과 훈련병 간에 차이나 차별이 있었는가에 대해 물어 본 결과 <표-89>에서 보는 바와 같이 28.6%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89> 진료 과정에서 훈련병과 기간병 차이 여부 (단위: %)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35	<b>28.6</b>
육군	22	<b>13.6</b>	86.4
- 육군훈련소	8	<b>0.0</b>	100.0
- 사단신병교육대	14	<b>21.4</b>	78.6
해군	4	<b>0.0</b>	100.0
공군	5	<b>80.0</b>	20.0
해병대	4	<b>75.0</b>	25.0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질병이나 부상을 진료하는 군의료인력들의 인권의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실태조사에 참여한 의료인력 중 20%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것은 의료인력들의 인권의식 함양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구나 응답자의 28.6%가 진료과정에서 기간장병들과 훈련병들 간에 차이나 차별이 있었다고 응답한 것은 그만큼 군의료인력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현행 국방부 군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면 인권관련 업무종사자인 의무병과(군의, 치의, 간호, 의정)의 장교, 준·부사관 및 군무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각 군 법무실장 및 군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 가능)이 외부강사 및 군내 인권전문가를 초빙하여 1박 2일 이상의 집체교육 또는 당일 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전군 신병훈련소 의료인력을 소집해서 집체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교육기관의 장인 신병교육대장이 소속대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국방부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다음, 권역 내 최고상급자가 책임을 지고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라. 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국방 환자관리 훈령에 따르면 군부대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부대장(소속대 군의관)은 상급부대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환자 관련 조치를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전염성 환자는 침실·식당·세면장·화장실·목욕탕·이발소 및 매점 등을 따로 사용하도록 격리 수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각 군의 신병훈련소를 비롯한 사단신병교육대에 전염성 환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은 구비되어 있지 않다.

<표-9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대대급 병영생활관 설계지침을 보면 대대급 부대에는 전염병 환자를 격리 수용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다.

<표-90> 생활관 설계지침

구분	포 함 실
주거공간	생활실 등
행정공간	지휘관사무실, 개인/공용사무실, 비문합동보관소, 간부연구실, 주임원사실, 상담실 등
작전공간	지휘통제실(비합소, 무기고 포함 가능), 통신실 등
위생/편의공간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목욕탕, 여군휴게실, 간부 화장실, 군화세척실, 세탁실, 병사휴게실, 매점 등
의료공간	입원실, 진료실, 군의관실, 대기실, 약제실
저장/정비공간	일반창고, 공급실, 교보재실, 무기고 등

교육공간	도서실 등
복지공간	이발실, 세탁소, 피복정비실, 사이버지식정보방, 체력단련실, 노래방(필요시), 다목적 홀 등

육군훈련소처럼 대규모 훈련소에는 종교시설이나 실내체육관 등 일부 이용 가능한 공간이 있지만, 이마저도 많은 훈련병들이 동시에 입소하면 분산 수용이 어렵고 분산 수용하더라도 세면장·화장실 등 생활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단신병교육대처럼 소규모 훈련소에 많은 훈련병이 동시에 입소하면 입소 초기에 장기간 격리시킬 수 있는 별도 공간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

따라서 입소기수별로 생활관을 분리 운영하면서 입소기수별로 관리하고, 전염병이 대규모로 확산되기 시작하면 권역별로 격리수용시설을 마련해서 통합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 3. 훈련소 일상생활에서 훈련병 인권 보장

#### 가. 핸드폰 사용

훈련병들이 군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면 사회와 단절되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기 쉽다. 갑자기 주변 환경이 바뀌게 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입대 전 지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재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는 공통적으로 훈련병들의 핸드폰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 19로 인한 입소 초기 격리기간에는 가족들의 불안함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핸드폰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격리기간이 종료되고 정상적으로 신병훈련 일정이 시작되면 핸드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입대 전 SNS를 통해 소통해오던 훈련병들에게 군 훈련소 입대와 동시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제시되었던 외국군의 사례와 한국군 간부후보생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군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 7개국 중에서 미국만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독일은 전면 허용하고 있었고, 일본·영국·프랑스는 교육훈련이 종료된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에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었다. 러시아는 핸드폰은 반입이 금지되고 있었으나, 통화만 가능한 버튼식 핸드폰은 입소 시 휴대해서 휴일에 지휘관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간부후보생들의 경우에는 <표-9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sup>31)</sup>은 전면 통제하고 있으나, 학사장교 후보생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주말에는 일정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부사관 후보생의 경우에는 평일에는 전면 통제되지만 주말에는 일정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군종장교·법무장교 후보생들은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휴일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

<표-91> 간부 양성과정별 핸드폰 사용 허용 여부

구분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	학사장교 후보생	군종·법무장교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허용여부	전면 통제	평일 일과시간 이후, 주말에는 허용	평일 일과시간 이후, 주말에는 허용	평일에는 통제, 주말에는 허용

외국군 신병훈련소 사례와 우리나라 간부후보생들의 사례를 참고했을 때 각 군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훈련병들에게도 휴일에는 핸드폰을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신병훈련의 특성상 평일에는 교육훈련 종료 이후에도 수료 후 자대생활에

31) 정식으로 사관생도가 되기 전에 5주간 화랑기초훈련을 받는다.



필요한 보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군사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미인식된 상태이므로 평일 일과시간 이후까지 허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주말과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핸드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훈련병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허용할 경우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된 보안교육을 반드시 선행해서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나. TV 시청

실태조사를 통해 훈련병들의 TV 시청 여부를 파악한 결과 각 군별로, 각 부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외국군의 사례를 봤을 때 미국은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이스라엘·독일·일본·영국은 일과시간 이후 시청이 가능하고, 러시아는 평일에는 시청이 금지되지만 공휴일에는 지휘관이 채널을 선택해서 애국심과 교양을 함양시키는 프로그램 위주로 시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표-9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간부후보생들에게 공통적으로 TV시청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sup>32)</sup> 반면에 신병훈련소에서는 부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TV 시청을 전면 통제하는 부대, 주말에만 시청토록 허용하는 부대, 평일에도 포상 차원에서 허용하는 부대 등 부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함에 따라 각 군 훈련병들 간에 차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92> 간부 양성과정별 TV 시청 허용 여부

구분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	학사장교 후보생	군종·법무장교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허용여부	전면 통제	전면 통제	전면 통제	전면 통제

32) 공통적으로 생활관에 TV가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관생도들의 경우에는 가입교 기간중에만 통제되고, 입학 후에는 TV 시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의 범위도 지휘관과 훈련병을 통제하는 사람에 따라 교육용 프로그램만 시청 가능한 부대, 뉴스 프로그램도 시청 가능한 부대, 상업영화와 일반오락 프로그램까지 시청 가능한 부대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전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TV 시청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33)</sup>

만약 훈련병들에게 주말과 공휴일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외부와의 소통, 외부 정보에의 접근 욕구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해소할 수 있으므로, TV 시청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다. 흡연

현재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학사장교 후보생·부사관 후보생·군종장교 및 법무장교 후보생 등 모든 간부후보생들은 <표-9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통적으로 흡연을 통제받고 있다.

<표-93> 간부 양성과정별 흡연 통제 여부

구분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	학사장교 후보생	군종·법무장교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허용여부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외국군의 경우 미국은 전면 통제하고 있으나 독일은 허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일본·러시아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지금은 허용하고 있으나, 2022년 1월부터 모든 국방부 건물에서 흡연을 금지할 계획이다.

33) 육군규정120 ‘국방 IP TV 운영·관리’에 따르면 제공서비스에는 상용 IPTV 서비스프로그램과 국군방송, 국방 CUG(담당부서 제공) 등이 있다. 따라서 육군규정에 의하면 일반 방송프로그램도 시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병훈련소와<sup>34)</sup> 간부양성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군인화 과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군인이 전장에서 작전활동을 할 때 흡연을 하게 되면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담뱃불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식별될 수 있으며, 담배 냄새는 매복중인 아군의 위치를 노출시키거나 침투 중인 아군의 활동을 노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각급 부대에서는 경계근무를 나가는 군인들이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는 것조차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부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따르면 장병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군 교육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장병들에게 직접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시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훈련병 1,342명 중에서도 흡연 금지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6%, 굳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4.2%, 흡연할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17.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2.7%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두고 볼 때 신병훈련소에서 흡연권을 전면 보장하게 되면 형연권과 총돌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2009년 군에서 면세 담배를 없앨 때 명분이었던 장병들의 건강권 보장과도 총돌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흡연권을 전면 통제하면 육군 신병교육지침과 총돌이 발생하고, 흡연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형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례와도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 명시된 ‘군 자녀 기숙사에 해당하는 시설’의 흡연실 기준을 참고하여 신병훈련소 건물 옥상에 흡연실을 설치하거나, 각 시설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이격된 위치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권을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sup>35)</sup>

34) 육군 신병교육지침서에 장성급 지휘관 판단아래 흡연 가능시간과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일부 육군 사단신병교육대에서는 흡연을 허용하고 있다.

35) 설문조사에서 훈련병들이 교관 및 조교들의 흡연으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 라. 영내 매점

현재 육군 훈련병들은 신병훈련소 입소기간 중에도 영내 매점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해군·공군·해병대 훈련병들은 사용할 수 없다. 간부후보생들의 경우에는 <표-9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주간 화랑기초훈련을 받는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들은 영내 매점을 사용할 수 없지만, 학사장교 후보생·부사관 후보생은 입교 5주차부터 평일 일과시간 이후와 주말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군종장교·법무장교 후보생은 입소 첫 주부터 일과시간 이후와 주말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표-94> 간부 양성과정별 영내 매점 이용 허용 여부

구분	육군사관학교 가입교생	학사장교 후보생	군종·법무장교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허용 여부	이용 불가	5주차부터 평일 일과시간 이후, 주말에 이용 가능	일과시간이후 이용 가능	5주차부터 평일 일과시간 이후, 주말에 이용 가능

이처럼 육군 신병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에게도 영내 매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해군·공군·해병대가 계속해서 금지하는 것은 각 군별 차별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훈련병들에게 영내 매점 이용을 허용하면 군 급식 대신 영내 매점에서 판매하는 각종 음식물을 취식함으로써 따르는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지만, 한편으로는 바깥사회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고립감을 해소시킬 수 있고, 세면용품 등 개인의 기호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추가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이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해군·공군·해병대는 국방·군사시설 기준에 명시된 ‘시설 종류 및 적용기준’<sup>36)</sup>을 반영해서 신병훈련소 내에 매점을 설치하고 훈

36) 2021년 7월 30일 개정된 국방부 「국방 군사시설기준」 ‘건축 바닥 면적기준’ 제5장 시설

련병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방부는 각 군 신병 훈련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당 이용 가능 횟수, 1회 사용시간, 이용 방법, 구입 가능한 품목<sup>37)</sup>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어야 한다.

#### 4. 군 훈련소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선

##### 가. 인권교육을 독립과목으로 반영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입소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훈련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는 <표-9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7.3%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95> 신병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교육 횟수 (단위:%)

	사례 수	전혀 안받음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이상
전체	1,345	27.3	17.5	13.8	12.0	29.4
육군	847	23.7	22.6	15.3	10.7	27.6
-육군훈련소	299	35.8	30.8	12.4	4.0	17.1
-사단신병교육대	548	17.2	18.1	17.0	14.4	33.4
해군	149	15.4	24.8	31.5	20.1	8.1
공군	149	96.0 <sup>38)</sup>	3.4	.7	.0	.0
해병대	200	0.0	1.0	4.0	20.0	75.0

이처럼 훈련소별로 교육횟수가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부대에 따라 인권

종류 및 적용기준에 따르면 독립중대급 이상 부대에 매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관 설계지침' 제2장 건축계획에 따르면 매점은 대대급이상 부대에 1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독립중대에 계획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7) 일부 부대에서는 훈련병들이 자해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여 유리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구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38) 공군의 경우 인권교육 일자가 설문조사 일자보다 늦게 편성되어 있어서 96%가 교육을 안 받았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교육을 군법교육 시간과 지휘관 시간에 포함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육군의 경우 주간훈련예정표에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입소기간 중 1회 2시간씩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병대와 공군은 독립과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군법무관이 진행하는 군법교육에 포함해서 1-2시간씩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모든 신병훈련소에서 독립과목으로 편성해서 최소한 2시간 이상 전문교관에 의해 교육이 진행되도록 신병 교육과목과 시간 편성을 조정해야 한다.<sup>39)</sup>

## 나. 인권교관의 전문성 제고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신병훈련소에서의 인권교육은 주로 지휘관(36.8%)이나 자대 인권교관(42.5%)에 의해 강의식(48.5%)이나 설명+동영상(42.5%)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군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면 인권교관은 ①<표-96>에서 보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자체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의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에 참가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②군법무관 중 인권관련 업무 유경험자, ③그 밖에 임명권자가 인권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선발하여 각 군 참모총장, 또는 부대장 및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임명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분석해 봤을 때 자체 연수과정을 통해 인권교관으로서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정도로 양성교육 기간이 짧고 교육내용은 광범위하다. 더욱이 지휘관들은 대부분 이런 양성교육조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장병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군대 인권교관 양성과정을 대폭 개선해서 교관들의 전문성을 함양시킨 다음에 활용해야 한다. 지휘관들은 부임 전 보수교육 과정에 인권과목을

---

39) 인권교육은 현재에도 국방부 통제과목으로는 선정되어 있다.

정규과목으로 편성해서 인권의식을 향상시킨 다음에 보직을 부여해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표-96> 인권교관 교육과정

구분	양성과정	심화과정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개념과 역사 이해</li> <li>· 인권 보장의 필요성 및 범위 이해</li> <li>· 인권침해 사례와 방지대책</li> <li>· 인권침해 시 구제절차 이해</li> <li>· 인권관계 법 규정 체계 이해</li> <li>· 인권정책 이해</li> <li>· 전시인도법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성과정 교육내용 심화</li> <li>· 전문교관으로서 교수기법 배양</li> <li>· 인권교육 연구능력 향상</li> <li>· 각 군 인권의 특성 이해</li> <li>· 각 군 특성에 맞는 인권개선 및 보호 방안</li> <li>· 각 군 인권관련 지침 및 정책 이해</li> </ul>
교육기간	1일 이상 집체교육	1일 이상 또는 당일

그리고 각 군 신병훈련소처럼 많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권관련 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군법무관을 활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전문강사<sup>40)</sup>를 지원받아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양성평등전문상담관 등 군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해서 인권침해 및 차별 피해를 당한 장병들에게 상담과 구제제도 소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높여줘야 한다.

40) 군법무관, 인권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예비역 군간부 및 병사중에서 선발해서 국가인권위원회 주관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군대인권 전문강사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 5. 군 훈련소 인권침해 피해 구제제도 개선

### 가. 마음의 편지(소원수리제도 포함)<sup>41)</sup> 제도 개선

마음의 편지(소원수리제도 포함)는 훈련병들이 훈련소 입소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며, 훈련소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 사이의 훌륭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군 신병훈련소에서도 훈련병들로부터 주기적으로 마음의 편지를 접수하고,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실태조사 결과 훈련소 운영요원들은 수시로(56.2%), 또는 주 1회(32.6%) 마음의 편지를 접수하였다고 하지만, 각 군 훈련병 1,336명중에서 실제로 마음의 편지를 제출해 본 경험이 있다는 훈련병은 4.3%에 불과하였으며, 소원수리를 제출해 본 훈련병도 0.8% 수준에 불과하였다.<sup>42)</sup> 훈련소 운영요원들은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 조치 결과를 개별(41.0%), 또는 방송(34.5%)을 통해 통보했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소 측으로부터 조치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훈련병은 각각 74.2%, 50.0% 수준이었으며, 조치 결과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78.2%와 68.8% 수준이었다. 그리고 훈련소 운영요원을 대상으로 훈련병의 소원수리로 인해 자신이나 동료가 개인 신상에 피해를 받았거나 받는 것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냐고 질문한 결과 응답자 364명 중에서 33.5%가 직·간접적으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훈련병들이 부당하게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고, 훈련소 생활여건과 훈련기간 중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마음의

41) 마음의 편지는 지휘계통으로 접수하고 소원수리는 상급부대 참모계통으로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별하지 않고 같은 개념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42) 설문조사 시기와 소원수리 접수 시기가 달라서 응답률이 낮게 나왔을 수도 있다.



편지와 소원수리 제도가 실제로는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거나 훈련소 생활환경을 개선해주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훈련병과 훈련소 운영요원들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현재와 같은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신병교육기간중 정해진 일정<sup>43)</sup>에 따라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동시에 접수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시켜 지속적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며,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 조치 결과 통보시기를 앞당기고, 통보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훈련병들이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 제도의 유용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 기수 훈련병 입소 시 앞서 수료한 기수들이 제기한 소원수리와 마음의 편지 조치 결과를 소개해주는 것도 훈련병들에게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 제도에 대한 유용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소원수리와 마음의 편지 조치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개인에게 직접 알릴 내용과 전체 훈련병을 대상으로 알릴 내용으로 구분해서 개인에게 직접 알릴 내용은 개별적으로 통보하되, 전체 훈련병들에게 알릴 내용은 점호시간에 당직근무자들이 직접 설명해줌으로써 훈련병들이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 알리는 방법과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은 훈련병들이 병영일과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방송에 집중하거나 게시판을 확인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훈련병들이 제출하는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제도로 인해 자신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줄 필요도 있다. 훈련병들이 훈련소 운영요원과 관련된 내용을 제기하면 무조건 책임을 추궁하기 보다는 가칭 ‘마음의 편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운영요원들에게 명백한

---

43) 주로 신병훈련 수료 1-2주를 앞두고 마음의 편지와 소원수리를 접수하고 있다.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추궁하도록 해야 한다. 마음의 편지와 소원 수리 제도를 통해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 나. 구제제도/기관/기구 홍보 강화

훈련병들이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침해나 차별 피해를 당하면 신속히 구제해서 훈련병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렇려면 훈련병들이 구제제도와 관련된 기관 및 기구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인지도를 조사해 본 결과 마음의 편지(93%)와 국방헬프콜(86.5%)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으나, 병영생활전문상담관(66.4%),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59.6%), 인권상담관(52.1%)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았다. 이처럼 국방부와 각 군에서 운영하는 인권센터와 상담관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은 것은 이러한 제도와 기구를 주로 국방부 및 각 군 본부, 신병훈련소 홈페이지 등에 집중 홍보하고 있으나 훈련병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훈련병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방부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라 신병훈련소 입소기간 중 1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훈련병들에게 교육해야 할 내용이 <표-9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 다양하므로 짧은 시간에 구제제도와 기구들까지 자세히 소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 <표-97> 인권교육 내용

-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방법
- 인권정책 및 규정의 이해
- 교전 시 인권보호의무
- 성적 소수자 인권보호

그러므로 신병훈련소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으로 증가시켜 편성하고, 구제제도에 대한 소개교육은 군법시간과 지휘관시간에도 포함해서 반복교육이 이뤄지도록 각 군의 신병훈련지침이 수정되어야 한다.

## 6. 군 훈련소 상담체계 개선

### 가. 상담 절차 개선

훈련병들이 훈련소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는 절차는 <표-9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휘계통을 통해 인트라넷으로 신청하거나, 화장실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를 이용해서 훈련병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나, 주로 부대에서 판단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98> 훈련병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상담하는 경로 (단위: 건)

구분	훈련병이 직접 상담관에게 전화로 신청한 경우	훈련병이 지휘계통(소대장 등)을 거쳐 신청한 경우	부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경우
육군훈련소	0.0	40.0	60.0
사단신병교육대	2.9	14.3	82.9
해군	0.0	11.8	88.2
공군	14.3	14.3	71.4
해병대	0.0	0.0	100.0

훈련병들이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인권침해 피해를 당했거나, 질병·복무부적응 등으로 인한 고민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의 상담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부대간부들이 인성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1차 상담을 실시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훈련병을 선정해

서 2차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훈련병 1,345명 중에서 57.7%가 훈련소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담을 해 본 경험이 5.3%에 불과하다는 것은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병훈련소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일부 훈련소에서는 화장실에 빨간색의 ‘생명의 전화’를 설치해서 훈련병들이 긴급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전화기가 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훈련병들이 활용하는 데 망설여지도록 만들고 있다. 전화기 설치 위치를 다른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신병훈련소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57.7% 수준이므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존재와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세부 업무 중 하나가 ‘장병 기본권 보장 관련 갈등관리 및 지휘조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훈련병들이 입소기간 중 인권침해나 차별피해를 당하면 상담과 더불어 구제제도를 소개해야 하는데, 훈련병들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활동의 미비라고 볼 수 있으므로, 훈련소 입소 초기 대기기간을 활용해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 대한 소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나. 상담관 인권교육 강화**

국방부 군 인권업무 훈령에 따르면 병영생활전문상담관도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60%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으며, 26.7%는 1회, 13.3%는 2회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표-99>에서 제시된 지원자격을 갖춘 사람들중에서 국방부가 선발해서 2박 3일간 <표-100>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프로그

<표-99>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원자격

<p>· 아래 자격증 중 하나와 학력·경력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 자격증 + 학력/경력 ⇒ 동시 충족해야 함</p>	
구 분	내 용
자격증	<p>① 민간자격 중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 임상심리전문가(한국임상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군상담수련전문가/군상담심리사 1·2·3급(대한군상담학회), 한상담수련전문가/한상담전문가 1·2급(한상담학회), 가족상담전문가 수련감독전문가/가족 상담전문가 1·2급(한국가족문화상담협회), 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지도감독/사티어가족상담전문가 1급(한국사티어변형체계치료학회)</p> <p>② 국가자격증          - 임상심리사/직업상담사(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정신보건사회복지사(보건복지부), 전문상담교사(교육부), 청소년상담사(여성가족부)</p>
학력 / 경력	<p>▪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p> <p>①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p> <p>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p> <p>③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p>
<p>※ 상담 관련 전문 자격증 우대(상담심리, 임상심리)</p>	
<p>· 10년 이상 군 경력자(군종병과 장교 1년 이상)는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응시 가능</p>	
<p>①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단, 자격증은 위의 자격증과 동일)</p> <p>②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p>	

램으로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각 부대로 배치하고 있다. 신병훈련소 병영생활전문상담관들은 도움 및 배려병사<sup>44)</sup>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훈련병들과 상담하고 구제제도를 소개해야 하는데, 배치 전 소집교육시 인권관련 교육은 인권지킴이 활용방법을 1시간동안 소개받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이나 연수과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10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전 교육 프로그램

일 시		교 육 내 용	비 고
1일차	13:30~14:00	·등록/교육과정 소개/행정처리	국방부 담당자
	14:00~18:00	·자살 예방교육	공군 자살예방교관
	18:00~18:50	석식	
2일차	07:30~08:30	조식	
	09:00~11:00	·성폭력 예방교육	성고충상담관
	11:00~12:00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실무교육	육군 담당자
	12:00~13:00	중식	
	13:00~17:00	·상담관 임무수행 체계	KIDA 000박사
	17:40~18:50	석식	
	19:00~20:30	소통의 시간	육군 생명존중문화과장
3일차	07:30~08:30	조식	
	09:00~10:30	·신 인성검사2.0 이해와 활용	KIDA 연구원
	10:30~12:00	·신 인성검사2.0 시스템 실습	KIDA 연구원
	12:00~13:00	중식	
	13:00~14:00	·군 인권지킴이 활용	국방전산원 담당자
	14:00~15:00	·계약 체결 및 부대 안내	각 군 담당자

44) 신병훈련소에서도 도움 및 배려병사를 선정하여 상담, 정신과진료, 1:1 밀착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7. 법령 및 제도 개선

### 가. 군대 인권 개념 재정립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제37조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10조에서도 군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권리가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군인들도 일반 국민들과 같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동일하게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어서 바로 제한사항을 둔 것은 군대조직의 특수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sup>45)</sup>

2000년대 이후 군대에 인권개념이 도입되면서 장병들의 인권보장 수준이 많이 향상된 것은 선진 병영문화 조성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군대에서 장병들이 인권보장을 요구하며 군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에 소홀히 하거나, 훈련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줄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에서 나타난 것처럼 상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는 것은 헌법과 군인복무기본법에 명시된 권리 보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군대에 갓 입대한 훈련병들부터 군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심어줘야 한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적과 싸웠을 때 반드시 이겨야

---

45) 세계인권선언문에서도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여 권리와 의무가 공존함을 밝히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므로 평상시 훈련과 체력단련을 통해 강한 전투력을 키워야 한다. 힘들어서 하기 싫어도 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하고, 먹기 싫어도 일정한 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먹어야 하며, 잠을 자기 싫어도 일정시간 동안 잠을 자야 가장 소중한 생명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차별과 다름이 무엇인지도 인식시켜서 전우들 간에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군대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줘야 한다.

#### **나. 훈련병 인권 관련 법령 보완**

군 건강증진업무 훈령에서는 훈련소 지휘관으로 하여금 직·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연 1회 이상 금연교육 및 금연캠페인을 개최하며,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장병 등의 금연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에 육군 신병훈련지침에서는 장성급 지휘관이 흡연 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휘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는 법령과 제도들은 조정해서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군 인권업무 훈령에는 인권관련 업무수행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하루 만에 인권관련 전 분야를 소개한다는 것은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더구나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지휘관들의 경우 인권 관련 전문교육을 아예 받지도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군 인권업무 훈령을 개정하여 인권관련 업무수행자들은 최소한 2박 3일 이상 집체교육을 받도록 교육 일정을 확대하고, 교육내용에도 구제제도에 대한 소개시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침대형 생활관으로 개선하면서 좁아진 1인 활동공간을 넓혀주고, 신병 훈련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도록 국방·군사시설 바



탁면적 기준과 생활관 설계 기준 등 국방부의 병영시설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국방부의 2021년 급식운영지침을 보면 장병 1일 영양소 섭취 목표는 3,000kcal이며 1일 주식 기준량은 300g이다. 훈련병들의 경우 영내 매장 사용도 제한되므로 1일 주식 기준량을 일정부분 증가시키도록 관련규정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표-10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군별, 부대별로 메뉴가 다양한데 전 군 장병들의 1일 메뉴를 단일화한다면 음식재료 조달의 용이성, 조리병 보수교육의 효율성, 급식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주둔지역 특산물 판매와 영세업체 지원을 위해 군단 단위로 메뉴를 편성하는 것도 일부 타당성이 있으나, 급식의 기본 틀은 전 군 차원에서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다.

<표-101> 2021년 8월 1일 훈련소별 식단

구분	육군 6군단 훈련소	해군 훈련소	공군 훈련소
조식	쇠고기 미역국 생선묵 맛살조림 스크램블 에그 배추김치	물만두완탕 계란옷입은 동그랑땡구이 고소한 콩자반조림 배추김치	쇠고기 야채덮밥 생선묵찌개 감자 매운조림 배추김치
중식	된장찌개 오리불고기 콩나물무침 배추김치	짬뽕 주먹떡갈비 오븐구이 식탁김 배추김치	버섯매운탕 돈육청경채볶음 계란찜 배추김치
석식	닭볶음탕 감자채볶음 조미김 고등어 순살조림 배추김치	돼지고기찌개 쇠고기 야채볶음 양파피클 배추김치	닭곰탕 마파두부 부추겉절이 조미김 배추김치
후/증식	우유, 수박	우유, 아이스망고바	우유, 이온음료, 자두

## 제5장 결 론

자유롭고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MZ세대들이 딱딱하고 다소 억압적인 군 훈련소에 입소하면 모든 것이 어색하고 불편한 가운데 사회로부터의 고립감과 단절감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놓일 수 있다. 그리고 훈련병들은 징병제로 인해 입대하였으므로 군복무에 대한 의욕조차 크게 높지 않은 상태이다. 반면에 군 훈련소 운영요원들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사명감이 있으므로 훈련병이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입장 때문에 군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각 군 훈련소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사전에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 훈련소 훈련병들도 대부분 본인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은 경우는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구타 및 가혹행위와 성폭력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었던 행복추구권 등 자유권은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대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화장실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되었고, 급식량이 부족해서 배가 고프거나 하면, 핸드폰 사용 통제·흡연 통제·영내 매점 이용 통제·TV 시청 통제 등 입대 전까지 자유롭게 누리던 많은 것들이 훈련병이라는 이유로 제한받음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며, 사회로부터의 정보유입이 단절되어 고립감이 심화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훈련받다가 다치거나 몸이 아파서 1차 의료기관에 가면 군의관 등 군의

료인력들이 불친절하게 진료하는 경우가 있었고, 훈련소 운영요원이나 다른 훈련병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구제기관이 어디인지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 군 내부적으로 인권관련 업무수행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인권교육의 효과성도 높지 않았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은 있으나 훈련병들의 자발적인 이용도는 높지 않았고 부대계획에 따라 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금년 초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했던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과도한 조치로 인해 훈련병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국방부 나름대로 개선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소요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일회성 단기처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하다. 생활관과 화장실 등 병영시설이 현재 우리 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기준을 개정하고, 신병 훈련소 입소기간 중에는 입대전보다 활동량이 증가하면서 식사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1일 주식 기준량을 증가시키도록 국방부 급식운영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훈련병과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들(군 의료인력,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지휘관)에 대한 인권교육 시간과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군 인권업무 훈령도 개정해야 한다.

훈련소 입소기간 중 일상생활에서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 등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말과 공휴일에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전 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TV 시청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해군·공군·해병대도 훈련병들에게 영내 매점 이용을 허용하되, 흡연문제는 형연권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전 군 공통적으로 두루마리 화장지 보급기준을 증가시키고, 해군 병사 피복류 지급기준을 개선해서 훈련복을 추가로 보급해야 한다.

군복무중 인권침해 피해를 당하면 이용할 수 있는 구제기관/기구에 대한 소개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음의 편지 제도는 훈련병들의 인

권 보호에 기여하면서도 훈련소 운영요원들의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군 훈련소 훈련병들의 인권상황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훈련소가 민간인을 군인으로 탈바꿈시키는 곳이라는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형제자매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첫걸음을 내딛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하기 시작한 지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교체하지 못한 이유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라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실을 공개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훈련병들에게 해줄 것은 해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도록 국방정책 결정권자들의 사고의 전환이 요구된다.

# 부 록

1. 설문조사(폐쇄형 질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2.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부록 1.

# 설문조사(폐쇄형 질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 [훈련병]

안녕하십니까?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는 훈련병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여러분의 훈련소 생활 전반과 최근 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 응답자의 신상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귀하의 경험을 토대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훈련병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방 인권정책 발전에 활용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귀하의 소속 부대를 기입해 주십시오.					
번호	① 육군훈련소	② 육군 ( )사단 신병교육대	③ 해군 교육단	④ 공군 훈련단	⑤ 해병대 훈련단

## 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훈련소의 '생활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생활관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관의 형태는?	① 침대형                      ② 침상형
2)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낡고 불편하다
3) 1인당 생활면적에 대한 느낌은?	① 여유가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좁다
4) 냉난방 상태는?	① 쾌적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불편하다

**문2. 훈련소의 목욕 및 샤워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낡고 불편하다
2) 온수 공급은?	① 충분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하다
3) 사용 인원 에 비해 공간 면적은?	① 넓다                              ② 보통이다 ③ 좁다
4) 양치, 세면 여건은?	① 여유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좁고 붐빈다



**문3. 훈련소 식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③ 낡고 불편하다	② 보통이다
2) 사용 인원 에 비해 공간 면적은?	① 넓다 ③ 좁다	② 보통이다
3) 식사 시간은?	① 여유 있다 ③ 늘 쫓긴다	② 보통이다

**문4. 훈련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③ 낡고 불편하다	② 보통이다
2) 사용 인원 에 비해 화장실 수는?	① 충분하다 ③ 부족하다	② 보통이다
3) 화장실 이용시간은?	① 여유 있다 ③ 늘 쫓긴다	② 보통이다

**문5. 훈련소 시설 전반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각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지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생활관	①	②	③	④	⑤
2) 목욕/샤워 시설, 세면장	①	②	③	④	⑤
3) 화장실	①	②	③	④	⑤
4) 식당	①	②	③	④	⑤
5) 군매점(PX, BX 등)	①	②	③	④	⑤

훈련소에서 제공하는 '급식'과 '보급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훈련소에서 제공되는 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별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항목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맛	①	②	③	④	⑤
2) 양	①	②	③	④	⑤
3) 메뉴	①	②	③	④	⑤
4) 위생	①	②	③	④	⑤
5)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①	②	③	④	⑤
6) 자율적인 배식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가 부대에서 지급받는 일용품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지급되는 수량			품질		
	충분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1) 칫솔	①	②	③	①	②	③
2) 치약	①	②	③	①	②	③
3) 비누	①	②	③	①	②	③
4) 화장지	①	②	③	①	②	③

훈련소 생활 중 '휴식'과 '사생활 보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훈련소에서의 휴식 여건과 취침시간 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1)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2) 휴무일 휴식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3) 취침시간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습니까?	①	②	③

**문9. 군매점(PX, BX 등) 이용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용 시기·시간 등 편의성은?	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 시기와 시간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③ 원할 때 여유 있게 이용하기 어렵다
2) 구매 가능한 물품의 범위(종류, 수량)는?	① 물품이 다양하고 필요한 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은 다양하지만, 때때로 수량이 부족해서 구매할 수 없을 때가 있다 ③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되어 있고, 양도 부족하다

**문10. 귀하는 훈련소 입소기간 중 훈련병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유사시 흡연을 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흡연 제한은 적절하다
- 2) 단체 생활에 필요하다면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 3) 군이 흡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 4) 훈련병의 흡연할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문11. 귀하는 훈련소 입소 후 훈련소에서 개인의 신상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한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가끔 있었다
- 3) 별로 없었다
- 4) 전혀 없었다

**문12. 귀하는 훈련소에서 가족과 지인의 인터넷 편지를 전달받았을 때 편지 내용이 공개된 경험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가끔 있었다
- 3) 별로 없었다
- 4) 전혀 없었다

**문13. 귀하는 생활관의 개인사물함(관물대)이나 소지품에 대해 부당하게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가끔 있었다
- 3) 별로 없었다
- 4) 전혀 없었다

**문14. 훈련소 생활 중 개인이 구매한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15. 훈련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와의 통화 등 외부와의 소통에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중전화 이용과 관련해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문15-1. 공중전화는 언제 이용 가능하신가요?**

- 1)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2)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과 주말·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문15-2. 훈련소 입소기간 중 공중전화 이용횟수는 평균 어느 정도 되나요?**

- 1) 주 0~1회
- 2) 주 2~3회
- 3) 주 4~5회
- 4) 주 6회 이상

**문15-3. 1회 통화 가능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되나요?**

- 1) 3분 이내
- 2) 5분 이내
- 3) 10분 이내
- 4) 20분 이내
- 5) 20분 이상

**문15-4. 훈련소에 있는 공중전화 대수는 훈련병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1) 충분하다
- 2) 부족하다

**문15-5. 공중전화 이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문16. 귀하는 현재 훈련병들이 외부와 연락(소통)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충분히 갖춰져 있다
- 2)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 3) 별로 갖춰져 있지 않다
- 4)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17. 평일 일과 후나 주말과 공휴일에 생활관에서 TV를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은 어떠한가요?**

- 1)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 2) 시청은 가능하지만, 교육용 영상만 틀어주고 있어서 흥미가 없다
- 3) 일과 후나 주말·공휴일에도 TV를 보기가 어렵다
- 4) 평일에는 교육용 동영상을 틀어주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문18.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외부소식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생활관의 TV와 국방일보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 외부(사회)의 소식·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 이들 매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매체	군 외부 소식·정보 획득 수단으로서의 만족도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통	대체로 불만족	매우 불만족
1) TV	①	②	③	④	⑤
2) 국방일보	①	②	③	④	⑤

**문19. 귀하는 훈련소 입소 기간 중 일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문20. 귀하는 훈련소 입소 기간 중 군 외부(사회)의 소식·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충분히 갖춰져 있다
- 2)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 3) 별로 갖춰져 있지 않다
- 4)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21. 귀하는 훈련소에서 종교 활동의 자유(원하는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원치 않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적절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22. 현재 훈련병들의 두발 손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외부에서 이발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머리를 깎아 주고 있다
- 2) 부대에 이발병이 배치되어 수시로 머리를 깎아 주고 있다
- 3) 부대별로 이발기가 비치되어 있어 훈련병들끼리 깎아 주고 있다
- 4) 기타 ( )

**문23. 훈련병의 두발 손질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별로 불편하지 않다
- 2) 매우 불편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문24. 훈련병들의 두발(머리 길이와 형태) 상태는 간부나 일반 병사보다 짧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훈련병들의 두발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 2) 대체로 적절하다고 본다
- 3)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4) 매우 부적절하다
- 5) 잘 모르겠다

##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

훈련소 입소 기간 중 '인권 침해' 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 문25. 귀하는 훈련소 입소 후 다음과 같은 행위를 몇 차례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 용어 설명

- 가혹행위 : 비정상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 언어폭력(폭언) : 상대방의 입장과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추행/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행, 성매매 등은 모두 '성범죄'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 군기훈련 : 군기훈련이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의미한다.

인권 침해 유형	경험 횟수				
	해당 없음	5회 이하	10회 이하	20회 이하	그 이상
1) 구타	①	②	③	④	⑤
2) 가혹행위	①	②	③	④	⑤
3)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⑤
4)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5) 성추행/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6) 부당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	①	②	③	④	⑤



- ☞ 위 1)~6)까지의 침해행위 모두에 '해당 없음' 응답자는 문26으로 가시오.
- ☞ 어느 한 가지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문25-1~문25-5에 응답해 주세요.

**문25-1. (각각의 행위를 경험한 분들만 응답) 그렇다면 귀하에게 누가 그런 행위를 했나요?**

인권 침해 유형	가해자					
	지휘관 (자)	부대 간부	교관	조교	동료 훈련병	기타 ※ 괄호 안에 적어 주세요.
1) 구타	①	②	③	④	⑤	⑥ (            )
2) 가혹행위	①	②	③	④	⑤	⑥ (            )
3)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⑤	⑥ (            )
4)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⑥ (            )
5) 성추행/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⑥ (            )
6) 군기훈련(얼차려)	①	②	③	④	⑤	⑥ (            )

**문25-2. (각각의 행위를 경험한 분들만 응답) 이런 행위를 언제 경험하  
셨나요?**

인권 침해 유형	발생 시점	
	일과시간 내 훈련과정	일과시간 이후 (주말, 공휴일 포함)
1) 구타	①	②
2) 가혹행위	①	②
3) 언어폭력	①	②
4) 성희롱	①	②
5) 성추행/성폭력	①	②
6) 군기훈련(얼차려)	①	②



'인권 침해' 피해를 경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6. 현재 군 내외에는 장병들이 복무 중에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래 제도나 기관/기구들 중에서 들어본 적이 있거나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모두 표시해 주세요.**

구분	들어본 적이 있다/없다		이용해 본 적이 있다/없다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1) 마음의 편지(소원 수리)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2) 국방헬프콜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3) 국방부/육군/해군/공군/해병대 인권센터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5) 부대 인권상담관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6) 성고충전문상담관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7) 국가인권위원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8) 국민권익위원회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5) 군인권센터(시민단체)	① 있다	② 없다	① 있다	② 없다

**문27. 현재 군에서는 심리상담을 통해 장병들의 고충 해결을 돕는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신병훈련소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문28. 귀하는 훈련소 입소 기간 중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을 만나 상담해 보신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 문29로 가시오.)



문28-1. 상담관과의 상담은 어떤 경로로 이루어지게 되었나요?

- 1) 본인이 직접 전화로 요청해서
- 2) 본인이 소대장 등 간부에게 요청해서
- 3) 훈련소에서 지정해서

문28-2. 상담관과의 상담은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나요?

- 1) 크게 도움이 되었다
- 2)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29. 귀하는 훈련소 입소 기간 중 지휘관(자)에게 '마음의 편지'를 제출해 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30으로 가시오.)



문29-1. (제출한 적이 있다면) 조치결과를 통보받으셨나요?

- 1) 받았다
- 2) 못 받았다

문29-2. (조치결과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의 편지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30. 귀하는 훈련소 입소 기간 중 상급부대나 감찰부서에서 나와서 소원 수리를 받아 간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없다 (☞ 문31로 가시오)



문30-1. (받아간 적이 있다면) 소원 수리 조치결과를 통보받으셨나요?

- 1) 받았다
- 2) 못받았다

문30-2. (조치결과 통보 여부와 상관없이) 소원 수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셨나요?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31. 귀하는 병영 생활 중에 군인이 다른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구타, 폭언, 가혹행위, 성추행 및 성폭력 등)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보고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문32. 귀하는 위와 같은 일로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면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2조

- 1) 알고 있다
- 2) 모른다

군 의료 지원 및 코로나 19 예방 활동

문33. 귀하는 훈련소 입소 후 군대 1차 의료기관(의무대 등)에서 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34로 가시오)



■ 진료 요청 후 실제로 진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 1) 요청 당일
- 2) 요청 후 1일
- 3) 요청 후 2일
- 4) 요청 후 3일 이상

■ 1회 진료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 1) 2~3분 정도
- 2) 5분 내외
- 3) 10분 이상

■ 군대 1차 의료기관 진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1) 매우 만족한다(☞ 문34로)
- 2) 대체로 만족한다(☞ 문34로)
- 3) 보통이다(☞ 문34로)
-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군대 1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문34. 귀하는 군대 2차 의료기관(지구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아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35로 가시오)



■ 진료 요청 후 실제로 진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나요?

- 1) 요청 당일
- 2) 요청 후 1일
- 3) 요청 후 2일
- 4) 요청 후 3일 이상

■ 1회 진료 시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 1) 2~3분 정도
- 2) 5분 내외
- 3) 10분 이상

■ 군대 2차 의료기관 진료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 1) 매우 만족한다(☞ 문35로)
- 2) 대체로 만족한다(☞ 문35로)
- 3) 보통이다(☞ 문35로)
- 4)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 지구병원 등 군대 2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군 인권교육 및 전반적인 인권의식

㉞ 인권교육이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 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을 말합니다.

**문39. 귀하는 훈련소 입소 기간 중 인권교육을 총 몇 회나 받았습니까?**

- 1) 전혀 받은 적이 없다 (☞문40으로 이동)  
2) 총 1회      3) 총 2회      4) 총 3회      5) 총 4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9-1. 훈련소에서 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하였습니까?**

- 1) 지휘관  
2) 교관  
3) 군 법무관  
4) 민간인 전문강사

**문39-2. 훈련소에서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였습니까?**

- 1) 강의식  
2) 약간의 설명과 함께 동영상 시청  
3) 설명 없이 동영상만 시청

**문39-3. 훈련소에서의 인권교육이 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39-4. 인권교육의 여건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별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매우 미흡
1) 교육 시설(장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내용(교재, 콘텐츠)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3) 강사의 자질(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	①	②	③	④	⑤

**문40. 귀하는 “훈련병은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예: 휴대폰 사용, 흡연 허용 등)가 많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훈련병도 국민(시민)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2) 훈련병도 일반 장병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3) 훈련병은 엄격하게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이므로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 4) 잘 모르겠다

**문41. 귀하는 최근 훈련소에서의 코로나 19 예방과 관련된 격리조치 (양치·세면·샤워 제한, 화장실 이용 통제 등)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실제 문제보다 축소된 보도내용이고 현실은 더 심각하다
- 2) 현실이 잘 반영된 보도내용이다
- 3) 실제 문제보다는 다소 과장되었다
- 4) 실제 문제보다는 매우 과장되었다
- 5) 잘 모르겠다

**문42. 귀하는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 2) 대체로 보장되는 편이다
- 3)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문43. 입대 전에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때 훈련병들의 실제 인권상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다
- 2) 생각했던 그대로이다
- 3) 생각했던 것보다도 나쁘다
- 4) 잘 모르겠다.

**문44. 마지막으로,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분석결과

### 1. 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 (1) 훈련소의 생활 시설

<표 1-1> 생활관 형태

구분		사례 수	침대형	침상형
생활관 형태	전체	1,346	41.2	58.8
	육군	846	47.8	52.2
	- 육군훈련소	299	98.0	2.0
	- 사단신교대	548	20.4	79.6
	해군	150	98.7	1.3
	공군	149	.0	100
	해병대	200	1.0	99.0

○ 생활관 형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에서는 침상형이 더 많았고, 육군, 공군, 해병대는 침상형, 해군은 침대형이 가장 많음. 육군에서는 육군훈련소는 침대형, 사단신교대는 침상형이 더 많음.

<표 1-2> 생활관 인식

구분		사례 수	양호	보통	불편
시설 상태	전체	1,343	46.0	42.7	11.2
	육군	846	47.6	39.5	12.9
	-육군훈련소	298	50.0	42.6	7.4
	-사단신교대	548	46.4	37.8	15.9
	해군	149	39.6	44.3	16.1
	공군	149	44.3	53.0	2.7
	해병대	199	45.2	47.7	7.0
1인당 생활면적	전체	1,344	24.6	49.6	25.8
	육군	846	27.9	46.1	26.0
	-육군훈련소	297	32.7	52.5	14.8
	-사단신교대	549	25.3	42.6	32.1
	해군	150	26.7	57.3	16.0
	공군	149	10.1	56.4	33.6
	해병대	199	20.1	53.3	26.6
냉난방 상태	전체	1,338	67.0	27.6	5.5
	육군	841	64.2	29.7	6.1
	-육군훈련소	294	60.5	32.3	7.1
	-사단신교대	547	66.2	28.3	5.5
	해군	150	76.7	20.7	2.7
	공군	149	57.0	36.9	6.0
	해병대	198	78.8	16.7	4.5

○ 생활관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시설 형태에서는 공군에서는 보통, 그 외에는 양호가 더 많았음.

○ 1인당 생활면적에서는 모든 훈련소에서 보통이 가장 많았음.

○ 냉난방 상태에서는 모든 훈련소에서 양호가 가장 많았음.

<표 1-3> 훈련소 목욕/샤워 시설

구분		사례 수	양호	보통	불편
목욕/샤워 시설 상태	전체	1,345	45.7	41.6	12.6
	육군	847	46.6	40.1	13.2
	-육군훈련소	299	38.1	43.8	18.1
	-사단신교대	548	51.3	38.1	10.6
	해군	149	24.2	52.3	23.5
	공군	149	54.4	40.9	4.7
	해병대	200	51.5	40.5	8.0
온수 공급	전체	1,345	67.2	23.5	9.3
	육군	846	56.0	29.9	14.1
	-육군훈련소	298	31.9	44.0	24.2
	-사단신교대	548	69.2	22.3	8.6
	해군	150	74.0	23.3	2.7
	공군	149	91.3	8.1	.7
	해병대	200	91.5	8.0	.5
인원대비 공간	전체	1,343	20.7	51.2	28.0
	육군	844	25.8	53.6	20.6
	-육군훈련소	298	24.8	58.4	16.7
	-사단신교대	546	26.4	50.9	22.7
	해군	150	14.7	58.7	26.7
	공군	149	5.4	42.3	52.3
	해병대	200	15.0	42.5	42.5
양치/세면 여건	전체	1,339	45.8	41.5	12.7
	육군	844	50.5	38.6	10.9
	-육군훈련소	298	52.3	38.3	9.4
	-사단신교대	546	49.5	38.8	11.7
	해군	148	40.5	47.3	12.2
	공군	148	23.0	55.4	21.6
	해병대	199	46.7	39.2	14.1

○ 훈련소 목욕/샤워 시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목욕/샤워 시설 상태에서는 육군훈련소와 해군에서 보통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양호가 가장 많았음.

○ 온수 공급에서는 육군훈련소에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양호가 가장 많았음.

○ 인원대비공간에서는 공군에서만 불편이 가장 많았고, 해병대는 보통과 불편,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음.

○ 양치/세면 여건에서는 해군과 공군에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양호가 가장 많았음.

<표 1-4> 훈련소 식당

구분		사례 수	양호	보통	불편
식당 상태	전체	1,346	61.1	32.5	6.5
	육군	847	56.3	34.6	9.1
	-육군훈련소	299	60.2	34.8	5.0
	-사단신교대	548	54.2	34.5	11.3
	해군	150	93.3	6.7	.0
	공군	149	55.0	42.3	2.7
	해병대	200	61.5	35.5	3.0
인원대비 공간	전체	1,342	39.6	48.0	12.4
	육군	845	37.8	47.6	14.7
	-육군훈련소	298	44.0	48.7	7.4
	-사단신교대	547	34.4	47.0	18.6
	해군	149	65.8	32.9	1.3
	공군	149	26.2	57.7	16.1
	해병대	199	38.2	53.8	8.0
식사 시간	전체	1,342	58.5	35.6	5.9
	육군	845	63.3	30.5	6.2
	-육군훈련소	298	67.8	28.2	4.0
	-사단신교대	547	60.9	31.8	7.3
	해군	148	50.7	41.9	7.4
	공군	149	41.6	52.3	6.0
	해병대	200	56.5	40.0	3.5

○ 훈련소 식당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식당 상태에서는 모든 훈련소에서 양호가 가장 많았음

○ 인원 대비 공간에서는 해군에서만 양호가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음.

○ 식사 시간에서는 공군에서만 보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양호가 가장 많았음.

<표 1-5> 훈련소 화장실

구분		사례 수	양호	보통	불편
화장실 상태	전체	1,342	39.6	42.6	17.8
	육군	846	41.4	42.0	16.7
	-육군훈련소	297	24.6	43.4	32.0
	-사단신교대	549	50.5	41.2	8.4
	해군	148	14.2	48.6	37.2
	공군	149	59.7	36.9	3.4
	해병대	199	35.7	45.2	19.1
인원대비 화장실 수	전체	1,343	33.7	40.3	26.1
	육군	847	41.9	41.7	16.4
	-육군훈련소	298	38.3	41.9	19.8
	-사단신교대	549	43.9	41.5	14.6
	해군	148	10.1	33.1	56.8
	공군	149	26.8	40.3	32.9
	해병대	199	21.1	39.7	39.2
이용시간	전체	1,343	49.0	36.3	14.7
	육군	847	58.1	28.9	13.0
	-육군훈련소	298	69.5	28.2	2.3
	-사단신교대	549	51.9	29.3	18.8
	해군	148	21.6	50.7	27.7
	공군	149	23.5	58.4	18.1
	해병대	199	49.7	40.2	10.1

○ 훈련소 화장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화장실 상태에서는 해군에서 가장 좋지 않았으며, 공군에서 가장 양호가 많았음

○ 인원대비 화장실 수에서는 해군에서 불편이 가장 많았고, 육군에서 양호가 가장 많았음.

○ 이용시간에서는 해군, 공군에서 보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양호가 가장 많았음.



<표 1-6> 훈련소 시설 만족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⑤	평균
생활관	전체	1,346	23.3	42.3	65.6	24.7	7.9	1.8	9.7	3.77
	육군	847	25.6	38.5	64.1	25.5	8.4	2.0	10.4	3.77
	-육군훈련소	299	23.1	50.8	73.9	21.7	4.0	.3	4.3	3.92
	-사단신교대	548	27.0	31.8	58.8	27.6	10.8	2.9	13.7	3.69
	해군	150	12.7	50.0	62.7	26.7	7.3	3.3	10.6	3.61
	공군	149	11.4	49.7	61.1	27.5	10.7	.7	11.4	3.60
	해병대	200	30.5	47.0	77.5	17.5	4.5	.5	5	4.03
목욕/ 샤워 세면장	전체	1,347	20.6	34.7	55.3	29.3	11.5	3.9	15.4	3.57
	육군	848	23.6	32.7	56.3	29.0	11.0	3.8	14.8	3.61
	-육군훈련소	299	14.4	36.5	50.9	30.1	15.1	4.0	19.1	3.42
	-사단신교대	549	28.6	30.6	59.2	28.4	8.7	3.6	12.3	3.72
	해군	150	8.0	36.0	44	34.7	16.7	4.7	21.4	3.26
	공군	149	8.7	36.9	45.6	36.2	16.1	2.0	18.1	3.34
	해병대	200	26.0	41.0	67	21.5	6.5	5.0	11.5	3.77
화장실	전체	1,347	18.9	28.1	47	32.1	15.3	5.6	20.9	3.39
	육군	848	22.3	27.6	49.9	30.9	14.5	4.7	19.2	3.48
	-육군훈련소	299	12.7	25.4	38.1	35.5	20.1	6.4	26.5	3.18
	-사단신교대	549	27.5	28.8	56.3	28.4	11.5	3.8	15.3	3.65
	해군	150	4.0	18.7	22.7	30.7	32.0	14.7	46.7	2.65
	공군	149	12.8	38.9	51.7	40.9	5.4	2.0	7.4	3.55
	해병대	200	20.5	29.0	49.5	31.5	13.5	5.5	19	3.45
식당	전체	1,347	28.7	37.3	66	25.0	6.3	2.6	8.9	3.83
	육군	848	27.0	35.8	62.8	25.2	8.5	3.4	11.9	3.75
	-육군훈련소	299	26.1	41.5	67.6	26.1	5.4	1.0	6.4	3.86
	-사단신교대	549	27.5	32.8	60.3	24.8	10.2	4.7	14.9	3.68
	해군	150	48.0	40.7	88.7	10.0	1.3	.0	1.3	4.35
	공군	149	12.1	40.3	52.4	39.6	6.0	2.0	8	3.54
	해병대	200	34.0	39.0	73	24.5	1.0	1.5	2.5	4.03
군매점	전체	1,142	29.5	25.7	55.2	33.0	4.6	7.3	11.9	3.66
	육군	846	32.4	30.9	63.3	28.6	5.3	2.8	8.1	3.85
	-육군훈련소	299	34.8	38.1	72.9	20.7	5.0	1.3	6.3	4.00
	-사단신교대	547	31.1	26.9	58	32.9	5.5	3.7	9.2	3.76
	해군	50	12.0	10.0	22	54.0	.0	24.0	24	2.86
	공군	123	1.6	5.7	7.3	53.7	4.9	34.1	39	2.36
	해병대	123	44.7	16.3	61	34.1	.8	4.1	4.9	3.97

○ 훈련소 시설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생활관에서는 해병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목욕/샤워 세면장에서는 해병대가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해군이 가장 낮게 나타남

○ 화장실에서는 사단 교육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해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식당에서는 해군과 해병대에서 만족도가 높았고, 공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군매점에서는 육군훈련소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해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2) 훈련소에서 제공되는 급식 및 보급품

<표 1-7> 훈련소 제공되는 급식 만족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맛	전체	1,348	20.0	43.8	63.8	26.0	7.7	2.4	10.1	3.71
	육군	849	19.7	42.4	62.1	26.0	8.6	3.3	11.9	3.67
	-육군훈련소	299	17.1	40.1	57.2	25.4	13.7	3.7	17.4	3.53
	-사단신교대	550	21.1	43.6	64.7	26.4	5.8	3.1	8.9	3.74
	해군	150	20.7	52.0	72.7	24.0	2.7	.7	3.4	3.89
	공군	149	10.1	38.9	49	34.2	14.1	2.7	16.8	3.40
	해병대	200	28.0	47.5	75.5	21.5	3.0	.0	3	4.00
양	전체	1,348	16.8	31.2	48	28.6	17.4	6.1	23.5	3.35
	육군	849	19.5	32.3	51.8	27.2	15.5	5.4	20.9	3.44
	-육군훈련소	299	23.7	38.5	62.2	24.4	11.7	1.7	13.4	3.69
	-사단신교대	550	17.3	28.9	46.2	28.7	17.6	7.5	25.1	3.31
	해군	150	9.3	36.7	46	34.0	16.0	4.0	20	3.31
	공군	149	10.1	32.9	43	33.6	16.1	7.4	23.5	3.22
	해병대	200	15.5	21.5	37	26.5	27.0	9.5	36.5	3.07
메뉴	전체	1,347	19.5	33.6	53.1	32.2	12.1	2.5	14.6	3.56
	육군	849	20.0	29.4	49.4	33.6	13.5	3.4	16.9	3.49
	-육군훈련소	299	19.7	24.7	44.4	32.1	19.4	4.0	23.4	3.37
	-사단신교대	550	20.2	32.0	52.2	34.4	10.4	3.1	13.5	3.56
	해군	150	14.0	48.0	62	28.7	8.7	.7	9.4	3.66
	공군	148	11.5	29.7	41.2	44.6	11.5	2.7	14.2	3.36
	해병대	200	27.5	43.5	71	20.0	9.0	.0	9	3.89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훈련병)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위생	전체	1,346	25.8	33.8	59.6	26.6	10.1	3.7	13.8	3.68
	육군	849	24.6	32.5	57.1	27.0	11.7	4.2	15.9	3.62
	-육군훈련소	299	25.8	32.4	58.2	26.8	13.0	2.0	15	3.67
	-사단신교대	550	24.0	32.5	56.5	27.1	10.9	5.5	16.4	3.59
	해군	150	34.7	40.7	75.4	22.0	2.0	.7	2.7	4.07
	공군	149	19.5	34.2	53.7	31.5	11.4	3.4	14.8	3.55
	해병대	198	28.8	33.8	62.6	24.7	8.6	4.0	12.6	3.75
영양적 으로 균형 있는 식사	전체	1,346	31.0	39.3	70.3	23.3	4.8	1.6	6.4	3.93
	육군	847	29.9	38.6	68.5	24.0	5.4	2.1	7.5	3.89
	-육군훈련소	298	28.5	38.9	67.4	22.1	7.7	2.7	10.4	3.83
	-사단신교대	549	30.6	38.4	69	25.0	4.2	1.8	6	3.92
	해군	150	30.0	42.7	72.7	22.7	4.0	.7	4.7	3.97
	공군	149	20.8	37.6	58.4	32.9	6.7	2.0	8.7	3.68
	해병대	200	44.0	41.0	85	13.5	1.5	.0	1.5	4.27
자율 배식	전체	1,333	15.8	20.3	36.1	31.7	20.0	12.2	32.2	3.07
	육군	848	17.3	21.3	38.6	30.4	20.2	10.7	30.9	3.14
	-육군훈련소	299	15.7	26.8	42.5	28.4	20.7	8.4	29.1	3.21
	-사단신교대	549	18.2	18.4	36.6	31.5	19.9	12.0	31.9	3.11
	해군	150	8.0	22.0	30	34.7	22.0	13.3	35.3	2.89
	공군	149	12.1	29.5	41.6	28.9	21.5	8.1	29.6	3.16
	해병대	186	17.7	7.0	24.7	37.1	16.7	21.5	38.2	2.83
전반적 만족도	전체	1,348	17.9	38.4	56.3	30.4	9.7	3.6	13.3	3.57
	육군	849	19.1	37.0	56.1	30.3	9.0	4.7	13.7	3.57
	-육군훈련소	299	20.1	35.5	55.6	30.1	10.7	3.7	14.4	3.58
	-사단신교대	550	18.5	37.8	56.3	30.4	8.0	5.3	13.3	3.56
	해군	150	12.7	53.3	66	26.7	6.0	1.3	7.3	3.70
	공군	149	8.1	36.9	45	36.2	15.4	3.4	18.8	3.31
	해병대	200	24.0	34.0	58	29.5	11.5	1.0	12.5	3.68

○ 훈련소 제공되는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맛, 양, 메뉴, 위생,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자율배식, 전반적 만족도에서 평균이 3.0 이상으로 만족하였으나, 자율배식에서 해군과 해병대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1-8> 지급 받는 일용품 수량 적절성

구분		사례 수	충분	적당	부족
칫솔	전체	1,347	48.6	41.5	9.9
	육군	848	51.2	40.8	8.0
	-육군훈련소	298	47.0	41.9	11.1
	-사단신교대	550	53.5	40.2	6.4
	해군	150	40.7	39.3	20.0
	공군	149	42.3	49.7	8.1
	해병대	200	48.5	40.0	11.5
치약	전체	1,347	53.5	39.9	6.6
	육군	848	49.9	42.2	7.9
	-육군훈련소	298	50.0	43.0	7.0
	-사단신교대	550	49.8	41.8	8.4
	해군	150	53.3	40.0	6.7
	공군	149	45.6	47.0	7.4
	해병대	200	75.0	24.5	.5
비누	전체	1,347	57.7	37.0	5.3
	육군	848	57.9	37.5	4.6
	-육군훈련소	298	58.7	35.9	5.4
	-사단신교대	550	57.5	38.4	4.2
	해군	150	58.0	36.0	6.0
	공군	149	53.0	40.3	6.7
	해병대	200	60.0	33.5	6.5
화장지	전체	1,347	41.9	33.0	25.0
	육군	848	35.7	32.9	31.4
	-육군훈련소	298	27.9	31.5	40.6
	-사단신교대	550	40.0	33.6	26.4
	해군	150	39.3	36.0	24.7
	공군	149	42.3	40.9	16.8
	해병대	200	70.0	25.5	4.5

○ 지급 받는 일용품 수량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칫솔, 치약, 비누, 화장지에서 모두 충분하다가 가장 많았으나, 화장지의 경우 육군훈련소에서 부족이 가장 많았음.

<표 1-9> 지급 받는 일용품 품질

구분		사례 수	좋다	보통	나쁨
칫솔	전체	1,315	58.0	37.8	4.2
	육군	829	56.5	37.9	5.7
	-육군훈련소	292	55.1	38.7	6.2
	-사단신교대	537	57.2	37.4	5.4
	해군	144	56.3	42.4	1.4
	공군	147	52.4	45.6	2.0
	해병대	195	70.3	28.2	1.5
치약	전체	1,315	69.6	29.7	.7
	육군	829	67.8	31.1	1.1
	-육군훈련소	292	68.2	31.2	.7
	-사단신교대	537	67.6	31.1	1.3
	해군	144	68.1	31.9	.0
	공군	147	62.6	37.4	.0
	해병대	195	83.6	16.4	.0
비누	전체	1,313	59.8	37.5	2.7
	육군	828	60.0	37.9	2.1
	-육군훈련소	291	63.6	35.1	1.4
	-사단신교대	537	58.1	39.5	2.4
	해군	144	58.3	39.6	2.1
	공군	146	43.8	50.7	5.5
	해병대	195	71.8	24.6	3.6
화장지	전체	1,313	63.1	32.1	4.8
	육군	827	67.5	31.1	1.5
	-육군훈련소	290	69.7	29.7	.7
	-사단신교대	537	66.3	31.8	1.9
	해군	144	66.7	29.9	3.5
	공군	147	27.9	46.9	25.2
	해병대	195	68.2	27.2	4.6

○ 지급 받는 일용품 품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칫솔, 치약, 비누, 화장지에서 모두 품질에 만족하고 있었으나, 비누와 화장지의 경우 공군에서 보통이 가장 많았음.

(3) 훈련소 생활 중 휴식과 사생활 보장

<표 1-10> 휴식 및 취침시간 인식

구분		사례 수	충분	보통	부족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	전체	1,348	39.4	36.9	23.7
	육군	849	45.8	36.3	17.9
	-육군훈련소	299	50.5	36.1	13.4
	-사단신교대	550	43.3	36.4	20.4
	해군	150	11.3	53.3	35.3
	공군	149	1.3	36.9	61.7
	해병대	200	61.5	27.5	11.0
휴무일 휴식시간	전체	1,347	52.3	29.5	18.2
	육군	849	59.2	28.3	12.5
	-육군훈련소	299	54.8	29.1	16.1
	-사단신교대	550	61.6	27.8	10.5
	해군	149	23.5	42.3	34.2
	공군	149	8.7	38.3	53.0
	해병대	200	77.0	18.5	4.5
취침시간	전체	1,348	53.9	32.6	13.6
	육군	849	55.6	32.5	11.9
	-육군훈련소	299	67.6	27.1	5.4
	-사단신교대	550	49.1	35.5	15.5
	해군	150	29.3	39.3	31.3
	공군	149	23.5	56.4	20.1
	해병대	200	87.5	10.0	2.5

○ 휴식 및 취침시간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에서 해군은 보통, 공군은 부족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충분히 가장 많았음.

○ 휴무일 휴식시간에서는 공군에서 부족이 가장 많았고, 해군에서는 보통,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충분히 가장 많았음.

○ 취침시간에서는 해군과 공군에서 보통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충분히 가장 많았음.

<표 1-11> 군매점 이용 여건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이용 시기/시간 편의성	전체	997	3.9	46.9	49.1
	육군	847	1.8	51.9	46.3
	-육군훈련소	299	1.0	57.2	41.8
	-사단신교대	548	2.2	49.1	48.7
	해군	12	8.3	25.0	66.7
	공군	85	2.4	9.4	88.2
	해병대	53	39.6	32.1	28.3
구매 가능한 물품 범위	전체	976	34.8	26.9	38.2
	육군	842	35.4	28.4	36.2
	-육군훈련소	298	33.2	45.6	21.1
	-사단신교대	544	36.6	18.9	44.5
	해군	11	18.2	27.3	54.5
	공군	73	9.6	16.4	74.0
	해병대	50	66.0	18.0	16.0

○ 군매점 이용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이용 시기/시간 편의성에서는 육군은 보통, 해군과 공군은 부정, 해병대는 긍정이 가장 많았음.

○ 구매 가능한 물품 범위에서는 육군훈련소에서는 보통, 해병대는 긍정,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부정이 가장 많았음.

<표 1-12> 흡연 금지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적절	제한 동의	제한 불필요	흡연 권리 보장	잘 모름
소속 부대	전체	1,342	21.2	34.8	14.2	17.2	12.7
	육군	848	16.4	33.0	17.0	18.9	14.7
	-육군훈련소	299	20.4	46.8	14.0	12.4	6.4
	-사단신교대	549	14.2	25.5	18.6	22.4	19.3
	해군	149	18.1	40.9	10.1	18.1	12.8
	공군	147	17.7	35.4	12.2	22.4	12.2
	해병대	198	46.5	37.4	6.6	5.6	4.0

○ 흡연 금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는 적절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제한 동의가 가장 많았음.

<표 1-13> 입소 후 신상정보, 편지공개, 소지품 검사, 개인용품 사용

구분		사례 수	① 자주 있음	② 가끔 있음	①+ ②	③ 별로 없음	④ 전혀 없음	③+ ④	평균
신상정보 과도요구	전체	1,345	1.4	8.8	10.2	34.7	55.0	89.7	1.57
	육군	848	1.9	10.1	12	33.7	54.2	87.9	1.60
	육군훈련소	299	.3	10.0	10.3	30.8	58.9	89.7	1.52
	사단신교대	549	2.7	10.2	12.9	35.3	51.7	87	1.64
	해군	150	.7	8.7	9.4	42.7	48.0	90.7	1.62
	공군	149	1.3	11.4	12.7	49.0	38.3	87.3	1.76
	해병대	198	.0	1.5	1.5	22.2	76.3	98.5	1.25
편지 내용 공개	전체	1,346	3.0	8.2	11.2	17.8	71.1	88.9	1.43
	육군	849	4.1	9.5	13.6	19.3	67.0	86.3	1.51
	-육군훈련소	299	2.7	8.7	11.4	17.7	70.9	88.6	1.43
	-사단신교대	550	4.9	10.0	14.9	20.2	64.9	85.1	1.55
	해군	150	.7	6.0	6.7	18.7	74.7	93.4	1.33
	공군	148	2.0	10.1	12.1	18.2	69.6	87.8	1.45
	해병대	199	.5	2.5	3	10.1	86.9	97	1.17
사물함 /소지품 부당검사	전체	1,347	.7	2.2	2.9	10.1	86.9	97	1.17
	육군	849	.7	2.1	2.8	9.3	87.9	97.2	1.16
	-육군훈련소	299	.0	1.0	1	8.0	91.0	99	1.10
	-사단신교대	550	1.1	2.7	3.8	10.0	86.2	96.2	1.19
	해군	150	1.3	1.3	2.6	7.3	90.0	97.3	1.14
	공군	149	1.3	2.7	4	24.2	71.8	96	1.34
	해병대	199	.0	3.0	3	5.0	92.0	97	1.11
개인구매 화장품 /세면용품 자유 사용	전체	1,335	65.6	28.7	94.3	3.7	2.0	5.7	3.58
	육군	849	82.3	16.3	98.6	.5	.9	1.4	3.80
	-육군훈련소	299	87.6	12.4	100	.0	.0	0	3.88
	-사단신교대	550	79.5	18.4	97.9	.7	1.5	2.2	3.76
	해군	145	54.5	44.1	98.6	.0	1.4	1.4	3.52
	공군	146	22.6	56.8	79.4	13.0	7.5	20.5	2.95
	해병대	195	33.3	50.3	83.6	13.3	3.1	16.4	3.14

○ 입소 후 신상정보, 편지공개, 소지품 검사, 개인용품 사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신상정보 과도요구, 편지 내용 공개, 사물함/소지품 부당검사에 서 거의 그런 행위가 없다는 응답이었음.

○ 개인구매 화장품/세면용품 자유 사용에서는 모든 훈련소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1-14> 공중전화 가능한 이용시간

구분		사례 수	언제든	정비시간 및 공휴일
공중전화 가능한 이용시간	전체	1,312	.9	99.1
	육군	837	.8	99.1
	-육군훈련소	296	.7	99.3
	-사단신교대	541	.9	99.1
	해군	140	.0	100.0
	공군	140	2.1	97.9
	해병대	195	1.0	99.0

○ 공중전화 가능한 이용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거의 대부분 정비시간 및 공휴일이라는 응답으로 나타남.

<표 1-15> 공중전화 평균 이용횟수

구분		사례 수	주0-1회	주2-3회	주4-5회	주 6회 이상
공중전화 평균 이용횟수	전체	1,332	52.6	31.2	5.2	11.0
	육군	841	28.9	46.8	7.3	17.0
	-육군훈련소	299	16.4	80.6	1.3	1.7
	-사단신교대	542	35.8	28.2	10.5	25.5
	해군	148	95.3	.7	4.1	.0
	공군	144	90.3	9.0	.7	.0
	해병대	199	93.5	4.0	.5	2.0

○ 공중전화 평균 이용횟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는 주 2-3회가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주 0-1회가 가장 많았음.

<표 1-16> 1회 통화 가능 시간

구분		사례 수	3분	5분	10분	20분	20분 이상
1회 통화 가능 시간	전체	1,330	12.6	49.2	35.9	2.2	.1
	육군	838	2.1	38.9	55.4	3.5	.1
	-육군훈련소	298	.3	20.1	75.8	3.7	.0
	-사단신교대	540	3.1	49.3	44.1	3.3	.2
	해군	149	98.0	2.0	.0	.0	.0
	공군	144	1.4	97.9	.7	.0	.0
	해병대	199	.5	93.0	6.5	.0	.0

○ 1회 통화 가능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은 3분, 육군은 10분, 공군과 해병대는 5분이 가장 많았음.

<표 1-17> 공중전화 대수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충분	부족
공중전화 대수의 적절성	전체	1,327	51.6	48.4
	육군	838	53.0	47.0
	-육군훈련소	298	38.9	61.1
	-사단신교대	540	60.7	39.3
	해군	149	30.9	69.1
	공군	143	44.1	55.9
	해병대	197	67.0	33.0

○ 공중전화 대수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단신교대, 해병대는 충분,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1-18> 외부 연락할 여건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모 름	평균
외부 연락 할 여건	전체	1,346	13.5	40.0	53.5	35.1	6.3	41.4	5.2	2.64
	육군	848	13.7	43.8	57.5	32.2	4.7	36.9	5.7	2.70
	-육군훈련소	299	11.4	45.8	57.2	36.5	3.3	39.8	3.0	2.67
	-사단신교대	549	14.9	42.6	57.5	29.9	5.5	35.4	7.1	2.72
	해군	150	7.3	20.7	28	56.7	12.0	68.7	3.3	2.24
	공군	148	4.1	22.3	26.4	54.1	14.2	68.3	5.4	2.17
	해병대	200	24.5	51.5	76	17.0	3.0	20	4.0	3.02

○ 외부 연락할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과 공군은 부정이 더 많았고, 육군과 해병대는 긍정이 더 많았음.

<표 1-19> TV 시청 여건

구분		사례 수	자유롭다	교육용 영상	TV 보기 어려움	주말에는 자유로움
TV 시청 여건	전체	1,212	18.3	18.3	44.4	19.0
	육군	794	26.3	19.9	25.4	28.3
	-육군훈련소	244	1.2	29.5	67.6	1.6
	-사단신교대	550	37.5	15.6	6.7	40.2
	해군	116	.0	1.7	97.4	.9
	공군	146	.7	12.3	87.0	.0
	해병대	156	7.7	28.2	61.5	2.6

○ TV 시청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단 교육대는 주말에는 자유로움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TV 보기 어려움이 가장 많았음.

<표 1-20> 외부소식 접하는 매체 만족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모름	평균
TV	전체	1,145	22.5	18.1	40.6	20.0	12.1	27.3	39.4	2.96
	육군	792	28.5	22.5	51	20.7	8.8	19.4	28.2	3.32
	-육군훈련소	243	6.2	2.9	9.1	21.4	12.8	56.8	69.6	1.89
	-사단신교대	549	38.4	31.1	69.5	20.4	7.1	2.9	10	3.95
	해군	89	.0	.0	0	10.1	5.6	84.3	89.9	1.26
	공군	143	5.6	14.0	19.6	18.9	32.9	28.7	61.6	2.35
	해병대	121	19.8	7.4	27.2	24.0	13.2	35.5	48.7	2.63
국 방 일 보	전체	1,131	15.4	17.1	32.5	32.4	13.4	21.7	35.1	2.91
	육군	811	17.9	22.2	40.1	35.8	12.7	11.5	24.2	3.22
	-육군훈련소	265	15.5	16.2	31.7	33.2	17.4	17.7	35.1	2.94
	-사단신교대	546	19.0	25.1	44.1	37.0	10.4	8.4	18.8	3.36
	해군	89	1.1	.0	1.1	11.2	4.5	83.1	87.6	1.31
	공군	115	3.5	4.3	7.8	30.4	27.0	34.8	61.8	2.15
	해병대	116	20.7	6.9	27.6	27.6	12.1	32.8	44.9	2.71

○ 외부소식 접하는 매체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TV에서는 사단 교육대에서 만족이 가장 높았고, 해군에서 가장 낮았음.

○ 국방일보는 사단 교육대에서 만족이 가장 높았고, 해군에서 불만족이 가장 많았음.

<표 1-21> 인터넷 이용 여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인터넷 이용 여부	전체	1,348	.3	99.6
	육군	849	.5	99.5
	-육군훈련소	299	.3	99.7
	-사단신교대	550	.5	99.5
	해군	150	.0	100
	공군	149	.0	100
	해병대	200	.0	100

○ 인터넷 이용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없다는 응답으로 나타남.

<표 1-22> 군 외부소식 접할 여건

구분	사례 수	①	②	①+	③	④	③+	모름	평균	
		매우 긍정	긍정	②	부정	매우 부정	④			
전체	1,344	8.7	27.8	36.5	39.8	20.7	60.5	3.0	2.25	
군 외부 소식 접할 여건	육군	848	11.3	36.3	47.6	38.7	11.0	49.7	2.7	2.49
	-육군훈련소	299	5.0	25.1	30.1	47.5	21.1	68.6	1.3	2.14
	-사단신교대	549	14.8	42.4	57.2	33.9	5.5	39.4	3.5	2.69
	해군	149	.7	4.7	5.4	38.9	55.0	93.9	.7	1.51
	공군	148	2.0	10.8	12.8	52.7	29.7	82.4	4.7	1.84
	해병대	199	8.5	21.6	30.1	35.7	29.6	65.3	4.5	2.09

○ 군 외부소식 접할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단 교육대에서 긍정적이었으며, 해군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표 1-23>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

구분	사례 수	①	②	①+	③	④	③+	모름	평균	
		매우 긍정	긍정	②	부정	매우 부정	④			
전체	1,343	47.4	28.7	76.1	5.6	3.1	8.7	15.2	3.42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	육군	847	47.6	26.2	73.8	4.5	3.1	7.6	18.7	3.45
	-육군훈련소	299	63.5	28.8	92.3	3.7	1.0	4.7	3.0	3.60
	-사단신교대	548	38.9	24.8	63.7	4.9	4.2	9.1	27.2	3.35
	해군	149	43.6	36.9	80.5	4.7	4.0	8.7	10.7	3.35
	공군	147	18.4	42.9	61.3	15.0	6.8	21.8	17.0	2.88
	해병대	200	70.5	23.0	93.5	4.0	.0	4	2.5	3.68

○ 종교활동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종교 활동 자유가 가장 보장되지 않았음.

<표 1-24> 두발 손질

구분		사례 수	외부 이발사	부대 이발병	훈련병 끼리	기타
두발 손질	전체	1,306	3.1	20.1	63.3	13.6
	육군	846	.1	7.6	78.7	13.6
	-육군훈련소	299	.0	.7	98.0	1.3
	-사단신교대	547	.2	11.3	68.2	20.3
	해군	149	12.8	77.9	.0	9.4
	공군	111	18.0	43.2	2.7	36.0
	해병대	200	.0	17.0	79.0	3.5

○ 두발 손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과 해병대는 훈련병끼리, 해군과 공군은 부대 이발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1-25> 두발 손질 여건

구분		사례 수	불편 안함	매우 불편
두발 손질 여건	전체	1,319	75.4	24.6
	육군	841	74.7	25.3
	-육군훈련소	299	76.6	23.4
	-사단신교대	542	73.6	26.4
	해군	148	60.8	39.2
	공군	130	82.3	17.7
	해병대	200	84.5	15.5

○ 두발 손질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불편하지 않음이 더 많았음.

<표 1-26> 두발 기준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모름	평균
두발 기준의 적절성	전체	1,343	21.8	38.2	60	15.1	13.9	29	10.9	2.76
	육군	846	18.1	40.0	58.1	16.0	14.7	30.7	11.3	2.69
	-육군훈련소	299	26.1	45.2	71.3	11.7	7.4	19.1	9.7	3.00
	-사단신교대	547	13.7	37.1	50.8	18.3	18.6	36.9	12.2	2.52
	해군	149	22.1	35.6	57.7	18.1	11.4	29.5	12.8	2.78
	공군	148	7.4	27.7	35.1	23.6	27.7	51.3	13.5	2.17
	해병대	200	48.0	40.5	88.5	3.0	2.5	5.5	6.0	3.43

○ 두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 가장 적절하였으며, 공군에서 가장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남.

2.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

(1) 인권침해 피해 경험

<표 1-27> 인권침해에 대한 횟수

구분		사례 수	해당 없음	5회 이하	10회 이하	20회 이하	그 이상
구타	전체	1,348	99.7	.2	.1		
	육군	849	99.8	.1	.1	.0	.0
	-육군훈련소	299	99.7	.0	.3	.0	.0
	-사단신교대	550	99.8	.2	.0	.0	.0
	해군	150	100	.0	.0	.0	.0
	공군	149	98.7	1.3	.0	.0	.0
	해병대	200	100	.0	.0	.0	.0
가혹 행위	전체	1,348	97.7	1.9	.4	.0	.1
	육군	849	98.8	.9	.2	.0	
	-육군훈련소	299	99.3	.7	.0	.0	.0
	-사단신교대	550	98.5	1.1	.4	.0	.0
	해군	150	97.3	2.7	.0	.0	.0
	공군	149	89.9	7.4	2.0	.0	.7
	해병대	200	99.0	1.0	.0	.0	.0
언어 폭력	전체	1,348	92.7	5.7	1.2	.1	.3
	육군	849	93.3	5.3	1.3	.0	.1
	-육군훈련소	299	92.6	6.0	1.3	.0	.0
	-사단신교대	550	93.6	4.9	1.3	.0	.2
	해군	150	92.7	5.3	.7	.0	.7
	공군	149	85.2	10.7	2.0	1.3	.7
	해병대	200	95.5	4.0	.5	.0	.0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훈련병)

구분		사례 수	해당 없음	5회 이하	10회 이하	20회 이하	그 이상
성희롱	전체	1,347	98.9	.6	.4	.0	.1
	육군	849	98.9	.6	.4	.0	.1
	-육군훈련소	299	99.3	.7	.0	.0	.0
	-사단신교대	550	98.7	.5	.5	.0	.2
	해군	149	98.7	.0	.7	.0	.7
	공군	149	100	.0	.0	.0	.0
	해병대	200	98.0	1.5	.5	.0	.0
성추행	전체	1,348	99.8	.1	.1	.0	.1
	육군	849	99.8	.1	.1	.0	.0
	-육군훈련소	299	100	.0	.0	.0	.0
	-사단신교대	550	99.6	.2	.2	.0	.0
	해군	150	99.3	.0	.0	.0	.7
	공군	149	100	.0	.0	.0	.0
	해병대	200	100	.0	.0	.0	.0
부당한 군기 훈련	전체	1,348	89.5	6.2	2.4	1.2	.7
	육군	849	94.2	3.9	1.1	.6	.2
	-육군훈련소	299	98.7	1.3	.0	.0	.0
	-사단신교대	550	91.8	5.3	1.6	.9	.4
	해군	150	67.3	13.3	10.0	4.0	5.3
	공군	149	79.2	16.1	3.4	1.3	.0
	해병대	200	94.0	3.0	1.5	1.5	.0

○ 인권침해에 대한 횡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구타, 가혹행위,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부당한 군기훈련에서 대부분 해당 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공군에서 가혹행위, 언어폭력, 부당한 군기훈련이 가장 많았음.

<표 1-28> 인권침해자

구분		사례 수	지휘관	부대 간부	교관	조교	동료 훈련병	기타
구타	전체	7	14.3	14.3	14.3	28.6	.0	28.6
	육군	3	.0	.0	33.3	.0	.0	66.7
	-육군훈련소	1	.0	.0	100	.0	.0	.0
	-사단신교대	2	.0	.0	.0	.0	.0	100
	해군	0	.0	.0	.0	.0	.0	.0
	공군	3	33.3	.0	.0	66.7	.0	.0
	해병대	1	.0	100	.0	.0	.0	.0
가혹 행위	전체	36	8.3	.0	16.7	47.2	.0	27.8
	육군	12	.0	.0	8.3	25.0	.0	66.7
	-육군훈련소	3	.0	.0	.0	100	.0	.0
	-사단신교대	9	.0	.0	11.1	.0	.0	88.9
	해군	4	.0	.0	50.0	.0	.0	50.0
	공군	19	15.8	.0	10.5	73.7	.0	.0
	해병대	1	.0	.0	100	.0	.0	.0
언어 폭력	전체	134	.7	2.2	9.7	22.4	9.7	55.2
	육군	50	2.0	2.0	8.0	20.0	22.0	46.0
	-육군훈련소	24	4.2	4.2	4.2	41.7	45.8	.0
	-사단신교대	26	.0	.0	11.5	.0	.0	88.5
	해군	50	.0	4.0	14.0	.0	.0	82.0
	공군	23	.0	.0	4.3	87.0	8.7	.0
	해병대	11	.0	.0	9.1	.0	.0	90.9
성희롱	전체	65	3.1	9.2	38.5	.0	4.6	44.6
	육군	47	2.1	10.6	40.4	.0	4.3	42.6
	-육군훈련소	2	.0	.0	.0	.0	100	.0
	-사단신교대	45	2.2	11.1	42.2	.0	.0	44.4
	해군	15	.0	6.7	33.3	.0	.0	60.0
	공군	2	50.0	.0	.0	.0	50.0	.0
	해병대	1	.0	.0	100	.0	.0	.0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훈련병)

구분		사례 수	지휘관	부대 간부	교관	조교	동료 훈련병	기타
성추행	전체	37	2.7	8.1	48.6	32.4	.0	8.1
	육군	19	.0	10.5	47.4	31.6	.0	10.5
	-육군훈련소	0	.0	.0	.0	.0	.0	.0
	-사단신교대	19	.0	10.5	47.4	31.6	.0	10.5
	해군	9	.0	11.1	55.6	22.2	.0	11.1
	공군	1	100	.0	.0	.0	.0	.0
	해병대	8	.0	.0	50.0	50.0	.0	.0
부당한 군기 훈련	전체	44	2.3	11.4	22.7	61.4	.0	2.3
	육군	5	.0	40.0	40.0	20.0	.0	.0
	-육군훈련소	4	.0	50.0	25.0	25.0	.0	.0
	-사단신교대	1	.0	.0	100	.0	.0	.0
	해군	2	.0	.0	50.0	.0	.0	50.0
	공군	35	2.9	8.6	14.3	74.3	.0	.0
	해병대	2	.0	.0	100	.0	.0	.0

○ 인권침해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구타는 해병대는 부대 간부, 육군훈련소는 교관, 사단 교육대는 기타가 가장 많았음.

○ 가혹행위에서는 해병대는 교관, 육군훈련소에서는 조교가 가장 많았음.

○ 언어폭력에서는 육군훈련소는 동료 훈련병이 가장 많았고, 공군은 조교가 가장 많았음.

○ 성희롱에서는 사단 교육대는 교관이 가장 많았음.

○ 성추행에서는 사단 교육대, 해군 모두 교관이 가장 많았음.

○ 부당한 군기훈련에서는 육군은 부대 간부와 교관, 공군은 조교가 가장 많았음.

<표 1-29> 인권 침해 당한 시간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 시간 후	둘 다
구타	전체	6	33.3	66.7	.0
	육군	2	.0	100	.0
	-육군훈련소	1	.0	100	.0
	-사단신교대	1	.0	100	.0
	공군	4	50.0	50.0	.0
가혹행위	전체	26	57.7	23.1	19.2
	육군	8	50.0	37.5	12.5
	-육군훈련소	2	.0	50.0	50.0
	-사단신교대	6	66.7	33.3	.0
	해군	3	33.3	33.3	33.3
	공군	13	61.5	15.4	23.1
해병대	2	100	.0	.0	
언어폭력	전체	92	44.6	38.0	17.4
	육군	52	48.1	44.2	7.7
	-육군훈련소	21	38.1	52.4	9.5
	-사단신교대	31	54.8	38.7	6.5
	해군	11	18.2	36.4	45.5
	공군	22	45.5	27.3	27.3
해병대	7	57.1	28.6	14.3	
성희롱	전체	16	6.3	75.0	18.8
	육군	9	.0	100	.0
	-육군훈련소	3	.0	100	.0
	-사단신교대	6	.0	100	.0
	해군	2	.0	50.0	50.0
	공군	1	.0	.0	100
해병대	4	25.0	50.0	25.0	
성추행	전체	3	.0	66.7	33.3
	육군	2	.0	100	.0
	-사단신교대	2	.0	100	.0
	해군	1	.0	.0	100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훈련병)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 시간 후	둘 다
군기 훈련	전체	127	60.6	21.3	18.1
	육군	42	83.3	16.7	.0
	-육군훈련소	4	100	.0	.0
	-사단신교대	38	81.6	18.4	.0
	해군	45	37.8	24.4	37.8
	공군	30	63.3	16.7	20.0
	해병대	10	60.0	40.0	.0

○ 인권 침해당한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구타는 일과시간 후, 가혹행위는 일과시간, 언어폭력은 일과시간, 성희롱은 일과시간 후, 성추행도 일과시간 후, 군기훈련은 일과시간이 가장 많았음.

<표 1-30> 인권침해 피해 신고한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인권 침해 피해 신고한 경험	전체	220	5.9	94.1
	육군	105	5.7	94.3
	-육군훈련소	23	17.4	82.6
	-사단신교대	82	2.4	97.6
	해군	52	9.6	90.4
	공군	37	.0	100
	해병대	26	7.7	92.3

○ 인권침해 피해 신고한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에서 있다가 가장 많았고, 해군, 해병대의 순으로 나타남.

<표 1-31> 신고 후 부대조치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모름	평균
신고후 부대 조치	전체	17	23.5	23.5	47	5.9	5.9	11.8	41.2	3.10
	육군	8	37.5	25.0	62.5	12.5	12.5	25	12.5	3.00
	-육군훈련소	5	40.0	40.0	80	.0	.0	0	20.0	3.50
	-사단신고대	3	33.3	.0	33.3	33.3	33.3	66.6	.0	2.33
	해군	6	16.7	33.3	50	.0	.0	0	50.0	3.33
	해병대	3	.0	.0	0	.0	.0	0	100	-

○ 신고 후 부대조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에서 부대조치가 가장 잘 되며, 사단신고대에서 잘되지 않았음.

<표 1-32> 신고하지 않은 이유

구분		사례 수	부당한 대우	소용 없음	대수롭지 않음	부대가 시끄러 워짐	기타
신고 하지 않은 이유	전체	196	11.2	27.0	44.9	6.1	10.7
	육군	92	12.0	34.8	37.0	7.6	8.7
	-육군훈련소	20	5.0	40.0	40.0	5.0	10.0
	-사단신고대	72	13.9	33.3	36.1	8.3	8.3
	해군	46	8.7	15.2	52.2	4.3	19.6
	공군	34	17.6	38.2	41.2	.0	2.9
	해병대	24	4.2	4.2	66.7	12.5	12.5

○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음과 소용없음으로 나타남.

<표 1-33> 인권 침해당했을 때 부대 관계자의 옹호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지휘관	전체	179	27.9	16.2	44.1	8.9	7.3	16.2	39.7	3.07
	육군	76	27.6	21.1	48.7	9.2	5.3	14.5	36.8	3.13
	-육군훈련소	19	26.3	31.6	57.9	.0	5.3	5.3	36.8	3.25
	-사단신교대	57	28.1	17.5	45.6	12.3	5.3	17.6	36.8	3.08
	해군	46	30.4	17.4	47.8	4.3	6.5	10.8	41.3	3.22
	공군	36	.0	8.3	8.3	19.4	16.7	36.1	55.6	1.81
	해병대	21	71.4	9.5	80.9	.0	.0	0	19.0	3.88
부대 간부	전체	178	28.1	17.4	45.5	11.2	7.3	18.5	35.9	3.04
	육군	77	26.0	22.1	48.1	11.7	5.2	16.9	35.1	3.06
	-육군훈련소	20	25.0	35.0	60	.0	.0	0	40.0	3.42
	-사단신교대	57	26.3	17.5	43.8	15.8	7.0	22.8	33.3	2.95
	해군	45	35.6	13.3	48.9	8.9	8.9	17.8	33.3	3.13
	공군	36	.0	16.7	16.7	19.4	13.9	33.3	50.0	2.06
	해병대	20	70.0	10.0	80	.0	.0	0	20.0	3.87
교관	전체	186	24.2	16.7	40.9	13.4	10.2	23.6	35.5	2.85
	육군	78	25.6	19.2	44.8	12.8	9.0	21.8	33.4	2.92
	-육군훈련소	19	21.1	36.8	57.9	.0	5.3	5.3	36.8	3.17
	-사단신교대	59	27.1	13.6	40.7	16.9	10.2	27.1	32.2	2.85
	해군	48	29.2	12.5	41.7	16.7	12.5	29.2	29.2	2.82
	공군	36	.0	11.1	11.1	19.4	16.7	36.1	52.8	1.88
	해병대	24	45.8	25.0	70.8	.0	.0	0	29.2	3.65
조교	전체	179	22.3	15.6	37.9	15.6	14.0	29.6	32.4	2.69
	육군	77	22.1	20.8	42.9	15.6	10.4	26	31.2	2.79
	-육군훈련소	20	25.0	25.0	50	15.0	5.0	20	30.0	3.00
	-사단신교대	57	21.1	19.3	40.4	15.8	12.3	28.1	31.6	2.72
	해군	46	28.3	13.0	41.3	13.0	8.7	21.7	37.0	2.97
	공군	37	.0	5.4	5.4	27.0	35.1	62.1	32.4	1.56
	해병대	19	52.6	21.1	73.7	.0	.0	0	26.3	3.71

○ 인권 침해당했을 때 부대 관계자의 옹호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휘관, 부대 간부, 교관, 조교에서 모두 공군에서 제일 옹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2)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요청

<표 1-34> 인권침해 시 제도, 기관, 기구를 들은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마음의 편지	전체	1,346	93.0	7.0
	육군	849	96.6	3.4
	-육군훈련소	299	99.3	.7
	-사단신교대	550	95.1	4.9
	해군	149	79.9	20.1
	공군	148	77.7	22.3
	해병대	200	99.0	1.0
국방 헬프콜	전체	1,346	86.5	13.5
	육군	849	87.6	12.4
	-육군훈련소	299	90.0	10.0
	-사단신교대	550	86.4	13.6
	해군	149	85.9	14.1
	공군	148	68.2	31.8
	해병대	200	95.5	4.5
인권센터	전체	1,340	59.6	40.4
	육군	846	57.9	42.1
	-육군훈련소	299	59.9	40.1
	-사단신교대	547	56.9	43.1
	해군	148	62.2	37.8
	공군	148	33.8	66.2
	해병대	198	84.3	15.7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전체	1,343	66.4	33.6
	육군	848	61.3	38.7
	-육군훈련소	299	69.9	30.1
	-사단신교대	549	56.6	43.4
	해군	149	65.1	34.9
	공군	148	70.9	29.1
	해병대	198	85.9	14.1
인권상담관	전체	1,341	52.1	47.9
	육군	847	49.2	50.8
	-육군훈련소	299	46.5	53.5
	-사단신교대	548	50.7	49.3
	해군	149	46.3	53.7
	공군	148	43.9	56.1
	해병대	197	74.6	25.4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훈련병)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성고충 전문상담관	전체	1,344	44.3	55.7
	육군	848	38.1	61.9
	-육군훈련소	299	29.8	70.2
	-사단신교대	549	42.6	57.4
	해군	149	43.6	56.4
	공군	148	30.4	69.6
	해병대	199	81.4	18.6
국가인권 위원회	전체	1,342	61.2	38.8
	육군	847	59.0	41.0
	-육군훈련소	299	61.9	38.1
	-사단신교대	548	57.5	42.5
	해군	149	58.4	41.6
	공군	148	54.1	45.9
	해병대	198	77.8	22.2
국민권의 위원회	전체	1,341	42.4	57.6
	육군	847	40.5	59.5
	-육군훈련소	299	40.8	59.2
	-사단신교대	548	40.3	59.7
	해군	149	43.0	57.0
	공군	148	35.1	64.9
	해병대	197	55.8	44.2
군인권센터 (시민단체)	전체	1,341	42.1	57.9
	육군	847	39.8	60.2
	-육군훈련소	299	38.8	61.2
	-사단신교대	548	40.3	59.7
	해군	149	41.6	58.4
	공군	147	30.6	69.4
	해병대	198	61.1	38.9

○ 인권 침해 시 제도, 기관, 기구를 들은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마음의 편지, 국방헬프콜, 인권센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권상담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만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음.

(3) 인권침해 피해 시 도움 및 요청

<표 1-35> 인권침해 시 제도, 기관, 기구 이용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마음의 편지	전체	1,312	4.3	95.7
	육군	834	5.0	95.0
	-육군훈련소	294	5.8	94.2
	-사단신교대	540	4.6	95.4
	해군	147	.0	100.0
	공군	144	.0	100.0
	해병대	187	7.5	92.5
국방헬프콜	전체	1,313	.2	99.8
	육군	835	.0	100
	-육군훈련소	294	.0	100
	-사단신교대	541	.0	100
	해군	147	.7	99.3
	공군	144	.0	100
	해병대	187	1.1	98.9
인권센터	전체	1,310	.0	100
	육군	832	.0	100
	-육군훈련소	294	.0	100
	-사단신교대	538	.0	100
	해군	147	.0	100
	공군	144	.0	100
	해병대	187	.0	100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전체	1,312	1.4	98.6
	육군	833	.6	99.4
	-육군훈련소	294	.3	99.7
	-사단신교대	539	.7	99.3
	해군	147	5.4	94.6
	공군	145	3.4	96.6
	해병대	187	.0	100.0
인권상담관	전체	1,311	.1	99.9
	육군	833	.1	99.9
	-육군훈련소	294	.0	100
	-사단신교대	539	.2	99.8
	해군	147	.0	100
	공군	145	.0	100
	해병대	186	.0	100

2021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훈련병)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성고충 전문상담관	전체	1,311	.0	100
	육군	833	.0	100
	-육군훈련소	294	.0	100
	-사단신교대	539	.0	100
	해군	147	.0	100
	공군	144	.0	100
	해병대	187	.0	100
국가인권 위원회	전체	1,311	.0	100
	육군	832	.0	100
	-육군훈련소	294	.0	100
	-사단신교대	538	.0	100
	해군	147	.0	100
	공군	145	.0	100
	해병대	187	.0	100
국민권의 위원회	전체	1,310	.1	99.9
	육군	832	.1	99.9
	-육군훈련소	294	.0	100
	-사단신교대	538	.2	99.8
	해군	147	.0	100
	공군	144	.0	100
	해병대	187	.0	100
군인권센터 (시민단체)	전체	1,311	.0	100
	육군	832	.0	100
	-육군훈련소	294	.0	100
	-사단신교대	538	.0	100
	해군	147	.0	100
	공군	145	.0	100
	해병대	187	.0	100

○ 인권침해 시 제도, 기관, 기구 이용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제도, 기관, 기구에서 이용 경험이 대부분 없었음.

<표 1-36>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지 여부

구분		사례 수	안다	모른다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인지 여부	전체	1,345	57.7	42.3
	육군	847	52.8	47.2
	-육군훈련소	299	61.9	38.1
	-사단신교대	548	47.8	52.2
	해군	149	51.7	48.3
	공군	149	77.2	22.8
	해병대	200	68.5	31.5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단 교육대에서는 모르다가 더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안다가 더 많았음.

<표 1-37>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경험	전체	1,329	5.3	94.7
	육군	838	4.3	95.7
	-육군훈련소	299	1.3	98.7
	-사단신교대	539	5.9	94.1
	해군	147	10.2	89.8
	공군	149	10.1	89.9
	해병대	195	2.1	97.9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훈련소에 없다가 더 많았으나, 해군과 공군에서는 있다가 10% 정도 나타남.

<표 1-38>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경로

구분		사례 수	직접 전화 요청	간부가 요청	훈련소에서 지정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상담 경로	전체	75	4.0	14.7	81.3
	육군	40	2.5	17.5	80.0
	-육군훈련소	5	.0	40.0	60.0
	-사단신교대	35	2.9	14.3	82.9
	해군	17	.0	11.8	88.2
	공군	14	14.3	14.3	71.4
	해병대	4	.0	.0	100.0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상담 경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훈련소에서 지정이 가장 많았음.

<표 1-39> 상담관의 도움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평균
상담관의 도움 정도	전체	75	18.7	56.0	74.7	21.3	4.0	25.3	2.89
	육군	40	17.5	60.0	77.5	22.5	.0	22.5	2.95
	-육군훈련소	4	25.0	25.0	50	50.0	.0	50	2.75
	-사단신교대	36	16.7	63.9	80.6	19.4	.0	19.4	2.97
	해군	17	17.6	64.7	82.3	17.6	.0	17.6	3.00
	공군	14	21.4	28.6	50	28.6	21.4	50	2.50
	해병대	4	25.0	75.0	100	.0	.0	0	3.25

○ 상담관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에서 도움이 가장 많이 되며, 공군에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음.

<표 1-40> 마음의 편지 제출 여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마음의 편지 제출 여부	전체	1,336	4.3	95.7
	육군	844	4.7	95.3
	-육군훈련소	299	5.4	94.6
	-사단신교대	545	4.4	95.6
	해군	146	.7	99.3
	공군	149	.0	100.0
	해병대	197	8.6	91.4

○ 마음의 편지 제출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제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41> 마음의 편지 제출 후 조치 결과 통보 여부

구분		사례 수	받았다	못 받았다
마음의 편지 제출 후 조치 결과 통보 여부	전체	62	74.2	25.8
	육군	42	69.0	31.0
	-육군훈련소	17	76.5	23.5
	-사단신교대	25	64.0	36.0
	해군	1	.0	100.0
	공군	19	89.5	10.5

○ 마음의 편지 제출 후 조치결과 통보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 공군은 받았다, 해군은 못 받았다가 가장 많았음.

<표 1-42> 마음의 편지 도움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평균
마음의 편지 도움 정도	전체	61	52.5	26.2	78.7	14.8	6.6	21.4	3.25
	육군	41	46.3	26.8	73.1	19.5	7.3	26.8	3.12
	-육군훈련소	17	52.9	29.4	82.3	17.6	.0	17.6	3.35
	-사단신교대	24	41.7	25.0	66.7	20.8	12.5	33.3	2.96
	해군	2	.0	.0	0	50.0	50.0	100	1.50
	공군	18	72.2	27.8	100	.0	.0	0	3.72

○ 마음의 편지 도움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도움이 가장 많이 되며, 해군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음.

<표 1-43> 소원 수리를 받아간 적이 있는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소원 수리를 받아간 적이 있는가	전체	1,336	.8	99.2
	육군	844	.8	99.2
	-육군훈련소	299	2.0	98.0
	-사단신교대	545	.2	99.8
	해군	147	.0	100.0
	공군	148	.7	99.3
	해병대	197	1.5	98.5

○ 소원 수리를 받아간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받아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표 1-44> 소원 수리 조치 결과 통보 여부

구분		사례 수	받았다	못 받았다
소원 수리 조치 결과 통보 여부	전체	14	50.0	50.0
	육군	8	37.5	62.5
	-육군훈련소	6	50.0	50.0
	-사단신교대	2	.0	100.0
	해군	2	.0	100.0
	공군	1	100.0	.0
	해병대	3	100.0	.0

○ 소원 수리 조치 결과 통보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과 해병대는 받았으나, 사단신교대와 해군은 못 받은 것으로 나타남.

<표 1-45> 소원 수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평균
소원 수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전체	16	43.8	25.0	68.8	18.8	12.5	31.3	3.00
	육군	10	40.0	30.0	70	20.0	10.0	30	3.00
	-육군훈련소	7	57.1	14.3	71.4	28.6	.0	28.6	3.29
	-사단신교대	3	.0	66.7	66.7	.0	33.3	33.3	2.33
	해군	2	.0	.0	0	50.0	50.0	100	1.50
	공군	1	.0	100	100	.0	.0	0	3.00
	해병대	3	100	.0	100	.0	.0	0	4.00

○ 소원 수리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는 매우 도움이 되었으나, 해군은 도움이 되지 못하였음.



<표 1-46> 타 군인이 인권침해 시 신고 인지 여부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른다
타 군인이 인권 침해 시 신고 인지 여부	전체	1,339	86.4	13.6
	육군	843	88.8	11.2
	-육군훈련소	296	88.2	11.8
	-사단신교대	547	89.2	10.8
	해군	148	82.4	17.6
	공군	148	68.9	31.1
	해병대	200	92.0	8.0

○ 타 군인이 인권침해 시 신고 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알고 있다고 응답으로 나타남.

<표 1-47> 신고한 이의 신상정보 공개 시 처벌 인지 여부

구분		사례 수	알고 있다	모른다
신고한 이의 신상정보 공개 시 처벌 인지 여부	전체	1,340	67.5	32.5
	육군	843	69.4	30.6
	-육군훈련소	296	70.6	29.4
	-사단신교대	547	68.7	31.3
	해군	149	63.1	36.9
	공군	148	47.3	52.7
	해병대	200	77.5	22.5

○ 신고한 이의 신상정보 공개 시 처벌 인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은 모른다,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알고 있다가 더 많았음.

3. 군 의료 지원 및 코로나 예방 활동

<표 1-48> 1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1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전체	1,344	35.8	64.2
	육군	848	39.6	60.4
	-육군훈련소	299	49.5	50.5
	-사단신교대	549	34.2	65.8
	해군	149	38.3	61.7
	공군	149	11.4	88.6
	해병대	198	35.9	64.1

○ 1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훈련소에서 없다가 가장 많았음.

<표 1-49> 진료받기까지 소요 시간

구분		사례 수	요청 당일	요청 후 1일	요청 후 2일	요청 후 3일 이상
진료 받기까지 소요 시간	전체	484	59.9	36.2	2.5	1.4
	육군	337	56.4	39.8	2.4	1.5
	-육군훈련소	148	29.1	66.9	3.4	.7
	-사단신교대	189	77.8	18.5	1.6	2.1
	해군	58	89.7	5.2	3.4	1.7
	공군	17	76.5	11.8	5.9	5.9
	해병대	72	48.6	50.0	1.4	.0

○ 진료받기까지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해병대에서는 요청 후 1일,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요청 당일 가장 많았음.

<표 1-50> 1회 진료 시간

구분		사례 수	2-3분	5분 내외	10분 이상
1회 진료 시간	전체	484	39.0	52.5	8.5
	육군	337	40.4	52.2	7.4
	-육군훈련소	148	43.2	49.3	7.4
	-사단신교대	189	38.1	54.5	7.4
	해군	58	53.4	41.4	5.2
	공군	18	38.9	38.9	22.2
	해병대	71	21.1	66.2	12.7

○ 1회 진료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 해병대는 5분 내외, 해군은 2-3분으로 나타남.

<표 1-51> 1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1차 의료 기관 진료 만족도	전체	483	20.5	31.5	52	28.6	9.7	9.7	19.4	3.43
	육군	337	19.0	29.7	48.7	29.7	10.4	11.3	21.7	3.35
	-육군훈련소	148	17.6	22.3	39.9	29.1	14.9	16.2	31.1	3.10
	-사단신교대	189	20.1	35.4	55.5	30.2	6.9	7.4	14.3	3.54
	해군	57	15.8	38.6	54.4	26.3	12.3	7.0	19.3	3.44
	공군	17	11.8	23.5	35.3	41.2	5.9	17.6	23.5	3.06
	해병대	72	33.3	36.1	69.4	22.2	5.6	2.8	8.4	3.92

○ 1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고, 공군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음.

<표 1-52> 2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2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	전체	1,343	8.8	91.2
	육군	847	11.2	88.8
	-육군훈련소	299	14.7	85.3
	-사단신교대	548	9.3	90.7
	해군	148	6.8	93.2
	공군	149	4.0	96.0
	해병대	199	3.5	96.5

○ 2차 의료기관 진료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53> 진료받기까지 시간

구분		사례 수	요청 당일	요청 후 1일	요청 후 2일	요청 후 3일 이상
진료 받기까지 시간	전체	118	33.1	46.6	7.6	12.7
	육군	95	29.5	48.4	8.4	13.7
	-육군훈련소	44	25.0	59.1	6.8	9.1
	-사단신교대	51	33.3	39.2	9.8	17.6
	해군	10	50.0	50.0	.0	.0
	공군	6	100.0	.0	.0	.0
	해병대	7	.0	57.1	14.3	28.6

○ 진료받기까지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은 요청 당일, 해군은 요청 당일과 요청 후 1일,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요청 후 1일이 가장 많았음.

<표 1-54> 1회 진료 시간

구분		사례 수	2-3분	5분 내외	10분 이상
1회 진료 시간	전체	118	13.6	54.2	32.2
	육군	95	10.5	56.8	32.6
	-육군훈련소	44	11.4	54.5	34.1
	-사단신교대	51	9.8	58.8	31.4
	해군	10	30.0	40.0	30.0
	공군	6	50.0	33.3	16.7
	해병대	7	.0	57.1	42.9

○ 1회 진료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은 2-3분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5분 내외가 가장 많았음.

<표 1-55> 2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2차 의료 기관 진료 만족도	전체	117	24.8	38.5	63.3	23.9	7.7	5.1	12.8	3.70
	육군	95	24.2	38.9	63.1	23.2	8.4	5.3	13.7	3.68
	-육군훈련소	44	20.5	43.2	63.7	27.3	4.5	4.5	9	3.70
	-사단신교대	51	27.5	35.3	62.8	19.6	11.8	5.9	17.7	3.67
	해군	9	22.2	33.3	55.5	33.3	11.1	.0	11.1	3.67
	공군	6	.0	33.3	33.3	50.0	.0	16.7	16.7	3.00
	해병대	7	57.1	42.9	100	.0	.0	.0	0	4.57

○ 2차 의료기관 진료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공군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음.

<표 1-56> 본인 필요 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평균
본인 필요 시 의료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전체	1,345	34.5	47.8	82.3	14.5	3.2	17.7	3.14
	육군	847	34.7	48.3	83	14.3	2.7	17	3.15
	-육군훈련소	298	35.6	44.6	80.2	16.1	3.7	19.8	3.12
	-사단신교대	549	34.2	50.3	84.5	13.3	2.2	15.5	3.17
	해군	149	19.5	54.4	73.9	20.1	6.0	26.1	2.87
	공군	149	19.5	52.3	71.8	22.1	6.0	28.1	2.85
	해병대	200	56.0	37.5	93.5	5.5	1.0	6.5	3.49

○ 본인 필요 시 의료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해군과 공군에서 가장 부정적이었음.

<표 1-57> 스트레스받은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많이	② 많이	①+ ②	③ 조금	④ 전혀 안 느낌	③+ ④	평균
스트레스 받은 정도	전체	1,347	18.6	52.7	71.3	20.9	7.8	28.7	2.82
	육군	849	16.1	54.2	70.3	22.1	7.5	29.6	2.79
	-육군훈련소	299	11.7	51.8	63.5	28.4	8.0	36.4	2.67
	-사단신교대	550	18.5	55.5	74	18.7	7.3	26	2.85
	해군	150	27.3	56.0	83.3	12.7	4.0	16.7	3.07
	공군	148	39.9	51.4	91.3	6.1	2.7	8.8	3.28
	해병대	200	7.0	45.0	52	32.5	15.5	48	2.44

○ 스트레스받은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해병대에서 스트레스가 가장 낮았음.

<표 1-58> 코로나 19로 격리된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코로나 19로 격리된 경험	전체	1,343	57.6	42.4
	육군	847	64.8	35.2
	-육군훈련소	299	60.9	39.1
	-사단신교대	548	67.0	33.0
	해군	148	43.2	56.8
	공군	149	69.1	30.9
	해병대	199	28.6	71.4

○ 코로나 19로 격리된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없다,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있다가 가장 많았음.

<표 1-59> 격리기간

구분		사례 수	5일 미만	5-10일 미만	10일 이상
격리 기간	전체	771	5.8	17.6	76.5
	육군	549	4.6	8.7	86.7
	-육군훈련소	181	2.8	7.2	90.2
	-사단신교대	368	5.4	9.5	85.1
	해군	64	12.5	45.3	42.2
	공군	101	1.0	52.5	46.5
	해병대	57	19.3	10.5	70.2

○ 격리기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과 공군은 5-10일 미만,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10일 이상이 가장 많았음.

<표 1-60> 격리 시 불편한 점

구분		사례 수	급식	세면	샤워	화장실	기타
격리 시 불편한 점	전체	726	20.4	3.3	18.9	25.3	32.1
	육군	514	17.9	3.3	12.1	29.8	37.0
	-육군훈련소	171	17.5	5.8	17.5	21.1	38.0
	-사단신교대	343	18.1	2.0	9.3	34.1	36.4
	해군	63	30.2	6.3	42.9	1.6	19.0
	공군	97	27.8	.0	40.2	14.4	17.5
	해병대	52	19.2	5.8	17.3	30.8	26.9

○ 격리 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과 공군은 샤워, 육군과 해병대는 화장실이 가장 많았음.

<표 1-61> 격리기간 중 야외 허용 여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격리기간 중 야외 허용 여부	전체	763	22.1	77.9
	육군	543	26.7	73.3
	-육군훈련소	180	15.6	84.4
	-사단신교대	363	32.2	67.8
	해군	63	14.3	85.7
	공군	100	3.0	97.0
	해병대	57	21.1	78.9

○ 격리기간 중 야외 허용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야외 허용을 하지 않았음.



<표 1-62> 훈련소의 코로나 19 대응 적절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평균
훈련소의 코로나 19 대응 적절	전체	1,343	32.5	48.9	81.4	8.8	3.0	11.8	6.9	3.19
	육군	847	34.9	50.6	85.5	6.8	1.8	8.6	5.8	3.26
	-육군훈련소	299	33.8	53.2	87	7.0	1.7	8.7	4.3	3.24
	-사단신교대	548	35.6	49.3	84.9	6.8	1.8	8.6	6.6	3.27
	해군	150	14.7	46.7	61.4	20.0	8.0	28	10.7	2.76
	공군	146	13.7	50.7	64.4	15.1	6.8	21.9	13.7	2.83
	해병대	200	49.0	42.0	91	4.0	1.5	5.5	3.5	3.44

○ 훈련소의 코로나 19 대응 적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 가장 적절하였으며, 해군에서 가장 부정적이었음.

4. 군 인권교육 및 전반적인 인권의식

<표 1-63> 입소시간 중 인권교육 횟수

구분		사례 수	전혀 안받음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이상
입소시간 중 인권교육 횟수	전체	1,345	27.3	17.5	13.8	12.0	29.4
	육군	847	23.7	22.6	15.3	10.7	27.6
	-육군훈련소	299	35.8	30.8	12.4	4.0	17.1
	-사단신교대	548	17.2	18.1	17.0	14.4	33.4
	해군	149	15.4	24.8	31.5	20.1	8.1
	공군	149	96.0	3.4	.7	.0	.0
	해병대	200	.0	1.0	4.0	20.0	75.0

○ 입소시간 중 인권교육 횟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전혀 안 받음이 가장 많았으나 해병대는 총 4회 이상이 가장 많았음.

※공군의 경우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뤄지기 전에 설문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인권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음.

<표 1-64> 인권교육 진행자

구분		사례 수	지휘관	교관	군법무관	민간인 전문강사
인권교육 진행자	전체	957	36.8	42.5	13.8	6.9
	육군	634	36.8	44.2	12.0	7.1
	-육군훈련소	193	62.7	28.5	3.6	5.2
	-사단신교대	441	25.4	51.0	15.6	7.9
	해군	125	23.2	34.4	31.2	11.2
	공군	5	.0	80.0	20.0	.0
	해병대	193	46.6	41.5	8.3	3.6

○ 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은 교관, 사단 교육대와 공군은 교관, 해병대와 육군훈련소는 지휘관이 가장 많았음.

<표 1-65> 인권교육 형태

구분		사례 수	강의식	설명+동영상	동영상만
인권교육 형태	전체	960	48.5	42.5	9.0
	육군	638	46.1	40.6	13.3
	-육군훈련소	194	61.3	27.3	11.3
	-사단신교대	444	39.4	46.4	14.2
	해군	124	65.3	34.7	.0
	공군	5	80.0	20.0	.0
	해병대	193	45.1	54.4	.5

○ 인권교육 형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강의식과 설명+동영상으로 나타남.

<표 1-66>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평균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전체	962	29.8	53.5	83.3	13.7	2.9	16.6	3.10
	육군	640	26.4	56.9	83.3	13.9	2.8	16.7	3.07
	-육군훈련소	194	26.8	54.6	81.4	16.0	2.6	18.6	3.06
	-사단신교대	446	26.2	57.8	84	13.0	2.9	15.9	3.07
	해군	125	15.2	54.4	69.6	22.4	8.0	30.4	2.77
	공군	5	20.0	60.0	80	20.0	.0	20	3.00
	해병대	192	51.0	41.7	92.7	7.3	.0	7.3	3.44

○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는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으나, 해군에서 가장 부정적인 의견이었음.

<표 1-67> 인권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매우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매우 미흡
교육 시설의 적절성	전체	964	32.4	32.0	28.1	5.2	2.4
	육군	639	28.3	31.0	31.8	6.3	2.7
	-육군훈련소	194	25.8	35.1	28.4	8.2	2.6
	-사단신교대	445	29.4	29.2	33.3	5.4	2.7
	해군	126	29.4	34.9	28.6	4.8	2.4
	공군	6	33.3	33.3	33.3	.0	.0
	해병대	193	47.7	33.2	15.5	2.1	1.6
교육 내용의 적합성	전체	965	35.1	31.5	25.6	5.5	2.3
	육군	640	32.0	31.6	27.8	6.3	2.3
	-육군훈련소	194	30.4	34.5	26.8	6.2	2.1
	-사단신교대	446	32.7	30.3	28.3	6.3	2.5
	해군	126	23.8	31.7	32.5	7.9	4.0
	공군	6	33.3	33.3	33.3	.0	.0
	해병대	193	52.8	31.1	13.5	1.6	1.0
강사의 자질	전체	965	37.6	31.0	25.0	4.8	1.7
	육군	640	34.5	31.6	26.6	5.3	2.0
	-육군훈련소	194	36.1	35.6	21.1	5.7	1.5
	-사단신교대	446	33.9	29.8	28.9	5.2	2.2
	해군	126	27.0	33.3	31.7	5.6	2.4
	공군	6	33.3	33.3	33.3	.0	.0
	해병대	193	54.9	27.5	15.0	2.6	.0
지휘관 관심도	전체	965	42.8	28.2	24.5	2.9	1.7
	육군	640	40.5	27.5	27.0	3.0	2.0
	-육군훈련소	194	45.4	30.9	20.6	2.1	1.0
	-사단신교대	446	38.3	26.0	29.8	3.4	2.5
	해군	126	25.4	34.1	31.7	6.3	2.4
	공군	6	33.3	33.3	33.3	.0	.0
	해병대	193	62.2	26.4	10.9	.5	.0

○ 인권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교육 시설의 적절성, 교육 내용의 적합성, 강사의 자질, 지휘관 관심도에서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음.

<표 1-68> 훈련병의 기본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최대한 보장	기본적인 보장	권리 제한	잘 모름
훈련병의 기본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	전체	1,339	23.4	28.4	42.4	5.9
	육군	843	25.0	31.3	37.6	6.0
	-육군훈련소	295	14.9	30.8	50.5	3.7
	-사단신교대	548	30.5	31.6	30.7	7.3
	해군	150	19.3	23.3	51.3	6.0
	공군	146	37.7	41.8	13.7	6.8
	해병대	200	9.0	10.0	77.0	4.0

○ 훈련병의 기본권리 침해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는 최대한 보장과 기본적인 보장이 가장 많았으나, 해병대는 권리 제한이 가장 많았음.

<표 1-69> 격리조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도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축소 보도	현실 반영	다소 과장	매우 과장	잘 모름
격리조치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한 보도에 대한 인식	전체	1,345	4.0	19.0	33.3	20.1	23.6
	육군	848	2.9	19.5	32.8	21.8	23.0
	-육군훈련소	299	1.7	16.4	38.8	25.1	18.1
	-사단신교대	549	3.6	21.1	29.5	20.0	25.7
	해군	150	11.3	17.3	34.7	8.7	28.0
	공군	148	6.8	29.1	32.4	6.8	25.0
	해병대	199	1.0	10.6	35.2	31.7	21.6

○ 격리조치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다소 과장된 보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1-70> 훈련병 인권보장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훈련병 인권 보장 정도	전체	1,348	29.9	49.0	78.9	12.0	2.9	14.9	6.2	3.13
	육군	849	32.4	51.7	84.1	8.1	1.8	9.9	6.0	3.22
	-육군훈련소	299	35.1	54.8	89.9	6.7	.7	7.4	2.7	3.28
	-사단신교대	550	30.9	50.0	80.9	8.9	2.4	11.3	7.8	3.19
	해군	150	8.7	56.7	65.4	19.3	8.0	27.3	7.3	2.71
	공군	149	7.4	30.9	38.3	40.9	8.1	49	12.8	2.43
	해병대	200	52.0	45.0	97	1.5	.0	1.5	1.5	3.51

○ 훈련병 인권보장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공군에서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보임.

<표 1-71> 입대 전과 비교해 현 인권상황

구분		사례 수	좋다	똑같다	나쁘다	잘 모름
입대 전과 비교해 현 인권 상황	전체	1,347	60.4	25.2	9.4	4.9
	육군	848	66.7	22.1	6.5	4.7
	-육군훈련소	298	75.8	17.4	2.7	4.0
	-사단신교대	550	61.8	24.5	8.5	5.1
	해군	150	46.0	33.3	13.3	7.3
	공군	149	16.1	44.3	32.9	6.7
	해병대	200	77.5	18.5	1.5	2.5

○ 입대 전과 비교해 현 인권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똑같다와 나쁘다가 많았고, 그 외의 훈련소에서는 좋다는 응답이 더 많았음.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 [지휘관, 교관/조교]

---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방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훈련소 운영 실태와 훈련병 생활 전반, 그리고 최근 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응답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귀하의 경험을 토대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

귀하의 소속 부대 및 인적 사항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1-1] 소속	[1-2] 훈련소 보직	[1-3] 계급 (현역인 경우)	[1-3] 신분 (민간인인 경우)
[        ]	[        ]	[        ]	[        ]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대	1) 지휘관(자) 2) 교관 3) 조교 4) 감찰/군사경찰 5) 군 의료인력 6) 상담관	1) 대령 2) 중령 3) 소령 4) 대위 5) 중위 6) 소위 7) 준위 8) 원사 9) 상사 10) 중사 11) 하사 12) 병장 13) 상병 14) 일병 15) 이병	1) 군무원 2) 근무원

번호



## 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훈련소의 '생활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훈련병들의 생활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낡고 불편하다
2) 1인당 생활면적에 대한 느낌은?	① 여유가 있다      ② 보통이다 ③ 좁다
3) 냉난방 상태는?	① 쾌적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불편하다

**문2. 훈련소의 목욕 및 샤워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낡고 불편하다
2) 온수 공급은?	① 충분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하다
3) 사용 인원 에 비해 공간 면적은?	① 넓다      ② 보통이다 ③ 좁다
4) 양치, 세면 여건은?	① 여유있다 ② 보통이다 ③ 좁고 붐빈다

**문3. 훈련소 식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낡고 불편하다
2) 사용 인원에 비해 공간 면적은?	① 넓다            ② 보통이다 ③ 좁다
3) 식사 시간은?	① 여유있다      ② 보통이다 ③ 늘 쫓긴다

**문4. 훈련소 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의 상태는?	① 양호하다      ② 보통이다 ③ 낡고 불편하다
2) 사용 인원에 비해 화장실 수는?	① 충분하다      ② 보통이다 ③ 부족하다
3) 화장실 이용 시간은?	① 여유있다      ② 보통이다 ③ 늘 쫓긴다

**문5. 훈련소 시설 전반의 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양호	대체로 양호	보통	대체로 열악	매우 열악
1) 생활관(내무반)	①	②	③	④	⑤
2) 목욕/샤워시설, 세면장	①	②	③	④	⑤
3) 화장실	①	②	③	④	⑤
4) 식당	①	②	③	④	⑤
5) 군매점(PX, BX 등)	①	②	③	④	⑤

훈련소에서 제공하는 '급식'과 '보급품'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6. 귀하는 훈련병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관련하여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항목	매우 양호	대체로 양호	보통	대체로 미흡	매우 미흡
1) 맛	①	②	③	④	⑤
2) 양	①	②	③	④	⑤
3) 메뉴	①	②	③	④	⑤
4) 위생	①	②	③	④	⑤
5) 영양적으로 균형 있는 식사	①	②	③	④	⑤
6) 자율적인 배식	①	②	③	④	⑤
7) 전반적인 평가	①	②	③	④	⑤

**문7. 귀하는 부대에서 훈련병에게 지급하는 일용품의 양과 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류	양			질		
	충분하다	적당하다	부족하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1) 칫솔	①	②	③	①	②	③
2) 치약	①	②	③	①	②	③
3) 비누	①	②	③	①	②	③
4) 화장지	①	②	③	①	②	③

훈련병의 '휴식'과 '사생활 보장'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훈련병의 휴식 여건과 취침시간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보장되고 있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1)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 보장 정도	①	②	③
2) 휴무일 휴식시간 보장 정도	①	②	③
3) 취침시간 보장 정도	①	②	③

**문9. 귀 훈련소 훈련병의 군매점(PX, BX 등) 이용 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이용 시기 및 시간은?	① 훈련병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 시기와 시간에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훈련병들이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는다 ③ 훈련병들이 원할 때 여유 있게 이용하기 어렵다
2) 구매 물품의 범위(종류)는?	① 물품이 다양하고 필요한 건 충분히 구매할 수 있다 ② 물품은 다양하지만 때때로 수량이 부족해서 훈련병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없을 때가 있다 ③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제한되어 있고, 양도 부족하다

**문10. 귀하는 훈련소 입소 기간 중 훈련병에게는 흡연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유사시 흡연을 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한 훈련의 일환으로 흡연 제한은 적절하다
- 2) 단체 생활에 필요하다면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
- 3) 군이 흡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4) 훈련병의 흡연할 권리도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5) 잘 모르겠다

**문11. 귀하의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에게 개인 신상정보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했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12. 훈련병에게 가족과 지인의 인터넷 편지를 전달할 때 그 내용이 공개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가끔 있었다
- 3) 별로 없었다
- 4) 전혀 없었다

**문13. 훈련병의 개인사물함(관물대)이나 소지품 검사가 부당하다고 훈련병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 1) 자주 있었다
- 2) 가끔 있었다
- 3) 별로 없었다
- 4) 전혀 없었다

**문14. 귀하의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은 개인이 구매한 화장품이나 세면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15. 훈련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와의 통화 등 외부와의 소통에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중전화 이용과 관련해서 다음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문15-1. 훈련병들은 공중전화를 언제 이용할 수 있나요?**

- 1)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 2)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다

**문15-2. 훈련병들에게 1회 통화 가능한 시간은 보통 어느 정도 허용이 되나요?**

- 1) 3분 이내
- 2) 5분 이내
- 3) 10분 이내
- 4) 20분 이내
- 5) 20분 이상

**문15-3. 훈련소에 있는 공중전화 대수는 훈련병들이 이용하는 데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 1) 충분하다
- 2) 부족하다

**문15-4. 공중전화 이외에 훈련병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 주세요.**

---

**문16. 귀하는 현재 훈련병들이 외부와 연락(소통)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
|-----------------|-----------------|
| 1) 충분히 갖춰져 있다   | 2)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
| 3) 별로 갖춰져 있지 않다 | 4)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
| 5) 잘 모르겠다       |                 |

**문17. 일과 후나 주말·공휴일에 훈련병들의 생활관 TV 시청 여건은 어떠한가요?**

- 1) 훈련병들은 자유롭게 시청 가능하며,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다
- 2) 시청은 가능하지만, 교육용 동영상만 틀어주고 있어 훈련병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 3) 훈련병들은 일과 후나 주말·공휴일에도 TV를 보기가 어렵다
- 4) 평일에는 교육용 동영상을 틀어주지만,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반 방송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문18.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접할 수 있는 매체는 생활관의 TV와 국방일보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훈련병들의 욕구를 감안할 때 군 외부(사회)의 소식·정보를 얻는 수단으로서 이들 매체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매체	소식·정보 획득 수단으로서 충분한 정도				
	매우 충분	대체로 충분	보통	다소 불충분	매우 불충분
1) TV	①	②	③	④	⑤
2) 국방일보	①	②	③	④	⑤

**문19. 귀하의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이 일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1) 있다
- 2) 없다

**문20. 귀하의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이 군 외부(사회)의 소식·정보를 접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충분히 갖춰져 있다
- 2)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 3) 별로 갖춰져 있지 않다
- 4)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21. 귀하의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에게 종교활동의 자유(원하는 종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원치 않는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자유)가 적절히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22. 현재 귀하의 훈련소에서 훈련병의 두발 손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1) 외부에서 이발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머리를 깎아 주고 있다
- 2) 부대에 이발병이 배치되어 수시로 머리를 깎아 주고 있다
- 3) 부대별로 이발기가 비치되어 있어 훈련병들끼리 깎아 주고 있다
- 4) 기타 ( )

**문23. 훈련병의 두발 손질 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별 문제가 없다
- 2) 개선되어야 한다

**문24. 훈련병들의 두발(머리 길이와 형태) 상태는 간부나 일반 병사보다 짧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와 같은 훈련병들의 두발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 2) 대체로 적절하다고 본다
- 3)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 4) 매우 부적절하다
- 5) 잘 모르겠다



##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 침해

훈련병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25. 귀하의 훈련소에서는 최근 1년 간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또는 훈련병들 간에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 용어 설명

- 가혹행위 : 비정상적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
- 언어폭력(폭언) : 상대방의 입장과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사납고 거칠게 하는 말
- 성희롱 :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성추행/성폭력 :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추행, 성매매 등은 모두 '성범죄'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된다.
- 군기훈련 : 군기훈련이란 군기의 확립을 위하여 시정이 필요한 경우 지휘관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실시하는 정신수양과 체력단련을 의미한다.

인권침해유형	발생 빈도				
	전혀 없음	아주 드물게	가끔	자주	매우 빈번하게
1) 구타	①	②	③	④	⑤
2) 가혹행위	①	②	③	④	⑤
3)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⑤
4)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5) 성추행/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6) 부당한 군기훈련 (일명 "얼차려")	①	②	③	④	⑤

- ☞ 위 1)~6)까지의 침해행위 모두에 '전혀 없음' 응답자는 문26로 가시오.
- ☞ 어느 한 가지라도 발생한 적이 있다면 문25-1~문25-5에 응답해 주세요.

**문25-1. (각각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주로 누가 훈련병들에게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발생했던 침해 유형에 대해서만 표시해 주세요.**

인권 침해 유형	가해자					
	지휘관	부대 간부	교관	조교	동료 훈련병	기타 ※ 괄호 안에 적어 주세요.
1) 구타	①	②	③	④	⑤	⑥ ( )
2) 가혹행위	①	②	③	④	⑤	⑥ ( )
3) 언어폭력	①	②	③	④	⑤	⑥ ( )
4) 성희롱	①	②	③	④	⑤	⑥ ( )
5) 성추행/성폭력	①	②	③	④	⑤	⑥ ( )
6) 군기훈련(얼차려)	①	②	③	④	⑤	⑥ ( )

**문25-2. (각각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이런 행위들은 주로 어느 시점에서 발생했나요?  
발생했던 침해 유형에 대해서만 표시해 주세요.**

인권 침해 유형	발생 시점	
	일과시간 내 훈련과정	일과시간 이후 (주말, 공휴일 포함)
1) 구타	①	②
2) 가혹행위	①	②
3) 언어폭력	①	②
4) 성희롱	①	②
5) 성추행/성폭력	①	②
6) 군기훈련(얼차려)	①	②

**문25-3. (각각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훈련병들은 본인이 겪은 인권 침해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고나 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 1) 매우 적극적으로 보고나 신고를 한다
- 2) 대체로 보고나 신고를 하는 편이다
- 3) 보고나 신고를 별로 하지 않는 편이다
- 4) 보고나 신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문25-4. (각각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보고나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부대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인지했을 때 적절하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 5) 잘 모르겠다

**문25-5. (각각의 행위가 발생했다면) 위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부대 관계자들(지휘관, 간부, 교관, 조교 등)이 훈련병의 입장과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부대 관계자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1) 지휘관	①	②	③	④	⑤
2) 부대 간부	①	②	③	④	⑤
3) 교관	①	②	③	④	⑤
4) 조교	①	②	③	④	⑤

**문26. 현재 군 내외에는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기관/기구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훈련소에서는 이와 같은 제도나 기관/기구들을 훈련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신가요?**

※ 인권 침해 시 구제제도 및 관련 기관/기구  
마음의 편지 및 소원 수리, 국방헬프콜, 국방부 및 각 군인권센터,  
부대 인권상담관, 성고충전문상담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1) 매우 그렇다
- 2) 대체로 그렇다
- 3) 별로 그렇지 않다
- 4) 전혀 그렇지 않다

**문27. 훈련소 퇴소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인권 침해 시 구제제도 및 관련 기관/기구에 대해 훈련병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 2) 대체로 알고 있는 것 같다
- 3) 별로 모르는 것 같다
- 4)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문28. 귀하의 훈련소에서는 훈련병들에게 '마음의 편지'를 어떤 주기로 받고 있습니까?**

- 1) 수시로 받고 있다
- 2) 주 1회 정도 받고 있다
- 3) 전체 훈련 기간 중 2회 정도 받고 있다
- 4) 퇴소 시점에서 1회 받고 있다

**문29. 훈련병들은 '마음의 편지'를 통해 주로 어떤 문제를 제기 혹은 호소하고 있나요?**

아시는 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30. '마음의 편지'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시나요?**

- 1) 방송으로 알려 주고 있다
- 2) 생활관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 주고 있다
- 3) 개별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 4) 기타 ( )

**문31. 훈련병들은 '마음의 편지' 조치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 1) 매우 만족하는 것 같다
- 2) 대체로 만족하는 것 같다
- 3) 별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 4)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다

## 군 인권교육 및 전반적인 인권의식

㉞ 인권교육이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 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을 말합니다.

**문32. 귀하의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은 훈련 기간 동안 몇 차례 정도 인권교육을 받으십니까?**

- 1) 총 1회
- 2) 총 2회
- 3) 총 3회
- 4) 총 4회 이상

**문33. 귀하의 훈련소에서 훈련병 대상 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하십니까?**

- 1) 지휘관
- 2) 교관
- 3) 군 법무관
- 4) 민간인 전문강사

**문34. 훈련소에서 훈련병 대상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 1) 강의식
- 2) 약간의 설명과 함께 동영상 시청
- 3) 설명 없이 동영상만 시청

문35.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훈련소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제고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된다
- 2) 대체로 도움이 된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36. 귀하는 최근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몇 회나 있습니까?

- 1) 없다 (☞문37로 이동)
- 2) 총 1회      3) 총 2회      4) 총 3회      5) 총 4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6-1. 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하였습니까?

- 1) 지휘관
- 2) 교관
- 3) 군 법무관
- 4) 민간인 전문강사

문36-2.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였습니까?

- 1) 강의식
- 2) 약간의 설명과 함께 동영상 시청
- 3) 설명 없이 동영상만 시청

문36-3. 인권교육이 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제고 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 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36-4. 인권교육의 여건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별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매우 미흡
1) 교육 시설(장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내용(교재, 콘텐츠)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3) 강사의 자질(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	①	②	③	④	⑤

**문37. 귀하는 “훈련병은 ‘군인화 과정’(군인으로서의 자세와 역량을 갖춰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반 장병들보다는 기본적인 권리(예: 휴대폰 사용, 흡연 허용 등)가 많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훈련병도 국민(시민)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 2) 훈련병도 일반 장병과 비슷한 수준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 3) 훈련병은 엄격한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이므로 일반 장병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 5) 잘 모르겠다

**문38. 귀하는 최근 훈련소에서의 코로나 19 예방과 관련된 격리조치(양치·세면·샤워 제한, 화장실 이용 통제 등)가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실제 문제보다 축소된 보도내용이고 현실은 더 심각하다
- 2) 현실이 잘 반영된 보도내용이다
- 3) 실제 문제보다는 다소 과장되었다
- 4) 실제 문제보다는 매우 과장되었다
- 5) 잘 모르겠다



**문39. 귀하는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 2) 대체로 보장되는 편이다
- 3)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문40. 귀하는 훈련병 인권보장이 신병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훈련병 인권보장은 신병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2) 훈련병 인권보장과 신병훈련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별 영향이 없다
- 3) 훈련병 인권보장은 신병훈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문41. 귀하의 훈련소에서는 훈련병 인권보장을 이유로 규정된 훈련을 포기하거나 축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까?**

- 1) 매우 자주 있었다
- 2) 가끔 있었다
- 3) 아주 드물게 있었다
- 4) 전혀 없었다
- 5) 잘 모르겠다

**문42. 훈련소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 등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훈련소에서 교관·조교 임무를 수행하시는 분들만  
응답해 주세요.

문43. 귀하는 교육 훈련 중 훈련병들이 인권보장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44로 이동)



문43-1.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44. 귀하는 교육 훈련 중 신병훈련의 목표 달성 등 직무상의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 or 귀하는 교육훈련 중 교관이나 조교에 의해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45으로 이동)



문44-1.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45. 귀하는 훈련병들의 소원 수리(마음의 편지 포함)로 인해 자신이나 동료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45-1.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분석결과

### 1. 훈련소 기본생활 여건

#### (1) 훈련소 생활시설

<표 2-1> 생활관 시설 상태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7	45.0	31.8	23.3
소속	육군	266	48.1	28.2	23.7
	-육군훈련소	78	20.5	29.5	50.0
	-사단신교대	188	59.6	27.7	12.8
	해군	32	31.3	37.5	31.3
	공군	44	36.4	50.0	13.6
	해병대	45	44.4	31.1	24.4
보직	지휘관	63	30.2	38.1	31.7
	교관+조교	324	47.8	30.6	21.6
	교관	141	37.6	30.5	31.9
	조교	183	55.7	30.6	13.7
계급	영관	6	50.0	16.7	33.3
	위관	27	44.4	37.0	18.5
	부사관	178	33.1	34.3	32.6
	병	176	56.8	29.0	14.2

○ 생활관 시설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이었으나, 공군, 지휘관, 부사관에서 보통이라는 인식이 더 많았음.

<표 2-2> 1인당 생활면적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6	33.9	30.8	35.2
소속	육군	265	32.1	30.2	37.7
	-육군훈련소	78	11.5	29.5	59.0
	-사단신교대	187	40.6	30.5	28.9
	해군	32	50.0	25.0	25.0
	공군	44	34.1	47.7	18.2
	해병대	45	33.3	22.2	44.4
보직	지휘관	62	21.0	19.4	59.7
	교관+조교	324	36.4	33.0	30.6
	교관	141	30.5	22.7	46.8
	조교	183	41.0	41.0	18.0
계급	영관	6	33.3	33.3	33.3
	위관	27	40.7	25.9	33.3
	부사관	177	24.9	23.2	52.0
	병	176	42.0	39.2	18.8

○ 1인당 생활면적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 지휘관, 부사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음.

<표 2-3> 냉난방 상태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5	56.6	32.2	11.2
소속	육군	265	52.5	33.2	14.3
	-육군훈련소	78	42.3	37.2	20.5
	-사단신교대	187	56.7	31.6	11.8
	해군	31	67.7	32.3	.0
	공군	44	65.9	31.8	2.3
	해병대	45	64.4	26.7	8.9
보직	지휘관	62	40.3	45.2	14.5
	교관+조교	323	59.8	29.7	10.5
	교관	140	47.9	36.4	15.7
	조교	183	68.9	24.6	6.6
계급	영관	6	33.3	33.3	33.3
	위관	27	44.4	40.7	14.8
	부사관	176	47.7	38.6	13.6
	병	176	68.2	24.4	7.4

○ 냉난방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음.

<표 2-4> 목욕 및 샤워 시설 상태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7	45.7	30.5	23.8
소속	육군	266	46.6	28.9	24.4
	-육군훈련소	78	11.5	30.8	57.7
	-사단신교대	188	61.2	28.2	10.6
	해군	32	40.6	40.6	18.8
	공군	44	45.5	38.6	15.9
	해병대	45	44.4	24.4	31.1
보직	지휘관	63	28.6	41.3	30.2
	교관+조교	324	49.1	28.4	22.5
	교관	141	34.8	33.3	31.9
	조교	183	60.1	24.6	15.3
계급	영관	6	50.0	16.7	33.3
	위관	27	44.4	37.0	18.5
	부사관	178	31.5	36.5	32.0
	병	176	60.2	23.9	15.9

○ 목욕 및 샤워 시설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음.

<표 2-5> 목욕 및 샤워 시설 온수 공급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6	63.2	20.5	16.3
소속	육군	265	60.4	18.1	21.5
	-육군훈련소	78	10.3	26.9	62.8
	-사단신교대	187	81.3	14.4	4.3
	해군	32	78.1	21.9	.0
	공군	44	75.0	22.7	2.3
	해병대	45	57.8	31.1	11.1
보직	지휘관	62	64.5	29.0	6.5
	교관+조교	324	63.0	18.8	18.2
	교관	141	60.3	23.4	16.3
	조교	183	65.0	15.3	19.7
계급	영관	6	83.3	.0	16.7
	위관	27	81.5	18.5	.0
	부사관	177	59.3	26.0	14.7
	병	176	63.6	15.9	20.5

○ 목욕 및 샤워 시설 온수 공급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긍정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음.



<표 2-6> 목욕 및 샤워 시설 인원대비 공간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6	29.8	35.2	35.0
소속	육군	265	29.4	34.7	35.8
	-육군훈련소	78	9.0	38.5	52.6
	-사단신교대	187	38.0	33.2	28.9
	해군	32	34.4	40.6	25.0
	공군	44	29.5	50.0	20.5
	해병대	45	28.9	20.0	51.1
보직	지휘관	62	17.7	24.2	58.1
	교관+조교	324	32.1	37.3	30.6
	교관	141	24.8	29.1	46.1
	조교	183	37.7	43.7	18.6
계급	영관	6	33.3	16.7	50.0
	위관	27	29.6	40.7	29.6
	부사관	177	22.0	27.7	50.3
	병	176	37.5	42.6	19.9

○ 목욕 및 샤워 시설 인원대비 공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해병대, 지휘관, 영관급, 부사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많았음.

<표 2-7> 양치/세면 여건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4	53.1	27.6	19.3
소속	육군	264	52.7	27.3	20.1
	-육군훈련소	77	32.5	29.9	37.7
	-사단신교대	187	61.0	26.2	12.8
	해군	31	54.8	35.5	9.7
	공군	44	59.1	31.8	9.1
	해병대	45	48.9	20.0	31.1
보직	지휘관	61	36.1	29.5	34.4
	교관+조교	323	56.3	27.2	16.4
	교관	140	41.4	32.1	26.4
	조교	183	67.8	23.5	8.7
계급	영관	6	33.3	33.3	33.3
	위관	27	51.9	40.7	7.4
	부사관	175	40.0	29.7	30.3
	병	176	67.0	23.3	9.7

○ 양치/세면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긍정이나 보통도 많았으며, 해병대와 부사관에서는 부정이 높게 나타남.

<표 2-8> 훈련소 식당 상태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6	57.8	27.5	14.8
소속	육군	266	57.1	25.6	17.3
	-육군훈련소	78	28.2	39.7	32.1
	-사단신교대	188	69.1	19.7	11.2
	해군	31	90.3	9.7	.0
	공군	44	50.0	43.2	6.8
	해병대	45	46.7	35.6	17.8
보직	지휘관	63	52.4	25.4	22.2
	교관+조교	323	58.8	27.9	13.3
	교관	140	50.7	29.3	20.0
	조교	183	65.0	26.8	8.2
계급	영관	6	50.0	16.7	33.3
	위관	27	59.3	29.6	11.1
	부사관	177	50.3	29.4	20.3
	병	176	65.3	25.6	9.1

○ 훈련소 식당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이 가장 많았음.

<표 2-9> 식당의 인원대비 공간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5	42.1	37.9	20.0
소속	육군	265	38.1	40.0	21.9
	-육군훈련소	78	11.5	47.4	41.0
	-사단신교대	187	49.2	36.9	13.9
	해군	31	71.0	29.0	.0
	공군	44	45.5	45.5	9.1
	해병대	45	42.2	24.4	33.3
보직	지휘관	62	32.3	33.9	33.9
	교관+조교	323	44.0	38.7	17.3
	교관	140	38.6	35.7	25.7
	조교	183	48.1	41.0	10.9
계급	영관	6	33.3	33.3	33.3
	위관	27	44.4	44.4	11.1
	부사관	176	36.9	34.1	29.0
	병	176	47.2	40.9	11.9

○ 식당의 인원대비 공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이 가장 많았음.

<표 2-10> 식사 시간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3	54.6	30.8	14.6
소속	육군	264	56.4	28.0	15.5
	-육군훈련소	78	38.5	34.6	26.9
	-사단신교대	186	64.0	25.3	10.8
	해군	30	56.7	43.3	.0
	공군	44	52.3	34.1	13.6
	해병대	45	44.4	35.6	20.0
보직	지휘관	61	37.7	36.1	26.2
	교관+조교	322	57.8	29.8	12.4
	교관	139	45.3	34.5	20.1
	조교	183	67.2	26.2	6.6
계급	영관	5	40.0	60.0	.0
	위관	27	48.1	37.0	14.8
	부사관	175	43.4	33.7	22.9
	병	176	67.0	26.1	6.8

○ 식사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이 가장 많았음.

<표 2-11> 화장실 시설 상태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5	42.6	31.9	25.5
소속	육군	265	46.8	30.6	22.6
	-육군훈련소	77	6.5	35.1	58.4
	-사단신교대	188	63.3	28.7	8.0
	해군	32	18.8	40.6	40.6
	공군	44	43.2	34.1	22.7
	해병대	44	34.1	31.8	34.1
보직	지휘관	63	30.2	39.7	30.2
	교관+조교	322	45.0	30.4	24.5
	교관	140	34.3	33.6	32.1
	조교	182	53.3	28.0	18.7
계급	영관	6	33.3	50.0	16.7
	위관	27	51.9	33.3	14.8
	부사관	177	31.1	34.5	34.5
	병	175	53.1	28.6	18.3

○ 화장실 시설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와 해군에서 부정이 가장 많았음.

<표 2-12> 인원대비 화장실 수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4	40.1	29.2	30.7
소속	육군	264	43.9	27.7	28.4
	-육군훈련소	77	20.8	31.2	48.1
	-사단신교대	187	53.5	26.2	20.3
	해군	32	28.1	37.5	34.4
	공군	44	40.9	38.6	20.5
	해병대	44	25.0	22.7	52.3
보직	지휘관	62	22.6	29.0	48.4
	교관+조교	322	43.5	29.2	27.3
	교관	140	30.7	31.4	37.9
	조교	182	53.3	27.5	19.2
계급	영관	6	33.3	33.3	33.3
	위관	27	48.1	33.3	18.5
	부사관	176	26.1	30.7	43.2
	병	175	53.1	26.9	20.0

○ 인원대비 화장실 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해병대, 지휘관, 부사관에서 부정이 가장 많았음.

<표 2-13> 화장실 이용시간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83	56.1	30.8	13.1
소속	육군	264	59.1	28.8	12.1
	-육군훈련소	77	41.6	40.3	18.2
	-사단신교대	187	66.3	24.1	9.6
	해군	32	59.4	21.9	18.8
	공군	44	56.8	38.6	4.5
	해병대	43	34.9	41.9	23.3
보직	지휘관	62	38.7	33.9	27.4
	교관+조교	321	59.5	30.2	10.3
	교관	139	50.4	36.0	13.7
	조교	182	66.5	25.8	7.7
계급	영관	6	33.3	50.0	16.7
	위관	27	59.3	33.3	7.4
	부사관	175	47.4	33.7	18.9
	병	175	65.1	26.9	8.0

○ 화장실 이용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긍정이 가장 많았음.



<표 2-14> 생활관 전반적 상태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6	31.3	24.9	56.2	20.2	17.4	6.2	23.6	3.58	
소속	육군	266	33.8	22.2	56	18.0	18.4	7.5	25.9	3.56
	-육군훈련소	78	5.1	20.5	25.6	24.4	34.6	15.4	50	2.65
	-사단신교대	188	45.7	22.9	68.6	15.4	11.7	4.3	16	3.94
	해군	32	12.5	40.6	53.1	21.9	25.0	.0	25	3.41
	공군	44	27.3	38.6	65.9	27.3	4.5	2.3	6.8	3.84
	해병대	44	34.1	15.9	50	25.0	18.2	6.8	25	3.52
보직	지휘관	63	17.5	23.8	41.3	25.4	27.0	6.3	33.3	3.19
	교관+조교	323	34.1	25.1	59.2	19.2	15.5	6.2	21.7	3.65
	교관	140	24.3	19.3	43.6	23.6	20.7	12.1	32.8	3.23
	조교	183	41.5	29.5	71	15.8	11.5	1.6	13.1	3.98
계급	영관	6	16.7	50.0	66.7	.0	16.7	16.7	33.4	3.33
	위관	27	22.2	33.3	55.5	25.9	7.4	11.1	18.5	3.48
	부사관	177	23.7	18.6	42.3	23.7	24.3	9.6	33.9	3.23
	병	176	40.9	29.0	69.9	16.5	11.9	1.7	13.6	3.95

○ 생활관 전반적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에서 부정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의 소속, 보직, 계급에서는 보통 이상으로 나타남.

<표 2-15> 목욕/샤워 시설, 세면장 전반적 상태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4	28.4	24.0	52.4	19.0	17.7	10.9	28.6	3.41
소속	육군	265	30.6	20.4	51	18.9	17.0	13.2	30.2	3.38
	-육군훈련소	78	3.8	11.5	15.3	16.7	30.8	37.2	68	2.14
	-사단신교대	187	41.7	24.1	65.8	19.8	11.2	3.2	14.4	3.90
	해군	32	12.5	37.5	50	21.9	28.1	.0	28.1	3.34
	공군	44	27.3	43.2	70.5	15.9	9.1	4.5	13.6	3.80
	해병대	43	27.9	16.3	44.2	20.9	23.3	11.6	34.9	3.26
보직	지휘관	62	12.9	30.6	43.5	22.6	24.2	9.7	33.9	3.13
	교관+조교	322	31.4	22.7	54.1	18.3	16.5	11.2	27.7	3.47
	교관	139	19.4	18.7	38.1	23.0	24.5	14.4	38.9	3.04
	조교	183	40.4	25.7	66.1	14.8	10.4	8.7	19.1	3.79
계급	영관	6	33.3	33.3	66.6	.0	16.7	16.7	33.4	3.50
	위관	27	22.2	33.3	55.5	22.2	14.8	7.4	22.2	3.48
	부사관	175	17.7	21.7	39.4	22.9	24.6	13.1	37.7	3.06
	병	176	39.8	24.4	64.2	15.3	11.4	9.1	20.5	3.74

○ 목욕/샤워 시설, 세면장 전반적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에서 부정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소속, 보직, 계급에서는 긍정이 많았음.

<표 2-16> 화장실 전반적 상태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4	28.1	20.3	48.4	22.9	19.8	8.9	28.7	3.39	
소속	육군	265	30.6	20.0	50.6	23.0	15.8	10.6	26.4	3.44
	-육군훈련소	78	3.8	14.1	17.9	19.2	32.1	30.8	62.9	2.28
	-사단신교대	187	41.7	22.5	64.2	24.6	9.1	2.1	11.2	3.93
	해군	32	9.4	21.9	31.3	28.1	40.6	.0	40.6	3.00
	공군	44	27.3	31.8	59.1	25.0	13.6	2.3	15.9	3.68
	해병대	43	27.9	9.3	37.2	16.3	34.9	11.6	46.5	3.07
보직	지휘관	62	14.5	21.0	35.5	22.6	32.3	9.7	42	2.98
	교관+조교	322	30.7	20.2	50.9	23.0	17.4	8.7	26.1	3.47
	교관	139	19.4	15.8	35.2	28.1	24.5	12.2	36.7	3.06
	조교	183	39.3	23.5	62.8	19.1	12.0	6.0	18	3.78
계급	영관	6	33.3	16.7	50	16.7	16.7	16.7	33.4	3.33
	위관	27	22.2	29.6	51.8	33.3	11.1	3.7	14.8	3.56
	부사관	175	18.9	16.0	34.9	24.6	28.6	12.0	40.6	3.01
	병	176	38.1	23.3	61.4	19.9	12.5	6.3	18.8	3.74

○ 화장실 전반적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지휘관에서 부정이 가장 많았고, 그 외의 소속, 보직, 계급에서는 보통 이상이 가장 많았음.

<표 2-17> 식당 전반적 상태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4	33.6	25.0	58.6	24.7	10.9	5.7	16.6	3.70
소속	육군	264	33.0	24.2	57.2	25.4	11.0	6.4	17.4	3.66
	-육군훈련소	78	6.4	29.5	35.9	34.6	16.7	12.8	29.5	3.00
	-사단신교대	186	44.1	22.0	66.1	21.5	8.6	3.8	12.4	3.94
	해군	32	56.3	31.3	87.6	9.4	3.1	.0	3.1	4.41
	공군	44	22.7	36.4	59.1	31.8	6.8	2.3	9.1	3.70
	해병대	44	31.8	13.6	45.4	25.0	20.5	9.1	29.6	3.39
보직	지휘관	61	23.0	23.0	46	26.2	19.7	8.2	27.9	3.33
	교관+조교	323	35.6	25.4	61	24.5	9.3	5.3	14.6	3.77
	교관	140	28.6	22.1	50.7	26.4	13.6	9.3	22.9	3.47
	조교	183	41.0	27.9	68.9	23.0	6.0	2.2	8.2	3.99
계급	영관	6	16.7	16.7	33.4	50.0	.0	16.7	16.7	3.17
	위관	27	25.9	33.3	59.2	22.2	14.8	3.7	18.5	3.63
	부사관	175	28.0	21.7	49.7	25.7	15.4	9.1	24.5	3.44
	병	176	40.9	27.3	68.2	23.3	6.3	2.3	8.6	3.98

○ 식당 전반적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에서 긍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도 긍정이 가장 많았음.

<표 2-18> 군매점 전반적 상태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76	40.2	28.2	68.4	21.8	7.2	2.7	9.9	3.96
소속	육군	265	40.8	28.3	69.1	21.1	6.8	3.0	9.8	3.97
	-육군훈련소	78	17.9	37.2	55.1	25.6	16.7	2.6	19.3	3.51
	-사단신교대	187	50.3	24.6	74.9	19.3	2.7	3.2	5.9	4.16
	해군	26	50.0	30.8	80.8	15.4	3.8	.0	3.8	4.27
	공군	42	45.2	38.1	83.3	11.9	4.8	.0	4.8	4.24
	해병대	43	25.6	16.3	41.9	39.5	14.0	4.7	18.7	3.44
보직	지휘관	58	17.2	36.2	53.4	31.0	10.3	5.2	15.5	3.50
	교관+조교	318	44.3	26.7	71	20.1	6.6	2.2	8.8	4.04
	교관	135	37.0	25.2	62.2	28.9	5.9	3.0	8.9	3.87
	조교	183	49.7	27.9	77.6	13.7	7.1	1.6	8.7	4.17
계급	영관	6	33.3	16.7	50	33.3	.0	16.7	16.7	3.50
	위관	27	37.0	40.7	77.7	11.1	7.4	3.7	11.1	4.00
	부사관	167	31.1	26.3	57.4	31.7	7.8	3.0	10.8	3.75
	병	176	49.4	28.4	77.8	13.6	6.8	1.7	8.5	4.17

○ 군매점 전반적 상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2) 훈련소에서 제공하는 급식과 보급품

<표 2-19> 급식 맛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8	36.3	31.7	68	20.1	9.0	2.8	11.8	3.90
소속	육군	266	36.5	32.7	69.2	18.8	9.8	2.3	12.1	3.91
	-육군훈련소	78	19.2	30.8	50	25.6	21.8	2.6	24.4	3.42
	-사단신교대	188	43.6	33.5	77.1	16.0	4.8	2.1	6.9	4.12
	해군	32	46.9	28.1	75	21.9	3.1	.0	3.1	4.19
	공군	44	29.5	38.6	68.1	20.5	4.5	6.8	11.3	3.80
	해병대	46	34.8	21.7	56.5	26.1	13.0	4.3	17.3	3.70
보직	지휘관	64	37.5	35.9	73.4	17.2	9.4	.0	9.4	4.02
	교관+조교	324	36.1	30.9	67	20.7	9.0	3.4	12.4	3.87
	교관	141	37.6	31.9	69.5	25.5	2.8	2.1	4.9	4.00
	조교	183	35.0	30.1	65.1	16.9	13.7	4.4	18.1	3.78
계급	영관	7	14.3	71.4	85.7	14.3	.0	.0	0	4.00
	위관	27	59.3	22.2	81.5	18.5	.0	.0	0	4.41
	부사관	178	36.0	34.3	70.3	22.5	5.6	1.7	7.3	3.97
	병	176	34.1	29.0	63.1	18.2	14.2	4.5	18.7	3.74

○ 급식 맛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이 가장 많았음.

<표 2-20> 급식 양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8	29.1	28.9	58	23.7	14.2	4.1	18.3	3.65
소속	육군	266	27.1	32.0	59.1	25.9	12.8	2.3	15.1	3.69
	-육군훈련소	78	14.1	41.0	55.1	24.4	16.7	3.8	20.5	3.45
	-사단신교대	188	32.4	28.2	60.6	26.6	11.2	1.6	12.8	3.79
	해군	32	46.9	31.3	78.2	15.6	6.3	.0	6.3	4.19
	공군	44	29.5	22.7	52.2	20.5	20.5	6.8	27.3	3.48
	해병대	46	28.3	15.2	43.5	19.6	21.7	15.2	36.9	3.20
보직	지휘관	64	26.6	32.8	59.4	21.9	14.1	4.7	18.8	3.63
	교관+조교	324	29.6	28.1	57.7	24.1	14.2	4.0	18.2	3.65
	교관	141	27.0	28.4	55.4	24.8	15.6	4.3	19.9	3.58
	조교	183	31.7	27.9	59.6	23.5	13.1	3.8	16.9	3.70
계급	영관	7	14.3	42.9	57.2	28.6	14.3	.0	14.3	3.57
	위관	27	40.7	29.6	70.3	18.5	11.1	.0	11.1	4.00
	부사관	178	26.4	29.2	55.6	24.2	15.2	5.1	20.3	3.57
	병	176	30.7	27.8	58.5	23.9	13.6	4.0	17.6	3.68

○ 급식 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2-21> 급식 메뉴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8	33.0	31.7	64.7	25.3	7.5	2.6	10.1	3.85
소속	육군	266	31.6	32.0	63.6	27.1	7.9	1.5	9.4	3.84
	-육군훈련소	78	19.2	34.6	53.8	26.9	19.2	.0	19.2	3.54
	-사단신교대	188	36.7	30.9	67.6	27.1	3.2	2.1	5.3	3.97
	해군	32	46.9	34.4	81.3	15.6	3.1	.0	3.1	4.25
	공군	44	36.4	34.1	70.5	15.9	4.5	9.1	13.6	3.84
	해병대	46	28.3	26.1	54.4	30.4	10.9	4.3	15.2	3.63
보직	지휘관	64	32.8	34.4	67.2	29.7	3.1	.0	3.1	3.97
	교관+조교	324	33.0	31.2	64.2	24.4	8.3	3.1	11.4	3.83
	교관	141	35.5	32.6	68.1	24.8	5.7	1.4	7.1	3.95
	조교	183	31.1	30.1	61.2	24.0	10.4	4.4	14.8	3.73
계급	영관	7	14.3	71.4	85.7	14.3	.0	.0	0	4.00
	위관	27	55.6	22.2	77.8	18.5	3.7	.0	3.7	4.30
	부사관	178	33.1	33.7	66.8	27.5	4.5	1.1	5.6	3.93
	병	176	30.1	29.5	59.6	24.4	11.4	4.5	15.9	3.69

○ 급식 메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2-22> 급식 위생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8	33.8	31.7	65.5	25.8	5.7	3.1	8.8	3.87
소속	육군	266	33.1	30.1	63.2	28.2	6.0	2.6	8.6	3.85
	-육군훈련소	78	19.2	35.9	55.1	34.6	6.4	3.8	10.2	3.60
	-사단신교대	188	38.8	27.7	66.5	25.5	5.9	2.1	8	3.95
	해군	32	46.9	46.9	93.8	3.1	3.1	.0	3.1	4.38
	공군	44	29.5	31.8	61.3	25.0	4.5	9.1	13.6	3.68
	해병대	46	32.6	30.4	63	28.3	6.5	2.2	8.7	3.85
보직	지휘관	64	29.7	42.2	71.9	20.3	3.1	4.7	7.8	3.89
	교관+조교	324	34.6	29.6	64.2	26.9	6.2	2.8	9	3.87
	교관	141	35.5	30.5	66	27.7	5.0	1.4	6.4	3.94
	조교	183	33.9	29.0	62.9	26.2	7.1	3.8	10.9	3.82
계급	영관	7	28.6	57.1	85.7	14.3	.0	.0	0	4.14
	위관	27	48.1	29.6	77.7	11.1	3.7	7.4	11.1	4.07
	부사관	178	32.6	33.7	66.3	28.1	3.9	1.7	5.6	3.92
	병	176	33.0	29.0	62	26.1	8.0	4.0	12	3.79

○ 급식 위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2-23> 급식 위생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6	38.9	36.3	75.2	19.4	3.6	1.8	5.4	4.07
소속	육군	266	37.6	35.3	72.9	21.4	3.8	1.9	5.7	4.03
	-육군훈련소	78	25.6	41.0	66.6	24.4	7.7	1.3	9	3.82
	-사단신교대	188	42.6	33.0	75.6	20.2	2.1	2.1	4.2	4.12
	해군	31	48.4	48.4	96.8	.0	3.2	.0	3.2	4.42
	공군	43	46.5	37.2	83.7	14.0	.0	2.3	2.3	4.26
	해병대	46	32.6	32.6	65.2	26.1	6.5	2.2	8.7	3.87
보직	지휘관	64	37.5	40.6	78.1	20.3	1.6	.0	1.6	4.14
	교관+조교	322	39.1	35.4	74.5	19.3	4.0	2.2	6.2	4.05
	교관	140	38.6	36.4	75	20.0	3.6	1.4	5	4.07
	조교	182	39.6	34.6	74.2	18.7	4.4	2.7	7.1	4.04
계급	영관	7	42.9	28.6	71.5	28.6	.0	.0	0	4.14
	위관	27	59.3	33.3	92.6	7.4	.0	.0	0	4.52
	부사관	177	36.2	38.4	74.6	20.9	3.4	1.1	4.5	4.05
	병	175	38.3	34.9	73.2	19.4	4.6	2.9	7.5	4.01

○ 영양적 균형 있는 식사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2-24> 자율적인 배식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4	28.9	22.7	51.6	24.0	14.6	9.9	24.5	3.46
소속	육군	266	29.7	24.1	53.8	24.1	15.8	6.4	22.2	3.55
	-육군훈련소	78	15.4	25.6	41	26.9	21.8	10.3	32.1	3.14
	-사단신교대	188	35.6	23.4	59	22.9	13.3	4.8	18.1	3.72
	해군	31	29.0	32.3	61.3	25.8	9.7	3.2	12.9	3.74
	공군	44	22.7	15.9	38.6	29.5	13.6	18.2	31.8	3.11
	해병대	43	30.2	14.0	44.2	16.3	11.6	27.9	39.5	3.07
보직	지휘관	64	26.6	26.6	53.2	17.2	15.6	14.1	29.7	3.36
	교관+조교	320	29.4	21.9	51.3	25.3	14.4	9.1	23.5	3.48
	교관	137	25.5	16.8	42.3	29.2	15.3	13.1	28.4	3.26
	조교	183	32.2	25.7	57.9	22.4	13.7	6.0	19.7	3.64
계급	영관	7	28.6	14.3	42.9	28.6	14.3	14.3	28.6	3.29
	위관	27	44.4	18.5	62.9	11.1	7.4	18.5	25.9	3.63
	부사관	174	23.6	20.7	44.3	27.6	16.1	12.1	28.2	3.28
	병	176	31.8	25.6	57.4	22.2	14.2	6.3	20.5	3.62

○ 자율적인 배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2-25> 급식 전반적인 평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87	28.7	29.7	58.4	27.9	11.4	2.3	13.7	3.71
소속	육군	266	27.1	30.5	57.6	29.3	11.7	1.5	13.2	3.70
	-육군훈련소	78	15.4	25.6	41	37.2	20.5	1.3	21.8	3.33
	-사단신교대	188	31.9	32.4	64.3	26.1	8.0	1.6	9.6	3.85
	해군	31	45.2	32.3	77.5	19.4	3.2	.0	3.2	4.19
	공군	44	22.7	34.1	56.8	29.5	9.1	4.5	13.6	3.61
	해병대	46	32.6	19.6	52.2	23.9	17.4	6.5	23.9	3.54
보직	지휘관	64	26.6	39.1	65.7	20.3	14.1	.0	14.1	3.78
	교관+조교	323	29.1	27.9	57	29.4	10.8	2.8	13.6	3.70
	교관	140	27.1	27.9	55	35.7	7.1	2.1	9.2	3.71
	조교	183	30.6	27.9	58.5	24.6	13.7	3.3	17	3.69
계급	영관	7	14.3	57.1	71.4	14.3	14.3	.0	14.3	3.71
	위관	27	40.7	37.0	77.7	22.2	.0	.0	0	4.19
	부사관	177	26.0	30.5	56.5	31.6	10.2	1.7	11.9	3.69
	병	176	30.1	26.7	56.8	25.6	14.2	3.4	17.6	3.66

○ 급식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표 2-26> 칫솔의 양

구분		사례 수	충분	적당	부족
전체		387	63.8	28.4	7.8
소속	육군	266	65.0	28.6	6.4
	-육군훈련소	78	62.8	30.8	6.4
	-사단신교대	188	66.0	27.7	6.4
	해군	32	56.3	34.4	9.4
	공군	43	74.4	23.3	2.3
	해병대	46	52.2	28.3	19.6
보직	지휘관	64	53.1	32.8	14.1
	교관+조교	323	65.9	27.6	6.5
	교관	140	58.6	32.9	8.6
	조교	183	71.6	23.5	4.9
계급	영관	7	42.9	42.9	14.3
	위관	26	73.1	23.1	3.8
	부사관	178	55.1	33.7	11.2
	병	176	72.2	23.3	4.5

○ 칫솔의 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충분이 가장 많았음.

<표 2-27> 치약의 양

구분		사례 수	충분	적당	부족
전체		386	66.8	30.1	3.1
소속	육군	265	69.4	28.7	1.9
	-육군훈련소	78	66.7	30.8	2.6
	-사단신교대	187	70.6	27.8	1.6
	해군	32	53.1	40.6	6.3
	공군	43	74.4	25.6	.0
	해병대	46	54.3	34.8	10.9
보직	지휘관	64	59.4	35.9	4.7
	교관+조교	322	68.3	28.9	2.8
	교관	139	61.2	36.0	2.9
	조교	183	73.8	23.5	2.7
계급	영관	7	57.1	42.9	.0
	위관	26	73.1	26.9	.0
	부사관	177	58.8	37.3	4.0
	병	176	74.4	22.7	2.8

○ 치약의 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충분이 가장 많았음.

<표 2-28> 비누의 양

구분		사례 수	충분	적당	부족
전체		387	69.5	27.4	3.1
소속	육군	266	72.6	25.6	1.9
	-육군훈련소	78	66.7	30.8	2.6
	-사단신교대	188	75.0	23.4	1.6
	해군	32	62.5	37.5	.0
	공군	43	76.7	23.3	.0
	해병대	46	50.0	34.8	15.2
보직	지휘관	64	60.9	31.3	7.8
	교관+조교	323	71.2	26.6	2.2
	교관	140	65.0	32.9	2.1
	조교	183	76.0	21.9	2.2
계급	영관	7	57.1	28.6	14.3
	위관	26	69.2	26.9	3.8
	부사관	178	63.5	32.6	3.9
	병	176	76.1	22.2	1.7

○ 비누의 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충분이 가장 많았음.

<표 2-29> 화장지의 양

구분		사례 수	충분	적당	부족
전체		386	46.6	33.2	20.2
소속	육군	266	46.2	33.1	20.7
	-육군훈련소	78	26.9	41.0	32.1
	-사단신교대	188	54.3	29.8	16.0
	해군	32	37.5	31.3	31.3
	공군	42	54.8	31.0	14.3
	해병대	46	47.8	37.0	15.2
보직	지휘관	64	40.6	35.9	23.4
	교관+조교	322	47.8	32.6	19.6
	교관	140	42.1	35.0	22.9
	조교	182	52.2	30.8	17.0
계급	영관	7	28.6	42.9	28.6
	위관	26	50.0	34.6	15.4
	부사관	177	40.7	35.0	24.3
	병	176	52.8	30.7	16.5

○화장지의 양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영관에서는 적당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소속, 보직, 계급에서는 충분이 가장 많았음.



<표 2-30> 칫솔의 질

구분		사례 수	좋음	보통	나쁨
전체		360	59.2	36.7	4.2
소속	육군	246	58.5	36.6	4.9
	-육군훈련소	74	52.7	44.6	2.7
	-사단신교대	172	61.0	33.1	5.8
	해군	28	53.6	42.9	3.6
	공군	42	66.7	28.6	4.8
	해병대	44	59.1	40.9	.0
보직	지휘관	57	56.1	38.6	5.3
	교관+조교	303	59.7	36.3	4.0
	교관	129	49.6	45.7	4.7
	조교	174	67.2	29.3	3.4
계급	영관	6	66.7	33.3	.0
	위관	23	65.2	34.8	.0
	부사관	164	49.4	44.5	6.1
	병	167	67.7	29.3	3.0

○ 칫솔의 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좋음이 가장 많았음.

<표 2-31> 치약의 질

구분		사례 수	좋음	보통	나쁨
전체		360	64.2	33.9	1.9
소속	육군	246	65.0	32.5	2.4
	-육군훈련소	74	59.5	39.2	1.4
	-사단신교대	172	67.4	29.7	2.9
	해군	28	57.1	42.9	.0
	공군	42	69.0	28.6	2.4
	해병대	44	59.1	40.9	.0
보직	지휘관	57	57.9	38.6	3.5
	교관+조교	303	65.3	33.0	1.7
	교관	129	52.7	45.0	2.3
	조교	174	74.7	24.1	1.1
계급	영관	6	66.7	33.3	.0
	위관	23	69.6	30.4	.0
	부사관	164	52.4	44.5	3.0
	병	167	74.9	24.0	1.2

○ 치약의 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좋음이 가장 많았음.

<표 2-32> 비누의 질

구분		사례 수	좋음	보통	나쁨
전체		360	57.8	37.5	4.7
소속	육군	246	57.3	37.4	5.3
	-육군훈련소	74	52.7	40.5	6.8
	-사단신교대	172	59.3	36.0	4.7
	해군	28	57.1	39.3	3.6
	공군	42	64.3	33.3	2.4
	해병대	44	54.5	40.9	4.5
보직	지휘관	57	50.9	40.4	8.8
	교관+조교	303	59.1	37.0	4.0
	교관	129	53.5	43.4	3.1
	조교	174	63.2	32.2	4.6
계급	영관	6	66.7	33.3	.0
	위관	23	60.9	30.4	8.7
	부사관	164	51.2	44.5	4.3
	병	167	63.5	31.7	4.8

○ 비누의 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좋음이 가장 많았음.

<표 2-33> 화장지의 질

구분		사례 수	좋음	보통	나쁨
전체		359	61.8	35.7	2.5
소속	육군	246	64.2	32.9	2.8
	-육군훈련소	74	59.5	35.1	5.4
	-사단신교대	172	66.3	32.0	1.7
	해군	28	57.1	42.9	.0
	공군	42	61.9	35.7	2.4
	해병대	43	51.2	46.5	2.3
보직	지휘관	57	50.9	45.6	3.5
	교관+조교	302	63.9	33.8	2.3
	교관	128	53.1	43.0	3.9
	조교	174	71.8	27.0	1.1
계급	영관	6	50.0	50.0	.0
	위관	23	60.9	34.8	4.3
	부사관	163	51.5	44.8	3.7
	병	167	72.5	26.3	1.2

○ 화장지의 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좋음이 가장 많았음.

(3) 훈련병 휴식과 사생활 보장

<표 2-34>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

구분		사례 수	충분	보통	부족
전체		387	70.5	22.7	6.7
소속	육군	266	71.8	21.4	6.8
	-육군훈련소	78	62.8	25.6	11.5
	-사단신교대	188	75.5	19.7	4.8
	해군	32	78.1	15.6	6.3
	공군	43	60.5	30.2	9.3
	해병대	46	67.4	28.3	4.3
보직	지휘관	64	62.5	28.1	9.4
	교관+조교	323	72.1	21.7	6.2
	교관	140	63.6	27.1	9.3
	조교	183	78.7	17.5	3.8
계급	영관	7	57.1	28.6	14.3
	위관	26	65.4	23.1	11.5
	부사관	178	64.0	27.5	8.4
	병	176	78.4	17.6	4.0

○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충분이 가장 많았음.

<표 2-35> 휴무일 휴식시간

구분		사례 수	충분	보통	부족
전체		387	84.5	12.9	2.6
소속	육군	266	86.1	12.0	1.9
	-육군훈련소	78	82.1	15.4	2.6
	-사단신교대	188	87.8	10.6	1.6
	해군	32	84.4	15.6	.0
	공군	43	76.7	16.3	7.0
	해병대	46	82.6	13.0	4.3
보직	지휘관	64	82.8	12.5	4.7
	교관+조교	323	84.8	13.0	2.2
	교관	140	77.1	20.0	2.9
	조교	183	90.7	7.7	1.6
계급	영관	7	71.4	28.6	.0
	위관	26	73.1	23.1	3.8
	부사관	178	80.3	16.3	3.4
	병	176	90.9	7.4	1.7

○ 휴무일 휴식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는 충분이 가장 많았음.

<표 2-36> 취침시간

구분		사례 수	충분	보통	부족
전체		387	87.3	11.6	1.0
소속	육군	266	89.5	10.2	.4
	-육군훈련소	78	87.2	12.8	.0
	-사단신교대	188	90.4	9.0	.5
	해군	32	90.6	3.1	6.3
	공군	43	74.4	23.3	2.3
	해병대	46	84.8	15.2	.0
보직	지휘관	64	84.4	14.1	1.6
	교관+조교	323	87.9	11.1	.9
	교관	140	85.7	14.3	.0
	조교	183	89.6	8.7	1.6
계급	영관	7	85.7	14.3	.0
	위관	26	76.9	23.1	.0
	부사관	178	86.5	12.9	.6
	병	176	89.8	8.5	1.7

○ 취침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는 충분이 가장 많았음.

<표 2-37> 군매점 이용 시기/시간 편의성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30	6.1	59.4	34.5
소속	육군	258	4.3	70.2	25.6
	-육군훈련소	76	.0	63.2	36.8
	-사단신교대	182	6.0	73.1	20.9
	해군	17	11.8	23.5	64.7
	공군	28	10.7	21.4	67.9
	해병대	27	14.8	18.5	66.7
보직	지휘관	51	2.0	43.1	54.9
	교관+조교	279	6.8	62.4	30.8
	교관	108	3.7	57.4	38.9
	조교	171	8.8	65.5	25.7
계급	영관	6	.0	.0	100.0
	위관	24	.0	58.3	41.7
	부사관	133	3.8	53.4	42.9
	병	167	9.0	66.5	24.6

○ 군매점 이용 시기/시간 편의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속, 보직, 계급에서 보통과 부정으로 나타남.



<표 2-38> 군매점 구매 가능한 물품 범위

구분		사례 수	긍정	보통	부정
전체		323	48.3	29.7	22.0
소속	육군	256	50.0	34.4	15.6
	-육군훈련소	75	34.7	56.0	9.3
	-사단신교대	181	56.4	25.4	18.2
	해군	14	50.0	14.3	35.7
	공군	27	33.3	14.8	51.9
	해병대	26	46.2	7.7	46.2
보직	지휘관	49	30.6	38.8	30.6
	교관+조교	274	51.5	28.1	20.4
	교관	104	43.3	31.7	25.0
	조교	170	56.5	25.9	17.6
계급	영관	5	20.0	60.0	20.0
	위관	23	34.8	43.5	21.7
	부사관	128	40.6	30.5	28.9
	병	167	56.9	26.3	16.8

○ 군매점 구매 가능한 물품 범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에서 부정이 가장 많았음.

<표 2-39> 흡연 금지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제한 적절	흡연 제한	제한 불필요	흡연권 리 보장	잘 모름	
전체	376	49.7	34.6	7.2	5.6	2.9	
소속	육군	257	47.1	32.3	9.7	7.4	3.5
	-육군훈련소	77	53.2	39.0	3.9	.0	3.9
	-사단신교대	180	44.4	29.4	12.2	10.6	3.3
	해군	31	58.1	38.7	.0	3.2	.0
	공군	43	65.1	32.6	.0	.0	2.3
	해병대	45	44.4	46.7	4.4	2.2	2.2
보직	지휘관	63	47.6	31.7	6.3	14.3	.0
	교관+조교	313	50.2	35.1	7.3	3.8	3.5
	교관	131	48.1	34.4	9.2	5.3	3.1
	조교	182	51.6	35.7	6.0	2.7	3.8
계급	영관	7	42.9	57.1	.0	.0	.0
	위관	25	60.0	32.0	4.0	4.0	.0
	부사관	169	47.3	32.0	9.5	8.9	2.4
	병	175	50.9	36.6	5.7	2.9	4.0

○ 흡연 금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소속, 보직, 계급에 서는 제한 적절과 흡연 제한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표 2-40> 신상정보 과도요구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평균
전체		384	4.4	7.0	11.4	35.2	53.4	88.6	1.63
소속	육군	266	6.4	9.0	15.4	34.6	50.0	84.6	1.72
	-육군훈련소	78	6.4	10.3	16.7	44.9	38.5	83.4	1.85
	-사단신교대	188	6.4	8.5	14.9	30.3	54.8	85.1	1.66
	해군	32	.0	3.1	3.1	53.1	43.8	96.9	1.59
	공군	41	.0	2.4	2.4	31.7	65.9	97.6	1.37
	해병대	45	.0	2.2	2.2	28.9	68.9	97.8	1.33
보직	지휘관	64	4.7	10.9	15.6	35.9	48.4	84.3	1.72
	교관+조교	320	4.4	6.3	10.7	35.0	54.4	89.4	1.61
	교관	138	8.7	9.4	18.1	37.0	44.9	81.9	1.82
	조교	182	1.1	3.8	4.9	33.5	61.5	95	1.45
계급	영관	7	.0	14.3	14.3	42.9	42.9	85.8	1.71
	위관	25	4.0	4.0	8	40.0	52.0	92	1.60
	부사관	177	7.9	10.2	18.1	36.2	45.8	82	1.80
	병	175	1.1	4.0	5.1	33.1	61.7	94.8	1.45

○ 신상정보 과도요구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과도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1> 편지 내용 공개 문제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평균
전체		385	1.0	3.9	4.9	17.1	77.9	95	1.28
소속	육군	266	1.5	4.1	5.6	16.9	77.4	94.3	1.30
	-육군훈련소	78	.0	7.7	7.7	23.1	69.2	92.3	1.38
	-사단신교대	188	2.1	2.7	4.8	14.4	80.9	95.3	1.26
	해군	32	.0	3.1	3.1	31.3	65.6	96.9	1.38
	공군	42	.0	4.8	4.8	16.7	78.6	95.3	1.26
	해병대	45	.0	2.2	2.2	8.9	88.9	97.8	1.13
보직	지휘관	64	3.1	7.8	10.9	17.2	71.9	89.1	1.42
	교관+조교	321	.6	3.1	3.7	17.1	79.1	96.2	1.25
	교관	138	1.4	4.3	5.7	20.3	73.9	94.2	1.33
	조교	183	.0	2.2	2.2	14.8	83.1	97.9	1.19
계급	영관	7	.0	14.3	14.3	14.3	71.4	85.7	1.43
	위관	25	4.0	.0	4	20.0	76.0	96	1.32
	부사관	177	1.7	5.6	7.3	19.8	72.9	92.7	1.36
	병	176	.0	2.3	2.3	14.2	83.5	97.7	1.19

○ 편지 내용 공개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편지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42> 사물함/소지품 부당검사 문제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평균
전체		385	.5	3.4	3.9	14.0	82.1	96.1	1.22
소속	육군	266	.8	3.4	4.2	13.5	82.3	95.8	1.23
	-육군훈련소	78	.0	5.1	5.1	20.5	74.4	94.9	1.31
	-사단신교대	188	1.1	2.7	3.8	10.6	85.6	96.2	1.19
	해군	32	.0	6.3	6.3	25.0	68.8	93.8	1.38
	공군	42	.0	2.4	2.4	9.5	88.1	97.6	1.14
	해병대	45	.0	2.2	2.2	13.3	84.4	97.7	1.18
보직	지휘관	64	.0	7.8	7.8	18.8	73.4	92.2	1.34
	교관+조교	321	.6	2.5	3.1	13.1	83.8	96.9	1.20
	교관	138	1.4	2.9	4.3	16.7	79.0	95.7	1.27
	조교	183	.0	2.2	2.2	10.4	87.4	97.8	1.15
계급	영관	7	.0	.0	0	28.6	71.4	100	1.29
	위관	25	.0	4.0	4	16.0	80.0	96	1.24
	부사관	177	1.1	4.5	5.6	16.9	77.4	94.3	1.29
	병	176	.0	2.3	2.3	10.2	87.5	97.7	1.15

○ 사물함/소지품 부당검사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사물함/소지품을 부당검사하지 않음이 많았음.

<표 2-43> 개인 구매 화장품/세면용품 자유 사용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평균
전체		383	74.4	19.8	94.2	3.9	1.8	5.7	3.67
소속	육군	266	83.1	15.4	98.5	1.1	.4	1.5	3.81
	-육군훈련소	78	84.6	15.4	100	.0	.0	0	3.85
	-사단신교대	188	82.4	15.4	97.8	1.6	.5	2.1	3.80
	해군	31	61.3	32.3	93.6	3.2	3.2	6.4	3.52
	공군	42	61.9	23.8	85.7	9.5	4.8	14.3	3.43
	해병대	44	43.2	34.1	77.3	15.9	6.8	22.7	3.14
보직	지휘관	62	74.2	19.4	93.6	4.8	1.6	6.4	3.66
	교관+조교	321	74.5	19.9	94.4	3.7	1.9	5.6	3.67
	교관	138	72.5	22.5	95	2.2	2.9	5.1	3.64
	조교	183	76.0	18.0	94	4.9	1.1	6	3.69
계급	영관	7	71.4	28.6	100	.0	.0	0	3.71
	위관	25	72.0	12.0	84	12.0	4.0	16	3.52
	부사관	175	71.4	24.0	95.4	2.3	2.3	4.6	3.65
	병	176	77.8	16.5	94.3	4.5	1.1	5.6	3.71

○ 개인구매 화장품/세면용품 자유 사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개인구매 화장품/세면용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으나, 해병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높았음.

<표 2-44> 공중전화 가능한 이용시간

구분		사례 수	언제든	정비시간 및 공휴일
전체		379	2.9	97.1
소속	육군	266	1.9	98.1
	-육군훈련소	78	.0	100.0
	-사단신교대	188	2.7	97.3
	해군	30	.0	100.0
	공군	41	9.8	90.2
	해병대	42	4.8	95.2
보직	지휘관	62	6.5	93.5
	교관+조교	317	2.2	97.8
	교관	134	3.0	97.0
	조교	183	1.6	98.4
계급	영관	7	.0	100.0
	위관	25	20.0	80.0
	부사관	171	2.3	97.7
	병	176	1.1	98.9

○ 공중전화 가능한 이용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정비시간 및 공휴일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음.

<표 2-45> 1회 통화 가능 시간

구분		사례 수	3분	5분	10분	20분	20분 이상
전체		383	7.0	36.6	43.9	9.7	2.9
소속	육군	264	1.5	26.5	58.0	13.3	.8
	-육군훈련소	78	.0	19.2	76.9	3.8	.0
	-사단신교대	186	2.2	29.6	50.0	17.2	1.1
	해군	32	71.9	21.9	6.3	.0	.0
	공군	41	.0	53.7	19.5	4.9	22.0
	해병대	46	.0	89.1	10.9	.0	.0
보직	지휘관	64	9.4	40.6	43.8	4.7	1.6
	교관+조교	319	6.6	35.7	43.9	10.7	3.1
	교관	138	11.6	44.9	35.5	6.5	1.4
	조교	181	2.8	28.7	50.3	13.8	4.4
계급	영관	7	.0	42.9	57.1	.0	.0
	위관	25	.0	36.0	48.0	4.0	12.0
	부사관	176	12.5	44.9	35.8	6.3	.6
	병	175	2.9	28.0	50.9	14.3	4.0

○ 1회 통화 가능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5분과 10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6> 공중전화 대수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충분	부족
전체		383	56.7	43.3
소속	육군	265	55.1	44.9
	-육군훈련소	78	25.6	74.4
	-사단신교대	187	67.4	32.6
	해군	31	54.8	45.2
	공군	41	65.9	34.1
	해병대	46	58.7	41.3
보직	지휘관	63	39.7	60.3
	교관+조교	320	60.0	40.0
	교관	137	43.8	56.2
	조교	183	72.1	27.9
계급	영관	7	14.3	85.7
	위관	24	54.2	45.8
	부사관	176	43.8	56.3
	병	176	71.6	28.4

○ 공중전화 대수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지휘관, 교관, 영관, 부사관에서는 부족이라는 응답이 더 많았음.

<표 2-47> 외부 연락할 여건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86	42.7	45.3	88	10.1	1.0	11.1	.8	3.31
소속	육군	266	45.5	43.6	89.1	9.4	.8	10.2	.8	3.35
	-육군훈련소	78	25.6	56.4	82	15.4	2.6	18	.0	3.05
	-사단신교대	188	53.7	38.3	92	6.9	.0	6.9	1.1	3.47
	해군	32	31.3	56.3	87.6	12.5	.0	12.5	.0	3.19
	공군	42	31.0	54.8	85.8	9.5	2.4	11.9	2.4	3.17
	해병대	46	45.7	39.1	84.8	13.0	2.2	15.2	.0	3.28
보직	지휘관	64	31.3	48.4	79.7	18.8	1.6	20.4	.0	3.09
	교관+조교	322	45.0	44.7	89.7	8.4	.9	9.3	.9	3.35
	교관	139	37.4	50.4	87.8	10.1	.7	10.8	1.4	3.26
	조교	183	50.8	40.4	91.2	7.1	1.1	8.2	.5	3.42
계급	영관	7	14.3	57.1	71.4	28.6	.0	28.6	.0	2.86
	위관	25	36.0	44.0	80	16.0	4.0	20	.0	3.12
	부사관	178	36.5	50.6	87.1	11.2	.6	11.8	1.1	3.24
	병	176	51.1	39.8	90.9	7.4	1.1	8.5	.6	3.42

○ 외부 연락할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영관에서 외부연락 여건이 가장 낮다고 인식하며, 그 외에 소속, 보직, 계급에서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표 2-48> TV 시청 여건

구분		사례 수	자유롭다	교육용 영상	TV 보기 어려움	주말에는 자유로움
전체		356	23.6	23.3	30.1	23.0
소속	육군	250	32.0	22.4	15.2	30.4
	-육군훈련소	65	.0	50.8	46.2	3.1
	-사단신교대	185	43.2	12.4	4.3	40.0
	해군	27	3.7	11.1	85.2	.0
	공군	39	5.1	33.3	48.7	12.8
	해병대	40	2.5	27.5	67.5	2.5
보직	지휘관	60	18.3	15.0	36.7	30.0
	교관+조교	296	24.7	25.0	28.7	21.6
	교관	124	20.2	20.2	40.3	19.4
	조교	172	27.9	28.5	20.3	23.3
계급	영관	7	.0	42.9	28.6	28.6
	위관	24	16.7	20.8	37.5	25.0
	부사관	158	19.6	17.7	40.5	22.2
	병	167	29.3	28.1	19.2	23.4

○ TV 시청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TV 보기 어려움이 가장 높았음.

<표 2-49> TV 만족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60	41.7	16.9	58.6	17.8	8.9	14.7	23.6	3.62
소속	육군	255	49.4	17.6	67	13.7	6.7	12.5	19.2	3.85
	-육군훈련소	68	8.8	4.4	13.2	26.5	16.2	44.1	60.3	2.18
	-사단신교대	187	64.2	22.5	86.7	9.1	3.2	1.1	4.3	4.45
	해군	25	8.0	16.0	24	36.0	20.0	20.0	40	2.72
	공군	40	32.5	22.5	55	30.0	7.5	7.5	15	3.65
	해병대	40	22.5	7.5	30	20.0	17.5	32.5	50	2.70
보직	지휘관	56	30.4	35.7	66.1	10.7	10.7	12.5	23.2	3.61
	교관+조교	304	43.8	13.5	57.3	19.1	8.6	15.1	23.7	3.62
	교관	127	31.5	12.6	44.1	25.2	9.4	21.3	30.7	3.24
	조교	177	52.5	14.1	66.6	14.7	7.9	10.7	18.6	3.90
계급	영관	7	14.3	57.1	71.4	14.3	.0	14.3	14.3	3.57
	위관	24	58.3	16.7	75	12.5	4.2	8.3	12.5	4.12
	부사관	158	27.8	19.0	46.8	21.5	12.0	19.6	31.6	3.23
	병	171	53.2	13.5	66.7	15.2	7.0	11.1	18.1	3.91

○ TV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단신교대에서 충분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논산, 해군, 해병대에서는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표 2-50> 국방일보 만족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369	33.3	20.9	54.2	29.8	8.9	7.0	15.9	3.64
소속	육군	260	34.6	22.7	57.3	29.2	8.1	5.4	13.5	3.73
	-육군훈련소	75	17.3	26.7	44	36.0	10.7	9.3	20	3.32
	-사단신교대	185	41.6	21.1	62.7	26.5	7.0	3.8	10.8	3.90
	해군	30	13.3	30.0	43.3	36.7	13.3	6.7	20	3.30
	공군	39	46.2	12.8	59	28.2	5.1	7.7	12.8	3.85
	해병대	40	27.5	10.0	37.5	30.0	15.0	17.5	32.5	3.15
보직	지휘관	58	20.7	25.9	46.6	27.6	17.2	8.6	25.8	3.33
	교관+조교	311	35.7	19.9	55.6	30.2	7.4	6.8	14.2	3.70
	교관	129	24.0	17.8	41.8	41.1	8.5	8.5	17	3.40
	조교	182	44.0	21.4	65.4	22.5	6.6	5.5	12.1	3.92
계급	영관	7	.0	28.6	28.6	42.9	28.6	.0	28.6	3.00
	위관	25	44.0	20.0	64	28.0	4.0	4.0	8	3.96
	부사관	161	22.4	19.9	42.3	37.3	11.2	9.3	20.5	3.35
	병	176	43.2	21.6	64.8	22.7	6.8	5.7	12.5	3.90

○ 국방일보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이 가장 많았음.

<표 2-51> 인터넷 이용 여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83	1.6	98.4
소속	육군	265	.8	99.2
	-육군훈련소	78	1.3	98.7
	-사단신교대	187	.5	99.5
	해군	32	.0	100
	공군	41	7.3	92.7
	해병대	45	2.2	97.8
보직	지휘관	64	.0	100
	교관+조교	319	1.9	98.1
	교관	138	3.6	96.4
	조교	181	.6	99.4
계급	영관	7	.0	100
	위관	25	8.0	92.0
	부사관	176	2.3	97.7
	병	175	.0	100

○ 인터넷 이용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없음이 대부분이었음.

<표 2-52> 군 외부소식 접할 여건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81	27.3	42.8	70.1	21.5	5.5	27	2.9	2.95
소속	육군	263	30.8	46.0	76.8	20.2	2.3	22.5	.8	3.06
	-육군훈련소	78	9.0	41.0	50	42.3	5.1	47.4	2.6	2.55
	-사단신교대	185	40.0	48.1	88.1	10.8	1.1	11.9	.0	3.27
	해군	32	3.1	43.8	46.9	43.8	3.1	46.9	6.3	2.50
	공군	41	29.3	41.5	70.8	19.5	4.9	24.4	4.9	3.00
	해병대	45	22.2	24.4	46.6	15.6	26.7	42.3	11.1	2.48
보직	지휘관	64	14.1	50.0	64.1	26.6	7.8	34.4	1.6	2.71
	교관+조교	317	30.0	41.3	71.3	20.5	5.0	25.5	3.2	2.99
	교관	136	19.1	40.4	59.5	28.7	8.1	36.8	3.7	2.73
	조교	181	38.1	42.0	80.1	14.4	2.8	17.2	2.8	3.19
계급	영관	7	.0	57.1	57.1	42.9	.0	42.9	.0	2.57
	위관	24	29.2	41.7	70.9	16.7	12.5	29.2	.0	2.88
	부사관	175	18.3	42.9	61.2	28.0	7.4	35.4	3.4	2.75
	병	175	37.1	42.3	79.4	14.9	2.9	17.8	2.9	3.17

○ 군 외부소식 접할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긍정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표 2-53>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81	77.7	18.6	96.3	1.3	1.3	2.6	1.0	3.75
소속	육군	263	78.7	19.4	98.1	.8	.8	1.6	.4	3.77
	-육군훈련소	78	82.1	17.9	100	.0	.0	0	.0	3.82
	-사단신교대	185	77.3	20.0	97.3	1.1	1.1	2.2	.5	3.74
	해군	31	77.4	19.4	96.8	.0	.0	0	3.2	3.80
	공군	41	73.2	17.1	90.3	7.3	.0	7.3	2.4	3.68
	해병대	46	76.1	15.2	91.3	.0	6.5	6.5	2.2	3.64
보직	지휘관	63	79.4	14.3	93.7	.0	4.8	4.8	1.6	3.71
	교관+조교	318	77.4	19.5	96.9	1.6	.6	2.2	.9	3.75
	교관	137	72.3	26.3	98.6	.7	.0	0.7	.7	3.72
	조교	181	81.2	14.4	95.6	2.2	1.1	3.3	1.1	3.78
계급	영관	7	71.4	14.3	85.7	.0	14.3	14.3	.0	3.43
	위관	24	66.7	29.2	95.9	4.2	.0	4.2	.0	3.63
	부사관	175	76.6	21.1	97.7	.0	1.1	1.1	1.1	3.75
	병	175	80.6	14.9	95.5	2.3	1.1	3.4	1.1	3.77

○ 종교 활동의 자유 보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 이상으로 나타남.



<표 2-54> 두발 손질

구분		사례 수	외부 이발사	부대 이발병	훈련병 끼리	기타
전체		379	10.0	24.8	58.0	7.1
소속	육군	263	2.3	19.0	72.6	6.1
	-육군훈련소	78	.0	3.8	93.6	2.6
	-사단신교대	185	3.2	25.4	63.8	7.6
	해군	31	9.7	77.4	.0	12.9
	공군	40	65.0	27.5	2.5	5.0
	해병대	45	6.7	20.0	62.2	11.1
보직	지휘관	63	6.3	28.6	55.6	9.5
	교관+조교	316	10.8	24.1	58.5	6.6
	교관	137	9.5	25.5	54.7	10.2
	조교	179	11.7	22.9	61.5	3.9
계급	영관	7	.0	28.6	57.1	14.3
	위관	24	29.2	41.7	16.7	12.5
	부사관	175	7.4	25.1	58.3	9.1
	병	173	10.4	22.0	63.6	4.0

○ 두발 손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훈련병끼리와 부대 이발병이 가장 높았으나, 공군은 외부 이발사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55> 두발 손질 여건

구분		사례 수	문제없음	개선되어야 함
전체		382	80.1	19.9
소속	육군	264	78.0	22.0
	-육군훈련소	78	71.8	28.2
	-사단신교대	186	80.6	19.4
	해군	32	78.1	21.9
	공군	41	85.4	14.6
	해병대	45	88.9	11.1
보직	지휘관	63	60.3	39.7
	교관+조교	319	84.0	16.0
	교관	137	75.2	24.8
	조교	182	90.7	9.3
계급	영관	7	42.9	57.1
	위관	24	79.2	20.8
	부사관	176	70.5	29.5
	병	175	91.4	8.6

○ 두발 손질 여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문제없음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56> 두발 기준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82	53.9	38.7	92.6	2.9	2.6	5.5	1.8	3.47
소속	육군	264	51.9	40.5	92.4	3.4	3.4	6.8	.8	3.42
	-육군훈련소	78	43.6	50.0	93.6	3.8	2.6	6.4	.0	3.35
	-사단신교대	186	55.4	36.6	92	3.2	3.8	7	1.1	3.45
	해군	32	50.0	43.8	93.8	3.1	.0	3.1	3.1	3.48
	공군	41	58.5	29.3	87.8	.0	2.4	2.4	9.8	3.59
	해병대	45	64.4	33.3	97.7	2.2	.0	2.2	.0	3.62
보직	지휘관	64	46.9	43.8	90.7	7.8	.0	7.8	1.6	3.40
	교관+조교	318	55.3	37.7	93	1.9	3.1	5	1.9	3.48
	교관	136	47.1	47.1	94.2	2.2	2.9	5.1	.7	3.39
	조교	182	61.5	30.8	92.3	1.6	3.3	4.9	2.7	3.55
계급	영관	7	28.6	57.1	85.7	14.3	.0	14.3	.0	3.14
	위관	24	58.3	37.5	95.8	.0	.0	0	4.2	3.61
	부사관	176	46.6	47.2	93.8	4.0	1.7	5.7	.6	3.39
	병	175	61.7	29.7	91.4	1.7	4.0	5.7	2.9	3.54

○ 두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긍정으로 나타남.

2)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 기본적인 인권침해

(1) 훈련병 인권침해 발생 여부

<표 2-57> 구타 발생 빈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정	② 부정	①+ ②	③ 보통	④ 긍정	⑤ 매우 긍정	④+ ⑤	평균
전체		378	89.2	9.3	98.5	1.3	.0	.3	0.3	1.13
소속	육군	262	87.8	9.9	97.7	1.9	.0	.4	0.4	1.15
	-육군훈련소	77	81.8	15.6	97.4	1.3	.0	1.3	1.3	1.23
	-사단신교대	185	90.3	7.6	97.9	2.2	.0	.0	0	1.12
	해군	32	81.3	18.8	100	.0	.0	.0	0	1.19
	공군	40	92.5	7.5	100	.0	.0	.0	0	1.08
	해병대	44	100	.0	100	.0	.0	.0	0	1.00
보직	지휘관	62	87.1	9.7	96.8	3.2	.0	.0	0	1.16
	교관+조교	316	89.6	9.2	98.8	.9	.0	.3	0.3	1.12
	교관	133	83.5	14.3	97.8	1.5	.0	.8	0.8	1.20
	조교	183	94.0	5.5	99.5	.5	.0	.0	0	1.07
계급	영관	7	71.4	14.3	85.7	14.3	.0	.0	0	1.43
	위관	22	86.4	13.6	100	.0	.0	.0	0	1.14
	부사관	173	85.5	12.1	97.6	1.7	.0	.6	0.6	1.18
	병	176	93.8	5.7	99.5	.6	.0	.0	0	1.07

○ 구타 발생 빈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8> 가혹행위 발생 빈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정	② 부정	①+ ②	③ 보통	④ 긍정	⑤ 매우 긍정	④+ ⑤	평균
전체		380	86.8	10.5	97.3	1.8	.5	.3	0.8	1.17
소속	육군	264	84.1	12.5	96.6	2.3	.8	.4	1.2	1.21
	-육군훈련소	77	84.4	14.3	98.7	.0	.0	1.3	1.3	1.19
	-사단신교대	187	84.0	11.8	95.8	3.2	1.1	.0	1.1	1.21
	해군	32	90.6	9.4	100	.0	.0	.0	0	1.09
	공군	40	95.0	2.5	97.5	2.5	.0	.0	0	1.07
	해병대	44	93.2	6.8	100	.0	.0	.0	0	1.07
보직	지휘관	64	79.7	17.2	96.9	3.1	.0	.0	0	1.23
	교관+조교	316	88.3	9.2	97.5	1.6	.6	.3	0.9	1.16
	교관	133	82.7	13.5	96.2	3.0	.0	.8	0.8	1.23
	조교	183	92.3	6.0	98.3	.5	1.1	.0	1.1	1.10
계급	영관	7	57.1	28.6	85.7	14.3	.0	.0	0	1.57
	위관	23	82.6	13.0	95.6	4.3	.0	.0	0	1.22
	부사관	174	83.3	13.8	97.1	2.3	.0	.6	0.6	1.21
	병	176	92.0	6.3	98.3	.6	1.1	.0	1.1	1.11

○ 가혹행위 발생 빈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59> 언어폭력 발생 빈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정	② 부정	①+ ②	③ 보통	④ 긍정	⑤ 매우 긍정	④+ ⑤	평균
전체		379	61.5	25.3	86.8	8.4	2.4	2.4	4.8	1.59
소속	육군	263	54.0	29.7	83.7	9.5	3.4	3.4	6.8	1.73
	-육군훈련소	77	45.5	37.7	83.2	9.1	5.2	2.6	7.8	1.82
	-사단신교대	186	57.5	26.3	83.8	9.7	2.7	3.8	6.5	1.69
	해군	32	62.5	34.4	96.9	3.1	.0	.0	0	1.41
	공군	40	90.0	5.0	95	5.0	.0	.0	0	1.15
	해병대	44	79.5	11.4	90.9	9.1	.0	.0	0	1.30
보직	지휘관	63	49.2	39.7	88.9	6.3	4.8	.0	4.8	1.67
	교관+조교	316	63.9	22.5	86.4	8.9	1.9	2.8	4.7	1.57
	교관	133	56.4	24.1	80.5	13.5	2.3	3.8	6.1	1.73
	조교	183	69.4	21.3	90.7	5.5	1.6	2.2	3.8	1.46
계급	영관	7	28.6	42.9	71.5	28.6	.0	.0	0	2.00
	위관	22	59.1	36.4	95.5	4.5	.0	.0	0	1.45
	부사관	174	55.7	27.0	82.7	10.9	3.4	2.9	6.3	1.71
	병	176	68.8	21.6	90.4	5.7	1.7	2.3	4	1.47

○ 언어폭력 발생 빈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0> 성희롱 발생 빈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정	② 부정	①+ ②	③ 보통	④ 긍정	⑤ 매우 긍정	④+ ⑤	평균
전체		380	78.2	16.1	94.3	3.7	1.3	.8	2.1	1.31
소속	육군	264	74.6	17.4	92	4.9	1.9	1.1	3	1.37
	-육군훈련소	77	70.1	24.7	94.8	1.3	2.6	1.3	3.9	1.40
	-사단신교대	187	76.5	14.4	90.9	6.4	1.6	1.1	2.7	1.36
	해군	32	75.0	25.0	100	.0	.0	.0	0	1.25
	공군	40	97.5	2.5	100	.0	.0	.0	0	1.02
	해병대	44	84.1	13.6	97.7	2.3	.0	.0	0	1.18
보직	지휘관	64	68.8	26.6	95.4	4.7	.0	.0	0	1.36
	교관+조교	316	80.1	13.9	94	3.5	1.6	.9	2.5	1.29
	교관	133	69.2	20.3	89.5	6.8	2.3	1.5	3.8	1.47
	조교	183	88.0	9.3	97.3	1.1	1.1	.5	1.6	1.17
계급	영관	7	28.6	71.4	100	.0	.0	.0	0	1.71
	위관	23	78.3	17.4	95.7	4.3	.0	.0	0	1.26
	부사관	174	70.7	20.1	90.8	6.3	1.7	1.1	2.8	1.43
	병	176	87.5	9.7	97.2	1.1	1.1	.6	1.7	1.18

○ 성희롱 발생 빈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1> 성폭력 발생 빈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정	② 부정	①+ ②	③ 보통	④ 긍정	⑤ 매우 긍정	④+ ⑤	평균
전체		378	90.2	8.5	98.7	.3	.8	.3	1.1	1.12
소속	육군	262	89.7	8.4	98.1	.4	1.1	.4	1.5	1.14
	-육군훈련소	77	92.2	6.5	98.7	.0	.0	1.3	1.3	1.12
	-사단신교대	185	88.6	9.2	97.8	.5	1.6	.0	1.6	1.15
	해군	32	81.3	18.8	100.1	.0	.0	.0	0	1.19
	공군	40	97.5	2.5	100	.0	.0	.0	0	1.02
	해병대	44	93.2	6.8	100	.0	.0	.0	0	1.07
보직	지휘관	62	85.5	12.9	98.4	1.6	.0	.0	0	1.16
	교관+조교	316	91.1	7.6	98.7	.9	.3	.0	0.3	1.12
	교관	133	83.5	15.0	98.5	.0	.8	.8	1.6	1.20
	조교	183	96.7	2.2	98.9	.0	1.1	.0	1.1	1.05
계급	영관	7	85.7	14.3	100	.0	.0	.0	0	1.14
	위관	22	86.4	9.1	95.5	4.5	.0	.0	0	1.18
	부사관	173	84.4	14.5	98.9	.0	.6	.6	1.2	1.18
	병	176	96.6	2.3	98.9	.0	1.1	.0	1.1	1.06

○ 성폭력 발생 빈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2> 부당한 군기훈련 발생 빈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부정	② 부정	①+ ②	③ 보통	④ 긍정	⑤ 매우 긍정	④+ ⑤	평균
전체		378	91.0	7.4	98.4	1.1	.0	.5	0.5	1.12
소속	육군	262	90.8	7.6	98.4	1.1	.0	.4	0.4	1.11
	-육군훈련소	77	94.8	3.9	98.7	.0	.0	1.3	1.3	1.09
	-사단신교대	185	89.2	9.2	98.4	1.6	.0	.0	0	1.12
	해군	32	93.8	3.1	96.9	3.1	.0	.0	0	1.09
	공군	40	90.0	10.0	100	.0	.0	.0	0	1.10
	해병대	44	90.9	6.8	97.7	.0	.0	2.3	2.3	1.16
보직	지휘관	62	88.7	11.3	100	.0	.0	.0	0	1.11
	교관+조교	316	91.5	6.6	98.1	1.3	.0	.6	0.6	1.12
	교관	133	89.5	8.3	97.8	1.5	.0	.8	0.8	1.14
	조교	183	92.9	5.5	98.4	1.1	.0	.5	0.5	1.10
계급	영관	7	57.1	42.9	100	.0	.0	.0	0	1.43
	위관	22	86.4	13.6	100	.0	.0	.0	0	1.14
	부사관	173	90.8	7.5	98.3	1.2	.0	.6	0.6	1.12
	병	176	93.2	5.1	98.3	1.1	.0	.6	0.6	1.10

○ 부당한 군기훈련 발생 빈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3> 구타를 한 사람

구분		사례 수	동료 훈련병	기타
전체		45	95.6	4.4
소속	육군	35	94.3	5.7
	-육군훈련소	14	100	.0
	-사단신교대	21	90.5	9.5
	해군	5	100	.0
	공군	2	100	.0
	해병대	3	100	.0
보직	지휘관	11	90.9	9.1
	교관+조교	34	97.1	2.9
	교관	21	95.2	4.8
	조교	13	100	.0
계급	영관	2	100	.0
	위관	2	100	.0
	부사관	28	92.9	7.1
	병	13	100	.0

○ 구타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동료 훈련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4> 가혹행위를 한 사람

구분		사례 수	조교	동료 훈련병
전체		54	1.9	98.1
소속	육군	45	2.2	97.8
	-육군훈련소	11	.0	100
	-사단신교대	34	2.9	97.1
	해군	4	.0	100
	공군	1	.0	100
	해병대	4	.0	100
보직	지휘관	14	7.1	92.9
	교관+조교	40	.0	100
	교관	26	.0	100
	조교	14	.0	100
계급	영관	3	.0	100
	위관	3	33.3	66.7
	부사관	34	.0	100
	병	14	.0	100

○ 가혹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동료 훈련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5> 언어폭력을 한 사람

구분		사례 수	지휘관	부대 간부	조교	동료 훈련병	기타
전체		135	.7	.7	10.4	87.4	.7
소속	육군	114	.9	.0	11.4	86.8	.9
	-육군훈련소	39	.0	.0	10.3	87.2	2.6
	-사단신교대	75	1.3	.0	12.0	86.7	.0
	해군	11	.0	9.1	.0	90.9	.0
	공군	3	.0	.0	33.3	66.7	.0
	해병대	7	.0	.0	.0	100	.0
보직	지휘관	32	.0	3.1	15.6	81.3	.0
	교관+조교	103	1.0	.0	8.7	89.3	1.0
	교관	48	.0	.0	10.4	89.6	.0
	조교	55	1.8	.0	7.3	89.1	1.8
계급	영관	5	.0	.0	20.0	80.0	.0
	위관	8	.0	.0	50.0	50.0	.0
	부사관	68	.0	1.5	7.4	91.2	.0
	병	54	1.9	.0	7.4	88.9	1.9

○ 언어폭력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동료 훈련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6> 성희롱을 한 사람

구분		사례 수	부대 간부	동료 훈련병	기타
전체		85	2.4	96.5	1.2
소속	육군	69	2.9	95.7	1.4
	-육군훈련소	21	.0	95.2	4.8
	-사단신교대	48	4.2	95.8	.0
	해군	8	.0	100	.0
	해병대	8	.0	100	.0
보직	지휘관	22	4.5	90.9	4.5
	교관+조교	63	1.6	98.4	.0
	교관	40	2.5	97.5	.0
	조교	23	.0	100	.0
계급	영관	6	16.7	83.3	.0
	위관	4	.0	100	.0
	부사관	52	1.9	96.2	1.9
	병	23	.0	100	.0

○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동료 훈련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7> 성추행을 한 사람

구분		사례 수	부대 간부	동료 훈련병
전체		43	2.3	97.7
소속	육군	32	3.1	96.9
	-육군훈련소	7	.0	100
	-사단신교대	25	4.0	96.0
	해군	7	.0	100
	해병대	4	.0	100
보직	지휘관	12	.0	100
	교관+조교	31	3.2	96.8
	교관	23	4.3	95.7
	조교	8	.0	100
계급	영관	2	.0	100
	위관	2	.0	100
	부사관	31	3.2	96.8
	병	8	.0	100

○ 성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동료 훈련병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68> 군기훈련을 한 사람

구분		사례 수	지휘관	교관	조교	동료 훈련병	기타
전체		34	2.9	41.2	29.4	20.6	5.9
소속	육군	24	4.2	20.8	37.5	29.2	8.3
	-육군훈련소	4	.0	.0	25.0	75.0	.0
	-사단신교대	20	5.0	25.0	40.0	20.0	10.0
	해군	3	.0	.0	.0	.0	.0
	공군	3	.0	66.7	33.3	.0	.0
	해병대	4	.0	100	.0	.0	.0
보직	지휘관	9	.0	33.3	44.4	11.1	11.1
	교관+조교	25	4.0	44.0	24.0	24.0	4.0
	교관	11	.0	36.4	27.3	27.3	9.1
	조교	14	7.1	50.0	21.4	21.4	.0
계급	영관	4	.0	50.0	25.0	25.0	.0
	위관	2	.0	.0	100	.0	.0
	부사관	15	.0	40.0	26.7	20.0	13.3
	병	13	7.7	46.2	23.1	23.1	.0

○ 군기훈련을 한 사람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 해병대, 교관/조교, 영관, 부사관, 병에서 교관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2-69> 구타를 한 시간대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시간 후	둘 다
전체		43	4.7	88.4	7.0
소속	육군	33	3.0	90.9	6.1
	-육군훈련소	14	.0	92.9	7.1
	-사단신교대	19	5.3	89.5	5.3
	해군	5	20.0	60.0	20.0
	공군	2	.0	100	.0
	해병대	3	.0	100	.0
보직	지휘관	10	10.0	90.0	.0
	교관+조교	33	3.0	87.9	9.1
	교관	20	5.0	80.0	15.0
	조교	13	.0	100	.0
계급	영관	2	.0	100	.0
	위관	2	50.0	50.0	.0
	부사관	26	3.8	84.6	11.5
	병	13	.0	100	.0

○ 구타를 한 시간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일과시간 후가 가장 많았음.



<표 2-70> 가혹행위를 한 시간대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시간 후	둘 다
전체		52	7.7	84.6	7.7
소속	육군	43	9.3	83.7	7.0
	-육군훈련소	13	15.4	76.9	7.7
	-사단신교대	30	6.7	86.7	6.7
	해군	4	.0	75.0	25.0
	공군	1	.0	100	.0
	해병대	4	.0	100	.0
보직	지휘관	14	7.1	92.9	.0
	교관+조교	38	7.9	81.6	10.5
	교관	23	8.7	78.3	13.0
	조교	15	6.7	86.7	6.7
계급	영관	3	.0	100	.0
	위관	3	33.3	66.7	.0
	부사관	31	6.5	83.9	9.7
	병	15	6.7	86.7	6.7

○ 가혹행위를 한 시간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일과시간 후가 가장 많았음.

<표 2-71> 언어폭력을 한 시간대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시간 후	둘 다
전체		135	17.8	69.6	12.6
소속	육군	113	16.8	70.8	12.4
	-육군훈련소	37	13.5	81.1	5.4
	-사단신교대	76	18.4	65.8	15.8
	해군	11	18.2	72.7	9.1
	공군	2	50.0	50.0	.0
	해병대	9	22.2	55.6	22.2
보직	지휘관	31	35.5	64.5	.0
	교관+조교	104	12.5	71.2	16.3
	교관	51	15.7	62.7	21.6
	조교	53	9.4	79.2	11.3
계급	영관	5	40.0	60.0	.0
	위관	8	75.0	25.0	.0
	부사관	69	15.9	68.1	15.9
	병	53	9.4	79.2	11.3

○ 언어폭력을 한 시간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일과시간 후가 가장 많았음.

<표 2-72> 성희롱을 한 시간대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시간 후	둘 다
전체		84	4.8	90.5	4.8
소속	육군	66	1.5	93.9	4.5
	-육군훈련소	22	4.5	90.9	4.5
	-사단신교대	44	.0	95.5	4.5
	해군	8	12.5	75.0	12.5
	해병대	10	20.0	80.0	.0
보직	지휘관	21	9.5	90.5	.0
	교관+조교	63	3.2	90.5	6.3
	교관	39	2.6	87.2	10.3
	조교	24	4.2	95.8	.0
계급	영관	5	.0	100	.0
	위관	4	25.0	75.0	.0
	부사관	51	3.9	88.2	7.8
	병	24	4.2	95.8	.0

○ 성희롱을 한 시간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일과시간 후가 가장 많았음.

<표 2-73> 성추행을 한 시간대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시간 후	둘 다
전체		41	4.9	87.8	7.3
소속	육군	31	3.2	90.3	6.5
	-육군훈련소	8	.0	87.5	12.5
	-사단신교대	23	4.3	91.3	4.3
	해군	6	16.7	66.7	16.7
	해병대	4	.0	100	.0
보직	지휘관	10	10.0	90.0	.0
	교관+조교	31	3.2	87.1	9.7
	교관	23	4.3	82.6	13.0
	조교	8	.0	100	.0
계급	영관	2	.0	100	.0
	위관	2	50.0	50.0	.0
	부사관	29	3.4	86.2	10.3
	병	8	.0	100	.0

○ 성추행을 한 시간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일과시간 후가 가장 많았음.

<표 2-74> 군기훈련을 한 시간대

구분		사례 수	일과시간	일과시간 후	둘 다
전체		37	62.2	27.0	10.8
소속	육군	25	56.0	28.0	16.0
	-육군훈련소	4	.0	75.0	25.0
	-사단신교대	21	66.7	19.0	14.3
	해군	5	40.0	60.0	.0
	공군	3	100	.0	.0
	해병대	4	100	.0	.0
보직	지휘관	9	44.4	55.6	.0
	교관+조교	28	67.9	17.9	14.3
	교관	13	69.2	7.7	23.1
	조교	15	66.7	26.7	6.7
계급	영관	3	33.3	66.7	.0
	위관	2	100	.0	.0
	부사관	18	61.1	22.2	16.7
	병	14	64.3	28.6	7.1

○ 군기훈련을 한 시간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지휘관, 영관은 일과시간 후, 그 외의 소속, 보직, 계급에서는 일과시간이 가장 많았음.

<표 2-75> 훈련병은 인권 침해 피해에 적극적 보고를 하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171	39.2	48.0	87.2	9.4	1.2	10.6	2.3	3.28
소속	육군	132	36.4	50.0	86.4	10.6	1.5	12.1	1.5	3.23
	-육군훈련소	44	43.2	43.2	86.4	13.6	.0	13.6	.0	3.30
	-사단신교대	88	33.0	53.4	86.4	9.1	2.3	11.4	2.3	3.20
	해군	13	53.8	46.2	100	.0	.0	0	.0	3.54
	공군	8	37.5	50.0	87.5	.0	.0	0	12.5	3.43
	해병대	18	50.0	33.3	83.3	11.1	.0	11.1	5.6	3.41
보직	지휘관	39	51.3	43.6	94.9	5.1	.0	5.1	.0	3.46
	교관+조교	132	35.6	49.2	84.8	10.6	1.5	12.1	3.0	3.23
	교관	65	38.5	49.2	87.7	10.8	.0	10.8	1.5	3.28
	조교	67	32.8	49.3	82.1	10.4	3.0	13.4	4.5	3.17
계급	영관	7	42.9	57.1	100	.0	.0	0	.0	3.43
	위관	10	30.0	70.0	100	.0	.0	0	.0	3.30
	부사관	88	44.3	44.3	88.6	10.2	.0	10.2	1.1	3.34
	병	66	33.3	48.5	81.8	10.6	3.0	13.6	4.5	3.17

○ 훈련병은 인권 침해 피해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6> 부대 차원에서 인지했을 때 적절한 후속 조치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172	64.5	30.8	95.3	2.3	.0	2.3	2.3	3.64
소속	육군	132	68.9	28.8	97.7	.8	.0	0.8	1.5	3.69
	-육군훈련소	44	65.9	31.8	97.7	.0	.0	0	2.3	3.67
	-사단신교대	88	70.5	27.3	97.8	1.1	.0	1.1	1.1	3.70
	해군	13	53.8	38.5	92.3	7.7	.0	7.7	.0	3.46
	공군	8	25.0	50.0	75	12.5	.0	12.5	12.5	3.14
	해병대	19	57.9	31.6	89.5	5.3	.0	5.3	5.3	3.56
보직	지휘관	39	71.8	28.2	100	.0	.0	0	.0	3.72
	교관+조교	133	62.4	31.6	94	3.0	.0	3	3.0	3.61
	교관	66	71.2	24.2	95.4	3.0	.0	3	1.5	3.69
	조교	67	53.7	38.8	92.5	3.0	.0	3	4.5	3.53
계급	영관	7	71.4	28.6	100	.0	.0	0	.0	3.71
	위관	10	60.0	40.0	100	.0	.0	0	.0	3.60
	부사관	89	71.9	24.7	96.6	2.2	.0	2.2	1.1	3.70
	병	66	54.5	37.9	92.4	3.0	.0	3	4.5	3.54

○ 부대 차원에서 인지했을 때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후속 조치가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2-77> 지휘관은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167	75.4	22.8	98.2	.6	.6	1.2	.6	3.74
소속	육군	128	77.3	21.1	98.4	.0	.8	0.8	.8	3.76
	-육군훈련소	43	76.7	20.9	97.6	.0	2.3	2.3	.0	3.72
	-사단신교대	85	77.6	21.2	98.8	.0	.0	0	1.2	3.79
	해군	13	61.5	30.8	92.3	7.7	.0	7.7	.0	3.54
	공군	7	57.1	42.9	100	.0	.0	0	.0	3.57
	해병대	19	78.9	21.1	100	.0	.0	0	.0	3.79
보직	지휘관	36	72.2	25.0	97.2	.0	2.8	2.8	.0	3.67
	교관+조교	131	76.3	22.1	98.4	.8	.8	1.6	100.0	3.76
	교관	66	78.8	19.7	98.5	1.5	.0	1.5	.0	3.77
	조교	65	73.8	24.6	98.4	.0	.0	0	1.5	3.75
계급	영관	7	85.7	14.3	100	.0	.0	0	.0	3.86
	위관	10	60.0	30.0	90	.0	10.0	10	.0	3.40
	부사관	86	77.9	20.9	98.8	1.2	.0	1.2	.0	3.77
	병	64	73.4	25.0	98.4	.0	.0	0	1.6	3.75

○ 지휘관은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지휘관이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8> 부대 간부는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164	71.3	25.6	96.9	1.8	.6	2.4	.6	3.69
소속	육군	126	72.2	24.6	96.8	1.6	.8	2.4	.8	3.70
	-육군훈련소	43	79.1	18.6	97.7	.0	2.3	2.3	.0	3.74
	-사단신교대	83	68.7	27.7	96.4	2.4	.0	2.4	1.2	3.67
	해군	13	61.5	38.5	100	.0	.0	0	.0	3.62
	공군	7	57.1	42.9	100	.0	.0	0	.0	3.57
	해병대	18	77.8	16.7	94.5	5.6	.0	5.6	.0	3.72
보직	지휘관	33	69.7	27.3	97	.0	3.0	3	.0	3.64
	교관+조교	131	71.8	25.2	97	2.3	.8	3.1	100.0	3.70
	교관	66	74.2	22.7	96.9	3.0	.0	3	.0	3.71
	조교	65	69.2	27.7	96.9	1.5	.0	1.5	1.5	3.69
계급	영관	7	85.7	14.3	100	.0	.0	0	.0	3.86
	위관	9	55.6	33.3	88.9	.0	11.1	11.1	.0	3.33
	부사관	84	73.8	23.8	97.6	2.4	.0	2.4	.0	3.71
	병	64	68.8	28.1	96.9	1.6	.0	1.6	1.6	3.68

○ 부대 간부는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부대 간부가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9> 교관은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166	72.3	25.3	97.6	1.2	.6	1.8	.6	3.70
소속	육군	128	72.7	24.2	96.9	1.6	.8	2.4	.8	3.70
	-육군훈련소	43	76.7	20.9	97.6	.0	2.3	2.3	.0	3.72
	-사단신교대	85	70.6	25.9	96.5	2.4	.0	2.4	1.2	3.69
	해군	13	61.5	38.5	100	.0	.0	0	.0	3.62
	공군	7	57.1	42.9	100	.0	.0	0	.0	3.57
	해병대	18	83.3	16.7	100	.0	.0	0	.0	3.83
보직	지휘관	34	70.6	26.5	97.1	.0	2.9	2.9	.0	3.65
	교관+조교	132	72.7	25.0	97.7	1.5	.0	1.5	.8	3.72
	교관	67	76.1	22.4	98.5	1.5	.0	1.5	.0	3.75
	조교	65	69.2	27.7	96.9	1.5	.0	1.5	1.5	3.69
계급	영관	7	85.7	14.3	100	.0	.0	0	.0	3.86
	위관	9	55.6	33.3	88.9	.0	11.1	11.1	.0	3.33
	부사관	86	75.6	23.3	98.9	1.2	.0	1.2	.0	3.74
	병	64	68.8	28.1	96.9	1.6	.0	1.6	1.6	3.68

○ 교관은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교관이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0> 조교는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162	71.0	23.5	94.5	3.1	.6	3.7	1.9	3.68	
소속	육군	127	74.0	20.5	94.5	3.9	.8	4.7	.8	3.69
	-육군훈련소	44	75.0	20.5	95.5	2.3	2.3	4.6	.0	3.68
	-사단신교대	83	73.5	20.5	94	4.8	.0	4.8	1.2	3.70
	해군	13	53.8	38.5	92.3	.0	.0	0	7.7	3.58
	공군	7	57.1	42.9	100	.0	.0	0	.0	3.57
	해병대	15	66.7	26.7	93.4	.0	.0	0	6.7	3.71
보직	지휘관	32	65.6	28.1	93.7	.0	3.1	3.1	3.1	3.61
	교관+조교	130	72.3	22.3	94.6	3.8	.0	3.8	1.5	3.70
	교관	130	73.4	20.3	93.7	4.7	.0	4.7	1.6	3.70
	조교	66	71.2	24.2	95.4	3.0	.0	3	1.5	3.69
계급	영관	6	83.3	16.7	100	.0	.0	0	.0	3.83
	위관	9	55.6	33.3	88.9	.0	11.1	11.1	.0	3.33
	부사관	82	72.0	22.0	94	3.7	.0	3.7	2.4	3.70
	병	65	70.8	24.6	95.4	3.1	.0	3.1	1.5	3.69

○ 조교는 훈련병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조교가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1> 인권침해 제도 및 기관/기구를 훈련병에게 알리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전체		380	64.7	31.6	96.3	2.9	.8	3.7	3.60
소속	육군	264	64.4	32.2	96.6	3.0	.4	3.4	3.61
	-육군훈련소	78	57.7	38.5	96.2	2.6	1.3	3.9	3.53
	-사단신교대	186	67.2	29.6	96.8	3.2	.0	3.2	3.64
	해군	32	59.4	37.5	96.9	3.1	.0	3.1	3.56
	공군	39	64.1	30.8	94.9	2.6	2.6	5.2	3.56
	해병대	45	71.1	24.4	95.5	2.2	2.2	4.4	3.64
보직	지휘관	64	76.6	21.9	98.5	.0	1.6	1.6	3.73
	교관+조교	316	62.3	33.5	95.8	3.5	.6	4.1	3.58
	교관	136	65.4	33.8	99.2	.7	.0	0.7	3.65
	조교	180	60.0	33.3	93.3	5.6	1.1	6.7	3.52
계급	영관	6	100	.0	100	.0	.0	0	4.00
	위관	23	65.2	34.8	100	.0	.0	0	3.65
	부사관	177	67.2	31.6	98.8	.6	.6	1.2	3.66
	병	174	60.9	32.2	93.1	5.7	1.1	6.8	3.53

○ 인권침해 제도 및 기관/기구를 훈련병에게 알리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훈련병에게 알리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2> 인권침해 기관/기구를 훈련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전체		379	32.2	54.4	86.6	11.1	2.4	13.5	3.16
소속	육군	265	29.1	57.7	86.8	11.3	1.9	13.2	3.14
	-육군훈련소	78	25.6	56.4	82	14.1	3.8	17.9	3.04
	-사단신교대	187	30.5	58.3	88.8	10.2	1.1	11.3	3.18
	해군	31	32.3	61.3	93.6	6.5	.0	6.5	3.26
	공군	39	46.2	33.3	79.5	15.4	5.1	20.5	3.21
	해병대	44	38.6	47.7	86.3	9.1	4.5	13.6	3.20
보직	지휘관	64	31.3	59.4	90.7	7.8	1.6	9.4	3.20
	교관+조교	315	32.4	53.3	85.7	11.7	2.5	14.2	3.16
	교관	134	37.3	53.0	90.3	7.5	2.2	9.7	3.25
	조교	181	28.7	53.6	82.3	14.9	2.8	17.7	3.08
계급	영관	7	42.9	28.6	71.5	28.6	.0	28.6	3.14
	위관	23	17.4	73.9	91.3	8.7	.0	8.7	3.09
	부사관	175	36.6	54.3	90.9	6.9	2.3	9.2	3.25
	병	174	29.3	52.9	82.2	14.9	2.9	17.8	3.09

○ 인권침해 기관/기구를 훈련병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훈련병이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2-83> 마음의 편지를 접수하고 있는가

구분		사례 수	수시	주 1회	전체 2회	퇴소 1회
전체		356	56.2	32.6	9.0	2.2
소속	육군	262	51.5	40.8	6.9	.8
	-육군훈련소	78	42.3	47.4	9.0	1.3
	-사단신교대	184	55.4	38.0	6.0	.5
	해군	30	60.0	10.0	26.7	3.3
	공군	27	74.1	.0	14.8	11.1
	해병대	37	73.0	16.2	5.4	5.4
보직	지휘관	62	51.6	37.1	8.1	3.2
	교관+조교	294	57.1	31.6	9.2	2.0
	교관	123	54.5	36.6	8.9	.0
	조교	171	59.1	28.1	9.4	3.5
계급	영관	7	42.9	28.6	14.3	14.3
	위관	19	52.6	36.8	5.3	5.3
	부사관	165	53.3	36.4	9.1	1.2
	병	165	60.0	28.5	9.1	2.4

○ 마음의 편지를 접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에서만 주 1회 실시하고, 그 외에는 수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4> 마음의 편지에 대한 조치 결과 통보방법

구분		사례 수	방송	생활관 게시판	개별	기타
전체		339	34.5	10.0	41.0	14.5
소속	육군	249	40.2	9.2	32.9	17.7
	-육군훈련소	78	38.5	6.4	30.8	24.4
	-사단신교대	171	40.9	10.5	33.9	14.6
	해군	31	3.2	22.6	64.5	9.7
	공군	24	8.3	8.3	83.3	.0
	해병대	35	40.0	5.7	48.6	5.7
보직	지휘관	56	35.7	16.1	32.1	16.1
	교관+조교	283	34.3	8.8	42.8	14.1
	교관	118	35.6	11.0	35.6	17.8
	조교	165	33.3	7.3	47.9	11.5
계급	영관	6	33.3	16.7	33.3	16.7
	위관	20	25.0	25.0	45.0	5.0
	부사관	153	36.6	11.1	34.0	18.3
	병	160	33.8	6.9	47.5	11.9

○ 마음의 편지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방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방송으로 통보하는 순으로 나타남.

<표 2-85> 마음의 편지 조치 결과에 대한 훈련병의 인식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전체		353	33.1	60.9	94	5.4	.6	6	3.27
소속	육군	262	33.2	60.7	93.9	5.7	.4	6.1	3.27
	-육군훈련소	76	21.1	72.4	93.5	6.6	.0	6.6	3.14
	-사단신교대	186	38.2	55.9	94.1	5.4	.5	5.9	3.32
	해군	31	16.1	77.4	93.5	6.5	.0	6.5	3.10
	공군	24	29.2	66.7	95.9	.0	4.2	4.2	3.21
	해병대	36	50.0	44.4	94.4	5.6	.0	5.6	3.44
보직	지휘관	61	39.3	54.1	93.4	6.6	.0	6.6	3.33
	교관+조교	292	31.8	62.3	94.1	5.1	.7	5.8	3.25
	교관	123	30.1	64.2	94.3	4.9	.8	5.7	3.24
	조교	169	33.1	60.9	94	5.3	.6	5.9	3.27
계급	영관	7	14.3	57.1	71.4	28.6	.0	28.6	2.86
	위관	20	40.0	50.0	90	10.0	.0	10	3.30
	부사관	161	31.7	64.0	95.7	3.7	.6	4.3	3.27
	병	165	34.5	59.4	93.9	5.5	.6	6.1	3.28

○ 마음의 편지 조치결과에 대한 훈련병의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영관에서 훈련병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군 인권교육 및 전반적인 인권의식

<표 2-86> 인권교육 횟수

		사례 수	총 1회	총 2회	총 3회	총 4회 이상
전체		370	11.1	25.7	20.8	42.4
소속	육군	261	9.6	24.9	25.3	40.2
	-육군훈련소	77	10.4	33.8	27.3	28.6
	-사단신교대	184	9.2	21.2	24.5	45.1
	해군	30	16.7	46.7	6.7	30.0
	공군	37	27.0	27.0	18.9	27.0
	해병대	42	2.4	14.3	4.8	78.6
보직	지휘관	63	11.1	27.0	15.9	46.0
	교관+조교	307	11.1	25.4	21.8	41.7
	교관	133	15.8	27.8	14.3	42.1
	조교	174	7.5	23.6	27.6	41.4
계급	영관	6	.0	33.3	16.7	50.0
	위관	23	26.1	26.1	21.7	26.1
	부사관	171	13.5	28.1	14.0	44.4
	병	170	7.1	22.9	27.6	42.4

○ 인권교육 횟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은 총 2회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부대에서는 대부분 총 4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87> 인권교육 진행자

구분		사례 수	지휘관	교관	군법무관	민간인 전문강사
전체		345	41.7	18.8	17.4	22.0
소속	육군	237	54.0	13.5	15.6	16.9
	-육군훈련소	77	80.5	10.4	5.2	3.9
	-사단신교대	160	41.3	15.0	20.6	23.1
	해군	27	14.8	22.2	33.3	29.6
	공군	40	5.0	30.0	20.0	45.0
	해병대	41	24.4	36.6	14.6	24.4
보직	지휘관	59	35.6	18.6	30.5	15.3
	교관+조교	286	43.0	18.9	14.7	23.4
	교관	122	47.5	14.8	19.7	18.0
	조교	164	39.6	22.0	11.0	27.4
계급	영관	7	14.3	28.6	28.6	28.6
	위관	23	21.7	13.0	52.2	13.0
	부사관	157	45.9	15.9	18.5	19.7
	병	158	41.8	22.2	10.8	25.3

○ 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은 민간인 전문강사가 가장 많았고, 해병대는 교관, 해군은 법무관이 가장 많았음.

<표 2-88> 인권교육 형태

구분		사례 수	강의식	설명+동영상	동영상만
전체		369	44.7	53.7	1.6
소속	육군	258	44.6	54.3	1.2
	-육군훈련소	78	57.7	41.0	1.3
	-사단신교대	180	38.9	60.0	1.1
	해군	30	36.7	60.0	3.3
	공군	38	73.7	23.7	2.6
	해병대	43	25.6	72.1	2.3
보직	지휘관	62	35.5	59.7	4.8
	교관+조교	307	46.6	52.4	1.0
	교관	129	34.9	65.1	.0
	조교	178	55.1	43.3	1.7
계급	영관	7	28.6	71.4	.0
	위관	23	34.8	60.9	4.3
	부사관	167	37.1	61.7	1.2
	병	172	54.1	44.2	1.7

○ 인권교육 형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설명+동영상이 가장 많았고, 강의식도 높게 나타남.

<표 2-89> 인권교육이 훈련병에게 도움이 되는가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전체		377	37.4	53.1	90.5	7.7	1.9	9.6	3.26
소속	육군	265	35.5	55.1	90.6	7.9	1.5	9.4	3.25
	-육군훈련소	78	26.9	61.5	88.4	10.3	1.3	11.6	3.14
	-사단신교대	187	39.0	52.4	91.4	7.0	1.6	8.6	3.29
	해군	30	36.7	63.3	100	.0	.0	0	3.37
	공군	39	46.2	43.6	89.8	10.3	.0	10.3	3.36
	해병대	43	41.9	41.9	83.8	9.3	7.0	16.3	3.19
보직	지휘관	63	39.7	47.6	87.3	9.5	3.2	12.7	3.24
	교관+조교	314	36.9	54.1	91	7.3	1.6	8.9	3.26
	교관	134	35.1	55.2	90.3	7.5	2.2	9.7	3.23
	조교	180	38.3	53.3	91.6	7.2	1.1	8.3	3.29
계급	영관	7	14.3	71.4	85.7	14.3	.0	14.3	3.00
	위관	23	43.5	47.8	91.3	4.3	4.3	8.6	3.30
	부사관	173	35.8	53.8	89.6	8.1	2.3	10.4	3.23
	병	174	39.1	52.3	91.4	7.5	1.1	8.6	3.29

○ 인권교육이 훈련병에게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함.

<표 2-90> 1년간 인권교육 받은 경험

구분		사례 수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361	7.2	9.1	21.9	16.1	45.7
소속	육군	250	9.2	8.8	18.4	15.6	48.0
	-육군훈련소	72	13.9	9.7	19.4	11.1	45.8
	-사단신교대	178	7.3	8.4	18.0	17.4	48.9
	해군	31	6.5	12.9	38.7	12.9	29.0
	공군	39	2.6	12.8	35.9	15.4	33.3
	해병대	41	.0	4.9	17.1	22.0	56.1
보직	지휘관	62	4.8	6.5	29.0	14.5	45.2
	교관+조교	299	7.7	9.7	20.4	16.4	45.8
	교관	127	9.4	14.2	29.9	8.7	37.8
	조교	172	6.4	6.4	13.4	22.1	51.7
계급	영관	7	.0	.0	28.6	28.6	42.9
	위관	22	4.5	22.7	31.8	4.5	36.4
	부사관	167	8.4	10.2	31.1	10.8	39.5
	병	165	6.7	6.7	10.9	22.4	53.3

○ 1년간 인권교육 받은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 공군은 2회가 가장 많았고, 나머지 부대에서는 4회 이상이 가장 많았음.

<표 2-91> 인권교육 진행자

구분		사례 수	지휘관	교관	군법무관	민간인 전문강사
전체		318	45.3	13.8	11.9	28.9
소속	육군	214	51.9	10.7	11.7	25.7
	-육군훈련소	65	70.8	10.8	9.2	9.2
	-사단신교대	149	43.6	10.7	12.8	32.9
	해군	25	40.0	16.0	12.0	32.0
	공군	38	21.1	21.1	21.1	36.8
	해병대	41	36.6	22.0	4.9	36.6
보직	지휘관	55	49.1	12.7	9.1	29.1
	교관+조교	263	44.5	14.1	12.5	28.9
	교관	109	49.5	11.0	11.0	28.4
	조교	154	40.9	16.2	13.6	29.2
계급	영관	6	50.0	33.3	16.7	.0
	위관	21	33.3	9.5	19.0	38.1
	부사관	144	49.3	11.1	9.7	29.9
	병	147	42.9	16.3	12.9	27.9

○ 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 위관은 민간인 전문강사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는 지휘관이 가장 많았음.

<표 2-92> 인권교육 형태

구분		사례 수	강의식	설명+동영상	동영상만
전체		334	50.0	49.1	.9
소속	육군	227	45.8	53.3	.9
	-육군훈련소	64	60.9	39.1	.0
	-사단신교대	163	39.9	58.9	1.2
	해군	28	57.1	42.9	.0
	공군	38	76.3	21.1	2.6
	해병대	41	43.9	56.1	.0
보직	지휘관	59	40.7	57.6	1.7
	교관+조교	275	52.0	47.3	.7
	교관	114	41.2	58.8	.0
	조교	161	59.6	39.1	1.2
계급	영관	7	42.9	57.1	.0
	위관	22	27.3	72.7	.0
	부사관	151	43.7	55.6	.7
	병	154	59.7	39.0	1.3

○ 인권교육 형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강의식과 설명+동영상이 대부분을 차지함.

<표 2-93>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43	49.0	43.1	92.1	5.8	2.0	7.8	3.39	3.39
소속	육군	235	47.7	44.7	92.4	6.0	1.7	7.7	3.38	3.38
	-육군훈련소	64	45.3	48.4	93.7	4.7	1.6	6.3	3.38	3.38
	-사단신교대	171	48.5	43.3	91.8	6.4	1.8	8.2	3.39	3.39
	해군	29	44.8	44.8	89.6	6.9	3.4	10.3	3.31	3.31
	공군	38	52.6	39.5	92.1	7.9	.0	7.9	3.45	3.45
	해병대	41	56.1	36.6	92.7	2.4	4.9	7.3	3.44	3.44
보직	지휘관	61	59.0	31.1	90.1	4.9	4.9	9.8	3.44	3.44
	교관+조교	282	46.8	45.7	92.5	6.0	1.4	7.4	3.38	3.38
	교관	118	46.6	45.8	92.4	5.9	1.7	7.6	3.37	3.37
	조교	164	47.0	45.7	92.7	6.1	1.2	7.3	3.38	3.38
계급	영관	7	71.4	28.6	100	.0	.0	0	3.71	3.71
	위관	22	54.5	40.9	95.4	.0	4.5	4.5	3.45	3.45
	부사관	157	48.4	42.7	91.1	6.4	2.5	8.9	3.37	3.37
	병	157	47.8	44.6	92.4	6.4	1.3	7.7	3.39	3.39

○ 인권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표 2-94> 인권교육 시설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47	49.3	31.7	81	14.4	3.5	1.2	4.7	4.24
소속	육군	238	51.7	31.5	83.2	12.2	3.8	.8	4.6	4.29
	-육군훈련소	65	43.1	35.4	78.5	13.8	6.2	1.5	7.7	4.12
	-사단신교대	173	54.9	30.1	85	11.6	2.9	.6	3.5	4.36
	해군	29	48.3	37.9	86.2	13.8	.0	.0	0	4.34
	공군	39	48.7	33.3	82	12.8	2.6	2.6	5.2	4.23
	해병대	41	36.6	26.8	63.4	29.3	4.9	2.4	7.3	3.90
보직	지휘관	60	41.7	31.7	73.4	16.7	6.7	3.3	10	4.02
	교관+조교	287	50.9	31.7	82.6	13.9	2.8	.7	3.5	4.29
	교관	119	44.5	27.7	72.2	21.8	4.2	1.7	5.9	4.09
	조교	168	55.4	34.5	89.9	8.3	1.8	.0	1.8	4.43
계급	영관	7	57.1	14.3	71.4	14.3	14.3	.0	14.3	4.14
	위관	23	43.5	39.1	82.6	8.7	4.3	4.3	8.6	4.13
	부사관	156	41.7	30.8	72.5	21.2	4.5	1.9	6.4	4.06
	병	161	57.1	32.3	89.4	8.7	1.9	.0	1.9	4.45

○ 인권교육 시설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2-95> 인권교육 교육 내용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47	47.6	31.7	79.3	17.6	2.9	.3	20.8	4.23
소속	육군	238	48.3	31.1	79.4	16.0	4.2	.4	20.6	4.23
	-육군훈련소	65	46.2	27.7	73.9	20.0	4.6	1.5	26.1	4.12
	-사단신교대	173	49.1	32.4	81.5	14.5	4.0	.0	18.5	4.27
	해군	29	51.7	34.5	86.2	13.8	.0	.0	13.8	4.38
	공군	39	53.8	30.8	84.6	15.4	.0	.0	15.4	4.38
	해병대	41	34.1	34.1	68.2	31.7	.0	.0	31.7	4.02
보직	지휘관	60	38.3	33.3	71.6	23.3	3.3	1.7	28.3	4.03
	교관+조교	287	49.5	31.4	80.9	16.4	2.8	.0	19.2	4.28
	교관	119	42.9	35.3	78.2	19.3	2.5	.0	21.8	4.18
	조교	168	54.2	28.6	82.8	14.3	3.0	.0	17.3	4.34
계급	영관	7	28.6	42.9	71.5	28.6	.0	.0	28.6	4.00
	위관	23	47.8	34.8	82.6	13.0	.0	4.3	17.3	4.22
	부사관	156	39.7	36.5	76.2	20.5	3.2	.0	23.7	4.13
	병	161	55.9	26.1	82	14.9	3.1	.0	18	4.35

○ 인권교육 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교육 내용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2-96> 인권교육 강사의 자질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46	50.3	30.1	80.4	17.3	.9	1.4	2.3	4.27
소속	육군	237	51.9	28.3	80.2	16.9	1.3	1.7	3	4.27
	-육군훈련소	65	47.7	32.3	80	16.9	1.5	1.5	3	4.23
	-사단신교대	172	53.5	26.7	80.2	16.9	1.2	1.7	2.9	4.29
	해군	29	44.8	41.4	86.2	13.8	.0	.0	0	4.31
	공군	39	56.4	30.8	87.2	10.3	.0	2.6	2.6	4.38
	해병대	41	39.0	31.7	70.7	29.3	.0	.0	0	4.10
보직	지휘관	60	46.7	28.3	75	21.7	.0	3.3	3.3	4.15
	교관+조교	286	51.0	30.4	81.4	16.4	1.0	1.0	2	4.29
	교관	119	47.1	31.1	78.2	19.3	1.7	.8	2.5	4.22
	조교	167	53.9	29.9	83.8	14.4	.6	1.2	1.8	4.35
계급	영관	7	42.9	28.6	71.5	28.6	.0	.0	0	4.14
	위관	23	47.8	26.1	73.9	17.4	.0	8.7	8.7	4.04
	부사관	156	45.5	33.3	78.8	19.2	1.3	.6	1.9	4.22
	병	160	55.6	27.5	83.1	15.0	.6	1.3	1.9	4.36

○ 인권교육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함.

<표 2-97>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46	57.5	28.9	86.4	11.8	1.2	.6	1.8	4.42
소속	육군	237	60.8	27.4	88.2	10.1	1.3	.4	1.7	4.47
	-육군훈련소	65	60.0	27.7	87.7	9.2	1.5	1.5	3	4.43
	-사단신교대	172	61.0	27.3	88.3	10.5	1.2	.0	1.2	4.48
	해군	29	55.2	31.0	86.2	10.3	3.4	.0	3.4	4.38
	공군	39	56.4	28.2	84.6	12.8	.0	2.6	2.6	4.36
	해병대	41	41.5	36.6	78.1	22.0	.0	.0	0	4.20
보직	지휘관	60	58.3	25.0	83.3	15.0	.0	1.7	1.7	4.38
	교관+조교	286	57.3	29.7	87	11.2	1.4	.3	1.7	4.42
	교관	119	55.5	26.9	82.4	14.3	2.5	.8	3.3	4.34
	조교	167	58.7	31.7	90.4	9.0	.6	.0	0.6	4.49
계급	영관	7	42.9	42.9	85.8	14.3	.0	.0	0	4.29
	위관	23	60.9	21.7	82.6	8.7	.0	8.7	8.7	4.26
	부사관	156	55.1	28.2	83.3	14.7	1.9	.0	1.9	4.37
	병	160	60.0	30.0	90	9.4	.6	.0	0.6	4.49

○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지휘관 관심도가 높다고 나타남.

<표 2-98> 훈련병의 기본적 권리 제한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최대한 보장	비슷한 수준 보장	일반장병보다 제한	잘 모름
전체		380	7.9	9.7	80.5	1.8
소속	육군	263	9.1	13.3	76.4	1.1
	-육군훈련소	78	5.1	7.7	87.2	.0
	-사단신교대	185	10.8	15.7	71.9	1.6
	해군	32	6.3	.0	90.6	3.1
	공군	41	4.9	2.4	90.2	2.4
	해병대	44	4.5	2.3	88.6	4.6
보직	지휘관	63	17.5	15.9	63.5	3.2
	교관+조교	317	6.0	8.5	83.9	1.6
	교관	137	7.3	11.7	79.6	1.5
	조교	180	5.0	6.1	87.2	1.7
계급	영관	7	.0	28.6	71.4	.0
	위관	25	4.0	12.0	80.0	4.0
	부사관	175	11.4	12.0	74.3	2.2
	병	173	5.2	6.4	87.3	1.2

○ 훈련병의 기본적 권리 제한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일반 장병보다는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99>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81	1.6	13.1	14.7	42.0	38.1	80.1	5.2	1.77
소속	육군	264	1.5	14.4	15.9	44.7	36.0	80.7	3.4	1.81
	-육군훈련소	78	1.3	20.5	21.8	51.3	25.6	76.9	1.3	1.97
	-사단신교대	186	1.6	11.8	13.4	41.9	40.3	82.2	4.3	1.74
	해군	32	.0	3.1	3.1	59.4	25.0	84.4	12.5	1.75
	공군	42	.0	9.5	9.5	28.6	54.8	83.4	7.1	1.51
	해병대	43	4.7	16.3	21	25.6	44.2	69.8	9.3	1.79
보직	지휘관	63	1.6	15.9	17.5	42.9	34.9	77.8	4.8	1.83
	교관+조교	318	1.6	12.6	14.2	41.8	38.7	80.5	5.3	1.76
	교관	137	2.2	15.3	17.5	40.1	36.5	76.6	5.8	1.82
	조교	181	1.1	10.5	11.6	43.1	40.3	83.4	5.0	1.71
계급	영관	7	.0	.0	0	42.9	57.1	100	.0	1.43
	위관	25	.0	16.0	16	40.0	36.0	76	8.0	1.78
	부사관	175	2.3	15.4	17.7	41.1	35.4	76.5	5.7	1.84
	병	174	1.1	10.9	12	43.1	40.2	83.3	4.6	1.72

○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조치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언론 보도가 과장되었다고 인식함.

<표 2-100> 훈련병의 인권보장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81	55.4	41.5	96.9	1.6	.3	1.9	1.3	3.54
소속	육군	264	57.2	40.5	97.7	.8	.0	0.8	1.5	3.57
	-육군훈련소	78	51.3	46.2	97.5	.0	.0	0	2.6	3.53
	-사단신교대	186	59.7	38.2	97.9	1.1	.0	1.1	1.1	3.59
	해군	32	43.8	53.1	96.9	3.1	.0	3.1	.0	3.41
	공군	42	50.0	45.2	95.2	2.4	.0	2.4	2.4	3.49
	해병대	43	58.1	34.9	93	4.7	2.3	7	.0	3.49
보직	지휘관	64	54.7	42.2	96.9	1.6	.0	1.6	1.6	3.54
	교관+조교	317	55.5	41.3	96.8	1.6	.3	1.9	1.3	3.54
	교관	136	41.2	55.9	97.1	1.5	.7	2.2	.7	3.39
	조교	181	66.3	30.4	96.7	1.7	.0	1.7	1.7	3.66
계급	영관	7	42.9	57.1	100	.0	.0	0	.0	3.43
	위관	25	40.0	56.0	96	4.0	.0	4	.0	3.36
	부사관	175	46.3	50.3	96.6	1.1	.6	1.7	1.7	3.45
	병	174	67.2	29.9	97.1	1.7	.0	1.7	1.1	3.66

○ 훈련병의 인권보장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훈련병 인권보장이 잘 되었다고 인식함.

<표 2-101> 훈련병 인권보장이 신병훈련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례 수	긍정 영향	영향 없음	부정 영향	잘 모름
전체		379	32.5	24.5	37.2	5.8
소속	육군	263	34.6	23.2	36.1	6.1
	-육군훈련소	78	32.1	24.4	38.5	5.1
	-사단신교대	185	35.7	22.7	35.1	6.5
	해군	32	21.9	40.6	34.4	3.1
	공군	41	22.0	22.0	46.3	9.8
	해병대	43	37.2	23.3	37.2	2.3
보직	지휘관	63	47.6	27.0	23.8	1.6
	교관+조교	316	29.4	24.1	39.9	6.7
	교관	135	34.1	30.4	32.6	3.0
	조교	181	26.0	19.3	45.3	9.5
계급	영관	6	66.7	.0	33.3	.0
	위관	25	44.0	28.0	24.0	4.0
	부사관	174	35.6	29.3	31.6	3.4
	병	174	26.4	20.1	44.8	8.6

○ 훈련병 인권보장이 신병훈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 조교, 병에서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 2-102> 인권보장을 이유로 훈련을 포기/축소한 경험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379	19.8	34.3	54.1	11.9	19.5	31.4	14.5	2.64
소속	육군	264	17.0	33.7	50.7	12.9	22.7	35.6	13.6	2.52
	-육군훈련소	78	16.7	30.8	47.5	11.5	24.4	35.9	16.7	2.48
	-사단신교대	186	17.2	34.9	52.1	13.4	22.0	35.4	12.4	2.54
	해군	32	18.8	46.9	65.7	12.5	9.4	21.9	12.5	2.86
	공군	41	22.0	31.7	53.7	9.8	12.2	22	24.4	2.84
	해병대	42	35.7	31.0	66.7	7.1	14.3	21.4	11.9	3.00
보직	지휘관	64	15.6	39.1	54.7	9.4	31.3	40.7	4.7	2.41
	교관+조교	315	20.6	33.3	53.9	12.4	17.1	29.5	16.5	2.69
	교관	135	23.7	31.1	54.8	11.9	17.0	28.9	16.3	2.73
	조교	180	18.3	35.0	53.3	12.8	17.2	30	16.7	2.65
계급	영관	7	14.3	28.6	42.9	14.3	42.9	57.2	.0	2.14
	위관	25	16.0	48.0	64	4.0	16.0	20	16.0	2.76
	부사관	174	21.8	31.6	53.4	12.1	20.7	32.8	13.8	2.63
	병	173	18.5	35.3	53.8	12.7	17.9	30.6	15.6	2.64

○ 인권보장을 이유로 훈련을 포기/축소한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 포기/축소한 경험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103> 훈련병이 인권보장을 이유로 거부한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62	18.2	81.8
소속	육군	258	15.1	84.9
	-육군훈련소	76	17.1	82.9
	-사단신교대	182	14.3	85.7
	해군	28	17.9	82.1
	공군	36	27.8	72.2
	해병대	40	30.0	70.0
보직	지휘관	56	16.1	83.9
	교관+조교	306	18.6	81.4
	교관	128	23.4	76.6
	조교	178	15.2	84.8
계급	영관	5	20.0	80.0
	위관	24	4.2	95.8
	부사관	162	22.8	77.2
	병	171	15.8	84.2

○ 훈련병이 인권보장을 이유로 거부한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104>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병 인권을 침해한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60	3.3	96.7
소속	육군	257	3.5	96.5
	-육군훈련소	74	2.7	97.3
	-사단신교대	183	3.8	96.2
	해군	28	.0	100
	공군	35	.0	100
	해병대	40	7.5	92.5
보직	지휘관	57	8.8	91.2
	교관+조교	303	2.3	97.7
	교관	126	4.0	96.0
	조교	177	1.1	98.9
계급	영관	5	20.0	80.0
	위관	24	4.2	95.8
	부사관	161	5.0	95.0
	병	170	1.2	98.8

○ 훈련목표 달성을 위해 훈련병 인권을 침해한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표 2-105> 훈련병의 소원 수리로 피해를 본 직/간접적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64	33.5	66.5
소속	육군	260	36.2	63.8
	-육군훈련소	76	39.5	60.5
	-사단신교대	184	34.8	65.2
	해군	27	14.8	85.2
	공군	37	32.4	67.6
	해병대	40	30.0	70.0
보직	지휘관	56	30.4	69.6
	교관+조교	308	34.1	65.9
	교관	128	35.9	64.1
	조교	180	32.8	67.2
계급	영관	5	20.0	80.0
	위관	24	12.5	87.5
	부사관	162	38.9	61.1
	병	173	31.8	68.2

○ 훈련병의 소원 수리로 피해를 본 직/간접적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보직, 계급에서 없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남.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 [감찰/군사경찰]

---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방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훈련소 운영 실태와 훈련병 생활 전반, 그리고 최근 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응답자의 신상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귀하의 경험을 토대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되는 점을 생각하시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

귀하의 소속 부대 및 인적 사항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1-1] 소속	[1-2] 훈련소 보직	[1-3] 계급 (현역인 경우)	[1-3] 신분 (민간인인 경우)
[        ]	[        ]	[        ]	[        ]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대	1) 지휘관(자) 2) 교관 3) 조교 4) 감찰/군사경찰 5) 군 의료인력 6) 상담관	1) 대령 2) 중령 3) 소령 4) 대위 5) 중위 6) 소위 7) 준위 8) 원사 9) 상사 10) 중사 11) 하사 12) 병장 13) 상병 14) 일병 15) 이병	1) 군무원 2) 근무원

문

훈련병 대상 수사/조사, 소원수리 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 귀하는 최근 1년 간 훈련병을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2로 이동)



문1-1.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2.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소원 수리를 받고 처리해 보신 적이 있나요?

(※ 이 문항은 감찰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만 응답해 주세요)

1) 있다

2) 없다 (문3으로 이동)



문2-1. 훈련병들이 소원 수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2-2. 소원 수리 처리 결과는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한 훈련병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문3. 귀하는 훈련병 대상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다른 동료가 침해하는 것을 목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4로 이동)



문3-1.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귀하가 받으신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㉞ 인권교육이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 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을 말합니다.

**문4. 귀하는 최근 1년간 몇 차례 정도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 1) 받은 적이 없다 (☞문5로 이동)  
2) 총 1회      3) 총 2회      4) 총 3회      5) 총 4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 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하였습니까?**

- 1) 지휘관  
2) 교관  
3) 군 법무관  
4) 민간인 전문강사

**문4-2.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였습니까?**

- 1) 강의식  
2) 약간의 설명과 함께 동영상 시청  
3) 설명 없이 동영상만 시청



**문4-3. 귀하께서 받으신 인권교육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4-4. 인권교육의 여건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별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매우 미흡
1) 교육 시설(장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내용(교재, 콘텐츠)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3) 강사의 자질(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	①	②	③	④	⑤

**문5. 훈련소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 등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분석결과

### 1. 훈련병 대상 수사/조사, 소원 소리

<표 3-1> 1년간 훈련병 대상 수사/수사 진행 여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4	45.8	54.2
소속	육군	18	38.9	61.1
	-육군훈련소	4	75.0	25.0
	-사단신교대	14	28.6	71.4
	해군	4	50.0	50.0
	공군	7	57.1	42.9
	해병대	1	.0	100
계급	영관	7	28.6	71.4
	부사관	17	52.9	47.1

○ 1년간 훈련병 대상 수사/수사 진행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육군훈련소, 공군, 부사관은 있다, 사단신교대, 영관은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남.

<표 3-2> 훈련병 소원 수리 처리 여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1	33.3	66.7
소속	육군	13	46.2	53.8
	-육군훈련소	4	25.0	75.0
	-사단신교대	9	55.6	44.4
	해군	2	.0	100
	공군	5	.0	100
	해병대	1	100	.0
계급	영관	7	57.1	42.9
	부사관	9	33.3	66.7

○ 훈련병 소원 수리 처리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사단신교대, 해병대, 영관은 있다,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는 없다가 더 높게 나타남.

<표 3-3> 훈련병 수사/조사 중 인권침해 경험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28	7.1	92.9
소속	육군	17	11.8	88.2
	-육군훈련소	4	.0	100.0
	-사단신교대	13	15.4	84.6
	해군	3	.0	100
	공군	7	.0	100
	해병대	1	.0	100
계급	영관	7	.0	100
	부사관	15	13.3	86.7

○ 훈련병 수사/조사 중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계급에서 없다가 더 높았으나, 사단신교대, 부사관에서 있다라는 응답이 나타남.

2. 인권교육

<표 3-4> 1년간 인권교육 받은 횟수

구분		사례 수	없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30	3.3	30.0	30.0	13.3	23.3
소속	육군	18	5.6	22.2	27.8	5.6	38.9
	육군훈련소	4	25.0	25.0	25.0	.0	25.0
	-사단신교대	14	.0	21.4	28.6	7.1	42.9
	해군	4	.0	.0	50.0	50.0	.0
	공군	7	.0	71.4	28.6	.0	.0
	해병대	1	.0	.0	.0	100	.0
계급	영관	7	14.3	14.3	28.6	.0	42.9
	부사관	17	.0	23.5	29.4	23.5	23.5

○ 1년간 인권교육 받은 횟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1회, 2회가 가장 많았음.

<표 3-5> 인권교육 진행자

구분		사례 수	지휘관	교관	군법무관	민간인 강사
전체		28	46.4	17.9	28.6	7.1
소속	육군	16	56.3	18.8	25.0	.0
	-육군훈련소	3	33.3	66.7	.0	.0
	-사단신교대	13	61.5	7.7	30.8	.0
	해군	4	25.0	25.0	50.0	.0
	공군	7	28.6	14.3	28.6	28.6
	해병대	1	100	.0	.0	.0
계급	영관	6	66.7	33.3	.0	.0
	부사관	16	56.3	12.5	31.3	.0

○ 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지휘관이 가장 많았고, 군법무관, 교관, 민간인 강사의 순으로 나타남.

<표 3-6> 인권교육 방법

구분		사례 수	강의식	설명+동영상
전체		28	78.6	21.4
소속	육군	16	93.8	6.3
	-육군훈련소	3	100	.0
	-사단신교대	13	92.3	7.7
	해군	4	.0	100
	공군	7	85.7	14.3
	해병대	1	100	.0
계급	영관	6	66.7	33.3
	부사관	16	87.5	12.5

○ 인권교육 방법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강의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해군은 설명+동영상이 가장 많았음.

<표 3-7> 인권교육 도움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7	55.6	40.7	96.3	3.7	.0	3.7	4.52	4.52	
소속	육군	15	66.7	33.3	100	.0	.0	0	4.67	4.67
	-육군훈련소	2	50.0	50.0	100	.0	.0	0	4.50	4.50
	-사단신교대	13	69.2	30.8	100	.0	.0	0	4.69	4.69
	해군	4	25.0	50.0	75	25.0	.0	25	4.00	4.00
	공군	7	42.9	57.1	100	.0	.0	0	4.43	4.43
	해병대	1	100.0	.0	100	.0	.0	0	5.00	5.00
계급	영관	6	66.7	16.7	83.4	16.7	.0	16.7	4.50	4.50
	부사관	15	60.0	40.0	100	.0	.0	0	4.60	4.60

○ 인권교육 도움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계급에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함.

<표 3-8> 인권교육의 교육 시설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8	32.1	39.3	71.4	25.0	3.6	.0	3.6	4.00	
소속	육군	16	43.8	25.0	68.8	25.0	6.3	.0	6.3	4.06
	-육군훈련소	3	66.7	.0	66.7	33.3	.0	.0	0	4.33
	-사단신교대	13	38.5	30.8	69.3	23.1	7.7	.0	7.7	4.00
	해군	4	.0	75.0	75	25.0	.0	.0	0	3.75
	공군	7	28.6	42.9	71.5	28.6	.0	.0	0	4.00
	해병대	1	.0	100	100	.0	.0	.0	0	4.00
계급	영관	6	50.0	50.0	100	.0	.0	.0	0	4.50
	부사관	16	25.0	31.3	56.3	37.5	6.3	.0	6.3	3.75

○ 인권교육의 교육 시설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계급에서 인권교육 시설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3-9> 인권교육의 내용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8	28.6	42.9	71.5	28.6	.0	.0	0	4.00
소속	육군	16	43.8	37.5	81.3	18.8	.0	.0	0	4.25
	-육군훈련소	3	66.7	.0	66.7	33.3	.0	.0	0	4.33
	-사단신교대	13	38.5	46.2	84.7	15.4	.0	.0	0	4.23
	해군	4	.0	50.0	50	50.0	.0	.0	0	3.50
	공군	7	14.3	57.1	71.4	28.6	.0	.0	0	3.86
	해병대	1	.0	.0	0	100	.0	.0	0	3.00
계급	영관	6	50.0	33.3	83.3	16.7	.0	.0	0	4.33
	부사관	16	25.0	31.3	56.3	43.8	.0	.0	0	3.81

○ 인권교육의 내용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3-10> 인권교육의 강사 자질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8	39.3	35.7	75	25.0	.0	.0	0	4.14	
소속	육군	16	56.3	25.0	81.3	18.8	.0	.0	0	4.37
	-육군훈련소	3	66.7	.0	66.7	33.3	.0	.0	0	4.33
	-사단신교대	13	53.8	30.8	84.6	15.4	.0	.0	0	4.38
	해군	4	25.0	25.0	50	50.0	.0	.0	0	3.75
	공군	7	14.3	71.4	85.7	14.3	.0	.0	0	4.00
	해병대	1	.0	.0	0	100	.0	.0	0	3.00
계급	영관	6	50.0	33.3	83.3	16.7	.0	.0	0	4.33
	부사관	16	37.5	31.3	68.8	31.3	.0	.0	0	4.06

○ 인권교육의 강사 자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는 강사 자질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3-11> 인권교육의 지휘관 관심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8	53.6	28.6	82.2	14.3	3.6	.0	3.6	4.32	
소속	육군	16	56.3	31.3	87.6	6.3	6.3	.0	6.3	4.38
	-육군훈련소	3	66.7	33.3	100	.0	.0	.0	0	4.67
	-사단신교대	13	53.8	30.8	84.6	7.7	7.7	.0	7.7	4.31
	해군	4	50.0	.0	50	50.0	.0	.0	0	3.90
	공군	7	42.9	42.9	85.8	14.3	.0	.0	0	4.29
	해병대	1	100	.0	100	.0	.0	.0	0	5.00
계급	영관	6	50.0	33.3	83.3	16.7	.0	.0	0	4.33
	부사관	16	56.3	18.8	75.1	18.8	6.3	.0	6.3	4.25

○ 인권교육의 지휘관 관심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계급에서 지휘관 관심도가 높다고 인식함.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 [군 의무인력]

---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방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훈련소 운영 실태와 훈련병 생활 전반, 그리고 최근 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응답자의 신상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귀하의 경험을 토대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

귀하의 소속 부대 및 인적 사항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1-1] 소속	[1-2] 훈련소 보직	[1-3] 계급 (현역인 경우)	[1-3] 신분 (민간인인 경우)
[        ]	[        ]	[        ]	[        ]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대	1) 지휘관(자) 2) 교관 3) 조교 4) 감찰/군사경찰 5) 군 의료인력 6) 상담관	1) 대령 2) 중령 3) 소령 4) 대위 5) 중위 6) 소위 7) 준위 8) 원사 9) 상사 10) 중사 11) 하사 12) 병장 13) 상병 14) 일병 15) 이병	1) 군무원 2) 근무원

문

다음은 '훈련병 진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 훈련병들이 진료 신청 이후 군 1차 의료기관(의무대 등),  
2차 의료기관(지구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1차 의료기관	① 신청 당일 ③ 신청 이틀 후	② 신청 다음 날 ④ 신청 후 3일 이상
2차 의료기관	① 신청 당일 ③ 신청 이틀 후	② 신청 다음 날 ④ 신청 후 3일 이상

**문2. 훈련병들이 진료를 원하는 질병이나 부상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문3. 진료 과정(신청, 대기, 진료 등)에서 훈련병과 기간병 간에 차이나  
차별점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문4로 이동)



**문3-1. 어떤 점에서 차이나 차별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문4. 귀하가 보시기에 현재 훈련병 의료 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점이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다음은 귀하가 받으신 인권교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인권교육이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을 말합니다.

**문5. 귀하는 최근 1년간 몇 차례 정도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 1) 받은 적이 없다 (☞문6으로 이동)  
2) 총 1회    3) 총 2회    4) 총 3회    5) 총 4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1. 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하였습니까?**

- 1) 지휘관  
2) 교관  
3) 군 법무관  
4) 민간인 전문강사

**문5-2.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였습니까?**

- 1) 강의식
- 2) 약간의 설명과 함께 동영상 시청
- 3) 설명 없이 동영상만 시청

**문5-3. 귀하께서 받으신 인권교육은 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인권의식을 제고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다
- 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5-4. 인권교육의 여건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별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매우 미흡
1) 교육 시설(장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내용(교재, 콘텐츠)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3) 강사의 자질(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	①	②	③	④	⑤

**문6. 훈련소 의료 지원 체계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분석결과

### 1. 훈련병 진료

<표 4-1> 1차 의료기관 대기시간

구분		사례 수	신청 당일	신청 다음 날
전체		35	62.9	37.1
소속	육군	22	68.2	31.8
	-육군훈련소	8	75.0	25.0
	-사단신교대	14	64.3	35.7
	해군	4	75.0	25.0
	공군	5	80.0	20.0
	해병대	4	.0	100
계급	영관	1	.0	100
	위관	16	68.8	31.3
	부사관	15	66.7	33.3
	병	1	.0	100

○ 1차 의료기관 대기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 영관, 병에서는 신청 다음 날,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는 신청 당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4-2> 2차 의료기관 대기시간

구분		사례 수	신청 당일	신청 다음 날	신청 이틀 후	신청 후 3일 이상
전체		34	23.5	35.3	14.7	26.5
소속	육군	21	9.5	47.6	23.8	19.0
	-육군훈련소	8	12.5	75.0	12.5	.0
	-사단신교대	13	7.7	30.8	30.8	30.8
	해군	4	75.0	.0	.0	25.0
	공군	5	60.0	20.0	.0	20.0
	해병대	4	.0	25.0	.0	75.0
계급	영관	1	.0	100	.0	.0
	위관	16	12.5	37.5	25.0	25.0
	부사관	14	42.9	28.6	7.1	21.4
	병	1	.0	.0	.0	100

○ 2차 의료기관 대기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 다음 날이 가장 많았고, 신청 후 3일 이상, 신청 당일, 신청 이틀 후의 순으로 나타남.

<표 4-3> 진료 과정에서 훈련병과 기간병 차이 여부

구분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35	28.6	71.4
소속	육군	22	13.6	86.4
	-육군훈련소	8	.0	100.0
	-사단신교대	14	21.4	78.6
	해군	4	.0	100
	공군	5	80.0	20.0
	해병대	4	75.0	25.0
계급	영관	1	100	.0
	위관	16	12.5	87.5
	부사관	15	33.3	66.7
	병	1	100	.0

○ 진료 과정에서 훈련병과 기간병 차이 여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공군, 해병대, 영관, 병은 있다,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2. 인권교육

<표 4-4> 1년간 인권교육 횟수

구분		사례 수	없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전체		35	20.0	42.9	14.3	8.6	14.3
소속	육군	22	18.2	40.9	4.5	13.6	22.7
	-육군훈련소	8	.0	25.0	12.5	25.0	37.5
	-사단신교대	14	28.6	50.0	.0	7.1	14.3
	해군	4	50.0	50.0	.0	.0	.0
	공군	5	.0	20.0	80.0	.0	.0
	해병대	4	25.0	75.0	.0	.0	.0
계급	영관	1	.0	.0	100	.0	.0
	위관	16	31.3	43.8	.0	18.8	6.3
	부사관	15	6.7	46.7	26.7	.0	20.0
	병	1	100	.0	.0	.0	.0

○ 1년간 인권교육 횟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1회가 가장 많았음.

<표 4-5> 인권교육 진행자

구분		사례 수	지휘관	교관	군법무관	민간인 강사
전체		29	34.5	13.8	.0	51.7
소속	육군	19	31.6	10.5	.0	57.9
	-육군훈련소	8	75.0	.0	.0	25.0
	-사단신교대	11	.0	18.2	.0	81.8
	해군	2	50.0	50.0	.0	.0
	공군	5	40.0	20.0	.0	40.0
	해병대	3	33.3	.0	.0	66.7
계급	영관	1	100	.0	.0	.0
	위관	12	16.7	16.7	.0	66.7
	부사관	14	42.9	14.3	.0	42.9

○ 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인 강사가 가장 많았고, 지휘관, 교관의 순으로 나타남.

<표 4-6> 인권교육 형태

구분		사례 수	강의식	설명+동영상	동영상만
전체		29	44.8	51.7	3.4
소속	육군	19	47.4	52.6	.0
	-육군훈련소	8	50.0	50.0	.0
	-사단신교대	11	45.5	54.5	.0
	해군	2	50.0	50.0	.0
	공군	5	40.0	60.0	.0
	해병대	3	33.3	33.3	33.3
계급	영관	1	.0	100	.0
	위관	12	50.0	50.0	.0
	부사관	14	50.0	50.0	.0

○ 인권교육 형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강의식과 설명+동영상으로 대부분 진행이 됨.

<표 4-7> 인권교육 도움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⑤
전체		27	22.2	59.3	81.5	14.8	3.7	18.5	4.00
소속	육군	18	16.7	72.2	88.9	5.6	5.6	11.2	4.00
	-육군훈련소	7	14.3	85.7	100	.0	.0	0	4.14
	-사단신교대	11	18.2	63.6	81.8	9.1	9.1	18.2	3.94
	해군	2	.0	50.0	50	50.0	.0	50	3.50
	공군	5	60.0	40.0	100	.0	.0	0	4.50
	해병대	2	.0	.0	0	100	.0	100	3.00
계급	영관	1	.0	100	100	.0	.0	0	4.00
	위관	12	16.7	58.3	75	16.7	8.3	25	3.83
	부사관	13	30.8	53.8	84.6	15.4	.0	15.4	4.15

○ 인권교육 도움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 계급에서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함.

<표 4-8> 인권교육 시설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9	20.7	48.3	69	17.2	10.3	3.4	30.9	3.72	
소속	육군	19	21.1	47.4	68.5	21.1	5.3	5.3	31.7	3.74
	-육군훈련소	8	25.0	37.5	62.5	37.5	.0	.0	37.5	3.87
	-사단신교대	11	18.2	54.5	72.7	9.1	9.1	9.1	27.3	3.64
	해군	2	50.0	50.0	100	.0	.0	.0	0	3.50
	공군	5	20.0	80.0	100	.0	.0	.0	0	3.20
	해병대	3	.0	.0	0	33.3	66.7	.0	100	2.33
계급	영관	1	.0	100	100	.0	.0	.0	0	4.00
	위관	12	33.3	41.7	75	16.7	.0	8.3	25	3.92
	부사관	14	14.3	57.1	71.4	7.1	21.4	.0	28.5	3.64

○ 인권교육 시설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병대에서만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 시설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4-9>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9	20.7	51.7	72.4	13.8	6.9	6.9	13.8	3.72	
소속	육군	19	21.1	57.9	79	15.8		5.3	5.3	3.89
	-육군훈련소	8	25.0	62.5	87.5	12.5	.0	.0	0	4.12
	-사단신교대	11	18.2	54.5	72.7	18.2	.0	9.1	9.1	3.73
	해군	2	.0	50.0	50	.0	.0	50.0	50	2.50
	공군	5	40.0	60.0	100	.0	.0	.0	0	4.40
	해병대	3	.0	.0	0	33.3	66.7	.0	66.7	3.67
계급	영관	1	.0	100	100	.0	.0	.0	0	4.00
	위관	12	25.0	50.0	75	8.3	.0	16.7	16.7	3.67
	부사관	14	21.4	50.0	71.4	14.3	14.3	.0	14.3	3.79

○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에서는 내용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으며,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는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4-10> 인권교육 강사의 자질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9	20.7	58.6	79.3	13.8	3.4	3.4	6.8	3.90
소속	육군	19	21.1	57.9	79	15.8		5.3	5.3	3.89
	-육군훈련소	8	25.0	62.5	87.5	12.5	.0	.0	0	4.12
	-사단신교대	11	18.2	54.5	72.7	18.2	.0	9.1	9.1	3.73
	해군	2	.0	100	100	.0	.0	.0	0	4.00
	공군	5	40.0	60.0	100	.0	.0	.0	0	4.40
	해병대	3	.0	33.3	33.3	33.3	33.3	.0	33.3	3.00
계급	영관	1	.0	100	100	.0	.0	.0	0	4.00
	위관	12	25.0	58.3	83.3	8.3	.0	8.3	8.3	3.92
	부사관	14	21.4	57.1	78.5	14.3	7.1	.0	7.1	3.93

○ 인권교육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소속, 계급에서 강사의 자질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4-11> 인권교육 지휘관 관심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29	27.6	51.7	79.3	10.3	3.4	6.9	10.3	3.90	
소속	육군	19	31.6	52.6	84.2	10.5	.0	5.3	5.3	4.05
	-육군훈련소	8	25.0	62.5	87.5	12.5	.0	.0	0	4.12
	-사단신교대	11	36.4	45.5	81.9	9.1	.0	9.1	9.1	4.00
	해군	2	.0	50.0	50	.0	.0	50.0	50	2.50
	공군	5	40.0	60.0	100	.0	.0	.0	0	3.40
	해병대	3	.0	33.3	33.3	33.3	33.3	.0	33.3	3.00
계급	영관	1	.0	100	100	.0	.0	.0	0	4.00
	위관	12	33.3	41.7	75	8.3	.0	16.7	16.7	3.75
	부사관	14	28.6	57.1	85.7	7.1	7.1	.0	7.1	4.07

○ 인권교육 지휘관 관심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에서는 관심도가 낮다고 인식하였으나, 그 외의 소속, 계급에서는 높은 편이라고 인식함.

#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

안녕하십니까?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국방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훈련소 운영 실태와 훈련병 생활 전반, 그리고 최근 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응답자의 신상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므로, 귀하의 경험을 토대로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결과는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귀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시어,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8월

---

귀하의 소속 부대 및 인적 사항에 대해 기입해 주십시오.			
[1-1] 소속	[1-2] 훈련소 보직	[1-3] 계급 (현역인 경우)	[1-3] 신분 (민간인인 경우)
[        ]	[        ]	[        ]	[        ]
1) 육군 2) 해군 3) 공군 4) 해병대	1) 지휘관(자) 2) 교관 3) 조교 4) 감찰/군사경찰 5) 군 의료인력 6) 상담관	1) 대령 2) 중령 3) 소령 4) 대위 5) 중위 6) 소위 7) 준위 8) 원사 9) 상사 10) 중사 11) 하사 12) 병장 13) 상병 14) 일병 15) 이병	1) 군무원 2) 근무원

문

문1. 최근 1개월 동안 훈련병과의 상담은 총 몇 건 정도 진행하셨나요?  
\_\_\_\_\_ 건

문2. 훈련병과의 상담이 신청된 경로를 아래와 같이 구분했을 때, 최근 1개월 동안 각 경로별로 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신청 경로	상담 건수
1) 훈련병이 직접 상담관에게 전화로 신청한 경우	
2) 훈련병이 지휘계통(소대장 등)을 거쳐 신청한 경우	
3) 부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경우	

문3. 훈련병들이 상담을 신청한 경우(직접 전화 또는 지휘계통을 통해) 상담관을 만나기까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1) 신청 당일
- 2) 신청 후 1일 이내
- 3) 신청 후 2일 이내
- 4) 신청 후 3일 이내
- 5) 신청 후 4일 이상

문4. 훈련병들이 상담 과정에서 주로 제기하는 고충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5. 담관의 시각에서 볼 때 현재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
- 2) 대체로 보장되는 편이다
- 3) 별로 보장되지 않는 편이다
- 4)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 5) 잘 모르겠다

**문6. 귀하는 최근 1년간 몇 차례 정도 인권교육을 받았습니까?**

- 1) 받은 적이 없다 (☞문7로 이동)
- 2) 총 1회      3) 총 2회      4) 총 3회      5) 총 4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만 아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6-1. 인권교육은 누가 진행하였습니까?**

- 1) 지휘관
- 2) 교관
- 3) 군 법무관
- 4) 민간인 전문강사

**문6-2. 인권교육은 어떤 형태로 진행하였습니까?**

- 1) 강의식
- 2) 약간의 설명과 함께 동영상 시청
- 3) 설명 없이 동영상만 시청

**문6-3. 귀하께서 받으신 인권교육이 상담관으로서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 2)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문6-4. 인권교육의 여건과 관련하여 아래 항목별로 어떻게 느끼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양호	다소 양호	보통	다소 미흡	매우 미흡
1) 교육 시설(장소)의 적절성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내용(교재, 콘텐츠)의 적합성	①	②	③	④	⑤
3) 강사의 자질(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4)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의 관심도	①	②	③	④	⑤

문7. 훈련소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분석결과

### 1. 훈련병 상담

<표 5-1> 1개월 동안 상담 진행 건수

구분		총 상담건수	전화 신청	지휘계통 신청	부대에서 신청
전체		1,042	8	239	795
소속	육군	674	2	146	526
	-육군훈련소	285	2	80	203
	-사단신교대	389	0	66	323
	해군	130	0	75	55
	공군	66	6	15	45
	해병대	172	0	3	169

○ 1개월 동안 상담 진행 건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1개월 동안 상담 진행 건수는 총 1,042건이며, 그 중에서 부대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휘계통으로 신청, 전화로 신청 순으로 나타남.

<표 5-2> 상담 신청 후 상담관을 만나는데 소요되는 시간

구분	사례 수	신청 당일	신청 후 1일	신청 후 2일	신청 후 3일	신청 후 4일이상	
전체	15	13.3	66.7	6.7	6.7	6.7	
소속	육군	10	10.0	60.0	10.0	10.0	10.0
	-육군훈련소	6	16.7	50.0	.0	16.7	16.7
	-사단신교대	4	.0	75.0	25.0	.0	.0
	해군	2	.0	100.0	.0	.0	.0
	공군	1	.0	100.0	.0	.0	.0
	해병대	2	50.0	50.0	.0	.0	.0

○ 상담 신청 후 상담관을 만나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신청 후 1일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표 5-3> 훈련병 인권 보장 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 ④	잘 모름	평균
전체		15	13.3	73.3	86.6	13.3	.0	13.3	.0	4
소속	육군	9	22.2	55.6	77.8	22.2	.0	22.2	.0	4
	-육군훈련소	5	20.0	60.0	80	20.0	.0	20	.0	4
	-사단신교대	4	25.0	50.0	75	25.0	.0	25	.0	4
	해군	2	.0	100.0	100	.0	.0	.0	.0	4
	공군	2	.0	100.0	100	.0	.0	.0	.0	4
	해병대	2	.0	100.0	100	.0	.0	.0	.0	4

○ 훈련병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훈련병 인권은 보장된다는 인식으로 나타남.

## 2. 인권교육

<표 5-4> 1년간 인권교육 횟수

구분		사례 수	없다	1회	2회
전체		15	60.0	26.7	13.3
소속	육군	9	88.9	.0	11.1
	-육군훈련소	6	100.0	.0	.0
	-사단신교대	3	66.7	.0	33.3
	해군	2	.0	100.0	.0
	공군	2	50.0	50.0	.0
	해병대	2	.0	50.0	50.0

○ 1년간 인권교육 횟수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없다가 가장 많았고, 1회, 2회의 순으로 나타남.

<표 5-5> 인권교육 진행자

구분		사례 수	지휘관	교관	군법무관	민간인 강사
전체		6	16.7	16.7	33.3	33.3
소속	육군	1	100.0	.0	.0	.0
	-육군훈련소	1	100.0	.0	.0	.0
	-사단신교대	0	.0	.0	.0	.0
	해군	2	.0	.0	100.0	.0
	공군	1	.0	.0	.0	100.0
	해병대	2	.0	50.0	.0	50.0

○ 인권교육 진행자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군법무관과 민간인 강사가 가장 많았음.

<표 5-6> 인권교육 형태

구분		사례 수	강의식	약간 설명 동영상	동영상만
전체		6	83.3	.0	16.7
소속	육군	1		.0	100.0
	-육군훈련소	0	.0	.0	.0
	-사단신교대	1	.0	.0	100.0
	해군	2	100.0	.0	.0
	공군	1	100.0	.0	.0
	해병대	2	100.0	.0	.0

○ 인권교육 형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강의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사단훈련소는 동영상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7> 인권교육 도움정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부정	④ 매우 부정	③+④	평균
전체		6	16.7	66.7	83.4	16.7	.0	16.7	4.00
소속	육군	1	.0	.0	0	100.0	.0	100	3.00
	-육군훈련소	0	.0	.0	0	.0	.0	.0	-
	-사단신교대	1	.0	.0	0	100.0	.0	100	3.00
	해군	2	.0	100.0	100	.0	.0	0	4.00
	공군	1	.0	100.0	100	.0	.0	0	4.00
	해병대	2	50.0	50.0	100	.0	.0	0	4.50

○ 인권교육이 도움되는 정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에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함.

<표 5-8> 인권교육 시설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 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 ⑤	평균
전체	6	66.7	33.3	100	.0	.0	.0	.0	4.67
소속	육군	1	100.0	.0	100.0	.0	.0	.0	5.00
	-육군훈련소	0	-	.0	.0	.0	.0	.0	-
	-사단신교대	1	100.0	.0	100.0	.0	.0	.0	5.00
	해군	2	100.0	.0	100.0	.0	.0	.0	5.00
	공군	1	.0	100.0	100.0	.0	.0	.0	4.00
	해병대	2	50.0	50.0	100.0	.0	.0	.0	4.50

○ 인권교육 시설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에서 시설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5-9>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⑤	평균
전체	6	33.3	50.0	83.3	16.7	.0	.0	.0	4.17
소속	육군	1	.0	.0	.0	100.0	.0	.0	3.00
	-육군훈련소	0	.0	.0	.0	.0	.0	.0	-
	-사단신교대	1	.0	.0	.0	100.0	.0	.0	3.00
	해군	2	50.0	50.0	100.0	.0	.0	.0	4.50
	공군	1	.0	100.0	100.0	.0	.0	.0	4.00
	해병대	2	50.0	50.0	100.0	.0	.0	.0	4.50

○ 인권교육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해군, 공군, 해병대는 내용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5-10> 인권교육 강사의 자질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⑤	평균
전체	6	33.3	50.0	83.3	16.7	.0	.0	.0	4.17
소속	육군	1	100.0	.0	100.0	.0	.0	.0	5.00
	-육군훈련소	0	.0	.0	.0	.0	.0	.0	-
	-사단신교대	1	100.0	.0	100.0	.0	.0	.0	5.00
	해군	2	.0	50.0	50.0	50.0	.0	.0	4.50
	공군	1	.0	100.0	100.0	.0	.0	.0	5.00
	해병대	2	50.0	50.0	100.0	.0	.0	.0	4.50

○ 인권교육 강사의 자질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에서 강사의 자질이 적절하다고 인식함.

<표 5-11>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 관심도

구분	사례 수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①+②	③ 보통	④ 부정	⑤ 매우 부정	④+⑤	평균
전체	6	33.3	33.3	66.6	33.3	.0	.0	0	4.00
소속	육군	1	.0	.0	.0	100.0	.0	.0	5.00
	-육군훈련소	0	.0	.0	.0	.0	.0	.0	-
	-사단신교대	1	100.0	.0	100.0	.0	.0	.0	5.00
	해군	2	.0	.0	.0	100.0	.0	.0	3.00
	공군	1	.0	100.0	100.0	.0	.0	.0	4.00
	해병대	2	50.0	50.0	100.	.0	.0	.0	4.50

○ 인권교육에 대한 지휘관 관심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모든 소속에서 지휘관 관심도가 높다고 인식함.

## 부록 2.

# 설문조사(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 내용

### ※ 참고

설문조사에 참여했던 훈련병/훈련소 운영요원들이 직접 서술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 1. 훈련병

문 15-5. 공중전화 이외에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 000 신병훈련소

구분	편지	인터넷 편지	국방일보	소포·택배	공중전화	메시지
	119	21	13	7	2	1
구분	호도 서신	사랑의 전화	중대 마음의 편지	더 캠프 댓글	비디오 영상통화	기타
	1	1	1	1	1	18
기타 의견	#1. 중대 군 전화로 직접 사회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소대장 허가 후 핸드폰을 빌려줌. #2. 해외전화 등에는 간부 핸드폰 사용. #3. 간부 허락 후 기간병이나 소대장 핸드폰. #4. 해외 인원들은 간부 핸드폰. #5. 중대장 일일 뉴스. #6. 특이사항 시 간부 핸드폰. #7. 분대장이나 간부 통해. #8. 교관 조교를 통해. #9. 필요시 간부 핸드폰. #10. 간부님들의 포상 부여에 따른 개인(간부님 것) 핸드폰.					

기타 의견	#11. 사지방(컴퓨터). #12. 뉴스. #13. 핸드폰(2명). #14. 전혀 없다. #15. 훈련병도 인터넷으로 편지 답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 한정된 장소에 사진촬영을 가능하게 하여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어 원하는 사람에게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17. 면회. #18. 쌍방향 소통 가능한 순수 인터넷 편지(게시글) 전용 컴퓨터.
----------	--

□ 00사단 신병교육대

구분	편지	핸드폰	인터넷 편지	그린비 영상통화	TV 뉴스 시청	택배
	46	7	6	4	3	2
구분	국방일보	타 캠프 사이트	간부들 핸드폰	더 캠프	컴퓨터	기타
	1	1	1	1	1	3
기타 의견	#1. 훈련병도 핸드폰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 #2. 어차피 자대 가면 핸드폰 주는데 여기는 왜 안주는지? #3. 지금도 충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굳이?					

□ 00사단 신병교육대

구분	편지	더 캠프 '도란도란'	인터넷 편지	더 캠프 '똥단배'	을지라디오
	28	21	11	5	4
구분	소포· 택배	핸드폰	TV 뉴스 시청	국방일보	기타
	3	3	3	1	15
기타 의견	<p>#1. 편지가 있는데 우표를 못 사 왔다.</p> <p>#2. 일과시간 후 핸드폰.</p> <p>#3. 주말, 공휴일에 개인 폰 1시간씩 부여.</p> <p>#4. 짧더라도 핸드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p> <p>#5. 개인 SNS 또는 문자로 하루에 몇 명에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p>#6.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며 통화시간 5분은 현저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p> <p>#7. 평일 제외 주말, 공휴일 일정시간 핸드폰 사용 가능(자유롭게).</p> <p>#8. 일주일에 몇 번 '더 캠프' 에 올라가는 3줄 정도 글을 적을 수 있다.</p> <p>#9. 점점 훈련소에 핸드폰을 쓸 수 있게 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데 군대는 아직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곳 같다.</p> <p>#10. 핸드폰을 생활관별 1대씩 배치하여 개인 정비시간에 질서있게 자율적으로 사용(전화만).</p> <p>#11. 매일 두줄 편지 제도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인터넷 편지.</p> <p>#12. 간부 핸드폰.</p> <p>#13. 감사 편지로 매일의 근황을 적어 기록하거나 지인에게 보여줄 수 있음. 필요시 간부 핸드폰 사용 가능.</p> <p>#14. 감사의 편지 등 잘 갖추어져 있음.</p> <p>#15. 편지지와 봉투도 무제한 제공되고 있음.</p>				

□ 00사단 신병교육대

구분	편지	핸드폰	인터넷 편지	TV 시청
	29	9	8	1
구분	영상통화 '그린비'	국방일보	더 캠프	기타
	1	1	1	4
기타 의견	#1. 전화 가능 시간에 핸드폰을 줬으면 좋겠다. #2. 영상통화 좀 하고 싶습니다. #3. 편지를 자주 빨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방송이 너무 늦었다. 주말에는 핸드폰 사용. #4. 주 격리기간 핸드폰 사용.			



□ 00사단 신병교육대

구분	편지	핸드폰	인터넷 편지	E-mail
	46	4	8	1
구분	TV 뉴스 시청	문자 시스템	더 캠프	기타
	5	1	3	12
기타 의견	<p>#1. 핸드폰 개인소지.</p> <p>#2. 주말마다 핸드폰 이용이 가능하면 좋겠습니다.</p> <p>#3. 인터넷 편지를 자주 받지만 훈련소 내부에서는 공중전화 이외에 편지를 통한 소통만 가능.</p> <p>#4. 장병 개인 핸드폰.</p> <p>#5. 편지를 보낼 때 우편번호를 작성해야 하는데 한 곳에다가 주소만 아는 사람들을 위한 우편번호 찾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p> <p>#6. 개인 정비시간 핸드폰 사용(1시간이라도).</p> <p>#7. 취침 전 1시간 핸드폰 사용(개인정비와 같이).</p> <p>#8. 훈련생들을 위한 사이버 지식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p> <p>#9. 통화실을 따로 만들어 그 안에 있는 기기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p> <p>#10. 소통은 아니지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편을 보낼 수 있다.</p> <p>#11. 편지가 또는 택배가 자주 오고 편지를 보내는 인원도 있고 훈련이 끝나고 여유가 있다면 뉴스도 시청하게 해줍니다.</p> <p>#12. 화상전화.</p>			

□ 00사단 신병교육대

구분	편지	핸드폰	인터넷 편지	소포 · 택배
	39	4	11	4
구분	E-mail	TV 뉴스 시청	더 캠프	기타
	1	2	2	13
기타 의견	<p>#1. 편지 보내 일방향 소통은 가능합니다.</p> <p>#2. 정비시간 폰 지급.</p> <p>#3. 보안을 철저히 한다면 개인의 핸드폰도 관찰을 것 같습니다.</p> <p>#4. 등기 우표를 붙인 편지가 편했다.</p> <p>#5. 공중전화로 충분합니다.</p> <p>#6. 입소시 보안 처리를 하여 개인의 핸드폰을 일과 후 이용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중전화 이외에는 우편으로 소통하기에 2번 정도 주고받으면 훈련이 끝날 정도로 이외의 방법으로는 안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p> <p>#7. 요새는 개인 전화를 가져와 배출 전 사용하기도 한다.</p> <p>#8. 수료식날 핸드폰 이용.</p> <p>#9. 필요 시 요구에 따라 교관의 핸드폰 사용.</p> <p>#10. 급한 용무 등 필요시 간부(담당 교관) 핸드폰 이용.</p> <p>#11. 포상으로 전화 통화가 주어짐.</p> <p>#12. 수료식 이후 전화기 사용.</p> <p>#13. 포상으로 받는 전화 찬스.</p>			

□ 000 신병훈련소

구분	편지	인터넷 편지	핸드폰	공중전화
	94	19	6	2
구분	신문	TV 시청	더 캠프 '도란도란'	기타
	1	1	3	8
기타 의견	<p>#1. 편지(외부로 전달되는데 약 1주일). 인터넷 편지로 바깥소식 받기.</p> <p>#2. 폰을 조금 시켜주었으면 좋겠다.</p> <p>#3. 시간제 핸드폰 사용.</p> <p>#4. 핸드폰을 몰래 안 내거나 편지로 주고받는다.</p> <p>#5. 훈련병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둔 후 가족, 친구, 애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전송.</p> <p>#6. 텔레비전이 있는데(각 격실에) 외부와 소통을 할 수 없어도 외부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을 사용 안하던데 그러면 존재 이유가 궁금합니다.</p> <p>#7. 공중전화 사용횟수가 없음. 편지도 안 보내줌. 어제는 인편도 안 줌.</p> <p>#8. 가족들과의 영상 편지.</p>			

□ 000 신병훈련소

구분	편지	인터넷 편지	E-mail	공중전화
	101	17	1	3
구분	소포·택배	채팅기	영상 메시지	기타
	8	1	1	13
기타 의견	<p>#1. 핸드폰의 카메라나 특정기능을 제한시켜 군내에 반입하여 주말 또는 공휴일. 평일 개인정비시간에 훈련소 때 부터 사용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p> <p>#2. 인터넷 편지의 허용 갯수 상한을 늘려서 하루에 하나가 아닌 2~3개 정도라면 좋겠습니다.</p> <p>#3. 인터넷 편지 하루 1편 제한이 풀렸으면 좋겠음.</p> <p>#4. 사회 이슈. 뉴스 전달해주면 좋겠다.</p> <p>#5. 편지 작성과 공중전화 사용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서 이외의 소통 수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6. 핸드폰 지급.</p> <p>#7. 영상통화·편지·소포 등 빨리 보급해줬으면 한다.</p> <p>#8. 소통 불가.</p> <p>#9. 급한 용무는 소대장님께 말씀드린다.</p> <p>#10. 신문지.</p> <p>#11. 인터넷 편지(훈련병은 수신만 가능)</p> <p>#12. 인터넷 편지. 개인 편지. 편지. 솔직히 이 짧은 7주 기간에 전화를 사용하는게 이해 안 된다. 학교도 아니고 이런 게 뭔 군대인지 알고 싶다. 실무면 매일 쓰는게 불필요하다.</p> <p>#13. 지휘관(자). 교관이 영외거주자 또는 특이 인원에게 대 해서 전화 통화를 시켜줌.</p>			

□ 000 신병훈련소

구분	편지	인터넷 편지	TV 뉴스 시청	라디오
	63	11	5	1
구분	신문	종교 참석	소대장 핸드폰 조교 핸드폰	기타
	2	1	1	
기타 의견	<p>#1. 소대 훈육관을 통한 밴드.                      #2. 공중전화는 마음대로 이용 못 함.                      #3. 주말 및 공휴일은 뉴스 시청(1~2시간).                      #4. 소대장 핸드폰.                      #5. 편지로 전달 및 언론을 통해 외부상황을 알 수 있음.                      #6. 훈련소에서 이 정도면 충분 - 편지, 인터넷 편지, 가족 안부 전화(주 1회).                      #7.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8. 훈련소 3주차부터 수발 가능한 편지로 소통 가능.                      #9. 훈련병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 하지만 훈육요원들의 인권은 과거보다 못하다고 느껴짐.</p>			

문 33. 군대 1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000 신병훈련소

- #1. 군의관의 전문성 부족. 통증과 부상 발생 원인을 훈련병의 개인 습관으로 전가함.
- #2. 진료실 군의관 굉장히 불친절함. 마치 아픈 게 죄라도 되는 양 계속 눈치를 주었음.
- #3. 좋은 말투로 대해 주지 않고 통명스러운 말투로 느껴짐. 대충 진료해 주는 기분임.
- #4. 대충대충 진료를 봄.
- #5. 민간에서 조치 받았던 내용과 달리 대충대충 진료하면서 엉뚱한 결과만 알려줌.
- #6. 불친절.
- #7. 통명스러운 목소리의 군의관. 증상이 있음에도 아무 조치를 취해주지 않음.
- #8. 대충대충 진료보고 처방도 제대로 안함.
- #9. 모든 의료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몇 의료진들이 말하는 게 거부감이 생김.
- #10. 친절한 진료가 아니고 어투가 조금 강한 어투로 말해서 조금 불편함.
- #11. 불친절함.
- #12. 군의관들이 너무 불친절함.
- #13. 불친절하고 환자의 말을 들을 생각도 없어 보이며, 매우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임. 약은 처방 받았지만 뭔가 꺼림칙함.
- #14. 군의관 불친절.
- #15. 군의관 태도가 까다롭다. 진단 도중 군의관이 하급자를 불러 혼을 내는 모습을 보고 심기가 불편했다. 게다가 보자마자 귀찮은 듯이 대

답하며 반말은 물론 눈이 아파 진료를 갔는데 눈은 보지도 않고 내보냈다.

- #16.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매우 불친절하였음. 사람을 벌레 취급한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구나를 느꼈음. 훈련기간 중 훈련받다가 다친 것인데 군의관 언행상으로는 잘못해서 다친 것 같았음.
- #17. 전화를 통해 의료 진료를 하기에 제대로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군의관의 개인차에 따라 의료질이 달라지는 점이 있어 불안을 느낌.
- #18. 환자 상태를 자세히 보지 않고 빨리빨리 진료한다는 느낌을 받았음.
- #19. 군의관이 스트레스를 훈련병에게 풀고 있다.
- #20. 군의관의 말투. 목소리 등 모든 것이 짜증이 나는 뉘앙스.
- #21. 진료 시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이상한 약을 처방함.
- #22. 간단한 증상만 듣고 처방해 줌. 전우들 중 전화 진료를 받았는데 성의가 없다는 얘기가 많음
- #23. 아무리 1차 의료기관이더라도 검사장비가 아예 없고 약만 줌. 같은 증상으로 재진료를 요청하려면 처방받은 약을 다 먹어야 하는데 10일분씩 주니 너무 오래 걸림.
- #24. 말을 엄청 작게 하고 성질 냄.
- #25. 유선 진료를 했었는데 담당자가 불친절했고 목소리도 작았다. 처방 받는 약의 종류는 병명에 상관없이 동일하며, 하루씩이나 기다려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감. 아플 때 가야 하는 게 병원 아닙니까?.
- #26. 짜증내는 말투로 대충 진료를 보십니다.
- #27. 불친절함.
- #28. 증상에 대한 확실한 진찰이 없으며 환자를 빨리 넘기려 하는 모습이 너무 강하게 보였음. 아픈 병사가 제대로 자신의 통증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일부 진료실의 경우).

- #29. 짜증스러운 듯이 대답하고 매우 불친절하며 진료다운 진료를 받지 못함.
- #30. 군의관 한 명 문제 있다.
- #31. 사용하는 언어표현 부적절. 예를 들어 손에 가시가 박힌다. "어떡 하라고. 그걸 찢래?" 이런 말을 한다. "짜던지 소독하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없어" 등등. 치료 또한 적절치 못했다.
- #32. 000 군의관님께서는 다수의 훈련병에게 신경이 날선 상태로 짜증을 내면서 진료를 대충하셨습니다.
- #33. 불친절한 군의관.
- #34. 매번 같은 말만 하고 한정된 약으로 다른 증상에도 같은 약을 주는 것 같다. 또한 의무관들이 매우 불친절합니다. 훈련병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 #35. 진찰 내용에 대한 언급이 부족함. 예를 들어 군의관께서 진찰소견을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일절 언급이 없거나 처방받는 약에 대한 정보 또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 #36. 그냥 해결책을 하나도 알려주지 않고 치료도 없이 약만 처방한다.
- #37. 의무관님이 매우 불친절하십니다.
- #38. 격리기간에는 병역을 적절히 해서 약을 먹어야 하는데,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39. 군의관 불친절함.
- #40. 물집으로 의무실을 갔었는데 물집 패드가 아닌, 티눈 밴드를 처방받아 사용하지 않았음.
- #41. 아픈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근육통이라 적고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만 처방해줬습니다. 너무 대충하는 것 같습니다.
- #42. 대충 보기만 하는 군의관이 있었다. 약도 별로 효과도 없고 1분 보고 가라고 했음.
- #43. 지구병원을 가자는 의무과장님의 말을 무시하고, 다른 군의관님이 지구병원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무시함.



#44. 군의관에 따라 다름. 외과 진료하시는 분 성의가 없고 대충 해주심.

#45. 환부를 보지도 않고 약을 처방(피부 관련 질환).

####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진찰을 자세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2. 치과 진료였는데 의무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예약을 하고 다른 큰 군 병원을 가야 하는 건데 그럴 거면 왜 의무대를 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오전 훈련 전부 다 빠져서 보충수업을 들어야 했다. 그리고 일주일 되었는데 치과 치료받으러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대기 시간이 너무 길고 효과 없음.

#4. 안과 진료 불가능. 현미경 없음.

####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처방전이 미흡하며 약만 주고 병원에 데려가 주지를 않으며, 한 번에 데려가는 인원수도 극소수라 갈 수가 없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성의 없는 상담.

#2. 상처를 보아도 귀찮은 듯이 넘어감.

#3. 약만 처방해주고 끝내는 경향이 큼.

#4. 하루에 의무대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가끔씩 아파도 못가는 경우가 있다. 여러 명이 다른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약을 받았다.

#5. 다친 부위 소독 없이 약만 처방받았습니다.

- #6. 건성건성 진료를 봐주시고 많이 아프다고 해도 믿지 않음.
- #7. 그냥 대충 봐준다. 슬리퍼 차림으로 대충 다니며 그냥 관심이 없음.
- #8. 의사가 맞는지 의문스럽다.
- #9. 매우 성의 없다.
- #10. 대충함.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약품의 부족. 응급 전문의라서 전문의적 판단이 미흡. 가장 큰 문제는 일반병원 또한 응급실만 가능해서 군대에서 절대 아프면 안 되겠다고 느낌.
- #2. 자세히 들어줬으면 좋겠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많은 사람이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직업 특성상 진료 시간이 짧은 것은 이해하나 증상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음.
- #2. 너무 대충 본다. 머리 아픈 약이랑 피부질환 약이 비슷하게 준 사례를 들었으며. 너무 약이 한정적이다.
- #3. 같은 약만 줍니다.
- #4. 상세한 진료가 안 되었고 적절한 조치가 치러지지 않았다.
- #5. 들어가서 오른쪽에 계시는 군의관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그냥 종이만 보시고 컴퓨터 두드리고 상태도 안 보고 그냥 약하고 바르는 것만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상태 좀 봐달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군의관님이 훈련하면서 안 아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라고 비웃듯이 말했다. 너무 실망스러웠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성급한 진료. 필요한 약의 재고 부족.
- #2. 군의관 불친절.
- #3. 저와 다른 증상으로 방문한 훈련병과 같은 처방을 받고 별다른 검사 없이 약만 처방함.
- #4. 오랜 시간 기다린 것에 비해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설명도 상세히 해주지 않음. 대부분 진통제 처방 후 심해질 시 재진 요청을 하라고 했던 걸로 기억함.
- #5. 의무대에서 약을 먹을수록 피부가 안 좋아졌다. 근데 000가서 약을 바꾸니 좋아지고 있다. 거의 4주가량 의무대에서 치료한 결과 의무대는 정말 안 좋다. 피부가 더더욱 안 좋아진다.
- #6. 무릎과 아킬레스건 통증으로 방문했는데. 아킬레스건은 봐주지도 않고 무릎은 대충 보더니 진통제만 처방 후 무릎 상태 더욱 악화.
- #7. 처음 진료를 받았을 때 환자의 몸 상태를 X-RAY와 같은 사진 촬영 없이 증상만 묻고 약만 처방해줌.
- #8. 제대로 된 검사를 안 함. 병명은 다 다른데 약은(처방전) 다 똑같은 진통제를 줌.
- #9. 확실한 병명과 답을 듣지 못했다.
- #10. 제대로 훈련병에 대해서 잘 파악도 안 하려고 합니다. 의료 치료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11. 잘 해결되지 않았다.

## □ 000 신병훈련소

- #1. 허리가 아파 군의관님이 허리 보호대를 처방해주셨지만. 지급해주는 분이 “이번 기수엔 못 받겠다. 미안해” 라고 하셔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음.

- #2. 000 방안에 담배를 피운 흔적과 담배가 있었습니다.
- #3. 발목 통증으로 갔는데 별도의 치료 없이 진통제 주고 끝.
- #4. 치과 관련 문제 치아교정 부분이 미비하다. 훈련병 신분 때문에 어딜 함부로 가기 힘들다(외출. 청원 휴가).
- #5. 의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또한 의무실에서 00 병원 예약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소대장님과 합의해서 해야 하므로 부담이 됩니다.
- #6. 진료에 대한 치료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약 처방으로만 해결된다.
- #7. 형식적인 진료인 것 같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치료하려는 의지가 안 보임.
- #2. 빨간 약만 바르고 내성발톱은 치료 잘 안 함.
- #3. 비뇨기과 의사가 대충 약만 처방함. 신경과로 가야 하는데.
- #4. 진료 시간 부족. 부적절한 진료.
- #5. 졸속 진료.
- #6. 불친절. 이야기 무시. 아픈 부위를 만지지도 않고 진단.

문 34. 지구병원 등 군대 2차 의료기관의 진료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000 신병훈련소

- #1. 진료를 받기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병원에 한 번 다녀오는 게 귀찮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 #2. 그냥 참으라고 함.
- #3. 진료대기 시간은 엄청 긴데 실질적인 진료나 현 상태 치료방안 등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 상세하게 듣고 싶었는데 너무 결과 위주로 설명해 주십니다.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다양한 질병에 맞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계시지 않아 심혈관질환 전문의 선생님이 아닌 비전문의 선생님께 진료를 받았다.
- #2. 정밀신검 당시 계속 '집에 가고 싶니?' 라고만 물어봤다.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다른 과들은 좋았으나 정형외과는 매우 불친절했으며 귀찮은 듯이 넘어간 적이 있음.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국군수도병원에 방문 후 6시간 이상 가만히 대기. 대기후 받은 진단은 MRI 촬영 후 이야기해보자는 것이었지만. 이미 시간은 부대 복귀시간이 임박해 촬영도 못 함. 예약은

1달 뒤에나 가능. 결국 아무 진단도, 처방도, 적절한 약도 받지 못한 채 부대에 복귀함. 현재까지도 무릎 상태는 더 안 좋아짐. 이럴 꺼면 민간 의료기관에라도 보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음.

#2. 외부의 종합병원 규모임에도 군의관님의 진료는 동네의원보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는 진료가 아닌 즉 보는 진료를 받았습니다.

#### □ 000 신병훈련소

#1. 진료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당직 의사님이 갑자기 쉬는 날과 전후 휴무가 많아 병원을 가도 진료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

#### □ 000 신병훈련소

#1. 명확하지 않은 진단과 시간.

문 44. 마지막으로, 훈련소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신병훈련소

- #1. 핸드폰을 주말마다 주어야 합니다. 중대가 간부 주말에 전화하러니 시간이 빠듯해 가족들에게 소식은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 #2. 처음엔 매우 힘든 곳이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편하고 군인화 과정에서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잘 통제되고 있어서 동기들과 재밌게 지낼 수 있었다.
- #3. 훈련병들이 흡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 더 좋을 것 같다.
- #4. 훈련병들의 흡연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훈련병들의 흡연도 보장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 분대장들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훈련병을 대하는 것. 분대장들이 한 쪽 훈련병들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훈련병을 판단하는 것. 급식 배식하는 인원들이 배식 끝나고 그 인원들만 남은 음식을 더 먹을 수 있는 것(배식 끝난 이후 다른 병들에게 나눠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하루 배식조인데 분대장들은 배식 때 기존훈련병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가져가는 것. 한 훈련병의 실수를 모든 분대장들에게 알린 것.
- #6. TV, 인터넷, 전화 모두 제한되는 것이 불편하고, 5주 동안 바깥소식은 아무것도 모른 채 뉴스도 모르고, 신곡도 모르고 꼭 격리뿐만 아니라 격리 해제되고 훈련받고, 바깥으로 나가더라도 '00훈련소' 라는 곳에 감금되어 있다.
- #7. 두루마리 휴지 보급이 부족해 저뿐만 아니라 생활관 동기들 다수가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휴지 보급은 2배로 늘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8. 일과시간 후 노래를 듣고 싶다.
- #9. 흡연 제한을 풀어주세요.
- #10. 코로나 19 때문에 격리되어 야외 훈련을 많이 받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야외에서 온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배워야 하는데 격리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 #11. 훈련병이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설문한 핸드폰이나 담배가 있다면 그것은 군대가 아니라 캠프라고 생각한다. 훈련병 시절에는 일반장병들과는 달리 기본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2. 하루 한 번 뿐인 샤워를 찬물로 한 경우가 많아서 힘들었다.
- #13. 군인으로써 생각한다면 딱히 힘들게 없다고 생각 한다. 다수의 인원이 처음보고 5~6주 정도 생활하기 때문에 조금의 스트레스는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권보다는 국방의 의무 자체가 남성 여성 할 거 없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4. 입대 전에 생각했던 것 보다 아주 편하고 기본적 권리를 모두 보장 받으며 생활하였다.
- #15. 시설에 관련하여 개선사항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국방비로 수리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기본적인 보일러, 화장실. 이런 것은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 #16. 식당이 너무 덥다.
- #17. 분대장님과 소대장님들 도움으로 군대에 빨리 적응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18. 코로나로 인해 다소 축소된 훈련이 많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훈련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9. 이동하는 데에 시간이 꽤나 걸린다는 것이 힘들었으며 전화 이용 시간을 조금 더 늘리거나 대수를 늘려서 회전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 #20. 주마다 1~2회 전화를 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나 지인하고 연락할



때 시간이 조금 짧아 안부를 묻기가 조금 힘들고, 전화 횟수를 조금만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21. 아무래도 사회와의 단절이 저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생활관 내에서는 바깥소식을 쉽게 알 수 없어 답답하였는데, 국방일보 외에도 일반 신문을 읽게 도와주신다면 훈련병들이 사회 소식을 접하기에 한층 수월할 것 같습니다.
- #22. 솔직한 심정을 전하자면 정말 어려운 점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분대장(조교)님들은 기본적인 훈련병들의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 주셨고, 시스템적으로도 충분히 인권존중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기간병들의 보수·장려·인력 총원 등이 필요합니다. 분대장님들의 피로도도 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격리기간 훈련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분대장님들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휴식여건이 보장된 격리전문 기간병 인력 총원(보조인력). 교육 준비기간의 확충 등.
- #23. 격리기간 중 방호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대장님들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분대장님들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4. 제가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사항은 코로나로 인한 체력단련을 못했던 점이었기에 훈련소 자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지켜내도록 훈련병과 훈련소 측이 조화를 이루는 것 이외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25. 더운 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노력하시는 모든 소대장·중대장·분대장들에게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의 환경 및 복지도 개선되어야 하나 그 수많은 인원을 통제 및 관리하는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방역이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26. 훈련소 생활을 관리 통제하는 분대장님들 (조교)들의 지시사항이

통일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훈련병의 입장에서 특정 분대장님의 지시를 이행했을 뿐인데 다른 조교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도 중단되거나 혼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대장님들, 지휘관님들의 명확한 의견 교환을 통한 획일화된 지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과시간이라는 이유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의아합니다. 일과가 없어 대기하는 일과시간이 많습니다. 뭐라도 하라고 지시하시고 화내시는데(공부하라, 책 읽어라 등) 교육훈련이 종료된 이후에 훈련에 대한 공부는 왜 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 #27. 훈련병들이 청소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급품이 부족함. 예를 들어 세면대 청소 용액이나 타일용 용품들이 없어서 단순히 물비누로만 청소를 해야 함. 노후된 화장실과 세면장을 청결하게 유지할 용품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됨. 전화사용이나 뉴스 시청이나 신문 받기가 매우 어려움. 보장된 전화 시간도 겨우 받을 수 있고, 포상이나 추가로 약속된 시간은 받을 수 없었음. 5주 동안 뉴스 시청은 못했으며 국방일보도 구하기 어려웠음. 지휘자와 분대장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 같아 혼란이 많았다.
- #28. 식단 부실. 위생 열악. 사회와의 소통 부재. 백신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군인들을 뒤로 해서 미루는 정책
- #29. 가족 친구들과 잘 연락할 수 없다는 점. 흡연은 안 되는데 간접흡연은 해야 하는 상황. PX·공중전화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는 점. 샤워 시설이 더러움.
- #30. 훈련병이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31. 개인 정비시간 보장이 너무 없어 훈련병들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 #32. 위생상태가 아쉽습니다. 화장실 및 공용공간을 병들끼리 관리하다 보니 어느 수준이상 깔끔하게 관리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청소

등을 외주를 줘도 좋겠단 생각입니다. 이외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훈련병 생활이었습니다.

- #33. 사회와의 단절. 공중전화를 일주일에 평일 한번 5분. 주말 한번 10분이용 가능한데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다. 200여 명이 넘는 인원에 전화기 8대 밖에 없어서 자주 전화시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전화기가 (공중전화) 사용자 없이 놓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걸로 보아 구차한 핑계가 아닐까.
- #34. 힘들었던 적은 없다. 개선사항은 PX 이용횟수를 조금 늘리면 좋겠다. 시간이 안 된다면 구매량에 어느 정도 자유를 줘도 될 것 같다.
- #35. 사회와의 소통.
- #36. 밥 메뉴가 너무 똑같은 것이 중복되어 힘들었다. 인터넷 편지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다. 휴지·물 등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 #37. 사회와의 단절. 연락이 자유롭지 못한 점. 우울증과 사투를 벌임. 전화라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
- #38. 격리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입대전 미리 자기 계발을 할 만한 수단(예를 들어 개인 책 등)을 챙기면 좋다 등의 예를 들어 주었다면 격리기간(2주, 14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
- #39.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격리 및 인권 보호 문제로 분대장님들과 간부님들이 더 바빠지고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훈련병의 여건뿐만 아니라 같이 복무를 하고 계신 분대장님들의 대우와 여건도 더 나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훈련을 받는 훈련병들보다 분대장님들이 더 땀을 많이 흘리시고 고생하시는 것 같다.
- #40. 분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41. 격리기간 중 생활관 안에서 배식 받는 게 힘들었지만(생활관 내부 냄새)코로나 19 격리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42. 분리수거 교육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장실 쪽

복도 벽에 그리고 화장실 뚱간 안에도 낙서가 많습니다. 볼펜으로 써서 지우기가 힘들고. 복도 벽은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서 낙서를 벗기다보면 페인트까지 같이 벗겨집니다. 당연히 낙서를 하면 안 되지만. 초반에 미리 낙서를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해주시면 낙서를 하는 인원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중앙 세면장 청소 인원들이 복도청소 조금 더 치밀하게 뒤처리를 하게 교육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3. 샤워를 하루에 한 번 했던 것이 힘들었다.
- #44. 몸이 아픈데 의무실 진료만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힘듭니다. 아프면 의무실에서는 쉬자고만 하는데 훈련병은 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몸이 아파 걱정이 되서 전문적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 #45. 핸드폰·흡연 제한은 크게 힘들진 않았으나, 식당 밥이 정말 맛없다.
- #46. 코로나 때문에 샤워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해하지만 원하지 않는 시간 때에 굳이 샤워를 시키는 것이 조금 불쾌했다.
- #47.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한 번에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침시간을 더욱 많이 보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48.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49. 코호트 격리기간 동안 할 것이 너무 없다.
- #50. TV시청은 불가능하고 전화 시간도 부족하여 외부와 완전히 차단됐던 것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음.
- #51. 첫 2주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화장실 사용과 샤워가 많이 제한된 점이 힘들었습니다. 특히 샤워는 안에 있는 세면장에서 실시하였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샤워기도 별로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고 찬물이 나올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 #52. 1명의 분대장이 이유 없이 혼을 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대장님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습니다. 분대장 중 그러한 인원들은 정신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53. 갑작스러운 사회와의 단절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가 시간과 자유가 부족하고, 가족·지인·연인과 연락할 시간도 적어(총 6주 훈련 동안 통화 시간 약 70분. 휴식 시간에도 눕지 못하고 바깥을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못함) 정신적, 신체적 피로가 극심하다. 신체가 망가지는 것 같고 우리를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계로 만들어 놓는 것만 같다. 자살 생각도 하루 두세 번씩 떠올렸던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훈련병들의 갑작스러운 일상 변화 같다. 개개인이 보냈던 일상이 망가지게 되면서 그들은 이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자유가 부족하다.
- #54. 여러 지시사항이 하달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조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교육이 약식으로 진행되어 예전과는 다른 교육을 실시하지만 바뀔 때마다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이 개선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55.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생활이라 생각합니다.
- #56. 중대장·소대장·분대장님들의 개인 정비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해주시는 000 감사합니다.
- #57. 화장실의 위생상태와 온수 개선. 취사장 장화 소독 및 냄새 개선. 연병장 땅고르기. 2주 격리기간 외부소식 연결 여건 마련. 변경된 일정 미리 통보. 생활관 사이 방음. 훈련용 전투복 상태 개선. 전우조를 유지하되. 자율성 개선. 잠정 소포 크기 개선(가방에 안 넣어짐. 5호 사이즈는 돼야 할 듯)
- #58. 훈련소 내 구막사들을 사용하는 훈련병들은 막사 자체가 오래되어 많이 힘이 듭니다. 구막사에 있는 시설들이 오래되거나 많이 사용하여 파손된다면 고치기 많이 어렵거나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못한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막사를 사용할 때 나중에 사용하는 훈련병들이 많은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 #59. 평소에 사용하던 핸드폰. 컴퓨터 사용을 하지 못해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버틸 수 있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회에서 흡연을 하다와서 훈련소에서 흡연을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힘들었음. 훈련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개선이 필요했으면 좋겠다.
- #60. 외부와 소통문제(핸드폰 사용 여건), 병영식당의 맛이 없음. 화장실 상태가 매우 안 좋음. 취침 시간이 매우 부족.
- #61. 하루빨리 열악한 시설과 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장 난 세면기와 소변기. 수압이 낮아 자주 막히는 변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자체가 새로 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62. 평일 21~5시 취침. 주말 22~7시 취침시간 때문에 수면 패턴이 바뀌어서 힘든 점이 있었다. 담당구역 청소에 관한 명확한 일정표(차레표) 등이 있으면 좋겠다(특정분대가 자주한다고 느낄 수 있음). 분리수거 쓰레기함 확대. 쓰레기통이 너무 작음. 16명인 생활관은 2일에 한번 꼴로 불침번을 서는데 비해 8명인 생활관은 매일 불침번을 서는 점이 부당하다고 느낌.
- #63. 전우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 #64. 크게 불편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방송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설 문제 때문에 방송통제가 잘 안 됨(고장). 그리고 계획되었던 일이 취소되었으면 말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융통성이 부족함.
- #65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딱히 없는데 분대장님들과 소대장님들이 고생하십니다. 부식이라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훈련소 기간 동안 기록하는 일이 많았는데 볼펜이 부족한 거 있습니다.
- #66. 모든 훈련병들이 말하듯 하루 1시간은 핸드폰 사용이 가능하게 제일 좋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과 모르는 장소에서 1~2주 버티는 게 힘든 일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핸드폰이 생기면 사건 사고. 군기교육. 군 내부 발설 등 여러 사고와 불만이 생기지만.

이 점을 핸드폰 어플로 통제하고 조금은 자유롭게 전화·유튜브·카톡 등 연락이나 여가시간이 생기면 군 사기도 늘고 대부분 신병이 느낄 불안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67.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부대시설을 청소(세면장, 화장실, 분리수거) 하는 것이 하는 분대만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냥 순서를 정해서 시켜지면 상관없는 일이다. 분대장님들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것으로 이 청소들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다. 그러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8. 다음 일정이 있다고 세면·세족 시간을 안 주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69. 취사장 개선 필요.

#70. 배식조때 설거지가 가장 형편없습니다. 훈련의 경우 많은 배려가 있었지만 배식의 경우 한 가지 일을 계속 시켜 효율을 늘리기 위해 빵이를 치지 않기 때문에 복불복입니다. 이 점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71. 훈련소 생활 중 불편한 것은 전화 이용이 너무 적고 솔직히 일주일에 2번도 못했던 적도 있어서 핸드폰을 조금만 이라도 할 수 있다면 다들 열심히 할 것 같다. 분대 전체에게 물어봐도 그랬으면 더 열심히 한다고 했다.

#72. 여름인데 에어컨 온도 잘 때 27도인 것은 너무 더워요. 온도 낮춰주세요. 국방신문을 매일 주면 좋겠습니다.

#73. 청소도구 부족. 생활관 여유공간.

#74. 군대 의료기관 방문 없이 사용 가능한 상비약 배치.

#75. 사회에 있을 때 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생각보다 생활 시설물들이 아주 청결하고 사회에 있을 때 과장된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군간부들이 직접 코로나 19 예방에 힘쓰는 걸 보고 정말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76. 핸드폰 사용.

- #77. 코로나로 인한 야외 활동 제한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못하더라도 분대 또는 소대 단위로 조깅과 같은 야외활동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 #78. 분대장 훈련병으로서 분대원에게 분대장 명령 전달이 힘들었음. 훈련병인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이도 있지만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도 있었기 때문에 분대원들과 마찰이 생기고 갈등을 겪는 경우도 생겼음.
- #79. 2주 격리기간 동안 밖의 소식을 들을 수 없어 가장 불편했기에 국방일보 외 다른 신문 희망.
- #80. 청소도구 부재(많이 배치되지 않음). 세면장 없는 화장실 청결 상태. 일과에 대한 계획내용을 확실하게 받고 싶다.
- #81. TV시청 같은 입영 장정들의 스트레스 해소 요소 한두 가지 정도는 허용 희망. 쉴 때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잠을 자거나 동기들과 수다 떠는 것이 전부임. 자치근무자들에 대한 보상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음. 하는 일에 비해 받는 보상이 부적당함.
- #82. 격리기간 중 신체검사를 다시 받는 1일이 있었는데 다른 소대. 분대원들과의 마찰이 가장 많았음. 격리에 좀 더 신중했음 하는 바임.
- #83. 2주 격리가간 동안 외부와 연락 못한 점이 불편. 개인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길 희망함.
- #84. 격리기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나 다른 활동이 있었으면 함. 목욕탕 이용 시 밖에 있는 컨테이너 사용 기간이 있었는데 불편했음. 건물 내에 시설(세면장. 화장실 등)이 낙후되었음.
- #85. 분대장 인원이 적음.
- #86. 컴퓨터를 통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과 페이스 톡으로 얼굴 보면서 소통하고 싶음.
- #87. 한 소대에 55명. 하루 24명(3×8)이므로 2일에 한번 꼴로 새벽 2~3시경 일어나 불침번 섰던 게 가장 힘들었음. 불침번 서는 훈련병 수가 임무에 비해 많다고 느끼므로 개선 희망.



- #88. 격리기간이 지루했음. 화장실이 매우 낡았음.
- #89. 사회적 단절이 가장 큰 문제임. 소통의 마지노선인 핸드폰마저 이용제한 된다면 훈련병들의 사회적 고립감은 상상 이상임. 핸드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훈련병들의 사기 진작과 친구들의 걱정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 #90. 전화 횟수가 너무 적고. 소포 받는 시기가 너무 늦음.
- #91. 전화 시간을 길게.
- #92. 전파상황이나 건이 있으면 말을 맞추어 전달했으면 함. 전파 받은 상황이 자주 바뀌어 헷갈리고 어려웠던 경험이 있음. 커리큘럼 형식으로 스케줄을 상세하게 만들어 둔다면 편리할 것임.
- #93, 외부 소식을 접할 기회가 턱없이 부족함 - 국방일보는 한 두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군 내 소식이며 TV 시청도 불가함. 개인 정비시간이 침해당함. - 일과시간 이후에 지시가 많아 개인정비 휴식이 불가능. 문화생활의 단절, 도서 양과 다양성이 낮음 - 군 관련 도서가 대체로 많음. 침구류 상태가 좋지 못하며 2층 침상 단점이 너무 큼. 신발장 위치 및 수량이 적합하지 않음.
- #94. 전화 시간이 너무 짧고 횟수도 적음. 핸드폰 사용 제한으로 스트레스 증가. 의료진의 전문성이 의심됨.
- #95. 밥이 맛이 없고 메뉴가 일정함. 너무 대충 먹이는 것 같다. 사회와 너무 단절되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았음.
- #96. 외부 소식 단절, 사회의 소식을 잘 전달받지 못함. 지원 필요
- #97. 소통 수단이 편지뿐이나 직접 우표를 구매해야 함. 비싼 우표는 빨리 가지만 380원 낮은 가격 편지는 너무 오래 걸림. 늘 편지 써야하고 사회와 너무 차단된 삶을 살고 있어 불편한 점이 많음. 힘들었던 건 연락문제가 제일 심했던 것 같음. 자유롭게 연락 못하고 늘 갇혀 사는 기분이 들고 날 억제하고 억압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사회와 너무 단절된 거 같아 많이 힘들었음.
- #98. 분대장들의 일처리가 미흡한 것들이 계속해서 보임(훈련병 인원수

세서 확인에 시간이 많이 지체 됨. 상황 일정이 계속해서 바뀌며 분대장들마다 공지 내용이 달라 훈련병 혼란 유발). 식당의 파리 처리를 2주 전부터 요청하였으나 계속 보임.

- #99. 훈련병 간 불화 시 해결방안이 마련 안 되어 있는 것 같음. 팀별 평가는 훈련병 간의 불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여겨짐. 분대장 훈련병에게 병영생활 행동강령 위배 사례 조치 임무 부여는 부적합 - 훈련병들이 솔직하게 고백 못함. 하루 일과 일정을 모르고 있는게 불편함. 같은 내용에 대해 분대장 별로 지시사항이 다르거나 기준이 모호한 점이 간혹 있음. 전화 시간과 일과 후 개인정비 시간. 주말 개인 정비시간 부족.
- #100. 행정보급관. 소대장. 분대장이 지시사항이 바뀜. 누구는 하라 하고 누구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하라 하는 등 지시가 달라 불편함.
- #101. 문자 전송 허용. 생활관 내 에어컨 오작동으로 더위 발생. 보고를 했음에도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실내 샤워 진행 시 화장실 공간이 협소해서 샤워 진행이 어려움. 음식이 입에 안 맞고 반찬 양이 너무 한정적임.
- #102. 분대장. 소대장이 서로 훈련병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달라서 같은 일 반복 또는 원상 복구 경험 있음.
- #103. 핸드폰 사용 건의(걸어다가 전화할 때만 사용토록). 운동 건의.
- #104. 사회와의 격리된 느낌이 싫다.
- #105. 청소 등 작업 시 인원에 비해 장비 수가 부족함.
- #106. 샤워시간이 자유롭지 않음. 원할 때 못함. 아침 배식 몇명이 성의 없음. 전화를 너무 못해서 답답.
- #107. 일과 외 시간 핸드폰 허용 건의.
- #108. TV 통해 사회 뉴스를 볼 수 있기를 희망. 분대장이 코로나. 사회 소식을 알려 주지만 자세한 정보는 제한됨.
- #109. 상급자 지시가 소대 또는 분대마다 제각각인 상황이 입소부터 배출까지 지속되었음 - 혼란스럽고 스트레스 상황.

- #110. 문자 메시지 이용 희망.
- #111. 외부의 소식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점.
- #112. 인터넷 편지를 쓸 수 있는 시스템 희망. 5주간 똑같은 메뉴가 나오면서 음식 이름만 다르게 표기해두어 밥 많이 먹기가 버거웠음. 메뉴가 좀 더 다채로웠으면 좋겠음.
- #113. 핸드폰 사용 불가능이 가장 불편 - 군내 전화는 사용 제한 및 시간 불충분. 편지도 외부로 보낼 때 너무 느려 개선 필요.
- #114. 일반 장병 수준의 기본권 보장 요구.
- #115. 외부와의 유일한 소통 수단인 전화 빈도가 너무 적음.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현 상황을 전달할 수 없음. 지휘관들의 명령이 반복되어 훈련병이 업무를 2~3번 반복하게 됨(정비, 청소, 배식 등). 따라서 중대나 소대 단위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나 전파방식 개선 필요.
- #116. 분대장 훈련병으로써 분대원들이 하기 싫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어서 힘들었음. 내가 생활관 정리까지 일일이 할 때가 있었음.
- #117. 스트레스는 사기진작에도 부정적이므로 단 3~4시간만이라도 핸드폰 사용 허용 건의함. 교육태도 불량한 훈련병은 추가 근무보다는 핸드폰 이용 제한과 같은 처벌이 태도 교정에 효과적.
- #118. 의무실 군의관 태도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마음의 편지에 적지는 못했다. 어차피 그대로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의관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
- #119. 흡연권 보장.
- #120.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 필요.
- #121. 편지 관련 PX에서 우표를 팔거나 우표를 구매할 수단이 필요함. 인편 작성 전 “편지외 소통 수단이 적으므로 주소를 보내주시면 훈련병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와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22. 에어컨 바로 아래 2층 침대 이용 중. 에어컨 바람막이를 설치하

면 에어컨의 기능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아 에어컨 혹은 침대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 #123. 인터넷 편지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음.
- #124. 오래된 시설 개선 시급. 냉난방이 균등하지 못함(에어컨의 위치에 따라 냉방풍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급식은 외부 업체를 이용해야 대체적으로 품질 유지가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 #125. 개인이 편지를 쓰면 470원 우표기준 4~7일 후에 배송되는 것 같음. 정신적 문제가 있는 훈련병에게 상담이나 심리검사, 병역적합도 검사를 해줬으면 함.
- #126. 외부소식을 인터넷 편지나 국방일보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접함. TV를 이용해 뉴스나 기타 소식을 접할 수 있으면 좋겠음.
- #127. 외부와 너무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점. 통제가 힘들겠지만 전화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꼈음.
- #128. 많이 나아지긴 했으나 좀 더 인권 보장된 상태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조금 더 나은 기분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 #129. 의무대 이용 시 환자가 아닌 듯 한 느낌이 강하게 듦. 환자가 아니라 죄인 취급은 받는 듯 한 느낌임. 대기 시간에 비해 진료 시간은 현저히 적음.
- #130. 샤워 시 수압이 심각함. 분대 나누었을 때는 적절하지만 각개전투 훈련 시 행군이 끝나면 한꺼번에 이용하므로 수압이 약함.
- #131. 의무실 진료 정말 성의 없음.
- #132. 방송 통한 여러 지시(청소방법, 정리정돈 방법 등)가 여러 번 바뀌는 것을 경험함. 혼란스럽고 통일된 지시가 되도록 같은 커리큘럼의 교육방식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교육내용을 분대장끼리 공유하면 좋겠다.
- #133. 한국어 잘 못하는 동기 위해 통역 해줌. 이로 인해 훈련받은 내용 연습 시간 부족.
- #134. 친절한 군의관 원함 - 의무실 진료를 받을 때 인권 존중을 못하

는 기분이 들었음.

- #135. 생활관 핸드폰 도입 희망. 고장이나 파손된 것은 바로 처리해 주기를 - 훈련병 생활 여건 보장. 피복류 사이즈를 정확히 몰라 교체 사례가 있으므로 개선 필요.
- #136.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 훈련소 내에서 제대로 된 훈련 못 받았음. 기초적 부분도 모르는 훈련병이 많다. 훈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함.
- #137. 편지-편지지. 봉투. 우표도 함께 보급 원함. 조교. 교관. 분대장 인권은 훈련병 인권 이슈로 존중 안 되는 것 같음.
- #138. 화장실에 손 씻을 곳이 없어 옆 세면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 불편. 생활관에 구급약 필요(격리기간 중 의무실 이용 불가).
- #139. 저녁 시간에 라디오 등 방송을 통해 외부 소식을 알고 싶다.
- #140. 흡연 허용 건의 - 사기 진작용.
- #141. 입대 전 가족 중 사고를 당해 걱정이었는데 소대장의 관심과 격려로 잘 지냈음.
- #142. 격리가 힘들었음.
- #143. 격리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제식이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행동들을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인지시켜 주셨으면 함.
- #144. 식당 에어컨 개선.
- #145. 훈련소 내에서는 외부와 소식이 단절되어 정확한 코로나 정보를 얻을 수 없었음.
- #146. 더 캠프 어플이 더 빨리 열려 인터넷 편지라도 더 일찍 받을 수 있으면 좋겠음.
- #147. 사회 소식을 접하기가 제한됨 - 생활관에 TV 없고 국방일보도 날짜가 많이 지난 것으로 공급됨. 공중전화 시간이 10분 이상 주어지지 않고 주 1~2회 뿐이라 힘들었음. 코로나로 인해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데 생활관에서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이 제한됨.
- #148.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음(짧은 통화

시간과 부족한 통화 횟수).

- #149. 격리로 답답해서 제일 힘들었음. 전화를 더 자주 시켜줬음 좋겠음. - 힘이 날 것 같음.
- #150. 훈련병 인권을 너무 챙겨주다 보니 근무 하시는 분들 인권 보장이 되지 않는 것 같음. 너무 인권보장이 과도하게 잘되어 있음. 군기 확립이 필요함.
- #151. 의무 개선이 필요함.
- #152. 생활관 내부에 분리수거통 건의. 코로나로 인해 축소된 훈련을 진행 했는데 3-4주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함.
- #153. 급식실에 있는 식기 세척용 고무장갑과 장화 개선 필요(너무 노후되어 제 기능을 못함. 양말과 옷에 냄새가 배임. 물이 새고 장화소독이 안됨. 위생적으로 괜찮은지 의문이 듭니다.)
- #154. 격리기간이나 훈련 전 신병교육 가이드북으로 훈련에 대한 예습을 시키는데 책이라서 한계가 있어 아쉬웠다.
- #155. 군대 들어오기 전 준비물 목록. 2주 동안 화장품 사용 및 샴푸 사용을 못했습니다.
- #156. 주말 여가시간에 핸드폰 사용 허용. 흡연 허용 건의.
- #157. 당일 일정을 아침에 알려주기 바람. 사전공지 없는 기습 일정 소화가 힘들.
- #158. 금연 패치 등 건의 - 흡연을 참기가 힘들.
- #159. 대장 또는 간부들 하는 말이 다 다르고 변동이 많음.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하달 시에는 통일된 체계가 필요할 듯. 군 시설 내에 편지발신 등 시설을 자체 운영하여 시간을 단축하길 건의함(현재 군 송부부터 도착까지 2주 소요됨).
- #160. 급식 개선 필요.
- #161. 생활관이 좁다 - 2층 침대와 좁은 생활관 생활이 가장 힘들었다. 특히. 생활관 안에서 훈련을 받을 경우 서로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음.

#162. 주말 핸드폰 허용 건의.

#163. 훈련소 초반 사회와 단절되는 게 너무 힘들었음. 입영 일주일 정도는 하루에 한 시간 정도 핸드폰 사용을 허가해도 좋을 듯함.

##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일과 시간은 철저히 지켜 교육이 진행되고, 그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혼남. 그런데 개인 정비시간에는 물건 나르기·청소(정해진 시간 이외에) 등 필요하면 준비시간도 없이 바로 불러 일을 시켜서 쉴 수 있는 시간이 잘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음. 교육 시간처럼 개인정비시간도 완전히 보장해주어야 더 열심히 교육에 참여할 의지가 생길 것 같음.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점을 이야기하면 이전에 그렸다는 이유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함. 이전에 어땠는지와 관계없이 부적절한 점들이 개선되어야 군 문화가 더 발전할 것이라 생각함.

#2. 밥이 먹으라고 주는 건지 모를 때가 있다. 양은 적고 맛은 없고, 여기가 단식원인가 싶다. 군인을 육성하는 곳인지 다이어트를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축하드립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국방비를 무기에만 사용하면 군인은 왜 필요할까요?.

#3. 00사단 신병교육대 시설 좋고 편합니다.

#4. 식사의 질. 식대를 늘려 괜찮은 양과 질의 음식을 주어야 한다.

#5. 육군 00사단 신병교육대는 신막사가 생긴 이후로부터 시설적인 문제가 없으며 교관·조교 또한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여기서 이의 제기하는 것은 사회에서 너무 편하게 산 것이다.

#6. 현재 인권이 많이 좋아져 오히려 훈련병의 본분이 잊혀지는 것 같기에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7. 각개전투 열외자 인원들에게 “차등조”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차등조 인원들에게는 각개 기간 4일 동안 과도하게 힘든 배식조 일

을 시킴.

- #8. 화장실·세탁실 등은 훈련병들이 아무리 꼼꼼히 해도 곰팡이·물 때 등은 청소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 업체를 불러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 #9. 가장 힘든 것은 소통이 힘들고, 단체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해 크게 말할 수 있는 곳에 이야기를 들어 주는 사람들이 많지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다.
- #10. 00사단 신병교육대는 훈련병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 #11. 사격·수류탄 던지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사격소리와 수류탄 소리에 적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했다(사격 숙달). 격리기간에도 운동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윗몸 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그때부터 했더라면 불합격은 면할 수 있었을 것 같다.
- #12. 집에 가고 싶다.
- #13. 너무 좋았다. 하지만 아직도 만연한 군 비리 문제가 심각하다. 지인들 중 아는 군비리만 2건이고 모르는 건 그 이상일 것이다.
- #14. 훈련병들에게만 행동 제한이나 통제가 더 심해지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반병사와 다를 것이 없는 군인인데 인권보장이 똑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5. 지도·교육에 따르지 않는 소수의 인원들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 #16. 주말 개인 정비시간에 대청소 등으로 시간을 할애하는 것과 같이 훈련병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저희 옷이나 침구류 등 저희가 사용할 것을 가져오거나 하는 일들은 저희가 하는 게 맞지만 하루에 청소를 3번 시키고 각개 때 청소를 못할 것이라며 대청소를 했는데 각개 때 청소를 했습니다. 부당하게 시간을 뺏지 않았으면 합니다.
- #17. 성인지교육 같은 쓸데없는 교육에 돈 쓰지 말고 국방비를 좀 의미



- 있게 썼으면 좋겠다. 시설, 교육면에서는 00사단 신병교육대가 다른 훈련소들에 비해 좋은 것 같다.
- #18. 훈련소에서 충분히 훈련병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며 부당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니 이에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 #19. 방탄모 때문에 탈모가 생기는 것 같다. 핸드폰을 그냥 쥐도 될 것 같다. 일과시간 후에 사용하고 취침 전 점호 때 반납하면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 #20. 훈련소 좋습니다.
- #21. 격리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 때문에 격리기간에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22. 이상한 사람과 같은 생활관을 쓰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핸드폰을 맡겨놨다가 차대 갈 때 받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 #23. 사회와 단절되어 있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지만 적응한다면 큰 문제는 아님. 방탄 헬멧이 구형이라 두피를 찢러 매우 힘들었음. 전화 부스를 늘리고 전화 관련해서 입소 초기에 세부적인 교육 필요.
- #24. 사회와 너무 단절되어 있음. 핸드폰이 필요함. 취침 시간이 부족함. 불침번 너무 힘들. 저녁 점호할 때 허리 아픔.
- #25. 사회와의 단절감. 그래도 00사단 신병교육대는 훈련병들의 인권을 최대한 많이 보장해 주어 큰 어려움 없이 훈련소 생활이 가능한 것 같다. 전국적으로 훈련소 내 훈련병들의 핸드폰 사용이 가능해지면 훈련병들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통제가 어려울 것 같고 신경 쓸 것이 많아 훈련병 핸드폰 제도는 반대입니다. 또한 수면시간이 8시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 #26. 입영 주차나 초반 주차 때는 심리적으로 꽤 불안정하기 때문에 심리상담관이 있으면 좋겠다. 방탄모 교체.
- #27. 훈련소 생활은 다소 만족스러웠습니다. 다만 이발에 대한 사항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8. 폭염기간 훈련 중 잠깐의 휴식 시간을 제외해서는 장시간 방탄모

- 착용을 하고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훈련 과정인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실제로 너무 힘들었다는 훈련병들을 봤습니다.
- #29. 핸드폰을 왜 못쓰게 하는지 모르겠다.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못해서 많이 답답했다.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는 방탄헬멧이 너무 낡고 냄새가 너무 심해서 훈련 받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웠다.
- #30. ‘핸드폰 사용 불가’ 가 좀 힘들었다.
- #31. 각개전투.
- #32. 불침번을 돌아가면서 서는 시간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 #33. 힘든 거 있나? 힘들다하면 그건 엄살인거 같습니다.
- #33. 여가 생활의 심심함.
- #34. 개선될 것이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 #35. 다른 것들은 전부 만족하였으나 2주 격리를 할 때 잘 나가지도 못하고 안에서만 생활하니 2주간은 핸드폰을 사용하여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격리기간에만).
- #36. 보급 받은 마스크가 질이 떨어졌음. 두 종류의 마스크를 지급 받았는데 하나는 마스크 끈이 너무 타이트해서 귀 통증을 호소하는 훈련병이 매우 많았다. 택배를 통해 귀 보호대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매우 불편했음. 나머지 하나 역시 코 지지대가 금방 이탈하여 철사가 얼굴을 찌러 매우 불편했음. 귀 보호대 보급이 재정적인 이유로 어렵다면 각 훈련소마다 반입 가능물품과 제한 물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37. 교번과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있어 충분히 관등성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병을 부를 때 “친구야” 라고 부르며 잘못을 가르칠 때 또한 몇몇 조교들이 그렇게 한다. 000 조교.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훈련 강도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풀어 주는 것도 아니다. 식단표에는 부식이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막상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다.
- #2. 일방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인편이 있는데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이 쓴 편지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소 18일 차인데 아직까지도 마음대로 편지도 못 보내고 전화도 못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제 손으로 소식을 알리고 싶습니다. 전화 시간도 조금만 더 길게 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3. 도란도란이라는게 있는데 쓰고 싶은 사람만 쓰면 되지, 왜 부대 전체가 써 올려야 되는지 쓸 사람도 없는데 안 쓰고 싶은 사람은 좀 안 쓰고 좋은 말만 쓰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세면실을 늘려서 세면 시간을 조금 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평균 30분 정도 썼는데 15분 안에 하라고 하니 세면(샤워)을 해도 몸이 간지럽습다.
- #4. 훈련소에서 외부와의 연락책을 좀 더 늘려 주었으면 좋겠다.
- #5. 외부와의 소통이 어려운 점. 적응. 전자기기 제한 등.
- #6. 흡연 제한과 산책. 체력단련 외 운동을 더 하고 싶고 PX 빨리 이용하고 싶다.
- #7.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준비하면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 좀 넘게 대기한다. 나가기 10분 전쯤 대기시켰으면 좋겠다. 핸드폰 못 쓰는 것, 전화사용 시간 별로 없음. 입영 2주차 주말부터 사용 가능.
- #8. 격리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 #9. 코로나로 인해 화장실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점. 하루 종일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는 점인데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바깥과 완전 단절된다는 것. 격리 때나 주말 때쯤 하루 1시간 정도라도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PX를 3

주 넘어서 이용 가능합니다.

- #10. 조교들이 세면세족이라는 시간을 까먹어 못 씻은 적이 많다.
- #11. 화장실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여 심한 변비에 걸렸다.
- #12. 훈련소라는 특성상 금연인데 조교들의 담배 냄새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가 올 것 같음.
- #13. 코로나 격리중 편지들 못 보낸다는 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훈련소 기간 중 밖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공중전화와 편지 뿐인데 공중전화는 철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전염될 수 있는 건 이해가 가지만, 편지까지 통제받는건 이해가 잘 안갑니다.
- #14. 격리기간 3주차 주말까지 전화를 못 하는 것. 편지를 자주 보내게 해주지 않는 것. 격리기간 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것.
- #15. 흡연이랑 핸드폰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랑 단절되는 것과 흡연을 못 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 #16. 훈련소 생활이 입대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훈련병들도 저녁에 한 번이라도 흡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7. 외부와 소통, 몸은 힘들어도 되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 #18. 화장실 15분씩 주면 좋겠다(격리기간에). 비데도 설치해주면 훈련소 3달도 버틸 수 있다.
- #19. 훈련소는 전우조 활동으로 인해 화장실 이용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해 앓아 있고 싶습니다.
- #20. 훈련병이니 훈련기간에는 핸드폰·담배 못하는 것은 관찮지만 코로나 19 격리 중에는 저녁에라도 폰이나 흡연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 #21. 흡연은 가능했으면 합니다.
- #22. 격리 때문에 화장실을 맘대로 가지 못한 것.

- #23.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24. 격리 중 충분한 화장실 사용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대변의 경우, 계속 딱딱한 생활관 침상에 앉아 변비로 시간이 더 필요하며, 시간적 압박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와 용변을 보기 어려우므로 생활관이 많고 훈련병이 많기 때문이라면 다른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해야 한다. 흡연은 군기·군인정신과는 전혀 상관없으며, 장교·일반장병들과 차별점을 둔다는 것은 그들이 군인정신이 없고 부족하다 라는 뜻으로 다가오며 통일성을 강조한 군대는 훈련병도 사람이기에 흡연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일부 훈련소(신병교육대는 흡연을 허용하기에 완전히 불가한 것도 아니며 흡연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통제이다). 세금을 적절히 필요한 곳에 써서 방탄모 등 개인위생을 더럽히고 침해하는 것들을 새것으로 교체해야 함. 식단의 영양 불규칙. 양을 조절해야 한다.
- #25. TV시청 제한과 담배. 또한 일반 장병들 중 배식을 할 때 반찬을 툭툭 던져 국이나 시리얼 등에 들어가서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 #26. 조교들이 시간 약속 좀 지켜야 할 것 같다. 점심식사를 3시간 대기한 것.
- #27. 외부의 상황 소식 등을 접할 수 없어 우울증이 생김. TV는 있으나 마나, 교육용으로 쓰이고 뉴스를 자주 틀어주지 않음. 가정·지인들과의 통화는 거의 불가능. 시간도 짧은 편임. 밥은 많이 주나, 오직 ‘밥’ 만 많이 줌. 반찬은 질이 너무 떨어지고, 밸런스가 맞지 않음. 훈련병들은 세탁기조차 이용하지 못하고, 샤워할 때 간간히 해야 함.
- #28. 외부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정 시간에만 핸드폰 사용. 21세기 기술 발전이 매우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즘 사회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군(예: 침상, 식당, 훈련병 PX). 외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편지 보내기 가능 일수 확대. 식당 외부 업체와 협약해 맛과 적절한 식단 조절 가

능케 해야 함. 요즘 사회 트렌드는 단체주의가 아닌 개인주의 이기 때문에 단체보다는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춰지는 훈련 시스템 필요.

- #29. 흡연. 담배가 너무 피고 싶습니다.
- #30. 대변을 볼 때 눈치를 보게 되어 잘 안 나온다. 세면. 샤워실. 시설 등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그 전에 훈련병이 썼던 물품을 주곤 하는데 위생상 좋지 않아 보인다.
- #31. 군대에서 시간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다. 오후 취침을 덜 자게 되거나 식사가 늦어지거나 하면서 훈련병들 간에 군대에 대한 평이 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다. 단지 군대 와서 일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변동이 된다는 변명보다는 시간을 잘 지키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 #32. 다른 건 모두 괜찮다. 다만. 설명을 차근차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 #33. 힘들고 어려운 점은 전혀 없고 훈련소 생활을 건강하게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 #34. 체력측정이 생각보다 앞에 있어 체력 올리기가 힘들다.
- #35. 부식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급식의 양이 질적으로 매우 떨어진다. 훈련소라도 기본적인(흡연. 핸드폰 등)권리를 보장해 주었으면 한다.
- #36. 빨래. 격리기간동안 밥.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 #37. 핸드폰 사용 허가. PX 주말마다 이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 #38. 흡연.
- #39. 식당 위생. 침상 위생.
- #40. 수통 같은 거는 얼마하지도 않는데 그냥 새 거 하나 줬으면 좋겠고 방탄헬멧 같은 거도 냄새가 너무 역하고 베게, 모포 같은 것도 최소한 빨아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쓸데없는 시간 때우기가 너무 많고, 최저 시급에 턱없는 돈 받고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을 위해서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게 정말 아깝습니다.

- #41. 흡연자인데 훈련기간에는 훈련의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흡연을 금지한 것(훈련병). 훈련병의 기강을 위해 흡연 제한의 불가피함을 인정하나 통제 하에 흡연을 조금씩 허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42. 식당에 파리가 너무 많아서 밥을 먹기 불편해서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세면·세족 시간을 일정하게 줬으면 좋겠다. 개인 시간 자는 곳을 조금 더 넓히면 좋겠다.
- #43. 화장실 똥 마려운데 변비일 경우 4~5분 안에 어떻게 싸니까. 너무 힘듭니다.
- #44. 딱딱한 바닥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 #45. 격리기간이 길어서 좀 힘들었고. 첫째주나 둘째주에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집에 연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가져와서 저녁에 받고 자기 전에 내면 좋겠지. 그게 안 된다면 개인정비 시간에 전화라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사회와의 연락이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46. 침상이 너무 딱딱해서 허리가 아프다(엉덩이 살이 적어서 더 아픔. 아픈 강도: 눈물이 가끔 고임). 조교 중 마스크 안 쓰는 인원이 종종 보임.
- #47. 훈련소마다 흡연 제한이 다른데 흡연을 왜 제한하는지 모르겠다. 훈련병으로써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핸드폰 사용도 마찬가지로 배식을 받을 때도 대부분 불만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이다. 기분 좋게 배식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흡연을 제한하면 훈련병이 아닌 다른 계급들도 제한해야 생각한다. 조교 중 몇몇 분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코로나 같이 걸릴까 복도에서 마주치면 두렵다.
- #48. 조교들이 잘못해놓고 훈련병들한테 뒤집어 씹습니다. 무책임한 몇몇 조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고 다니는 조교도 태도

가 정말 개선되어야 합니다.

#49.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50. 급식표에 있는 음식이 가끔씩 누락됩니다.

#51.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은 코로나로 인한 격리기간이고. 훈련병들도 담배가 가능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2. 전화 할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타 부대보다도 더 횟수가 적은 것은 늘어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면 더 설치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3. 정해진 시간 때에 화장실 혹은 세면실 이용 빼고는 전우조와 함께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서 그 부분이 불편합니다.

#54. 저는 00사단 신병교육대 00부대에 입대한 훈련병입니다. 훈련병들은 모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군 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히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00사단 신병교육대 000분대장님이 모든 훈련병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기에 큰 소리를 지르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같습니다. 즉 계급의 관계를 드러나는 행위 같습니다. 또한 훈련을 열심히 하는데 총기가 바닥에 닿았다는 이유로도 압박감을 주시는 행위는 안하셨으면 합니다. 서로가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군대에 계신 선배님들께서도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55. 훈련병으로써 일부 통제라는 것은 맞으나 급식실에 파리 등 각종 청결을 위한 방지가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이나 세척을 하는 과정에서 벌레가 날아다닌다면 얼마나 버티기가 힘들겠습니까? 또한 통화 시간이나 PX이용 등 통제가 많아 약간의 강제적인 외부와 연락단절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통화 이용시간을 5분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 사람당 한 명에게만 전화를 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훈련소에 비해 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PX 또한 1인 2과자 1음료는 절대적으로 부적합한 제도이자 관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급식에 열악한 PX이용이나 이것은 힘내서 군인이 되어야 하는 과정에 정말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되는 바입니다. 개선해주십시오.

#56. 비합리적인 방식의 교육. 반발심을 부추기는 듯함. 되려 애국심과 충성심 등 숭고한 사명감이랑 멀어지는 듯함. 폐쇄적인 구조의 한계가 명확함. 시대에 변화에 걸쭉(적응 못). 특수적인 구조인 건 아는데도 이 정도일 필요 없음. 간부 몇 명의 부족함(군인이 아닌 그냥 직업). 보고배울 게 없음. 지시적인 문제도 많음. 핸드폰 등 연락 방도가 없음. 연락(전화)에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함(하루에 인당 15분). 확실한 개인시간 부여, 그래도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놓고 먹을 수 없으니 교육시스템을 바꿔야함(군대방식 개편). 개혁이 필요한 집단임.

#57. 급식실을 새로 만드는 중이지만 현재 위생 상태가 매우 심각하며 이를 방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병원 진료를 신청해도 소수 인원만 갈 수 있어 일주일 넘게 기다리며, 가는 횟수도 극히 적다. 교관들이 편의를 봐줘 어느 정도는 버틸만 하지만, 이것도 한계는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PX, 전화, 화장실 등)사항이 너무 많아 인권이 너무 존중되고 있지 않다. 군율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군인이기 전에 국민입니다(세금을 내는 국민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수통은 최소 10년을 지났고 의류는 훈련소 때 사용하는 일시적 의류). 때와 냄새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58. 흡연을 훈련 시간이 아닌 개인 정리 시간이나 주말에는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흡연자를 상대로 강제로 40일 동안 금연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약간의 개인 핸드폰 사용 허가 정도는 해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회와 단절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방안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불편한 새로운

환경에서의 잠자리는 너무나 힘들고 잠을 자기 어려웠습니다. 안 그래도 불면증이 심했던 저는 불침번도 있고 해서 입소 생활 초반에 거의 잠을 자지 못해서 교관님께 혼이 났습니다. 정말 억울했고 불편했습니다. 불면증 치료를 약으로 치료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원하는 시간에 씻지 못하는 것과 전투복이나 침구류의 빨래 시간. 여건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힘들었다. 그로 인해 두드러기 등 피부병이 심각했다.
- #2. 훈련병들에게 일과를 설명해주지 않아서 언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대기만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
- #3.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 바깥 사회의 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것.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 : 바깥 사회의 소식을 어느 정도라도 알기 위해서 7일 중 주말 하루라도 제한된 시간이라도 훈련병에게 핸드폰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 수면시간이 공지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점. 배식량이 너무너무 적습니다. 생활관 개인 활동반경이 너무 적다.
- #5. 전투복이 긴 훈련시간으로 하루에도 여러 번 땀에 젖는데 몇 주가 지나도록 빨래를 할 수 없어 찜찜하며 1회 실시한 빨래도 물빨래만 하고 하루도 채 되지 않는 건조시간으로 다음 날 젖은 채로 입으니 불편했고, 에어컨과 선풍기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아 너무 불편했다. 건조대가 부실하고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
- #6. 훈련소 내에 배치되어 있는 여러 물품과 훈련복들의 상태가 한시 빨리 세탁되어 위생 여건이 개선되어야 함. 조교들의 불필요한 언어 폭력 및 불량한 태도 개선 시급. 불편한 침상과 불편한 자세 강요 근절 시급.

- #7. 훈련소 생활 중 늦은 편지 발송. 쾌쾌한 생활관 냄새. 한 번도 닦이지 않은 선풍기와 에어컨. 부실한 건조대. 불편한 침상 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그리고 하루빨리 군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편안한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취침 시간에 조교들의 크나큰 잡담 소리와 말도 안 되는 트집, 자신의 기분에 따라 고향 등도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 #8. 택배와 편지(소포)지급이 원활하지 않음. 에어컨의 청결 상태가 최악.
- #9. 건조기 사용이 제한이 되는 것. 에어컨 필터는 닦여있지만 내부가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점. 공중전화 몇몇 개가 고장 나 있음. 의무반 자체가 불친절 함. 00병원에서 몇몇 치료관들은 좋았으나 정형외과에서 치료 자체를 대충하여 상처를 방치함. 매우 불친절함(중요).
- #10. 핸드폰 사용금지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편지가 너무 늦게 출발한 거 같습니다. 훈련복 세탁. 에어컨 청소. 선풍기 청소. 모포 냄새. 하루 한 번인 빨래 시간 때문에 날씨에 따라 마르는게 달라서 어렵다. 밤에 너무 소음이 심해서 잠을 못 자겠다.
- #11. 편지가 너무 늦게 간다. 훈련복 세탁이 잘 안 되어 있다.
- #12. 훈련복을 세탁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입소 후, 훈련복을 세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매일 더러워진 어제 입었던 훈련복을 입는 것은 매우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 냉난방장치(에어컨, 히터)의 위생이 매우 불량하다.→ 필터 및 내부청소가 필요함. 침구류(모포, 포단)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하다. → 주기적 세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13. 격리 조치가 되어 코로나 잠복기인 2주까지 지났을 때의 힘들었던 점은 훈련병(전투원)에게 동기 부여가 될 만한 점이 없었다는 것이다. 간부님들이나 조교님들 또한 무척 힘들겠지만 처음 와서 적응과 격리를 동시에 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를 응원해주는 문구들이나 글이 담겨져 있는 인편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아쉬웠다. 분명 이유가 있었겠지만 인편을 격리기간에도 받았더라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인들의 걱정도 덜었을 것 같다. 또한 격리가 풀린 이 시점에 부대 내에서 지인에게 작성한 편지가 거의 2주 동안 발송되지 않아서 속상했다. 전화 시간으로는 짧아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적을 내용이 담긴 편지가 수료식이 얼마 안 남아서야 출발했다는 것이 아쉬웠고 개선되었으면 한다.

- #14. 외부(사회)와의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너무 늦게 보내는 게 불편했다.
- #15. 훈련복이 땀에 젖어 있어도 세탁시간을 따로 주지 않아 너무 힘들었다. 요청을 해도 손빨래만 가능했으며, 시간 여건도 많이 주지 않았다. 내내 훈련복은 입고 있으며, 아직도 땀 냄새가 나며 팔과 다리 두드러기가 올라왔다. 뿐만 아니라 에어컨. 선풍기 같은 것 청소가 되어있지 않아 자발적으로 해야겠으며, 선풍기는 다른 것으로 고정되어 있어 청소 할 수 없다. 에어컨 역시 청소해도 쿵쿵한 냄새가 났으며, 안쪽에 곰팡이가 나있다. 빨래 건조대는 녹슬어 냄새가 났다. PX도 단 두 번 갈 수 있었으며, 그마저도 생필품에 한정되어 살 수 있었다. 마스크가 더러워져 더 이상 재기능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도 꺼야 했으며 그로 인해 얼굴에 두드러기가 났다.
- #16. 교육내용이 대부분 말로 전달되어서 까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내용을 정리한 학습 종이 자료가 있으면 훈련을 더욱 쉽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수체조 순서 등). 생활관 내에 청소도구가 부족해 청소할 때 비효율적인 상황이 많았습니다. 청소도구가 더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훈련복. 모포. 포단을 1달간 0번~1번 빨았습니다. 좀 더 위생 상태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 #17. 훈련복의 청결 상태 및 세탁.
- #18. 취침시간에 조교분들의 대화 소리 및 음식 냄새가 너무 심해서

취침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몇 몇 조교분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 안하고 다니십니다. 코스크, 텍스크 등 코로나 대비 매우 취약해서 위생 걱정이 매우 고민됩니다.

#19. 물품을 보관할 자리가 너무 적으며, 훈련복·방탄복 등 보급 받은 중고물품들 대부분이 악취가 심하고 더러웠습니다. 또한 에어컨이나 세탁기·세면대·선풍기가 청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복은 여벌이 한 벌뿐이라 거의 매일 빨아야했습니다. 하루 1회 마스크 지급을 하지만 훈련으로 인해 더러워진 마스크 교체 여건은 보장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 사회와 인터넷과 격리된 것이 많이 힘들었다. 또 자유롭게 편히 쉬지 못하게 해서 더욱 힘들게 했다. 모포, 포단 세탁 필요합니다. 또 전투복 빨래하고 싶습니다. 훈련기간 중 모포·포단은 세탁한 적 없고, 전투복도 딱 한 번 했습니다. 에어컨·공기청정기, 관리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풍기는 작동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 간 간격이 좁습니다. 잘 이해 못하고 배우는 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억박지르고 소리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사용이 훈련소에서 사용 가능하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교님도 마스크를 훈련생에게만 착용하라고 하지 말고 조교님도 쓰시면 좋겠습니다.

#21. 일과 후 개인 정비시간을 잘 보장해주면 좋겠다. 또한 밥양이 적은 경우가 가끔 있다.

#22. 반찬이 부족하다.

#23. 머리 좀 때리지 마십쇼.

#24. 이발병 배치. 빨래건조기 사용. 흡연구역이 생활관에서 조금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25. 흡연과 샤워할 때 시간이 부족하다.

#26. 전우조는 2주 동안만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 #27. 힘들게 훈련하고 밥을 먹는데 밥과 반찬의 양이 너무 적어 배가고파 힘들었습니다.
- #28. 훈련소 입대 후 1주차 동안 적응기를 가져야 하는데, 적응해야 하는 1주차에 군기를 세게 잡아서 적응하기 힘들었다.
- #29. 배식이 너무 적다.
- #30. 세면시설 확대. 공중전화 확대. 화장실 증설. 침대로 교체. 개인 정비시간 보장. 급식량 확대. 급식시설 증설. PX이용 시간 보장. 세탁시설 확대. 생활관 외 건조시설 건설. 교관의 재량이 상·벌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조교의 일은 조교가 하도록 규칙 혹은 조례 제정(단순노동 등).
- #31. PX사용 보장. 개인 정비시간 확실하게 보장.
- #32. 하나도 없다. 더 강하게 하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어느 상황에 무엇을 하고 말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 #33. 일과시간 후 핸드폰 불출. PX 이용(최소한의 시간 보장). PX에서 물품들(식품. 개인 위생용품) 포함해서 생활관에서 왜 못 먹는지(특히 과자류). 식당에서 구매한 식품을 15분 안에 다 먹고 생활관에 복귀하는 게 개선되어야 한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큰 식품들은 바로 취식하게 하나 그 이외의 식품들은 생활관에서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34. 당연히 군인으로서 훈련을 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 외에 시키는 일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밥 제일 중요한 밥을 너무 적게 주고 먹은 거 같지도 않고 차별이 심합니다. 먹는 부분에서 병사·간부님들은 넉넉히 주고 또 부식도 있는데 훈련병이라는 이유로 식사량 적고, 부식 없고, 아무리 계급사회라지만 먹는 부분은 정말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 #35. 전우조를 통한 화장실 이용이 조금 불편했다. 침상으로 인해 무릎. 허리. 복숭아뼈 등 무리가 많이 가서 생활에 있어 상당히 불편했다.

- #36. PX에서 과자를 사면 식당에 가서 15분 안에 먹으라는 것이 힘들다. 생활관에 가져가면 식중독이나 과자나 음료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으나 15분 안에 다 먹는 것은 힘들다. 먹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거나 주말에 토·일 중 소대마다 각각 시간을 정하여 갈 수 있으면 좋겠다.
- #37. PX 이용 횟수 및 PX에서 구매한 식품 구매 즉시 섭취해야 하는 것이 개선되었으면 좋겠음. 격리조치 해제 이후 침상형이라 취침 공간이 좁아 불편했음. 일과 후 핸드폰 사용 허용.
- #38. 조교들의 무서운 눈빛. 호통. 반찬 양이 너무 적습니다. 전우조로 화장실에 가다보니 부담스럽습니다(예: 오래 이용하기 눈치 보임. 가자고 요청하기가 눈치 보임).
- #39. 세면등. 호스. 빨래 건조대 등 망가진 물건들을 버리고 새로운 물건 배치. 다칠 우려가 있음.
- #40. 편지함에 편지를 넣어냈을 때 기준으로 도착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개인 정비시간 보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상비약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다.
- #41. 신발장이 있는데 많이 고장 나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 #42. 빨래 건조대의 부족. 벌레들의 사체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화장실. 세면실의 냄새. TV 각도로 잘 보이지 않음. 목이 아픔.
- #43. 외부와의 단절.
- #44. 반찬 좀 많이 주세요. 맨밥만 먹어요. 반찬이 적어서. 반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교님들 너무 친절하십니다. 반찬 좀 제발 제발 많이 주세요.
- #45. 화장실이나 세면실을 갈 때 전우조로 맞춰 다녀야 한다는 것이 가장 불편했다.
- #46. 일과시간과 개인 정비시간의 구분이 불분명하다. 일과시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 너무 많다. 대기 시간에는 침상 위에 앉는 자세를 취하는데 훈련병의 허리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개인 정비시간이 너무 적다. 흡연 시간이 너무 적다. 몇몇 조교들은 지시를 빙자한 부적절한 고향과 훈육을 시킨다. 그 조교들은 자신의 말에 훈련병들이 거역하지 않기를 원한다. 가끔씩 그 지시들은 너무 어이없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 #47. 조교님들이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닌데도 괜히 썰 보이려고 때리려는 듯이 얼굴을 맞대고 위아래로 쳐다보면서 눈을 내리게 하고 자신들이 틀리고 잘못해도 욕은 우리가 먹고 우리가 혼난다. 우리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만 혼났으면 좋겠다.
- #48. 격리기간 중 아무런 활동도 없이 생활관에서 몇 시간씩 대기만 하는 날이 가끔 있어서 힘들었다. 격리 중에는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필기시험 등 격리중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하여 격리기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다.
- #49. 조그마한 것도 트집 잡아 군기 잡음(조교).
- #50. 조교들이 부당한 이유로 언성을 높이거나 지적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야’ 라고 부르거나 교변을 지속적으로 부르며 지적하는 것도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1. 일부 조교들의 훈련병들을 대하는 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52. 흡연도 샤워나 식사처럼 당연하게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 #51. 조교님들 이해는 가지만 조교로서의 행동이 아닌, 우리를 정말 인간취급 안하고 벌레 취급하고 때려보고 특히 000조교. 000조교 저희도 사람입니다. 잘못된 건 혼내야 하는 게 맞고 하지만 너무 꼬투리 잡아 뭐라 한다고 느꼈습니다. 000조교님 욕좀 하지 마십쇼. 이게 도대체 무슨 인권보장입니까? 자살 생각하고 있습니다.
- #52. 흡연 보장.
- #53. 격리만 좀 불편했다. 개인 정비시간도 많이 안 줘서 자유가 없었다. 대기시간이 매우 길었다.
- #54. 훈련소는 정말 힘든 곳이다. 다 참고 견딜 수 있다. 앞으로의 훈



련병들 파이팅이다.

- #55. 흡연. 하루에 한 번을 무조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흡연 가지고 훈련병들을 협박하지 말고(예: 똑바로 안 하면 흡연 없다).
- #56. 얼차려도 적당히 줘. 조교들 일 처리 능력 봐.
- #57. 조교들 역량.
- #58. 훈련소 생활 중 코로나로 인한 격리시간 동안 TV(CBT) 시청 및 훈련을 하는데 있어서 격리를 위한 커튼으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많았다. 격리기간 동안 무작정 대기만 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훈련으로 인해 땀이 나서 마스크가 젖고, 냄새가 나는데 하루 1개만 보급 받음으로써 피부 트러블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다.
- #59. 000조교님. 저희들 너무 조교님 기분대로 행동하시지 말아 주십시오. 항상 저희들을 보시고 짜증부터 내시고 저희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잘할 순 없습니다. 화 많이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60. 너무 잘해줘서 좋다.
- #61. 개인 여유 공간이랑 관물대 크기가 커지면 더 좋겠다.
- #62. 공간이 너무 작음. 1인 공간이 관물대 가로길이 정도인데 성인 남자 1명이 쓰기에는 좁다고 생각한다.
- #63. 1년반 간 타지에서 힘든 일 할 생각과 사치와 분리된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훈련병도 일과 후 핸드폰 사용에 이런 고통을 덜어 주셨으면 합니다.
- #64. 격리기간 움직이기 힘들어 다리가 아프다.
- #65.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화장실 갈 때 전우조와 가서 부담스러움 때문에 변비가 심하게 왔다.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세면. 빨래 문제.

- #2. 훈련소뿐 아니라 남자만 군대오는 걸 고쳐야 됩니다.
- #3. 첫 주차의 외로움이 힘든 것 같습니다.
- #4. 사회와 연락 할 수 있는 수단을 늘렸으면 좋겠고. PX 이용 횟수를 늘렸으면 합니다.
- #5. 외부와 연락할 기회가 너무 적다. 전화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6.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것.
- #7. 사회와의 연락. 개인 정비시간엔 전화가 가능할 때인데 그러지 않음.
- #8. 외부와의 소통이 거의 되지 않음. 핸드폰 미사용 및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 #9. 샤워. 빨래 관련 시간과 시설 부족.
- #10. 전화를 주 1회 10분밖에 못하는 것과 사회의 소식을 알 방법이 없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 #11. 손빨래가 힘이 듭니다.
- #12. 외부와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힘듭니다.
- #13. 전화나 외부와의 연락을 빠르게 하고 싶습니다. 편지도 쓰는데 소통이 어렵고 우편번호를 몰라 반송이 되었습니다. 일과 후 핸드폰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14. 인권침해.
- #15. 전화이용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 #16. 샤워시간 부족.
- #17. 손빨래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 #18. 샤워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 #19. 같은 장비이지만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도구나 시설에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 #20. 자대배치 기준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어 고민이다.
- #21. 사회와의 연락 수단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
- #22. 훈육 분대장님의 훈계가 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자주 있었

다. 따로 지목하여 단체 동기들이 보고 있는데 심하게 훈계하시면 심적으로 힘들었다.

#23. 배식→평등하지 못한 배분. 화장실·빨래 시간→시간이 너무 짧아서 위생에 문제가 생김.

#24. 병의 부당대우 실태가 빨리 사라져야 합니다. 부족한 시설과 오래된 환경이 훈련병들의 주된 스트레스의 원인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당함을 요구하는 조교·교관들의 태도가 병의 훈련소 기간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조교의 부당대우와 언어폭력은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심지어 한 조교에게 마음에 편지를 쓰지 말라고 얼차려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병들이 코로나19 시국에서 열악한 위생 환경속에 생활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소독하지 않은 식기류와 식판을 버젓이 사용하고 있고, 이는 곧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일으킬 것입니다. 하루빨리 이러한 모순들이 개선되어 훈련병들의 건강한 병영생활에 기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5.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로부터 나오는 큰 벽이 있다 생각이 든다. 부조리에도 군대니까 그런가? 라는 의문이 나오게 된다. 계급사회라 하더라도 장교가 간부에게 쉽게 반말하지 않는 것처럼 교관들도 같은 병인 훈련병에게 반말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말로부터 나오는 폭언이 많다고 본다.

#26. 밥이 부족하다.

#27.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하고 보장해줘야 할 몇몇 일들을 군대라는 변명으로 해주지 않는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8. 연대책임.

#29. 샤워시간을 늘려주십시오. 핸드폰 사용(1시간 매일). 세탁기 사용.

#31. 나 때는 이랬다 그래도 충분히 버티고 가능했다 같은 남이 보면 그냥 군대 내부에 부조리인데 그것을 우리 탓하지 마십시오.

#32. 침상형 생활관. 최대 수용인원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①

의자. 침대 등을 사용하는 침대형 생활관과 달리 침상형 생활관에서는 바닥에 앉아 생활하게 되는데 허리. 무릎이 매우 아프다. ② 시설의 세면시설 등이 허용하는 수용인원 보다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것 같다. 저번 기수까지는 매트리스의 수가 모자라고 침상이 좁아 1인 1 매트리스 지급이 어려웠다고 한다.

- #33. 침상에 오래 앉아 있는 가입소 기간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 #34. 당위성이나 합리성을 납득하는 과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하고, 이와 같은 원칙을 제 입으로 복창하게 하는 것. 상급자 간 지시가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혼란. 단체생활 간에 필연적으로 지게 되는 연대책임 +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
- #35 현역은 현역끼리 상근은 상근끼리 나누어서 훈련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의 입장에서 볼 때 상근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군대에서 지내야 되는 현역들이 느끼기에 현역이 된 것이 후회가 되고 그러합니다. 밥 먹는 시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시간에 쫓기다 보니 맛도 잘 모르겠습니다.
- #36. 징병제이면서도 군대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는 타 국가와 비교해보고 우리 군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봅니다.
- #37.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지 않고 새로운 것을 익히는 재미가 큼니다.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과 만나지 못하는 것인데 이는 개인이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38. 병원. 진료시설 개편 매우 시급.
- #39. 대체로 좋았다.
- #40. 매트리스 등 침구류의 위생이 불량하여 피부질환이 발생함. 개인 청결 유지가 어려워 발생하는 습진 등의 문제도 있음. 위생 청결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41. PX에서 담배를 살 때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 #42. 화장실 이용시간.

#43. PX 이용이 많이 아쉽고 흡연통제 및 담배를 1갑 이하로 구매할 수 밖에 없어 불편.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생활관별 작업루틴(물 나르기 등) 불규칙적인 것 같다.
- #2. 담배 냄새가 심해 제한을 하거나 탈취제를 비치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3. 냉방이 되지 않아서 땀을 흘리며 자고 생활관 인원 대부분이 땀띠가 났다.
- #4. 한 생활관당 인원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에어컨 등 온냉방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
- #5. 지나고 나니 추억 정도이다.
- #6. 에어컨이 들어온 지 2주만에 망가져서 32도에서 2주간 힘들게 잠을 이뤘습니다. 바로바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7. 사회와 격리 되어 있는 점.
- #8. 피부가 뒤집어져서 문진을 받았는데 그냥 데타손 하나 주고 별 효과도 없었다.
- #9. 격리 초반에 더 통제를 하여 세면, 세족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 #10. 00사단 신병교육대 최고이다. 38일동안 후회 없이 생활했다.
- #11.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느라 생활관에서만 있어서 답답했던 것과 마스크 착용입니다.
- #12. 작업 등 잡일을 할 시에 공평한 순서를 정해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13. 진정한 강한 군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험을 볼 때 봐주지 않고 철저히 채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14.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외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던 점으로

훈련병들이 아직 보안교육 등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핸드폰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보안교육을 통해서 다른 군인들과 같이 핸드폰을 개인 정비시간에(훈련에 방해되지 않는 선)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5. 가족들과 연락을 자주하고 싶습니다.
- #16. 대체로 만족스럽다. 00신병교육대에서 훈련하여 매우 기쁘게 훈련 받고 자대로 가는 것 같다. 모든 중대장. 소대장. 교관. 조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남은 500일 훈련 자대 가서 건강하게 하고 진정한 군인이 되어 나라에 부름에 응할 생각이다. 충성.
- #17. 화장실 칸이 너무 없다. 그리고 훈련받는 동안은 즐거웠다.
- #18. 훈련 때에 충분한 물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절 없습니다.
- #19. 침상 생활은 너무 구시대적이다.
- #20. 1인이 자는 게 아니라 분대가 자는 거라 여러 가지 소음과 불쾌감 속에서 잤는데 개인침대 구비 혹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 단독 취침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 #21. 따로 드는 생각은 없습니다.
- #22. 불침번. 육체적 힘듦. 심심함 외에 없습니다.
- #23. 동기들과 마찰이 가장 힘들어 어려웠습니다.
- #24. 4단계로 인한 격리기간 증가.
- #25. 중대장님을 포함해 교관님들. 조교님들 등 다른 훈련생들의 건강과 불편 사항을 꾸준히 체크해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힘들었던 점은 크게 없었습니다. 현 훈련소 생활로 만족합니다.
- #26. 생활관 인원이 많다.
- #27. 인터넷 편지나 편지 등을 받는 날이 제각각이어서 가능한 빨리 자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28. 훈련소에서는 힘들면 상담센터가 제대로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담배는 못 폼으면 좋겠다.

- #29. 달리 크게 힘든 점은 없었습니다. 현재로도 충분히 만족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 #30. 마른 매트리스, 모포를 일반 건조한다며 밖에 세워두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연병장의 흙이랑 모래가 묻어 더 더러워지는 것 같다.
- #31. 여름이라 더웠던 점을 제외하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 #32. 생활관 내 수용인원이 너무 많다. 수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33. 퍼펙트한 훈련소 생활이었습니다.
- #34. 훈련소 생활 중에서 냉·난방 관련 시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 생활관에 비해서 높은 온도와 에어컨 가동 시 양 끝의 온도 차이 때문에 조교님들과 교관님들이 대형선풍기와 에어컨 청소를 실시하였지만. 에어컨과 가까운 곳은 춥고 먼 곳은 더욱 상태가 유지되어 대형 선풍기 때문에 에어컨 반대쪽도 나아진 상황이지만 더울 땐 더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천장형 에어컨 설치와 생활관에 있는 에어컨의 교체가 필요하다.

#### □ 000 신병훈련소

- #1. 휴일에 개인시간 보장이 잘 되지 않음.
- #2. 샤워 시간이 적음. 흡연 원함. 1주일에 전화사용 3분 1회는 너무 함. 취침시간이 적다.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위생 문제.
- #3. 훈련소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다면 MP3나 책을 허용해주고 TV를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 #4. 무더운 날씨 속에 지속되는 열차려.
- #5. 집합 후 움직여서 열차려를 유발하는 동기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고 잘못된 인원만 열차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6. 말 안 듣고 개인행동 하는 동기들 처벌.

- #7. 첫 번째로 외부와의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 제일 힘들고 궁금하고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핸드폰 사용만 보장된다면 정말 좋은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시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받거나 명령에 따라야 하는데 통일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각각 지도자 분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어느 분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훈련병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한 방향으로 같은 명령을 지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8. 흡연 불가능. 외부와의 소통 불가.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 #9. 흡연과 독서를 하지 못하여 아쉬웠다.
- #10. 밥을 원하는 만큼 배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1.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 의지만 있다면 즐거운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12. 000기 폰 사용금지. 다음 기수까지 폰 사용금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 #13. 가장 힘든 것은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고 그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많았고 정해진 일과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시간이나 취침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가끔 왜 굳이 이렇게 불편하게 제약을 주나 싶은 경우가 많고 의미 없는 점호를 하여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4. 정신적인 관리. 여가활동 시간 및 책 등을 반입시켜주면 좋겠다.
- #15. 연인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정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락과 핸드폰의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 #16. 다쳤을 때 시험이 있어 의무대에 가지 못했던 것.
- #17. 가족과의 연락이 거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형태이며, 편지를 보내는 건 1주 후에 도착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전화사용은 주 1회 3분인데. 전화기의 시스템상 번호 입력 가능한 상황부



터 시간이 카운트되며. 최소 40초 정도는 허비되는 시간이라 실제 사용 시간은 2분 안팎임. 확실한 3분을 보장해주었으면 함. 사격 우수자 포상으로 사용한 핸드폰을 이용한 3분 전화는 받고 나서 3분 카운트라서 시간이 훨씬 널널했음.

- #18. 정호. 불필요한 정호 명령으로 인한 훈련생들의 시간 낭비. 개인 세면 시간이 부족. 대열을 맞춘다고 급식 시간 밖에서 시간 낭비.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았음.
- #19. 일단 1주차에 바닥에서 밥 먹는 것과 담배 필 수있게 해주시는 것과 화장실 세면장을 관리해주는 편이 좋다.
- #20. 군대가 아무리 단체생활이라고 하지만 한두 명의 실수로 열차려를 단체로 받았던 게 힘들었다. 일과가 많아서 용변을 볼 시간조차 없어서 힘들었다.
- #21. 전화사용 시간 부적절. 세면장·샤워장 위생상태 발전이 필요하다.
- #22. 핸드폰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만큼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000교관같이 억지로 잡는 경우엔 허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난다.
- #23. 외부와의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점이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24. ①화장실 상태가 매우 열악합니다(냄새, 청결상태). ②이불 및 베게 커버를 제거한 상황에서 곰팡이 발견. ③입대 당시 제출했던 개인물품(핸드폰, 에어팟, 옷, 가방 등)이 수료 후 곰팡이가 생겼습니다(사제가방제도).→사고인지 후 보고했으나. “그렇다면 미안하다” 라는 단장님의 대답뿐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제품에 곰팡이가 생겨 사용 불가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5. 위생이 안 좋아 다 더럽다.
- #26. 화장실 변기를 고치면 좋겠다.
- #27. 훈련병으로 군 생활하면서 핸드폰, 담배, 술 같은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아플 때 바로 병원은 가지 못하고 항상 응급진료 희망자만 뽑고, 의무대 진료희망자는 관심이 없는 것

이 좀 불편했다.

- #28. TV나 외부매체를 접할 기회가 없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 #29. 옛날에는 이것보다 더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보다 더 편해진다면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그냥 민간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인이라면 지금보다 더 힘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30. 훈련이 너무 쉽습니다.
- #31. 일단 화장실 위생과 샤워시간의 제한 또 침구류의 위생상태 이 세 가지가 가장 힘들었다. 제대로 못 씻고 잔적도 있고 침구류의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았다. 피부가 아토피가 있는데 군대에 올 때 굉장히 잘 관리했었는데 훈련소 입소하고 나서 급격하게 나빠졌다. 그리고 수통이 너무 오래되어서 위생 상태가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안 좋았고 또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방탄모도 훈련 중에 사용했는데 너무 오래되어서 냄새가 심각했다. 구조적으로 세탁도 불가능해서 정말 쓰기 싫었지만 군인이라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탈모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냄새가 심각했다.
- #32. 화장실 변기상태. 이불·베개 위생상태. 부서진 관물함. 침대 사다리 상태. 수통 상태.
- #31. 피부과 등이 진료가 잘되었으면 좋겠다(★의무대★꼭). 진단할 때 습진인가? 무좀인가? 헛갈리고. 약을 먹다가 더 안 좋아져서 왔는데 “약을 다 쳐먹고 오라 하는 반면, 안 좋아지면 와. 썬 약 줄게” 그렇게 한다. 그리고 제발 침대·베개·이불은 곰팡이 너무 많다. 너무너무 비위생적이다.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힘들었다. 그 반면 교관 분들은 좋았다(감사 감사).
- #33. 수통은 아무리 생각해도 심각함. 야전교육대대(야교대) 이불상태 매우 불량함-곰팡이가 슬어있음. 재활용 피복 세척 상태 매우 불량함. 전화시간 3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함. 너무 짧음.
- #34. 딱히 힘들었던 점은 있지 않지만 전화통화 사용이 너무 적고 편지

가 너무 늦게 도착하여서 외부와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 #35. 입대 3일에 12시간 동안 대기하며 하루를 보냈다.
- #36. 격리기간 동안 샤워 및 세면 시간을 2배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식사 이후 바로 무리한 훈련 및 운동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또한 쓸데없는 점호는 되도록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지휘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이 일치해야 한다. 지휘계통에서 서로 말이 다른데 피해는 우리가 보고 있다.
- #37. 외부의 소식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 매우 답답했다.
- #38. 잘 모르겠다.
- #39. 왜 훈련병은 개인 휴식시간에 침대에 누워서 쉴 수 없을까? 왜 훈련병은 개인 일과 정렬시간에 생활관에서 다리를 꼬면 안 되는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개인 위생시간은 하루에 딱 1번. 그것도 PCR 검사 2차까지 끝나기 전엔 격실 단위로 씻었는데 1인당 세면장 가는 시간부터 옷 갈아입고 나오는 시간까지 평균 3~4분이었다. 굉장히 비위생적이었다. 그 이후도 최대 7분이 한계이다. 베개·이불·내피 완전히 더럽다. 많은 훈련병들이 피부병·피부 악화로 고생을 한다. 제발 급식 중 배식표에 있는대로 주세요. 맨날 임의로 바꾸지 말고, 개인 휴식시간에 낮잠 30분이라도 잘 수 있게 해주세요. 영양제 반입 좀 되게 해주세요. 몸이 부서질 것 같습니다.
- #40. 점호 때마다 부동자세로 서 있는 게 가장 힘들었다. 외부와의 소통이 힘들다.
- #41.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군인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맞춤 체력 단련(구보 등)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42. 사회와의 소통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서 심적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전화사용 횟수나 시간을 더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시설물들 수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훈육 교관님들끼리의

정보 단일화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A,B 교관님들의 정보가 다르면 훈련병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운동기구가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예: 풀업머신), 훈련소 기간 입는 재활용 옷의 위생상태 & 수통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합니다.

- #43. 전화사용 횟수와 시간. 사회와의 단절. 흡연금지 등 행동들을 한다고 해서 군기가 빠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누릴 권리라 생각합니다. 침대랑 이불·베개·화장실 등 위생적으로 많이 낡고 불편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 #43. 시설의 전체적인 보수 및 대체적인 생활관 위생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44. 한 곳에서 생활하는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싶습니다. 화장실 내의 소변기·대변기·샤워장 시설이 빨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스팔트 위가 아닌 인조 잔디 위라던가 훈련병들이 훈련을 받더라도 다치지 않을 수 있게끔 교체를 해주거나 땅을 잘 다듬어 준다거나 돌을 놔두지 않고 전부 제거해 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45. 작업을 시킬 때 매번 같은 인원이 작업을 가고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 등 형평성이 매우 떨어진다.
- #46. 화장실 좀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대변이 너무 급한데 점호대형에서 20~30분 대기하는 동안 화장실도 안 보내주고. 못 참겠어서 가면 자기들 하고 싶은 데로 다하냐며 D·I(교관)들이 욕박지르고 그것 때문에 얼차려도 많이 받았다. 당장 바지에 쌀 것 같은데 좀 화장실 가고 싶을 때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권 교육이 너무 미흡하다. 교육자가 남자다움을 얘기하고 군대 체계를 이해한다는 듯이 얘기하므로 결국 군대라는 이유로 개선이 불가능한 심각한 인권 문제는 그대로라고 생각하고. 훈련병들끼리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언어폭력이 심하다. D·I(교관)들도 욕한다. 욕 여러 번 들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너무 장난으로 치부되니까 이

런 희롱이나 폭력이 불편해도 항의할 수가 없다. 나만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말 할 수 있겠나, 군대는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 #47. 교관들끼리 상호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교관마다 다 기준이 틀린 점 때문에 혼이 나는 일이 있기에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 #48. 입소하고 2주 가량은 기초적인 보급품만 사용하여 속옷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받은 단위로 씻어서 시간이 지체되어 그날 씻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 #49. 보급품이 조금 더 빨리 지급되면 좋겠고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불·베개 등).
- #50. 입소 후 2주 가량 보급품이 없고 빨래도 할 수 없어서 위생에 문제가 생김.
- #51. 일단 쓸데없는 점호 대형이 너무 많다. 무릎이 너무 아프다.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옛날에 다쳤던 무릎 병이 재발한 것 같다. 예를 들어 08:00 시에 집합인데 08:30분에 와서야 밖으로 나와라. 아니면 자리에 편히 앉아 대기 명령이 떨어진다. 30분 동안 서 있을 시간에 차라리 집합 시간을 늦게 말하거나 아니면 명령(또는 지시)을 빨리 내려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52. 샤워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70명이 샤워하는데 30-60분은 너무 짧습니다. 아침에 일과가 타이트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을 때 밖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너무 습해서 생활관 빨래가 안 마릅니다. 제습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기가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 #53. 일단 훈련소에는 양호과실 제도가 있는데 과실은 쉽게 받을 수 있으나 훈련병들이 교관님들한테 양호를 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 훈련병들이 보급품 지급작업원이거나 다른 작업원 일을 도울 때 양호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교관님에게 혼이 난 적이 있는데 상황설명을 하기도 전에 혼을 내니까 어이가 없던 적이 많았습니다. 개선이 필

요합니다.

- #54.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항상 어리버리하고 겉도는 훈련병과의 생활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훈련병들을 조금 더 신경써서 관리해주셨으면 합니다.
- #55. 미국을 따라가겠다는데 말만 그렇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 #56. 베개 곰팡이. 수통 교체. 전화사용 시간 적음. 재활용 피복의 사용 주기 축소 필요. 이 정도 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한 번 더 올 것 같습니다.
- #57. 강제금연(흡연), 바깥세상과 아예 단절이라는 것.
- #58. 훈련소 및 군대가 개선되어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훈련소 시설이 굉장히 좋고 편한 것 같다.
- #59. 세면장과 화장실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터넷 편지도 0군 더 캠프 어플처럼 더 편리한 편지 작성 앱이 필요하다. 통화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60. 생활관/화장실/세면장 개선이 시급. 전화 사용 시간 및 사용 중 아주 큰 목소리(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지르는 행위. 타군 같은 '더 캠프' 앱이 없어 편지쓰기, 훈련병 일과, 외부소통 등등이 너무 힘듭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종교 시간(물론 코로나로 인해 교회 미사용을 염두에 뒀서)
- #61. 음. 교관들의 말들이 각자 다르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교관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다른 교관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방법이 틀리다 라고 하시니 어떤 것을 따라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또 외부와의 소통 & 소식입니다. 외부와의 소통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은 매우 듣기 어렵습니다.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 #62. 파이팅 생각보다 괜찮았다.
- #63. 모르는 사람들하고 생활도 해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 주어지는 자유시간이 적다. 외부소식이나 문화생활, 취미로 접할 수 있는 기

회가 없다.

- #64. 약간의 위생개선 필요. 바깥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은 게시판에 게시되었으면 합니다.
- #65. 가족과의 연락 수단이 공중전화와 편지밖에 없음. 심지어 공중전화는 3분을 넘어가면 불이익을 받음. 핸드폰 사용이 절실함. 사회의 소식도 전혀 듣지 못한다. 21세기에 이런 건 말이 안 된다.
- #66.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냉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격리 당시 제공되는 급식을 처리하는 방법이 불편하고 위생적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대변기가 대부분 막혀 있었고, 시설이 낡고 노후화되어 사용이 불편하였고, 세탁기·건조기가 고장나 있어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습니다. 재활용 피복의 제공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 #67. 핸드폰 사용을 수료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나 싶다. 일과 후 사용 가능하게 바꾸는 편이 좋을 것 같다.
- #68. 여기 있는 동안 사람에게 실망을 너무 많이 했다. 모두가 어리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이다. 몸이나 훈련이 힘든 것보다 어린 생각, 미성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 #69. 부소대장님들의 행동이 어른스러웠으면 좋겠고. 훈련병들을 교육하기 전에 교관님들의 생각이 통일, 통합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70. 군대에 오고 싶었던 사람으로서 군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우리 군으로 온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훈련병이 되겠습니다.
- #71. 베개의 위생 상태의 교체가 시급합니다. 인간이 자기에는 곰팡이가 너무 많습니다. 고장이 난 전자기기를 수리해 주세요. 제발(마이크, 프로젝터, 컴퓨터)
- #72. 식사 당번들을 제외한 기타 작업들을 여러 소대별로 돌아가며 하는게 아니라 몇몇 특정 소대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들로 인해 다른 소대보다 세면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어도 전혀 보장되지

않음.

- #73. 훈련소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하루종일 대기하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은 생활관 내 벌레가 너무 많은 문을 통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생활관 문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74. 훈련소 흡연 가능해야 함. 교관들의 통일되지 않은 지시사항으로 인한 혼란(지시대로 하지 않아) 그로 인해 각종 교관에게 받는 열차려.
- #75.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입고 베고 하면서 피부가 안 좋아진 것이 힘들었습니다(너무 오래 사용한 것들). 계속 재활용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 #76. 만족스러웠다.
- #77. 의료치료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 #78. 일부가 잘못해서 전체가 혼난다는 것. 대기시간이 너무 긴 것. 지휘관이나 교관마다 요청사항이 달라 의견을 일치해서 명령을 하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무대가 아니면 외부소식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 #79. 훈련도중 쓸데없는 대기시간 때문에 많은 시간이 낭비돼 괴로웠고, 굳이 0군만 훈련소 훈련기간이 0주여야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었다. 훈련소 기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핸드폰을 못 써서 힘들었지만, 훈련소 기간의 훈련을 위해서는 핸드폰 통제가 맞는 것 같다.
- #80. 담배. 폰. PX 허용해주세요.
- #81. 코로나19로 외출·외박이 제한되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 #82. 전화사용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코로나 시국이라 가족의 안부가 매우 걱정이 되었다.



- #83. 수료 날이 다가옴에 따라 훈련병들이 시끄럽지도, 말을 잘 안 듣지도 않았는데 너무 억지로 까면서 얼차려 주는 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라도 교관·소대장들이 회의해서 말과 행동을 통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든 거는 담배를 못 피워서 힘듭니다.
- #84. 휴식시간 읽을 책이라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85. 전화사용 시간 연장.
- #86. 샤워 시간 적음. 사회와 단절(TV 시청 없음. 전화사용 시간 짧음). 갑자기 집합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 때문에 불편했다.
- #87. 교관의 성격 문제.
- #88. 훈련소 생활관 위생 상태 개선.
- #89. 1주일 한번 통화 3분은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 #90. 개인적으로 훈련소에 들어오고 난 첫 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 #91.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소식을 정기적으로 접할 수 있는 매체와 연결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 #92. 샤워시간 개인 정비시간 너무 부족함. 65명 샤워하는데 샤워 칸 15개 30분? 절대 못 함.
- #93. 훈련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 빼고 어려웠던 것은 거의 없음. 조금 더 힘들고 엄격해야 할 것 같음.
- #94. 흡연. 핸드폰 사용.
- #95. 핸드폰 지급이 시급합니다.
- #96. 딱히 힘들거나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는, 하루의 일과나 일정들에 대해 조금만 빨리 알려주시고 자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97. 화장실 이용 시간을 늘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5분 정도는 통화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98.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잘 적응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이 있을 것 같고 군대 적응을 하지 못해 훈련이나, 무언가를 질문받을 때 집중이 조금 흐려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격리되어

힘들고 우울하고 주변 동기들하고도 못 친해질 수도 있는 훈련병을 위해 전화나 인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 #99. 화장실 이용시간이 너무 적다.
- #100. 담배를 너무 피우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훈련생에게는 담배를 피우게 허용해야 합니다.
- #101. PX와 외부와의 연락 소통 자체가 안됨. 소통이 되더라도 통제 당하고 진실을 이야기 못 하고 좋은 일만 얘기해야 합니다.
- #102. 침상이 불편함. 격리기간 PX 사용이 안 됨.
- #103. 힘들었던 것은 화장실을 마음대로 가지 못한 것이었지만 매우 힘든 정도는 아니었다.
- #104. 세면실 샤워기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탁기를 쓰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105. 누워있을 수 없어 허리가 아프다. 취침 시간이 아날 때이기에 납득이 가지만 허리를 기댈 곳이 마땅치 않다. 화장실 대변 시간이 부족하고 휴지 말고 물티슈도 보급해주었으면 좋겠다.
- #106. 소변기가 작동을 안 해서 안에 있는 오물이나 찌꺼기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냄새가 난다. 빨리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107. 샤워시간이 조금 부족합니다. 빨래를 같이 해야 해서 늘 시간 부담을 안고 샤워를 합니다. 이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108. 전 훈련소 생활 중 부당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 #109. 흡연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흡연자들을 위해 어느 정도의 흡연은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 #110. 세면실 시설 일부가 샤워기에 물이 안 나오거나 잘 안 나오는 게 많아 제한된 샤워 시간에 약간 어려움이 있었다.
- #111. 갑작스럽게 변화할 잠자리와 수면 패턴 때문에 어려운 점 빼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 #112. 핸드폰 제한으로 외부와의 연락 단절. 격리기간 동안 무의미하게

딱딱한 침상 위에 가만히 앉아만 있는 시간. 많은 인원과 한 생활관에서 활동함에 있어서 편하지 못한 잠자리(코 골거나, 이 갈기 등), 격리기간 동안 완전히 제한되는 야외활동.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 부실한 급식으로 인한 허기(밥만 많고 반찬은 너무 적음. 국은 거의 맹국). 방송 소리가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불편함(생활관 내의 스피커 고장). 훈련소 내 전투복·방탄모·수통·모포·포단 등 장비 상태가 매우 비위생적. 그로 인한 피부 트러블 발생(없던 두드러기, 가려움증, 여드름 발생). 비위생적인 식당(한자리에 파리가 2마리씩은 보일 정도의 파리 수. 세척기 없이 훈련병들이 설거지 담당) 계속해서 바뀌는 일정.

- #113. 외부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자는 곳이 편하진 않습니다.
- #114. 식당 위생 상태와 환경. 계속 바뀌는 일정. 메뉴판처럼 나오지 않음. 후식이 나오지 않음(적혀있지만 안 나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배식받음. 음식을 던지며 배식함. 외부와 전화가 되지 않음. 식사 중 파리가 날아다님.
- #115. 핸드폰 사용 못 하는 것에 대해 힘들었고, 또 TV 시청은 평일에는 뉴스나, 훈련 교육 관련 방송만 나왔습니다. 다른 방송도 보고 싶었고, 핸드폰도 사용하여 사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도 가끔 나온 적 있었고, 배식받을 때 음식 던져서 주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 #116. 식단표의 메뉴대로 나오지 않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주기도 함. 치즈볼, 딸기우유 같은 메뉴는 나오지도 않음. 편지·전화를 안 시켜줌. 편지는 1회 부모님께만 보냄. 너무 느림. 아직 가지도 않음(편지의 불편함). 대기시간이 너무 김. 어젠 점심 식사 대기만 2시간 반 동안 해 2시 반에 먹음. 마음대로 얘기도 못 함. 식당에 파리들이 수십 마리 날아다님. 위생 상태가 말도 안 되게 안 좋음. 간부들은 머리가 길고 담배를 피움. PX 가보지도 못함. 코로나 격리 결과를 어제 5-7시엔 알려준다더니 알려주지

도 않음. 다음날 1시 반까지 받지 못함. 배식을 줄 때 던져서 줘서 식판 던질뻔함. 인권 무시 아닌가? 귀찮으면 하지 말지. 요자 붙이지 말라면서 간부님. 요자로 말함. 핸드폰 왜 안 주는지 모르겠음. 이 설문도 1시에 시작한다더니 1시에 받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기다림.

## □ 000 신병훈련소

- #1. 교관들의 눈을 피해 000의 자부심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훈련병들이 다수 있었다.
- #2. 한번에 많은 인원이 씻어야 해서 샤워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다음 과업과 취침을 고려해보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모든 것들이 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3.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훈련 교관도 국민이기에 훈련 교관들에게도 인권이 있기에 여러 가지 여건을 훈련병들과 똑같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보장해주어야 한다. 00교육대는 인권에 대해 혹은 시설에 대해 전혀 문제없습니다. 무더위 속에 훈련병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소대장님들에게도 여건을 보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 훈련병들의 여건 보장은 충분히 잘 되어있고 단체 생활이다 보니 어느 정도 불편함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관님들도 훈련병들의 여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십니다.
- #5. 지휘관 분들과 교관분들이 훈련병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신다.
- #6. 항상 밥이 적어 배가 고팠고, 전화사용 통제가 심했다. 외부소식 또한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 #7. 전반적으로 다 괜찮았지만, 매번 식사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 주먹구구식이 아닌 모든 장병이 공정한 식사량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함.

- #8. 흡연을 제한하는 것이 군인화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화장실 변기 수와 샤워장 샤워기 수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 1회 5분 전화 시간은 대화를 나누기에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9. 말을 듣지 않거나 집중하지 않고 딴짓하는 동기생들 때문에 한순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연대책임으로 열차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대장 훈련병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동기, 같은 소대 훈련병들에게 타이르고 잘 설명해줘도 돌아오는 건 무시와 야유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생활반을 둘러보면 꼭 1-2명 이상 다른 훈련병들에게 시비조의 말투로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다른 생활반에 있는 동기생 및 여러 소대장(훈련교관)들을 뒷담화하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군기 빠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군인권(장병의 인권보장)만을 생각한 나머지 군대라는 특수성과 군대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지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봅니다. 요즘 인권이라는 이유로 훈련에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훈련병들을 혼내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깝다고 느낍니다.
- #10. 연대책임의 개념이 힘들었습니다. 모집인원의 증가로 인한 시설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훈련 시설 중 노후된 시설들이 꽤 많습니다.
- #11. 코로나 상황과 폭염으로 인해 제대로 된 훈련을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힘들었습니다. 인터넷 편지나 편지·소포·전화 통화로 외부와 소통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 단절된 환경인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개선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12. 훈련생의 인권만 찾다 보니 소대장님들의 업무 피로도도 더욱 높아지고 업무강도 또한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인권을 발미로 비도덕적인 훈련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느꼈음.
- #13. 개선 점으로는 000 교육대 생활관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생활하는 점을 꼽습니다. 최근 한 기수당 입영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서 좁은 환경에서 여럿이 생활하는 처지입니다.

- #14. 코로나 2차 PCR 검사까지 전원 음성으로 이상이 없으며, 마스크도 벗고 훈련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제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15. 인권 당연히 중요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군대인데 너무 보장받는 것 또한 아닌 것 같다. 받으면 좋지만, 그것을 악용하고 꺾병을 부리는 훈련병들이 많다. 내가 000교육훈련단에서 느낀 것은 군대가 아니라 000캠프였다. 솔직히 이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 의문도 가끔 들었다.
- #16. 훈련병들의 인권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훈련병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욕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훈련병의 역할, 교관의 역할, 선임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후임보다 더 똑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배울 수 있다면 조금 더 나은 군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17. 훈련소 생활 중 딱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없습니다.
- #18. 코로나 격리할 때 야외에 나가지 못하고 2주간 격리하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화장실·샤워 등 돌아가면서 사용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편했다. 샤워 시 샴푸·바디워시를 사용 못 하는 게 불편했다.
- #19. 약 1,200여 명의 훈련병들을 통제하기 위해선 최소한으로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항상 훈련병들의 여건, 인권 보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 #20. 000의 인터넷편지 지급일을 정확히 규정하여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 #21. 훈련소 생활은 군인(훈련병)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

- 각함. 오히려 더 빠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22. 식사량 부족 / 훈련대기 시간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 예) 소대별로 진행하는데 항상 1소대부터 해서 9소대, 즉 마지막 소대는 대기만 하다가 날씨(폭염)로 인해 훈련을 받지 못함.
- #23. 익숙치 않은 단체 생활 때문에 처음에 힘들었지만, 잘 적응했고 개선될 점은 없다.
- #24. 훈련들은 재미있고 즐겁지만. 밖에 있는 가족, 지인 생각이 너무 납니다.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그런 힘듦. 우울함이 적어질 것 같습니다.
- #25. 수면시간 약간 더 주었으면 좋겠다.
- #26. 고장이 난 세탁기가 2대가 있어 가끔 다툼이 생겼음(훈련병들과). 항상 뒤에서 훈련병들을 생각해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해주려는 소대장님들의 모습에 감동받는 경우가 많았음. 감사합니다. 신병 0 교육대 소대장님 그리고 교육대장님 항상 파이팅입니다!.
- #27. 인권침해는 전혀 느껴보지 못하였다. 낡은 시설물들을 보완해야 할 것 같다.
- #28. 인권 및 상부의 지시 때문에 ‘공중돌격 훈련’ 등 받지 못한 훈련이 있으며. 과업이 자주 전폐 되어 실무에 배치받았을 때 혹여나 무시를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 #29. 화장실 칸을 늘려주세요. 000지원 좀 해주세요. 너무 많은 인권을 보장하면 훈련병들이 그게 너무 당연시한다는 생각에 괴병 및 열외 및 정신상태 불량 훈련병들이 많아 과도한 인권은 군대에서 필요 없는 것 같다.
- #30. 사회와 단절되어 자유롭지 못하다는 부분이 적응이 어려웠지만, 군대이고 누구나 한 번씩 겪어가는 시간이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잠시나마 견디면 되기에 당장에는 심적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단순히 적응하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소대장님들

이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0교육대 소대장님들 사랑합니다.!!!

- #31. 000가 생각보다 인권보장을 매우 잘해주고 있었고, 일반인들이 000의 인권실태에 대해 오해하고 다소 과장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빨리 000 인권실태에 오해가 없어지고 3군 중 상위권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한다. 근데 000가 인권을 너무 과도하게 보장해주어 원래 000의 전통 및 명예가 오히려 사라지고 떨어지는 것 같다. 3군 중 ‘빡세고 인간병기를 만든다’ 라는 설정인데 과도한 인권보장으로 훈련병들의 수준이 갓 초등학교 들어온 애들 정도로 낮아지고 민간인이 생각했던 000의 이미지가 아닌 것 같다. 적당한 얼차려가 필요하다고 뼈저리게 느낀다. 개념 없는 몇몇 동기 때문에 000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같다.
- #32. 처음으로 외부와 단절된 터라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수료까지 잘 이끌어주신 000소대장님, 000소대장님 등등 0 교육대 소대장님 외 다른 분들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버텨올 수 있었습니다.
- #33. 딱히 없었으나 뽕자면 화장실 냄새. 에어컨을 너무 시원하게 틀어 주셔서 물 떨어짐. 불침번들에게 일 시키는 것.
- #34. 000 소대장님 사랑합니다.
- #35. 관물함(관물대 보관함)개인물품 서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 좀 더 안정적인 관물함이 생겼으면 좋겠다. 비밀번호라든지 훈련하면서 자리 비우는 순간 옷이 바뀌고 물품들이 사라지는 경우 다수 발생.
- #36. 너무 편해진 것 같다. 약간의 억압과 통제가 필요한 것 같다.
- #37. 너무 편해진 것 같다. 더 확실하게 훈련소에서 군기를 다져야 한다. 훈련소에서의 공중전화 이용을 1회에서 0회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 #38. 의무실 같은 경우 그날그날 진료 볼 수 있는 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매우 아프거나 진료과가 맞지 않아 가지 못한 훈련병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의무실을 갔다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다 먹은 후 바로 한 번 더 증상이나 확인차 약을 바꿔야 한다고 하셔서 가려고 했지만, 진료를 당일에 하지 않아 못 갔습니다.

- #39. 여자친구와 연락이 불가능한 점이 가장 불편했다.
- #40. 상급부대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과도할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서 동기들의 군기가 해이해짐. 인권만을 너무 강요치 말고 주변에 피해를 끼치는 인원에게는 체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41. 군기강이 많이 해이해지고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훈련병의 입장에서 군 기본자세 및 군기 유지를 위해 훈련 교관님들의 권력을 더 올려드리고 상급 부대의 간섭을 줄여야하며 너무 풀어주고 하면 안 될 것 같다. 수료를 해서가 아니라 000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이다.
- #42. 교관님들이 저희 생각을 많이 해주시고 배려를 많이 해주십니다.
- #43. 000군과 비교해 000에는 지원금이 부족하여 더 좋은 장비로 훈련을 받지 못해 아쉬움이 큼니다. 000에 지원금을 더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각종 매체에서 접했던 소대장님들은 무섭고 욕설을 하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격려와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 #44. 훈련이 힘들었지만, 000이라 버팀.
- #45. 훈련단에서의 생활은 만족스럽지만, 실무 부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가 존재할까 봐 걱정입니다.
- #46.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의.식.주중에 ‘식’에 관해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훈련병들이 배식을 하다 보니 배식량이 일정하지 못하지만, “이것도 훈련의 일부”라며 이해하라는 식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각자의 요구 배식량의 차이는 수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균등 배식은 이루어져야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7. 코로나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야 훈련 및 대외적인 활동에 충분한 자유가 생기면 좋겠다. 또한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지만 조금 더

힘들고 혹독하게 훈련해 자신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

#48. 낮은 환경에 적응하고 모르는 동기들과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49. 000에서 생활할 때 외부소식을 인터넷 편지나 전화, 편지로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이라도 외부의 일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 구 시설이 너무 낡았고 오래되어서 시설들이 교체나 수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50. 훈련을 하고 싶은데 인권 문제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밥 배식이 끝나면 남은 배식 잔반을 다 버리는데 버릴 바에 더 먹고 싶은 훈련병들 통제해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 문제를 핑계 삼아 역으로 훈련병들이 소대장님들께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부의 인권도 보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 주말에 한 번뿐인 전화 사용 시간 연장 및 주말 휴식 시간 증가.

#52. 훈련단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에 직접적으로 겪었거나 목격한 훈련병 인권침해 건은 없습니다. 다만, 타군과 비교해 교육훈련단 신병 양성과정에 입영하는 장병의 수가 적기에 훈련 교관 분들의 수가 적은 것은 이해하나 간혹 훈련병들도 체감할 정도로 훈련병 인권보장에 조치가 집중되어 간부분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기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간부 편제 등은 각각 부대 상황에 맞추어 운용되는 그것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실태조사에서의 목소리가 간부분들의 인권을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간부분들의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더 높은 교육 수준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 때문에 실태조사 대상 훈련병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훈련 교관을 비롯한 간부분들의 압력이 작용한 것이 아닐는지 설문 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실 수는 있으나,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군 장병 인권신장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3. 인편 횟수 제한. 1일 1회 소대 결산이 없고 3-4일에 한 번씩 몰아

서 하는 거 바뀌면 좋다. 제한 시간과 횟수만 정해진다면 흡연도 관찰을 것 같다. 현재 인원에 비해 생활관이 좁음. 주말 개인 신변 정리 시간에 자체적으로 운동(예: 헬스장, 축구, 족구)을 하게 해주면 좋겠음.

- #54. 군이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데 훈련병들이 나약한 것 같다. 000 교육 수준은 최고이다. 인권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 훈련병들의 군기가 해이해진다고 생각합니다.
- #55. 바깥소식을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권침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노후시설 교체와 같은 자체 시설 문제 제외하고는 개선할 점이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56. 세탁기·건조기가 인원수에 비해 적고 식사 당번 소대는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앞치마, 장화, 고무장갑 등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 #57. 훈련병 선발기준이 어느 정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인적성 검사)
- #58. 너무 즐거운 군 훈련단 생활이었고, 덕분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 #59. 000의 일원이라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될 인권들이 오히려 입대전 생각보다 너무 잘 보장되어 있어서 군기 확립을 위한 체계가 더욱 필요할 것 같다.
- #59. 익숙했던 사회와의 단절이 훈련소 생활 중 가장 힘들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군인으로서 훈련병으로서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그것으로 생각합니다.
- #60. 교관들의 언행. 욕설이 난무하다(예: 아, 제기랄). 화를 주체 못하는 것 같다.
- #61. 현재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62. 화장실 시설이나 이용 시간 등 여건이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냄새, 시간)
- #63. 훈련병들의 불편한 점들은 마음의 편지나 보고를 통해 해결되지만

교관님들의 불편한 점들은 해결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 #64. 입대 전 사회에서 들었던 군 생활에 비해 직접 훈련소 생활을 경험해보니 훈련병들에 대한 안전보장 개인 신변 정리 시간들이 여유롭게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다수의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 위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65. 한 생활반에 20명씩 사용하는데 공간이 다소 비좁아 관품함을 바닥에 놓고 쓰는 동기들도 있고 다닥다닥 붙어있어서 불편했다. 이 점과 샤워장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 #66. 의무실이용(치과) 훈련병 신분이라도 일반병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외출, 청원 휴가, 치아교정)
- #67. 음수대 및 정수기가 부족했다.
- #68. 힘들었던 점은 없습니다. 개선해야 할 점은 저희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희를 가르치는 소대장님, 교육대장님, 선임 교관님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게 보입니다. 코로나여서 체력평가를 못 보고 뽑는 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방안을 생각해서 000에 저보다 더 좋은 후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69. 군기가 없다. 10명 중 7~8명은 000에 자리만 채우러 온 인원 같다. 생활 반에서 떠들면서 훈련할 때 조금만 힘들면 실증을 낸다. 동기생들과의 관계가 안 좋은 때가 있다. 자기와 맞지 않거나 하면 '다르다' 라고 보는 게 아닌 '틀리다' 라고 본다. 이런 동기들은 정신 좀 차리고 동기들 인권을 챙겨줬으면 좋겠다.
- #70. 한 교육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50명 정도가 있다. 훈련병들이 이용하기엔 샤워·세면장·화장실 칸·세탁기·건조기 등 시설의 질은 괜찮다고 할 수 있으나,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인권적인 부분에서는 훈련병 인권 챙기기 전에 교관님들 인권부터 챙겨주시시오.
- #71. 수용가능 인원을 너무 초과해서 식사, 훈련 등 과업에 지장을 받았던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건물이나 훈련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서 훈련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72. 없음. PX는 안 써도 됨. 0군은 쓴다고 해도 굳이 안 써도 됨.
- #73. 대체로 만족합니다. 필승.
- #74. 보온통, 체온측정, 병기 관리 등 너무 한 훈련병에게 많은 일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인편을 며칠씩 밀려서 받고 전화 시간도 짧은 것 같습니다.
- #75. 흡연을 못하는 것이 힘들었다. 식사량이 적은 것이 힘들었다. 시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불편했다.
- #76. 식사량 증가(개선). 훈련병 PX 이용.
- #77. 훈련소 생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 #78. 오늘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79. 격리조치 중 너무나 불편한 화장실 사용. 코로나로 인한 격리조치 중 화장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함.
- #80. 훈련 교관들의 인원수에 비해서 교육생들이 많아서 훈련 교관들의 업무가 많아지고 교관 인원수에 비해 교육생이 너무나도 많으니 교육생들이 보아도 교관님들이 많이 힘들어 보임. 교관들의 야근, 조기출근. 과로 예상됨. 한 명이 수십 명을 통제하다 보니 애로사항도 생김.
- #81. 급식량은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많았습니다. 000선임 교관님 감사합니다.
- #82. 샤워장 이용이 원활하지 않아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 #83. 가입소 격리기간 중 위생장갑 착용. 샤워 시간 10분 이하 등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이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84. 건조기 세탁기 고장이 나면 빠른 수리.
- #85. 급식량이 정말 충분합니다. 맛도 좋습니다. 000소대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교관님들의 여건을 보장해주세요.
- #86. 샤워시설과 샤워 시간 증가. 식사량 증가.

- #87. 군인이 되기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인권이 우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 #88. 훈련병들의 인권을 존중하려고 해주시다 보니 더 혼나고 지적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소 아쉽고 부적절하다고 본다. 군인으로서 일정 부분의 권리는 포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와 무더위 때문에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게 훈련병으로서도 아쉽고, 답답한데,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기수와 비교하거나, 편하게 훈련받았다며 혼내시는 건 아니라고 본다.
- #89. 에어컨이 망가졌습니다. 저희 생활반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온 건 3일도 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요청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른 생활반 만큼의 냉방이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어코 수료날까지 저희는 땀샘이 24시간 열려있었습니다. 생활반원들이 예민해지기도 하고, 매우 답답했는데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수 00들을 위해 냉방 여건을 보장해 주십시오,
- #90. 생활반 에어컨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기사가 뒤늦게(약 1주일 후) 와서 고쳐줌. 그러나 열흘 뒤 재고장이 나서 보고를 했으나, 수료식인 오늘까지도 안 고쳐줬음. 수료 2주 전에 재고장 났다고 보고했는데 조치가 없었음. 이게 소대장실이나 교육대장실이었다면 이렇게 방치했을지 궁금함.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웠던 점은 없음.
- #91. 생활반 내에 있는 A형 건조대가 입구를 기준을 11자로 배치되어 창가 쪽(안쪽)에 있어야 하는 훈련병이 들어갈 때 나갈 때 불편함.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 통화 시간이 부족해 말이 끊김.
- #92. 들어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훈련은 격리기간이라 못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똑같은 것만 계속한다는 것.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다른 여건들은 확실히 보장해주신다.

- #93. 우리는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 #94. 흡연을 금하거나 핸드폰 사용을 하지 못해 스트레스 해소가 매우 필요하지만 그러한 여건은 없었다. 흡연을 시켜주거나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기는 하는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안이 개선되었으면 한다. 평소 핸드폰만 쳐다보는 20대 초반 남성들이 핸드폰 제한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불안해지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가 누적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해결을 위해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나 군기나 품위유지는 지켜졌으면 한다.
- #95. 각종 시설 이용이 불편하여 훈련병들이 개인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비중의 직책을 넘긴다(예: 글씨작업원, 체온측정을 동시에 시킴).
- #96. 훈련소는 군인이 되기 위한 기초 교육단계로 제한된 일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군 생활제도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97. 000에 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정예 군대 육성하는 곳인 만큼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식의 질과 양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 #98. 식사량이 적은 것이 가장 힘들었다. 시간을 알 수 없는 것 또한 힘들었다.
- #99. 000 인원수 급증에 따라 동일한 건물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 다소 좁은 점이 불편하였음. 노후화된 건물이기에 인원수에 맞게 샤워, 세면대 수가 부족한 감은 있으나, 생활에는 큰 불편함은 없음. 위 두 사항이 개선되었으면 하나 큰 불편함은 아님. 훈련병이기에 핸드폰 사용, 흡연, PX이동이 제한되어야 한다 생각함. 평소 내가 알던 강인한 000가 아닌 ‘이건 너무 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여건이 보장되어서 놀람. 나라를 지키는 강한 00을 만들기 위해선 좀 더 제한하여 훈련해도 좋다는

생각이 듭.

- #100. 전화 통화 시간이 5분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 #101. 동기들이 사소한 통증이 있으면 수료에 영향을 끼칠까 봐 진료보다 숨기고 훈련을 택합니다. 물론 훈련 시간이 중요하고 교관님들도 진료를 추천하시지만, 아직 심리적 부담감을 느낍니다. 폭력 등 심각한 문제는 없지만 사소한 것에 대한 짜증 섞인 교관들의 말투는 자신감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가볍지만, ‘멍청하다’, ‘바닥이다’ 라는 언어도 자존감을 하락시킵니다.
- #102. 교관님들이 너무 잘해주시고 잘 가르쳐주셔서 만족합니다.
- #103. 입대 전 체력평가를 보고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04. 생각보다 너무 편해졌다. 군인이라면 00이라면 더욱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훈련을 너무 편하고 쉽게만 간다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강인한 군인은 어떻게 나오는가. 훈련 후에도 기강을 잡아야 조금 더 기합 있고 정신이 강인하고 확실하게 박힌다고 생각한다.
- #105. 위생(화장실, 샤워장).
- #106. 인권 관련한 부분이나 시설. 의료기관도 잘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식사 관련해서 밥의 양이 적습니다.
- #107. 훈련소 생활 중에 힘든 것은 단체 생활과 일찍 일어나는 것 정도. 개선해야 하는 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인권은 충분히 잘 보장되어 있어서 오히려 소대장님들 인권도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00교육대 000 소대장님, 000부 소대장님들이 저희들 생각을 많이 해주셔서 훈련소 생활이 많이 힘들지는 않고 훈련병 같은 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 #108. 화장실 소변기가 구식이라 사용하는데 살짝 어려움을 느꼈다. 오래된 건물이라서 이해는 하나 예민한 훈련병들은 좌변기에서 소변을 본다. 그렇게 된다면 대변 인원이 밀려 사용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관리할 때 청소하기 꺼려져서 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109. 코로나19 예방의 목적으로 24시간 동안 1개의 위생장갑으로 생활 하니 냄새도 나고 재지급도 안 되고 매우 불편합니다. 이외는 훈련병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 #110. 가장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은 식판 이런 것을 좀 더 깨끗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식판 당번은 해봤는데 간부들 꺼는 30분 동안 씻으라고 하고 우리 훈련병들은 대충 물로만 행구는 게 인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냉장고에 넣어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여름에 다 녹은 아이스크림 뜨거운 음료 먹을 바엔 안 먹는 게 낫습니다.
- #111. 화장실이 너무 구형인 점. 기강 확립.
- #112. 훈련소에 처음 입소했을 때 코로나19로 인해 2주간 격리를 했는데 격리기간 동안 화장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 #113. 식당 위생(식판)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밥을 먹기 전 식판을 보면 항상 음식물이 남아있어 꺼끄러울 때가 많았음.
- #114. 핸드폰 사용 제한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전화 시간이 부족하여 외부와 연락할 수단이 부족하다고 느낌(주 1회 5분 이하). 편지를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이 오래 걸림.
- #115. 손목 외상 판결로 인해 한달 내내 깁스를 한 훈련병입니다. 주관적으로 별로 불편해 보이지 않는 다른 동기들이 병원을 이용해 가장 치료받기 좋은 시간을 놓쳐 10일 정도 미뤄졌습니다. 군내 의료시설은 좋지만 그걸 나쁘게 이용하는 훈련병들이 많아 정말 필요한 인원이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조기와 세탁기가 고장이 난 채로 방치되어 있어서 이용을 전혀 못 해 타 생활반 거를 이용하였고. 물, 화장실, 샤워 시간 빨래 시간을 적절하게 주었다고 생각하나 시설이 매우 좋지 않고 좁아서 이용을

제대로 못 합니다. 한 사람이 샤워는 15분 내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샤워기 한 개로 세 사람이 샤워를 15분 내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샤워 시간에 양치, 면도, 샤워, 이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건 더욱 말이 안 되며, 배식량도 문제가 많습니다. 다 같이 못 먹으면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군대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 건 용납이 안 됩니다. 배식 당번이 훈련병이기에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배식을 주는 자는 최소 훈련병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사회 소식을 접할 기회 부족. 훈련병이라는 이유로 사회 소식을 접할 기회를 통제받는 게 이해 안 됨. 일과시간 내 TV 시청 시간을 추가하는 방식 도입 희망. 현재 주 1회 주말에 약 15분가량의 TV 시청 시간이 존재하는데 횟수를 늘리는 것도 해결방안이 될 것임.
- #2. 조교대상 주기적 교육 필요함. 여가시간 부족(식사하고 오면 다음 학과를 준비하느라 양치질 못 하는 경우 발생. 훈련으로 인해 여가 시간이나 다음 훈련 및 시험 준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함).
- #3. 급식이 좀 더 맛있었으면 함.
- #4. 흡연 허용.
- #5. 인터넷 편지를 받지만 말고 우리도 쓰고 보냈으면 좋겠다. 편지·택배가 가는 시간을 더 줄여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 #6. 노후화되어 냄새나는 훈련 장비(전투모 등). TV를 볼 수 없고 책 등 취미생활 할 수단이 없다.
- #7. 훈련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함(예: 필요서류 우편관련 용무 등 공적인 부분 포함). 인원수에 비례하는 샤워 시간 배분 필요.
- #8. 샤워 시간 보장 필요(보장 안 되어 찝찝한 채로 잔 적 있음).

- #9. 조교들이 붙어서 행동 하나하나 갈구하고 얼차려 주는 것.
- #10. 최소한의 인권만 보장되는 군대 시스템을 고쳐야 함. 시간을 보장 해주지 않고 시간표에 없는 일정들이 생김.
- #11. 흡연 허용 희망.
- #12. 전화 시간이 더 길어졌으면 함. 핸드폰 수거는 옳지만, 통화의 제약은 완화 필요함.
- #13. 격리기간 동안 인터넷 편지를 받지 못해 가장 힘들었음. 격리기간 동안 인터넷 편지 받을 수 있도록 희망.
- #14. 외부와의 의사소통 (전화 등)이 좀 더 활발하게 되었으면 함.
- #15. 격리기간이 생겼다는 이유로 휴일·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16. 높은 조교들은 화를 내는 이유가 타당하지만 낮은 계급 조교들은 부당한 이유로 군기를 자주 잡음.
- #17. 식사 후 군기 안 잡았으면 함. 먹은 거 체할 듯. 조교들이 항상 화가 나 있어 말 걸기도 꺼려짐. 뭐만 하면 화내고 소리를 지르고 스트레스 받음.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것 같음.
- #18. 식사 후 개인 신변정리 시간을 10분 정도 보장해주면 좋겠음. (개인 세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빠듯한 일정 및 집합 때문에 이를 닦을 수 없음).
- #19. 낮선 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음.
- #20. 씻는 시간이 부족하고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고 재촉당할 때가 있다.
- #21. 항상 대기(몇 시간이고 기다리게 함). 금연. 사회물건 뺀 것 .
- #22. 매일 개인 정비시간에 만이라도 핸드폰 이용 가능 희망. 주 1회만 전화 5분간 하는 연락 제한과 군 외 정보와 이슈를 들을 수 없다.
- #23. 개인 일과 정비시간 부족. 여유시간 부족. 외부와의 단절. 개인공간 부족.
- #24. 핸드폰 사용. 흡연. 효 전화 시간.

- #25. 충분한 개인 일과시간의 보장 및 휴무일 중 휴무 시간 보장 필요.
- #26. 격리시 핸드폰 사용.
- #27. 일반 서적 반입 불가능 개선되어야 함.
- #28. 기본 권리가 침해받지는 않는 것.
- #29. 흡연.
- #30. 좁은 샤워실과 짧은 샤워 시간, 짧은 신변정리 시간.
- #31.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의무실 하나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간단한 의료조치 필요할 때 다 모아서 기지병원까지 가야 하니 너무 힘듭니다.
- #32.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는 것 같음.
- #33. 흡연 허용.
- #34. 조교들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임.
- #35. 흡연 / 효 전화 말고 지인한테 할 수 있는 전화 희망함.
- #36. 주 1회 5분 효 전화는 개선 필요.
- #37. 외부소식과 접할 수 있는 신문이 너무 적음. 군 기강을 다지는 일 또한 중요하지만, 외부와 너무 큰 단절은 군 기강과 연관성이 낮다고 생각함. 또 TV 시청이 일요일 10분 정도만 됨. 채널도 자유롭게 바꿀 수 없음. 빠른 개선 희망.
- #38. 흡연 허용. 간식 1주일에 2~3번 희망. 국의 간. 수면시간.
- #39. 단체 생활이지만 한 명 실수로 모두가 군기 훈련하는 상황이 너무 잦아 개선 필요.
- #40. 사회와 군대 사이 소통 벽이 막혀 있다. 무조건 TV 시청이나 효 전화 시간과 기간을 정해주는 그것보다는 폰 지급이나 TV 시청 허용 희망.
- #41. 격리기간 중 화장실 상태가 이용하기 힘들 정도였음. 정당한 사유가 아닌 기분에 따라 훈육의 강도가 달라지는 조교들 있음. 외부 소식을 접하기 매우 힘들고 제한적임. 샤워 시간 30분, 샤워기 약 30개, 인원 150명 이상으로 최악이었음.

- #42. 외부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뉴스는 매일 틀어줬으면 함.
- #43. 핸드폰 사용 허용.
- #44. 개인 정비시간 부족.
- #45. 조교 중 이상한 사람은 해고하고 엄중 처벌 필요. 전화 이용 가능 시간이 너무 짧아 불편함.
- #46. 조교들이 맨날 소리 지르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그냥 넘어가게 됨.
- #47. 강제 금연은 힘듦.
- #48. 훈련용 장비. 물품들이 너무 오래되어 낡거나 냄새나고, 제대로 작동 안 되는 것도 많음.
- #49. 단체 생활이지만 개개인의 목소리에도 신경 써 주기 바람.
- #50. 훈련 스케줄이 밀리면 개인 시간도 없음. 샤워 시간이 짧음. 아픈 데도 증상이나 크게 다친 게 아니면 의무 신청도 못 함.
- #51. 훈련을 받더라도 개인 시간 보장. 휴 전화 사용 시간을 10분 주 2회 희망.
- #52. 핸드폰 사용. 격리기간 중 수첩과 샤프·지우개 등 필기구 지급 희망. 지나치지 않은 군기 훈련. 강압적 태도 완화.
- #53. 격리기간으로 인한 살인적인 스케줄은 개선 시급. 전화 통화 1주일 5분 제한은 적당한 수준의 자율만을 보장하는 노예임. 이번 설문조사 또한 기본적인 일정 설명도 없이 일단 강당으로 집합시키곤 설문 실시하라 하는데 와서야 알았고 분명 일정표엔 아무 말도 없었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훈련소임.
- #54. 일과 후 핸드폰 허가. 갑작스러운 집합 명령, 예고 없는 학과 진행 및 일정 없기를. 지나친 강요와 강제가 없기를. 인권이 보장된 한 명의 군인에 대한 대우 기대함. 폭언 없기를. 소리 지르지 않고 얼차려 시키지 않았으면 함.
- #55. 격리로 밀린 훈련을 몰아 받는 것이 어려움.
- #56. 친절하 설명 기대.

- #57. 휴식제도 개편 시급. - 타군은 코로나 격리기간 중 필수훈련 일부가 없어졌다 함. 00훈련소는 격리기간 중 못했던 훈련을 몰아서 하고 일주일에 2번씩 배식 도우미, 불침번 등을 하니 쉴 시간이 없음. TV도 틀어주지 않고 전화도 1주일에 한 번만 부모님께만 5분 이내 허용 실정임.
- #58. 00훈련소 인터넷 편지는 3주차부터 가능하고 전화는 부모님, 가족만 하지만 시간도 부족함. 다른 군 훈련소처럼 규정이 완화되기를 희망.
- #59. 연락 수단 부족. 담배는 시간 정해 허용 건의.
- #60. 외부와 소통 못 해 가장 힘들. 소통 가능한 공용 핸드폰이라도 사용 허용 건의. 급식의 양과 질을 높여 주시길. 조교의 이유 없는 성냄이 있음.
- #61. 조교들이 우리를 화풀이 수단으로 이용 안 하기를 바람.
- #62. 우의와 침구류, 군 장비 상태가 안 좋음. 청결하지 못하거나 낡아서 훼손되어 있음.
- #63. 개인 시간 부족. 격리를 이유로 고된 훈련을 과도화시킴. 시간을 핑계로 대충 알려줌.
- #64. 군기 잡는다고 처음 만날 때부터 소리 지르면서 위협한 것이 가장 힘들었음. 별다른 잘못이 없다면 소리 안 지르고 조교들이 휴대용 마이크를 사용하여 크게 소리 지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음.
- #65. 가족과 연락을 못 하는 것이 힘들었음. 전화 제한 횟수와 시간이 너무 불편함. 핸드폰 허용은 안 하더라도 연락 가능한 수단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 #66. 하루 일과를 미리 알려주면 좋겠음 - 일정을 모르는 채로 무기한 대기하다 갑자기 불러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개인 정비시간을 더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람. TV 뉴스를 끝까지 보여 주기를 희망.
- #67. 우의에서 냄새가 너무 심함. 밥 먹기 전에 사람을 너무 힘들게

- 함. 효 전화도 1주일 1회 5분 수준으로 제한적.
- #68. PPT 자료를 통한 공지 사항의 정확도 제고 필요. 공지전달 속도 개선 필요.
  - #69. 효 전화사용 빈도 및 시간 개선 필요.
  - #70. 핸드폰 사용. 흡연은 훈련병이라도 기본권이라 생각함.
  - #71.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복장 간단히 .
  - #72. 일과시간 외는 개인적인 시간을 더 많이 보장해주기를.
  - #73. 부모님 외 친구들과 전화 할 수 있도록 개선 및 통화 시간 5분은 너무 짧음.
  - #74. 급식도우미 일하고 난 뒤 시간이 부족함(세면, 휴식 등).
  - #75. 집합 때 시간을 충분히 주었으면 함.
  - #76. 군수 물자 개선 필요(구형. 사용하기 꺼려지는 상태). 과한 동작 신속 요구 개선(군인의 자세가 맞긴 하나 과도함).
  - #77. 흡연, 핸드폰 사용 일부 허용 건의.
  - #78. 핸드폰, 컴퓨터 하고 싶어요.
  - #79. 흡연 건의.
  - #80. 사회와 격리 한다는 것. 가족들과 연락 기회가 적다는 것.
  - #81. 일반 장병처럼 일과시간 후 핸드폰 사용하면 좋겠음.
  - #82. 훈육관들의 지시가 다름. 그들 간 소통 필요. 이상.

## 2. 지휘관, 교관/조교

문제 29. 훈련병들은 '마음의 편지'를 통해 주로 어떤 문제를 제기  
혹은 호소하고 있나요? 아시는 대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시설에 대한 문제 의견 제시. 그리고 현재 사용 중 불편 사항에 대해 의견 제시.
- #2. 생활관 시설 노후.
- #3. 시설 노후. 동기생 간 문제.
- #4. 동기 간 다툼. 개인의 힘든 부분.
- #5. 시설에 대한 불만. 식사.
- #7. 훈련소 생활 중 훈련 강도. 동기들과 단체 생활 부분.
- #8. 시설의 불편한 점.(예: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 #9. 식사 순서가 맞지 않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훈련 집행 및 상황상 일정한 순서를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체 순서를 파악해서 균일하게 유지하는 중.
- #10. 생활용품 같은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하다. 동기생 누구 한 명이 구타 및 폭언을 하는 내용들, 조금이나마 불편한 것들.
- #11. 급식의 질 개선 문제.
- #12. 개인적인 의견을 몇 글자 적어 드린다면 훈련병들은 현재 본인이 입대를 하여 군인이 되기 위해 훈련병 신분으로 생활 중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사회에서의 습관적인 흡연 또는 전화사용을 무지 많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편임.
- #13. 훈련의 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한 것 같다.
- #14. 지급되는 보급품 생필품들이 조기 소진되었거나, 분실되었을 때 혹은 훼손되었을 때 이야기를 많이 함 .



- #15. 생활관의 불편한 사항.
- #16. 시원한 탄산음료 취식 희망. 번기가 자주 막힘. 세탁이 잘 안 됨.
- #17.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건의 사항.
- #18. 소대원들 간 불만.
- #19. 생활관에서 생활 하면서 건의할 내용 및 필요 물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키고 있음.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생활 여건 개선.
- #2. 훈련병 상호 괴롭힘. 보급품 교체. 정신적 신체적 고통.
- #3. ‘밥맛 없다’ 등 군인으로서 생각하지 않아야 할 쓰잘대기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
- #4. 주 1회 정도 가혹행위 / 폭언 제보.
- #5. 조교는 마음의 편지를 확인할 수 없음.
- #6. 번기를 뚫어 달라. 전화를 더 시켜 달라. PX를 더 자주 가고 싶다.
- #7. 전체적인 생활적인 애로 상황들.
- #8. 생활 간 건의 사항. 애로사항.
- #9. 대체로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에 대한 건의 사항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음.
- #10. 적응 문제. PX 이용 시간 늘려줄 것. 전화 및 뉴스 시청사용 제한 없애기 등.
- #11.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언어 행동을 하는 인원을 작성.
- #12. 조교 목소리 크게 해 달라 등 사소한 부분이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말들.
- #13. TV 시청 시간 및 식사 메뉴에 관한 내용.
- #14. ‘대대 설문’ 으로 본인의 불편한 사항을 제기함. 이들 중 대부분

은 이미 조치해줬거나, 부당하게 통제된 것이 없음에도 부당한 통제를 받았다고 하거나, 무리한 요구(사적인 문제들 조교에게 해결 요구)에 속함. 예를 들면, PX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중대에서 지급해 달라는(정해진 보급량보다 충분히 주고 있음에도) 요구함.

- #15. 보급품 교체 소요. 급식 개선 의견. 세탁 관련 통제.
- #16. 식사에 대한 불만. 문제가 있는 동기생에 대한 것들. 보급품 관련 문제. 시설 및 장비 불량. 교관 및 조교 불합리한 통제. 생활안내서와 부대 운영의 상이. 흡연 횟수 증가. PX 이용 횟수 증가.
- #17. 시설물 애로사항. 힘들어 하는 부분들.
- #18. 전화 시간이 부족함.
- #19. 배식 문제. 청소도구 보충. 시설물 사용 고장 내용.
- #20. 개인 고충. 진로. 주변 전우들과의 관계.
- #21.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적지만 때로는 과하다고 생각함. 일과시간에 TV를 보여 달라는 등 기간병들도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함.
- #22. 동료들 상호 구타, 가혹행위, 폭언, 욕설 등 보고. 개인의 궁금한 사항 문의. 생활하면서 불편 사항 호소.
- #23. 밥이 맛이 없다. 샤워 시간이 짧다.
- #24. 코로나 격리의 힘듦, 식단표 등.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시설물에 대한 불편 사항. 동기의 언행에 대한 고발.
- #2. 식사량(현재 개선됨).
- #3. 불침번 근무를 너무 자주 선다. 격리기간 동안 여러 통제와 제반 사항의 불편을 호소한다. 더위를 호소한다. 밥 양을 호소한다. (자율배식임에도) 배식 조를 하기 싫다. 분리수거를 하기 싫다.
- #4. 대체로 교관. 조교들에게 감사하다는 설문이나 교육 및 편의시설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 #5. 저희 중대는 교관 조교의 가르침과 노력으로 훈련병들 사이 관계가 좋아 훈련병들에게 마음의 편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 #6. 옆의 전우가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TV 자유롭게 시청 더 유하게 부탁드립니다.
- #7. 동료(생활관 동기) 간의 폭언. 욕설.
- #8. 동료 훈련병에게 폭언. 욕설을 당하거나 성희롱을 받을 경우.
- #9. 밥의 양이 적다. 화장실·세면장·샤워장에 개수가 부족하다.
- #10. 주변 전우와의 갈등. 급식 양에 대한 발언.(예: 김치가 적다.)
- #11. 생활관 내 훈련병 상호 욕설 사용. 시설물 불편 사항.
- #12. 편의시설. 건강 등 다양하게 받음.
- #13. 편의시설 불편. 식사량 부족(정량 배식).
- #14. 식사량을 늘려주세요. 시설의 불편.
- #15. 시설물. 상호 간 문제점 등.
- #16. 샤워실 이용(시간, 공간, 협소).
- #17. 개인 고충 및 개선사항.
- #18. 훈련병들 사이에서 트러블 및 적응이 어려워하는 훈련병들에 대한 상담 요청.
- #19. 식사의 질·양. 개인 정비 시간 부족.
- #20. 훈련병들 간 폭언 및 욕설.
- #21. 생활면에서 불편한 점들 제기.
- #22. 샤워실 온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 제어가 안 됨.
- #23. 동료 훈련병 간의 폭언·욕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급식문제. 세면 여건. 세탁 여건. 막사 불편. 에어컨. 보급품 분실.
- #2. 배식량 부족. 전화 시간 추가 건의.
- #3. 훈련병들 간의 다툼. 병영생활 행동강령 미준수 인원. 시설 문제 등등.

- #4. TV 시청 시간 늘려 달라. 덩다. 인터넷 편지 빨리 달라. 시설이 안 좋다. 훈련장 화장실 낡았다. PX 시간 늘려 달라. 교장이 멀다. 이동 간 버스 태워달라.
- #5. 훈련 중에 생기는 애로사항 및 건의 사항을 적거나 병영생활 행동 강령 미준수 인원을 보고하기도 한다.
- #6. 다른 훈련병에 대한 고충. 개인이 불편한 점. 예) 전화 이용 공공한 사항 등.
- #7. 생활적인 불편함은 다 질문을 적는다.
- #8. 인권침해. 도움이 필요한 전우. 시설물. 기타 건의 사항.
- #9. 식사. 전화. 인터넷 편지. 샤워. 빨래. 개인적 흡연 욕구. 운동(헬스). 자율적 시간 통제.
- #10. 시설물. 훈련병 상호 간 불합리한 측면. 주변 환자 인원 에 대한 애로사항 등.
- #11. 불편한 시설물(군장). 군 생활 궁금한 사항.
- #12. 생활의 불편함(시설물, 식당, 취침 등).
- #13. 시설물 관련 문제. 빨래 여건 보장. 흡연 관련 건의 사항. TV 시청.
- #14. 시설물 불편.
- #15. 시설물이 노후되어 있다. 식사량이 적다. 개인 정비 시간이 부족하다.
- #16. 표준 배식량보다 더 많은 식사를 요구. 시설 대비 과도한 입영 인원으로 샤워·전화 등 개인 정비 시간 부족 (한정된 자원으로 모두에게 충분히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어려움).
- #17. 식사에 관해서(반찬, 양). 흡연.
- #18. 식사량이 부족하다는 불만.
- #19. 시설물 불만(전화 생활관) 좁음.
- #20. 식사. 시설물. 교관. 조교 통제.
- #21. 식사. 시설. 기타.
- #22. 화장실 또는 세면장 수가 적은 편의시설의 문제.
- #23. 전화사용. 흡연 허용.

## □ 000 신병훈련소

- #1. 담배 핸드폰은 개소리다. 군인이면 훈련을 해야지 헛소리다.
- #2. 식량의 문제. 개인위생. 용변 시간 부족의 문제.
- #3. 배식 문제. 생활 여건. 인원은 많이 받으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매우 열악함.
- #4. 인권, 편의, 보장 충분히 되지만 너무 과한 것 같다.
- #5. 인터넷 편지.
- #6. 훈련 하면서 생활하는데 불편 사항.
- #7. 밥 많이 달라. 핸드폰 쓰게 해 달라. 가요 틀어 달라. 성관계하고 싶다 등 이상한 소리 하는 인원 있음.
- #8. 식사 관련. 억울한 군기 훈련 및 벌점에 대한 호소.
- #9. 배식관련 문제(양이 매우 적다).
- #10. 배식문제.
- #11. 시설물.
- #12. 훈련병의 수준이 낮습니다.
- #13. 밥량이 적음.
- #14. 식사량 부족 건의. 소포·인터넷 편지 횟수 늘려 지급. 식사 당번 용변 시간 확보. 에어컨 가동.
- #15. 훈육을 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소지라던지. 또는 시설물 및 배식량 등의 불편한 점들.
- #16. 1~4주차는 밥을 더 달라, 혼나기 싫다 등 부정적이며 불만사항들이 나오며, 5~7주차는 본인들의 잘못 하는 것을 느끼고 교관들에게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편지의 내용.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함.
- #17. 부족한 식사량 불만, 훈련 분위기 해치는 동기 훈련생 고발. 더욱더 엄정한 군기가 요구되는 훈련 및 체력단련 희망(쉽게 말해서 더 빠르게 훈련 및 체력단련을 시켜달라고 주장).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편지.
- #2. 훈련병들과의 싸움.
- #3. 시설 이용과 불만 사항. 욕설하는 전우 신고.
- #4. 시설 발전.
- #5. 조교, 간부들 칭찬.
- #6. 훈련병과 훈련병 사이의 갈등.
- #7. 전투원들 간의 불만 사항 제기.
- #8. 청소도구 구매. 시설물 고장.
- #9. 보급품 도난. 시설물 불편(샤워기 부족 등).
- #10. 보급품 분실. 개인적인 어려움. 폭언 욕설 경험 시 등.
- #11. 식사량 부족.
- #12. 생활관내 분실.
- #13. 빨래 분실. 식사량 부족.
- #14. 보급품 분실, 식사량 부족.

## □ 000훈련소

- #1. 밥이 부족하다. 시설이 너무 안 좋다.
- #2. 시설물 문제. 불편 사항.
- #3. 직접 말하지 못하지만,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건의 사항이 나 시설에 대해서도 많이 적고, 가끔 훈련병들끼리의 다툼을 적기도 합니다. 간부나 분대장에 대해 서운함이 나올 때도 가끔 있습니다.
- #4. 기본권 침해 관련. 시설물 불편 사항. 병원사용 건의 불편 사항. 칭찬 간부. 봉사.
- #5. 저희 중대는 마음의 편지가 항상 열려 있지만, 훈련병들이 마음의 편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병들이 힘든 상황이 있으면 간부

님들이나 조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상황들을 잘 해결해주려고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 #6. 생활불편. 흡연. 식사 문제. 시설 노후 등.
- #7. 배식임무 간 선/후 배식의 임무 차이. 배식 받은 반찬의 양.
- #8. 시설물이 열악하다는 내용. 현 거리두기 단계 하에 배식체계의 비효율성(소대 단위 식사로 인해 속도가 저하되는 문제. 선후 배식 조 교대가 있을지라도 후 배식 조에 쏠리는 대부분의 뒷마무리 등).
- #9. 본인의 과업에 대한 불만 제기.
- #10. 남의 입장보다는 본인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함. 예를 들어. 분대장이 인편을 늦게 준다, 소포를 늦게 준다고 하는데 분대장들이 안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인터넷 편지 용지가 바닥나거나 army tiger 기간이라 소포를 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본인들은 분대장들의 잘못이라 한다.
- #11. 노후된 시설물 문제. 의료인력에 대한 컴플레인. 생활관 동기들간의 문제. 조교와 교관의 문제점.
- #12. 시설이 낡았다. 온수 불만. 배식량이 적다.
- #13. 반찬이나 양 문제. 사회에서 일어난 개인 사정. 부모님과의 조우 등.
- #14. 개선사항. 문의 등 다양하게 이용 중.
- #15. 급식. 시설물, 부대 개선 문제.
- #16. 교육훈련 중 본인이 힘든 점과 안 되는 점을 주로 적고, 조교나 교관에게 질문이 있으면 적는다. 질문사항은 교관간담회를 통해 답변해 줌. 조교나 교관에게 감사한 일도 많이 적음.
- #17. 시설. 진료 문제.
- #18. 시설 노후화. 배식 위생 및 양(애초부터 적게 나눔). 군 의료시설 불친절.
- #19. 시설 고장. 교보재 노후.
- #20. 흡연. 핸드폰. 복무 부적응.
- #21. 시설이 열악하거나 본인이 훈련 간 고충 및 건의 사항을 작성.

- #22. 동기들 사이의 불편한 점. 고자질.
- #23. 식단 맛. PX 이용 확대. 전화 이용 요구. 냉난방 문제 등.
- #24. 동료 훈련병의 따돌림. 시설물 낙후.
- #25. 화장실 노후.
- #26. 식사량. 샤워 시설. 샤워 온수. 공용시설물(화장실, 야외 교장 등). 전화 시간 및 PX 이용 횟수. 세탁시설.
- #27. 건의사항 또는 궁금증.
- #28. 코골이. 밥 문제 등.
- #29. 분대장들 통제 간 폭언. 시설 불편. 본인 고충.
- #30. 노후 시설. 통제 방법.
- #31. 시설물. 의료시설(군의원 불친절). 식당 밥 부족.
- #32. 전화 통화 시간 연장. 흡연 욕구 절제 곤란. 분위기를 저해하는 타 동료들 신고.
- #33. 본인이 당했던 부당한 일을 문제 제기 시 이용함.
- #34. 동기 훈련병들이나 분대장들의 욕설.
- #35. 밖에서 비료 냄새 강함. 시설 노후 등의 어쩔 수 없는 내용.
- #36. 시설 노후(화장실 수압. 이물질에 의한 막힘).
- #37. 위생. 급식량.
- #38. 전화와 PX 이용을 더하고 싶다.
- #39. 시설물 고장 또는 격리.
- #40. 시설물 문제.
- #41. 노후시설.
- #42. 배식 음식의 양 관련 문제. 시설 노후 문제.
- #43. 시설물 관련 질문 및 건의. 분대 내 인권침해 훈련병 고발. 핸드 폰 사용 관련.
- #44. 주로 부대원들 간에 사소한 갈등 .
- #45. 시설물 건의.
- #46. 시설물 노후.



- #47. 시설물 열악.
- #48. 시설 노후. 급식 양. 의료 불친절.
- #49. 시설 노후(샤워, 세면, 화장실, 냉난방).
- #50. 식당에서 식사 시 덥다. 생활관 온도 낮춰 달라. 전화사용 시간 5분에서 10분은 너무 짧다. 메뉴가 질린다.
- #51. 생활관 내 불편한 점이나 동료 훈련병 간 불화나 부적응으로 인한 고민을 호소함.
- #52. 시설 열악. 생활관이 덥다. 전화사용 필요. 식간 영양 불균형. 식사량 적어 배고프다.
- #53. 시설. 교육. 피복 사이즈 교체 .
- #54.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받고 있음.
- #55. 세면·화장실 사용 시간 부족. 화장지 부족.

#### □ 000 신병훈련소

- #1. 너무 빠르게 훈육함.
- #2. 본인의 생각을 부풀려서 적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빈발.
- #3. 허위 신고가 대부분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
- #4. 훈련병 위주임. 우선적인 게 뭔지 알고 계셨으면 함.
- #5. 상담 신청.
- #6. 심리적 불안감 및 동료들과의 다툼. 다른 동료들의 비행 사실.
- #7. 매우 만족.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반찬량이 적다.
- #2. 급식 양이 적다. 격리기간 동안 화장실·세면장 이용이 너무 제한된다.
- #3. 밥양이 적다. 흡연이 가능한 지 등.

- #4. 급식. 생활관 및 편의시설 여건과 상태 등.
- #5. 생활 간 불편한 점. 개인 이기적인 내용이 다수 있음.
- #6. 시설물. 세면·세족 시간 부족. 배식량 부족.
- #7. 각 개인의 필요 여건 개선방안 호소. 큰 문제 제기는 없음.
- #8.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들. 개선 희망 사항.
- #9. 통화·세면·세족·샤워 시간 부족. 인터넷 편지·택배·편지의 발송. 기타 시설물 노후화.
- #10. 동료 훈련병 문제에 대한 신고. 본인이 느끼는 불편한 점 등.
- #11. 시설. 통제. 훈련이 힘들다. 조교가 별것도 아닌 걸로 혼낸다.
- #12. 주로 불편 사항. 다만 이를 모두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낌.
- #13. 배식 분대 운영으로 훈련병들이 직접 배식하는데 양 조절 실패로 애로 발생.
- #14. 식사. 배식. 동료 불편. 시설물 등에 불만.
- #15. PX 이용. 전화. 급식.
- #16. 식사량. 샤워. 화장실 등.
- #17. 훈련병끼리의 따돌림. 시설물에 대한 불만.
- #18. 생활관 내 따돌림. 애로 및 건의 사항.
- #19. 전화 시간 연장. 흡연하고 싶다. PX 사용 시간 연장.
- #20. 배식량. 시설물 고장.
- #21. 같은 훈련병에게 인격 모욕. 폭언. 욕설 / 성 군기사고 / 식사 시간 및 샤워 시간 보장. 인터넷 편지 등.
- #22. 전화사용 여건. 급식의 양과 맛. 식당 위생에 대한 애로. 세면·세족 시간 보장 / 그 외 개인적 불편 사항.
- #23. 식사량. 동기들과의 문제. 세면·세족 시간.
- #24. 담배. 핸드폰 사용 건의 / 외출·외박 건의 / 타 중대 훈련병과의 트러블 / 보급품 분실로 재불출 희망/ 부식 종류를 늘려 달라 희망.
- #25. 반찬 양 부족. 개인 정비시간 부족. 전화사용 시간 부족(10분 이상 요구). 교육시 쉬는 시간 추가 호소. 흡연. 기간 후 귀가 호소.

문제42. 훈련소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 등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신병훈련소

- #1.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면 훈련병 훈육요원 모두 원활한 훈육 훈련이 될 것이다. 주기적으로는 시설적인 측면만 개선되어도 좋을 것이다.
- #2. 노후된 생활관 개선. 개인주의 신세대 장병에 적합한 생활 규정.
- #3. 훈련병 위주의 인권 교육·훈련병 인원 실태 조사뿐만 아니라, 훈육요원에 대한 인권 실태 조사·교육이 절실함. 인권은 하위계급만 보호받는 것이 아닌, 사람 누구에게나 보호받아야 마땅함. 언론이나, 기타 조사기관 어디에서도 훈육요원의 노고와 고충을 조사하지 않음. 요즘은 훈련병들이 많은 정보를 접하고 들어옴. 정당한 체력 단련 지시·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을질’ 하는 경우가 생김. 훈련병이 ‘마음의 소리’ 지휘관에게 편지 등을 악용한 방법으로 훈육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발생함. 10년 이상 지켜온 명예가 훈련병 ‘을질’ 에 훼손되고 부모가 담당 훈육 요원에게 전화해 국민청원을 넣겠다, 우리 아들 생일이니 사진을 찍어 보내라, 제대로 된 훈련이 되는지 말해 달라 등 불필요한 연락으로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 #4. 훈련병 인권과 더불어 훈육 요원에 대한 배려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5. 훈육 요원으로서 인권 존중도 중요하다. 꼭 필요한 훈련까지 축소되어 군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 #6. 기본적인 시설관리 문제.
- #7. 훈련병들 인권에만 너무 집중되어서 훈련시키는 훈련 교관들의 인권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으로 인하여 훈련을 축소하고 훈련을 안 하게 된다면 왜 훈련이 있고. 훈련소는 왜 있으

며 정말로 군인이 맞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강인한 군인을 양성하려면 훈련이 당연히 필요하고 그만큼 힘듦이 있는 법인데 그걸 막는다면 차츰 훈련은 없어질 겁니다.

- #8. 훈련소 발전을 위해 많은 언론·외부 사회는 교관들이 아닌 훈련병에 집중한다. 훈련병의 인권 보장을 추진하지만 정작 훈련 교관들의 인권은 계속 추락해간다. 우리는 사회의 관심·언론으로 인해 항상 불안하며 눈치를 본다. 결국 제대로 된 훈육을 할 수 없다. 인권, 중요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또는 자신의 인권을 주장하며 훈육 요원들에게 막 대하는 훈련병들만 늘어갈 뿐이다.
- #9. 훈련병들이 훈련소에서 담정너 식의 심의위원회 및 군기 지도위원회로 인해 억울하게 유급되는 것을 목격함. 허위신고를 접수 받고 신고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차후에 발생할 일의 책임회피 및 군기 지도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실적을 추가하기 위해 고의로 억울한 훈련병을 유급시킴.
- #10. 조금만 엄격한 말이나 말투를 하면 전부 다 신고한다.(훈육을 위해 하는 것인데).
- #11. 인권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고 이곳은 학교가 아닌 군인을 만드는 곳이다. 규율이 엄격해야 하며 훈련소 훈련기간이 한 달인데 기본적인 인권은 지켜지되 너무 훈련병 입장만 생각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 #12. 훈련소의 발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의 질문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훈육 요원들은 훈련병들의 인권 보장이나 휴식 시간 보장, 또 공중전화 사용 등 훈련병 신분에서의 최대한의 인권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무조건적인 인권을 이야기한다면 훈련을 시키고 군인다운 군인을 양성하는 점에서 몹시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당연히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는게 마땅하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으나 군인다운 군인 인성 완벽한 인권 존중 두마리의 토끼를 전부 붙잡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질문이 오로지 훈련병을 위해 작성이 되어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훈육 요원들은 훈련병보다 늦게 잠들며 일찍 일어나고 훈련 준비에 항상 휴식 시간마저 모자란 상황입니다. 훈육 요원 역시 군인이면서 인권을 존중받아야 할 인간이라는 점을 생각해 주십시오.

- #13. 군은 특수한 집단입니다. 상하 수직관계가 성립되는 곳이고 특히나 훈련소는 군기 확립이 확실하게 지켜져야 하는 곳입니다. 인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친절과 배려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강한 군이 아니라 불만 불평만 늘어놓는 철없고 나약한 군인들만 늘어나게 할 뿐입니다.
- #14. 현 상태에 만족합니다.
- #15. 훈련병들의 인권 중요하지만 인권 때문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축소시키는 사례가 간혹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인권 보장을 해야지만 훈련소 발전이 될 것 같다.
- #16. 생활관 개선. 세탁기·건조기 등 물품 지원 홍보 강화.
- #17. 훈련병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훈련 교관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매우 저조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근의 일례로 ‘추락한 교관’과 비슷하며 훈련병들이 훈련소 교관들에게 불량한 태도를 보여도 교관들이 할 수 있는 처벌은 미미합니다.
- #18. 훈련병의 인격은 존중하라고 하지만 훈련 교관들의 인권은 훈련병들에게 무시당하고 상부에서도 모른척 한다. 우리는 훈련병의 인권을 침범하면 행정적 조치를 받지만, 훈련병이 교관들의 인권을 침해 할 때는 상부에서 묵인하고 넘어간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생활 여건 개선.
- #2. 훈련병의 인권만 중시하는 쓰레기 같은 체제. 현재 상황을 깨트려

야 한다. 얼마나 웃글이 마음에 와 닿고 실천해줄지 모르겠지만?.

- #3. 외부 강사 전날 인권 교육.
- #4. 인권을 챙길 거면 아예 훈련도 축소시키던지 아니면 훈련을 계속하고 인권을 축소시키던지 쫘 1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하고 있어서 이도 저도 아니고 그냥 매우 힘듭니다.
- #5. 훈련병 말고 조교 인권 휴식 여건 승진 좀 해주세요.
- #6. 이 좋은 시설에서 어처구니없는 애로 사항들이 나옴.
- #7. 병원 자유롭게 가기
- #8. 조금 더 질 높은 식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 #9. 코로나 종식
- #10. 훈련병 인권이 대두되게 되었던 사례의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과연 그들의 물·휴지가 부족했던 것은 훈련소의 잘못인가? 군 보급시스템의 문제인가?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나온다 한들 결국 보여주기식 해결일 뿐이다. 군인은 시민이지만 그전에 군인이다.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걸 이해 해야 한다. 시민의식 개선 교육도 필요하다.
- #11. 언론보도 및 대중화되기 전 말단 부대에서 건의 및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상급 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조치를 한다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니 사건이 발생되고 언론보도가 되고, 안타깝다.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인데 알면서 불을 끄지를 못하니.
- #12. 훈련소 발전을 위해 조교들이 훈련병으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 #13. 인권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만큼 적절한 통제 대책의 필요성. 자유로운 흡연, 핸드폰 사용 가능. \* 지켜지지 않을 시 유급 또는 귀가 조치.
- #14. 인력 보충. 제도 개선. 예산 확충
- #15. 훈련병들도 일과시간 이후 및 주말 휴무일에 핸드폰 불출하여 사회와의 단절을 없앴으면 한다.

- #16. 핸드폰 전체 사용
- #17. 훈련병들끼리의 파벌 다툼이 인권 문제 이후 많이 제한되는 통제  
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한다.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한다. 생활적인 면에서는 인권이  
보장되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위험한  
훈련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제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 #18.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과한 인권 보장이라고 생각함.
- #19. 기본적인 인권만 보장해주고 훈련병들은 훈련받으러 온 것이지 담  
배를 피우러, TV 보러 온 것이 아니다. 쓸데없는 인권 보장 줄이  
고 교육훈련 중점적으로 교육했으면 좋겠다.
- #20. 훈련병들의 인권 관련 개선을 위한 말들을 듣기 전에 그 모든 것  
들을 통제해야 하는 조교·간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인권을  
보장해 줘야 훈련병들의 인권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대 설문이라던 지 모든 설문에 있어서 기간병·간부 대  
상으로 하는 설문은 없고, 전부 훈련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만  
힘을 쓴다.
- #21. 제한된 장소 및 공간, 교육훈련 등 전반적인 시간이 조정되어야함.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훈련소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너무 훈련병들의 인권만 높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의 인권 논란 이후 한 기수 한 기수를  
받을 때마다. 평일 교육 시간 같은 경우에도 누워있는 인원들이 빈  
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조교가 생활관에 들어왔음에도 모른 채하  
며 누워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습니  
다. 통제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쉽사리 하지도 못합니다. 훈련소가

발전하고 조교들도 더욱 힘을 내려면 훈련병들의 인권과 같이 조교·교관들의 인권도 생각하고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2. 훈련병 인권을 위해 조교들의 인권의 힘이 악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느낀다. 훈련병 인권에만 세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조교들도 한번 봐줬으면 한다.
- #3. 훈련소가 발전하려면 말도 안 되는 방침을 빠르게 개선하고 마찬가지로 기간 장병의 여건 보장이 병행되어야 한다.
- #4. 훈련소의 발전과 훈련병 인권 증진 등을 위해 고생하시고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병들의 인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교관과 조교들의 인권에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들의 인권도 중요한 만큼 조교들의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 #5. 훈련병들의 인권은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 #6. 훈련병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 조교들의 인권부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 추진 및 격리로 인한 개인 정비와 핸드폰 사용과 취침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교들이 울분 토하면서 꺾 참으며 훈련병이 욕하고 누워있고 지시 불이행을 해도 조교들은 훈련병의 인권만을 추구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데 그럼 조교들의 인권은 없습니까? 조교도 사람이고 같은 군인인데 훈련병을 받는다는 이유로 선발인원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니 조교들은 쓰러지고 무너질 뿐입니다.
- #7. 훈련병의 인권이 중요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조교들의 인권이 아주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훈련병에게 무시를 받는 등 일은 늘어나지만, 인권이 점점 무시당하는 것 같습니다.
- #8. 훈련병의 인권을 증진시키는 만큼 현장에서 일하는 교관·조교의 노고를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훈련병의 정병 육성을 위해 있는 교관·조교들이 훈련병의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면서 궁극적인 목표이자 근본적인 교육훈련에 영향을 미쳐 더 올바르게 많은 훈련병을 양성하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9. 훈련병 인권 문제 다 좋다. 하지만 해야 할 교육 훈련들을 인권 문제라는 이유로 하지 않고 넘어가고, 흡연 시간 없으니까 교육 빨리 끝내고 흡연시켜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훈련병을 교육하는 훈련소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 #10. 훈련병이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기간병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간부가 본인 임무를 기간병에게 떠맡기고 중대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행위, 다그치는 행위 등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와 병사들로 하여금 적극성과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 #11. 훈련병 인권을 위한다면 쉬는 공간인 생활관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최신으로 교체하고 넉넉하게 공간 편성 필요. 예산이 부족하던 이유로 부실 공사해서 10년도 사용 못 한 건물들 물이 새고 난리도 아님. 국방비 예산 줄이지 말고 늘려서 복지에 더 많은 예산 필요. 초코파이 하나 사준다고 격려가 아니고 복지가 아님. 안 되는 건 군인정신 강요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관심이 없고 교관 지휘관 희생만 강요함.
- #12. 편의시설.
- #13. 의식주의 개선, 의류 보급품 사이즈가 없다고 받는 부분이 딜레이 됨, 식: 조리한 거 1~2시간 지난 음식은 맛없음(취사 시스템의 개선 필요), 주: 240명 정원의 건물에 270명씩 집어넣는 것은 좀... (7평짜리 2개로 25명이 사용).
- #14. 시키는 것만이 다가 아니며 관련된 준비도 필요함. 그냥 PX 이용시켜 등등 지시는 하지만 실상 여건은 보장 안 됨. 여건을 만들고 조치 후 지시가 필요.
- #15. 훈련병 인원보다 시설(생활관), 편의시설(화장실, 세면장, 샤워장) 등이 부족하다. 시설에 맞게 훈련병이 들어오던지 시설을 개

선할 필요가 있다.

- #16. 훈련병뿐만이 아니라 교관·조교들의 인권도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훈련병들의 인권만 강조되다 보니 훈련병이 설문으로 조교들을 협박하는 등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식사 추진도 2주로 늘어나고 훈련병들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해야 하는 일도 늘어나고 작업·임무도 모든 부분에서 늘어난 조교들에게 기수 위로를 4일에서 5일로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7. 규율과 정해진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기초군사 과정이며, 군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는 첫 시기인데, 바라는 모습은 참되고 멋진 군인, 강한 군인인데, 개인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여 훈련에 대한 의지 결여, 이기주의 난무한 병영생활로 이어지는 모습임. 현실은 바라는 것은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나태한 군의 모습이 되어 가는 안타까움.
- #18. 세면·샤워 시설에 대한 증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전화기 대수도 늘어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19. 훈련과 인권은 상반된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인권을 가지고 악용하는 부분이 많음.
- #20. 지금 그대로 유지.
- #21. 교육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여유롭게 식사를 시킬 수 없다.
- #22. 훈련소 발전을 생각한다면 먼저 군 기강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 생각해서 훈련을 약하게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에 대한 얼차려 등 군 기강 확립에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23.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나라에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키워야 하는 것이 훈련소의 목적이라면 요즘 훈련소는 그와 반대로 편하지만 인권 얘기하며 더욱더 편하고 이런 양상으로 인해 그냥 노는 분위기의 군대가 됐습니다. 훈련병을 훈련병답게 훈련할 때는 TV 시청, 핸드폰 사용, 늘어나는 샤워 시간, 없어지는 훈련 등 이런거 곤란

합니다. 예전 군대의 모습을 찾고 싶습니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인권 증진 시 훈련의 시간 분배. 개인 정비 시 충분한 시간 부여를 해야 하고, 시설이 우선 만들어 져야 함.
- #2. 훈련병들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제한되는 부분은 감수해야 하고 인권 보장 때문에 훈련에 방해가 된다면 이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3. 입소 인원은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받아서 방역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설 또한 격리 시설이 부족하여 1개 중대를 개조하여 격리하는 이상한 형태의 격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소 초기에 집단 감염은 절대 막을 수 없음. 언론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체제로 여태껏 운영하였으나, 교관·조교만 잘못이라고 보도한다.
- #4. 훈련병의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명목하에 통제에 애로를 겪는 훈련소의 교관 조교가 늘어나고 있다. 선진 병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는데 갈수록 이상만을 쫓고 있는 추세이다.
- #5. 훈련병들의 인권이 존중될수록 통제하는 조교는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극단적 인권 존중이 아닌 훈련병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 #6. 군대 고충 처리 절차를 교육하고 준수하지 않는 인원을 엄격히 처벌.
- #7.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에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나 다 만족할 수는 없다. 훈련소는 피와 같은 땀을 흘려 스스로 전투 감각을 느끼고 배우며 체득해야 하는 곳인데, 요즘 세대는 신체적 부적합, 정신적 문제가 많으며 다수 개인적인 성향으로 20년 이상 사회생활을 하며 입대하였는데 5주 6주 동안 쉽게 바꾸기 어렵다. 우리 알려주고 지도하는 간부 및 통제를 도와주는 조교 또한 기준점을

잡기 어렵다.

- #8.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침으로 내려줘야 하는데 두루뭉술한 느낌을 받음. 마치 현장에서 임의 판단하고 잘못이나 인권 문제로 책임져야 하는 그것도 현장임. 00 훈련소도 굳이 그렇게까지 통제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9. 의료체계 개선. 의무대가 조금 더 치료 가능한 질병이 많으면 더 건강하게 교육받을 것 같다.
- #10. 훈련병 중심의 개선만 생각해봐야 의미가 없다. 1인당 40-50명의 많은 훈련병, 1주일에 신상 파악, 문제가 생긴다면? 현실적으로 더 많은 개선과 관심, 조치를 받기 위해선 교관의 수가 혹은 조교가 맡고 있는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한다.
- #11. 군인으로서 인권은 자신의 인권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 동안 자신의 인권만 바라보다가 국민의 인권을 지킬 수 없는 군인으로 성장할까 봐 교관으로서 걱정됩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너무 인권을 과잉보호하려다 보니 제대로 된 훈련양성이 되지 않아 조교로서 교육 생활의 군 기본자세. 군 기강이 해이해짐을 느꼈음.
- #2. 더욱 엄격한 훈련 생활을 해야 함.
- #3. 언행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조심하면 좋을 것 같다.
- #4. 훈련소 발전을 위한 면접을 통한 훈련병 선발 제도 부활.
- #5. 훈련병들의 피복. 장구류 보충. 식단 식사량 증가.
- #6. 훈련병 인권이 중요하지만 훈련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음. 제대로 여건은 갖춰지지 않았는데 입영 인원만 늘리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토요일에 기존 체력검정을 시행했는데 언제부터가 금

요일로 바뀌었음. 토요일 체력검정이 없는데 굳이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 #7. 000기 인원은 약 1,300명, 소대별 담당 교관은 32~34명,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 생활하는 측면에서 의식주가 너무 제한된다. 000기존 입소할 때 인원수용(건물기준)은 최대 608명이나. 현재는 50명이나 더 많고 시설은 같으니 좁은 데서 자고, 씻는다. 애들 입영을 200~400명 줄여야 한다. 그래야 쾌적하게 생활한다.
- #8. 흔히 현대사회는 개인 간의 거리가 늘어났다는 말이 있는데. 즉, 단체 생활을 하는 군대에서 개인 간의 거리와 공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용시설 사용기준을 인원당 몇 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여 넓은 공간을 보장할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 #9. 훈련병들의 인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교관들에게 과시하고 권리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다소 발생합니다. 교관들 입장에서선 통제가 힘들고 현실적으로 군기가 더욱 빠져서 사고 발생 위험이 다분합니다.
- #10. 부대 장구류(수통, 방독면, 대검 등)가 부족한데 인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타 교육에서 불출 반납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짐. 몇백 개씩. 지휘부에서 지시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음. 대체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됨. 훈련 조교로서 자부심이 축소되고 있음. 훈련병 인권이 있듯이 교관 인권도 보장되었으면 좋겠음. 제발 면접이라도 보고 입대했으면 좋겠음. 체력은 키울 수 있으나 인성은 변할 수 없다.
- #11. 배식량 증가(개인 할당량). 부대 시설물 재개편. 전반적 미흡.
- #12. 인권이라는 명제를 다른 방식으로 인지하여 악용을 하는 훈련병들이 대부분이다. 훈련병이라는 신분 속에서 상급 부대에서 지시되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현실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않고 제대로 된 훈련이 어렵게 느껴진다.
- #13. 인권이 강화되면서 인원들이 그냥 "나 안 해" 마인드를 가지고 행

동함. 이걸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 인권이 강화되면서 군이 약해지는 요즘 학생 어린 나이 세대들이어서 개념 상식이 사라짐.

- #14. 훈련병 인권 증진도 좋지만 그로 인해 인권 보장이라는 방패를 들고 기간 장병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교관들에 대한 여건 보장이 맞지 않다는 생각(중사임에도 지정된 필수 편제. 상사1. 중사7 등 이와 같은 한정된 편제로 실무부대 동료들보다 현실적으로 뒤처짐). 훈련소 발전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산 반영이 많이 필요함. 000에서 입영인원은 늘어놓고 병기·무장·시설물은 그대로인데 지급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급한 사람이 찾는다고 실무부대로 빌리러 다니고 본인 사비로 구매하는 일이 많음. 훈련병들이 제일 불편하다는 게 시설물, 물자 부족임. 현실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 이해, 교육밖에 없음.
- #15. 훈련병의 인권도 중요하나 훈련 교관들의 인권도 중요하며 의식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통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 #16. 기수별 과업표를 만들 때 실무자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훈련 시작 시간이 08시30분, 09시 진행되어 기상 시간이 05시, 05시30분 등 수면 여건 보장이 다소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 훈련복귀 이후 병력을 통제해야 할 소대장들에게 수사관·감찰 등에서 조사 명목하에 과업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다.
- #17. 식당 배식 간 정량 배식이 제한되어 불만이 발생한다. 훈련소 기간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부족하여 일과시간 준수하다 보면 개인위생 휴식 등이 부족하다. 사실 여유가 없다. 우리들의 의식 개선 필요하다.
- #18. 훈련병들을 양성하는 훈련교관들의 노고를 인정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 인권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열외의식은 높아지고 훈련 분위기도 흐려지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인원들을 끌고 가려 하니 당

연히 교관과 훈련병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다가 교관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육해지면 처벌받고 신고하게 되어 평생 군 생활에 안 좋은 기록이 생긴다. 인권이 중요하지만, 인권은 존중해주되 훈련은 강하게 하는 단어가 지금까지도 힘든 언어인 것 같다.

- #19. 교관들의 인권 존중은 언제 일어나는지?. 훈련병들 TV, 훈련 등 미 실시 되지만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훈련보다는 전화사용에 목숨 거는 훈련병이 많음. 교관 인원수 증가 필요. 1개 소대 80~85명. 1개 소대당 담당 교관 2명. 실무부대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음.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훈련소에는 훈련병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병사인 조교들도 있는데 왜 자꾸 훈련병들만 그렇게들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군대는 사회와 엄연히 다른 특수성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그런데, 사회에서와 같은 매우 살기 좋은 삶을 위한 인권 보장에만 신경을 쓴다면 차라리 모병제로 전환해서 잘 챙겨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
- #2. 훈련병 인권이고 뭐고 교관 조교들이 양성할 맛이 나와 훈련병들을 잘 이끌어 가지 훈련병 여건 보장해 줄 거 다 해주고 편하게 해주면 군기가 안 잡힌다고 생각. 신교대 조교들은 쓰레기 같은 시설에서 지내고 훈련병들은 새로운 건물. 지금은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훈련병 인권은 하늘을 뚫으려고 하고 조교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는데 군대 거꾸로 돌아감. 기간병들 시설을 발전시키던가, 편의시설 증진. 다양화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여건 보장 조교 임무 수행 중 부대 경계까지 일반 야전부대에 비해 개인 정비 시간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함. 기간병을 늘려야 할 것 같음(현재

줄이는 중).

- #3. 훈련소에서 전투원들이 너무 편하게 지내 군기가 잡히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교육 또한 어려워짐.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봄.
- #4. 훈련소에 들어오는 전투원들이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몸이 아픈 인원들이 들어와서 이야기해보면 군 생활하면 낫는다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 #5. 훈련병 핸드폰 사용 어려움.
- #6. 훈련병들의 인권을 존중하듯 교관·조교의 인권 또한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7. 자꾸 인권이 바닥이라는 식으로 인지하고 이 설문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충분하고 얼마 안 되는 인원들이 대다수의 인원을 통제하면서 지금보다 나은 복지를 요구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함. 간부·조교는 누군가의 소중한 국가의 아들·딸 아닙니까?
- #8. 충분히 인권 교육 보장을 해주고 있음. 다만 개선되어야 한다면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교육청)의 문제가 되는 것을 왜 국방부 탓을 하는지, 이게 가장 큰 오류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 #9. 인원들의 생활환경 또는 대우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해서 군인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을 못 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
- #10.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살아가며 우리는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고 배웠습니다. 권리는 누려야 할 것. 의무는 해야 할 것. 국방의 의무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며, 의무를 다하는 과정에 기본권이 일정 제한될 수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기본권과 인권만 보장한다면 의무 따위 상관없어지는 것이 맞는지. 과연 우리가 진정 군인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군대는 군대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1 시설물 개선이 시급하나 이는 개선한다고 모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용 능력을 가져져야 함. 예로 특급호텔 수준의 10



평 호텔에 적정인원은 2명인데 10명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임. 현 시설물도 적절한 인원이라면 환경적 측면에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함.

- #12. 훈련병 생활관에 TV로 뭘하냐는 질문이 있는데 애초에 TV가 없기 때문에 더 관심이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시설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합니다.
- #13. 훈련소 구막사의 경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 돼 있고 기준에 비해 모자란 편의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개 교육에 880명의 인원을 중대별로 220명씩 관리하다 보면 부족하고 열악한 시설 속에서 더 많은 관리소요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간 교육 수용 인원을 과감히 줄이고 통제하는 편제 관리 소요와 인원확충. 증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식당 민영화 및 관리를 전적으로 민간 위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급식량 및 잔반량 모두를 신경을 써야 하고 현재의 지원 능력과 시설로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교육 인원과 기간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정신과 진료 관련 인원 확충 여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14.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격리단계가 4단계인데도 입영하는 인원이 너무 많아 훈련병뿐 아니라 조교 간부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입영 인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막사의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폭염 주의보인 날씨에도 취사장에서 너무 덥게 밥을 먹고 있습니다. 현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보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5. 이미 훈련소에서는 매일 매일 훈련병들 인권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개선되고 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훈련을 정상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교육훈련 간 각종 지원 사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제한사항 발생 시 즉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함. 생활관 현대화 시급.
- #2. 훈련소는 훈련병만 있지 않음. 교관·조교 및 많은 기간병이 있는 곳인데 훈련병의 인권만 보호받는다고 생각함. 정작 이곳에서 오래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되려 인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러한 점에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3. 인권이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다. 단, 그것을 악용하면서 권리라고 생각하는 훈련병이 있다. 본인들의 권리는 남들이 피해를 보는 것과는 관련 없다는 생각이 대다수다.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이렇게 간다면 전쟁이 나도 인권을 지키면서 싸울 수 있을지 고민이다. 전쟁이 나도 취침 시간, 샤워 시간 보장하면서 싸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희생도 필요하다.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 #4. 샤워할 때 찬물만 나오거나 물이 없어 수압이 약해져 물이 잘 나오지 않으면...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서럽습니다.
- #5. 흡연 및 핸드폰 사용에 대한 내용이 80~90% 이상.
- #6. 인권증진은 좋으나 통제하는 입장에서 통제 요원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훈련병만 아니라 통제 요원들의 실질적인 요건도 봐줬으면 함.
- #7. 시설, 침대형에 비해 생활관 공간 부족. 교보재 확충.
- #8. 충분히 보장 중. 흡연과 핸드폰 사용은 훈련병도 가능하도록 만들고 문제 발생시 지휘 책임이 아닌 훈련병 개인이 책임지도록 개선 필요.
- #9. 인권 관련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음. 체계적이고 충분한 교육 확립하여 진행되길 바람.

- #10. 훈련병 생활 시설 개선 필요. 노후하여 고쳐도 금방 고장이 나며 민원 불평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함. 교장의 거리 또한 교육시간만 줄일 뿐이다.
- #11. 코로나로 인해 훈련병뿐 아니라 조교·교관·간부들까지 격리통제를 해야 함. 우리 조교 간부들도 목숨을 걸고 통제하는데 훈련병 코로나 감염을 우리 탓으로 돌림. 인식개선 필요.
- #12. 훈련병 인권은 증진·개선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기간 장병·교관들의 인권은 퇴화하는 것 같음.
- #13. 노후화 시설 개선 필요. 훈련병 인권 증진과 훈련 연계가 되면 좋겠지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행동으로 이도 저도 아니게 될까 걱정임.
- #14. 훈련병 인권은 나날이 발전 중. 분대장과 소대장 인권도 이런 설문 조사를 받아 분소대장 인권도 신경 써 주는 모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음.
- #15. 기간요원에 대한 인권. 여건 개선은 부재함. 자존감 저하로 업무능률 저하 초래 → 훈련병에 대한 관심과 열의 저하로 이어짐.
- #16. 훈련병 인권 보장 취지는 좋으나 인권 보장을 위해 군 기강이 추락하는 모습이 계속 보이며 사회의 눈치를 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에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크게 도움 안 됨.
- #17. 훈련소 시설 여건 개선 및 조교들에 대한 복지 개선.
- #18. 훈련병 인권에만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분위기임. 이런 상황에 적응하는 이도 못 하는 이도 있다. 인권이 중심이 된 훈련병은 모두 개인주의다. 남이 다쳐서 그 일을 못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팀워크가 없다. 불리해지면 인권을 얘기한다. 훈련병 인권으로 위축받지 않는 훈련소가 되어야 한다. 군 복무기간이 짧은 만

큼 더 압축적이고 강렬하게 훈련해야 국가보호가 가능하다. 시설, 교육, 보급품, 노후화 등은 개선 필요하다.

- #19. 자율 체력단련 보장 필요(코로나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군인 체력 단련이 제한받는 것은 국방 약화이다. 유동 병력을 통제하는 소대장이나 분대장이 없으면 수많은 병력이 꼼짝할 수 없음). 탈영병 발생 시 탈영병 개인의 법적 책임으로 풀어야지 소대장 등 연대 책임을 물으니 내 소대원이 혹시 탈영할까 불안하고 본연의 업무인 교육훈련에 집중 못함.
- #20. 인권 기본권 보장되어야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 고발·고자질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교와 교관이 훈련병 눈치를 보고 있다. 예로, 명백히 잘못된 사항에 대해 훈련병에게 지적하면 설문에 왜곡된 사실을 적는 훈련병이 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노력 대신 해당 조교나 교관을 문책하려 한다. 그래서 괜히 문제될 바에야 그냥 넘어가고 굵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는 마인드가 편하다. 언론도 문제가 있다. 보도만 보면 조교·교관들이 나쁜 사람이다. 예로 21년 초 화장실, 세면장 이용 제한 관련!.
- #21. 백신 맞고 입소하기. 입영 후에도 본인의 의사를 통해 입영 연기 가능토록.
- #22. 훈련병 수가 너무 많다. 분대장이 소대 훈련병 55명을 맡다 보니 훈련병과 분대장의 스트레스가 많음. 제한된 시설에서 너무 많은 훈련병이 있고 신 막사에 비해 구 막사의 시설이 열악함. 당장 시설 개선이 어려우니 훈련병 수를 줄이는 방안 제안함.
- #23. 훈련병 인권 개선에는 찬성하나 오히려 조교들의 인권이 사라지는 느낌임. 몇몇 훈련병들은 군대가 아닌 캠핑에 온 느낌이 든다고도 함. 훈련병 개개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기간병의 개인 정비, 취침, 휴식 시간이 줄어들음.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조교 아닌 호텔 직원 느낌임.
- #24.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보수 필요. 고장이 날 때마다 고치는 것이

아닌 선제적 조치 필요.

- #25. 훈련병 인권 및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함. 그에 반해 조교 (분대장)의 위치가 애매해짐. 훈련병의 인권과 조교의 위치는 반 비례한다는 생각이 든다.
- #26. 낙후된 시설로 인한 생활 제한 및 시간 부족 발생. 샤워 시간 보장에도 불구하고 낙후로 인한 시간 지체 발생. 간부 및 기간병들의 생활 여건·휴식 여건 보장 필요. 훈련병의 세면·세족 시간 보장에 반해 분대장은 이에 대한 보장이 없음. 이로 인해 훈련병을 시기하는 분대장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음.
- #27. 인권 존중은 당연함. 단 군인의 목적이 없어지고 군사 직무성이 무너지는 건 안타까움. 인권으로 인해 실전과 같은 훈련이 안 되고 통제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 것 같음.
- #28. 인권존중을 하다 보니 통제가 점차 어려워지고 분대장들은 조교로서 프라이드를 점차 잃어가고 있음. 코로나로 힘듦의 연속이라 답답함.
- #29. 훈련병 인권 보장 타이틀에 분대장, 조교와 간부들의 희생만 늘고 조교·간부들의 인권은 뒷전이 되었음.
- #30. 소수의 교관. 조교로 너무 많은 병력을 소화해내고 있다. 조교·교관이 과거의 보충대 임무까지 하고 있어 임무의 본질을 벗어남. 조교 또한 귀한 자식들이지만 훈련병에 대한 인권만 너무 강조되고 있음. 교육 연대를 증설하거나 군수기능을 확대시키고 과거 입영 심사대의 기능은 다시 잡아야 함.
- #31. 많은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함. 좀 더 진행된다면 많은 부분에서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함.
- #32. 훈련병 인권과 민간인 인권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필요. 특수 집단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정리 필요.
- #33. 식당에서 냉방이 제대로 안 되어 땀을 흘리면서 식사함. 세면·샤워 시간 부족으로 여름에는 수시로 땀을 흘리는데 샤워는 1회로

힘듦.

- #34. 우리도 훈련병 시절이 있었음. 그때도 인권침해 받는다는 생각은 없었음. 현재는 훈련병들의 인권 보장 노력으로 많은 것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으므로 지금처럼 유지만 되면 좋겠음.

#### □ 000 신병훈련소

- #1. 충분히 인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2. 훈련병의 인권을 챙긴다는 명분으로 조교 및 교관의 인권을 너무 낮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조교 및 교관의 인권을 더 증진시켜 줄 필요가 있음.
- #3. 훈련병들은 전쟁 대비 훈련도 받고 군인으로 양성되는데 핸드폰 같은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인권이 침해된다고 생각 안 함. 훈련병의 인권만큼 조교나 훈육관에 대한 관심 필요.
- #4. 훈련병들이 인권존중 필요. 단. 그에 앞서 교관/조교들의 인권을 먼저 생각해 주기 바람. 훈련병들 때문에 저희들이 인권 침해를 당한다 생각함.
- #5. 훈련병들의 인권이 증진되어야 하나 중요한 것은 군인들에 대한 처우가 더 중요. 사회에서 군인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낮다. 요즘 인권은 특히 00은 인권 보장이 잘되어 있다.
- #6. 훈련병 인권증진이 먼저가 아닌 훈련단원들의 인권증진이 중요.
- #7. 식당개선. 이발개선 방법.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훈련병 인권보장은 좋으나 그로 인한 악효과도 발생. 조교가 훈련병들이 신고할까 눈치 보며 훈련병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2. 개인 정비 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뉴스 시청을 통해 사회의 소식을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겠음.
- #3. 훈련병 인권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훈련병은 너무 편한 대우를 받음. 오히려 조교들이나 교관들 인권이 더 문제가 있음. 훈련병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구타·가혹행위·폭언·욕설은 당연히 안 된다 생각하지만 조금 더 위엄 있게 통제가 가능했으면 한다.
- #4. 지금도 충분히 보장됨. 인권을 넘어 너무 큰 자유 요구 시 훈련소의 개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훈련소 역할을 하는 것에 지장이 옴.
- #5. 훈련병 인권도 중요하지만 조교들의 인권보장이 더 심각한 문제임. 코로나 상황에서 수백명이 두 곳의 세면실을 격리를 유지하며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음. 훈련병 인권보장이 안 되면 욕먹는 것은 조교들임. 단 하루라도 생활해보면 조교들 인권이 미보장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임.
- #6. 인권과 군기는 반비례함. 인권보장이 과하다 보면 조교 통제를 안 따르는 모습이 많음. 쉬는 시간은 인권을 보장하되 교육시간에는 엄정한 군기로 교육 받아야 함.
- #7. 시설 발전이 최우선. 조교들의 인권과 권리가 살아나야 훈련병 인권도 살아난다. 조교들은 훈련병들 눈치를 보고 있으며 이를 훈련병이 악용하여 피해는 조교들만 받고 있음. 훈련병들은 통제에 안 따르고 그럼에도 조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조교는 훈련병의 배이비시터, 욕받이에 불과함.
- #8. 훈련병 인권증진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 상황은 오히려 뒤바뀌어 간부·용사들이 인권보장을 못 받고 있다. 군대조직 안에 존재하는 계급, 상명하복이 안 된다. 훈련병들은 점점 더 위로 밟고 올라서려 하고 군 기강 확립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체 생활이기에 한명 한명이 다 편하고 좋을 수는 없다. 불편함은 어느 정도 감수해 내는 것도 단체에서 필요하지만 소수의 의견이 단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기본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

- #9. 코로나로 세면 통제. 화장실 통제 등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간 통제이긴 하나 시간을 1, 2분이라도 늘려주면 어떨까.
- #10. 훈련병 인권을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필요. 훈련병 인권보장은 찬성이나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 발생 시 통제 인원의 잘못이 아닌 문제 인원에 대한 개인 책임으로 된다면 보다 더 높은 인권증진이 될 것임.
- #11. 기수별 입소 인원수를 줄여야 함. 수용가능 시설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입소하기도 함. 격리로 인한 훈련 시간 부족은 인권증진에 장애물이 됨. 훈련병 대비 간부·조교 수 부족으로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많음. 방역, 교육 수준과 훈련병 인권의 3마리 토끼를 다 잡기에는 환경이 터무니없이 열악함.
- #12. 훈련병보다는 조교들이 훈련병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음. 너무 훈련병 위주로 진행되어 아쉬움.
- #13. 시설환경 개선.
- #14. 한 개 기수에 훈련병이 과하게 들어와 교육의 질, 생활의 질이 떨어짐. 조금 축소(180~200명) 필요.
- #15. 빠른 국방개혁으로 인해 변화된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권증진을 하면 교관과 조교의 취지가 흔들린다. 실제로 조교 및 교관이 훈련병 인권으로 인해 훈육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훈련병의 인권증진은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지만 지금은 파도치는 바다에서 모래성 쌓는 꼴이다.
- #16. 훈련병 인권도 중요하지만 통제 간부 및 조교의 인권과 복무 만족도를 고려해야 함. 훈련병 인권 증진을 위해 기간을 단축시키자. 침해를 받는다고 표현하는 흡연과 전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배출 건의.



문제 43. 귀하는 교육훈련 중 훈련병들이 인권 보장을 이유로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43-1.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000 신병훈련소

- #1. 사소한 상처 또는 진료를 핑계로 훈련에 열외하고 의무대, 00해양 의료원을 가면 편히 쉬는다는 이야기를 공유, 진료권 보장을 핑계로 훈련 열외하는 상황이 발생 됨.
- #2. 가장 기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나 인술. 통제가 전혀 안됩니다. 명령 불복종은 기본이고 이제는 훈련병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 #3. 우리는 언성을 높이기 싫다. 잘 들리지만 훈련병들은 모이게 되면 떠들 수 밖에 없다. 떠들면 과업의 진행이 매우 늦어지므로 교육이 불가능하다. 언성을 높이지 않고 착하게 이야기하면 듣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과실을 부여해도 훈련병들은 전혀 아무렇지 않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목소리가 올라가면 인권을 따진다.
- #4. 본인에게 반말을 한다고 욕을 하고 신고한다고 그랬던 훈련병이 있다.
- #5. 폭언.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교육훈련 시간 도중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교체시간에 왜 잠을 자고 있느냐? 라는 질책에 반성보다는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 얼차려도 부여하지 못하는 상황.
- #2. 의무대(괴병 같음).
- #3. 항상 훈련병의 인권 입장만 우선시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 그 뒤에 치열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조교·교관이 있는 것을 알았으면 좋

겠다.

- #4. 대기 시간이 없을 수 없는 훈련임에도 인권 문제로 교육 종료 시간을 미뤄서라도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장해 줌. 그와 동시에 조교의 개인 정비 및 인권이 보장받지 못함. 조교의 개인정비는 어디에? 다 같은 의무복무 병사이다. 우리는 그저 임무를 수행할 뿐. 조교 (훈련병) 해결방안: 훈련소 기간을 여유롭게 늘려 교육수준을 높이고 인권까지 보장.
- #5. 종교문제., 개인 건강 등.
- #6. 지속적인 화장실 이용으로 아침점호 열외.
- #7. 당연히 겉으로는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만 누가 봐도 교육에 빠지려고 하고 인권을 바탕으로 눈치 보면서 통제를 아주 따르지 않는다.
- #8. 사격 자세를 알려 줄 때 괜한 얼차려 관련 설문이 나올까봐 교육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낌. 교육을 한 것 뿐인데 얼차려를 받았다고 설문에 작성함. 이 사건을 본 후 교육할 때 상당히 조심하고 불편을 느낌.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화생방 훈련 때 많이 나온다. CS가스가 겁나 훈련 열외를 많이 원한다.
- #2. 화생방 훈련에서 훈련 도중 우발적으로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
- #3. 훈련병들의 인권보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고, 그로 인해 조교·교관들의 고충이 더 심해집니다. 훈련을 거부하고 불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적극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교·교관들은 훈련병들 인권을 보장해 준다는 명목 하에 더 한 고통과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이 인권조사가 훈련병 대상으로 나온 설문이라 좀 외람될 수 있지만, 훈련병들 인권만

보장되어 조교·교관들은 더 더욱 힘들어집니다. 조교·교관들의 인권설문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4. 훈련 중 자신이 하기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 #5.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교육 시간이 늦어지고 인권 때문에 흡연하고 씻고 휴식하고 교육 시간 다 잡아먹음. 교육 준비시간에 TV시청 누워서 하고 있고 교육 집합 시간 늦는 경우 다수.
- #6. 피부가 약하다는 이유로 화생방 훈련을 거부.
- #7. 훈련병들이 설문으로 조교들을 협박하는 경우가 있음.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여건을 보장해 주니 훈련이나 작업에 있어 "우리가 왜 해" 라는 등 이와 같은 반응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훈련병들이 있음.
- #8. 거부 사례는 없지만 하기 싫은 모습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표현함. 통제하기 곤란.
- #9. 훈련병들 더워한다고 숙영을 취소하고 힘들어한다고 약화합니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배식분배는 샤워 이후 희망.
- #2. 발목 통증을 호소하여 교육훈련을 거부했는데 영외 교육훈련 종료되자 회복. 규정된 얼차려 지침이 있으나 인권보장을 주장하며 거부

#### □ 000 신병훈련소

- #1. 양아치 같은 애들이 들어와 하기 싫으니까 인권을 들먹이면서 개기고 반항하며 헛소리 한다. 많아서 이제 훈련교관인지 선생인지 모르겠다. 수준이 너무 낮다. 300 미터 달리기도 못하는 수준.
- #2. 훈련을 거부하는 것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고 본인의 잘못도 들어달라고 함.

- #3. 지시했으나, 양아치 같은 아이들이 대드는데 인권을 빙자하여 행정적 처리도 체력단련도 제대로 하지 않음.
- #4. 체력 평가를 진행 중이었고 팔굽혀 펴기를 할 때 완전히 올라오지 않자 올라오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일어서서 자신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뭐라 하나. 인권침해다"라고 함. 정상적인 훈련 및 훈육이 불가함(동네 형한테도 이러지는 않음).
- #5. 거부하진 않았지만 자기가 왜 지시를 따라야 하나며 대툭.
- #6. 정당한 지시에 인권이라는 그늘에 숨어 거부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 제식 등의 군사적인 부문에서도 인권을 논하고 있는 상황.
- #7. 인권이라는 그늘 아래서 이상한 행동을 함. 지시에 불만을 가지고 하기 싫으면 인권, 인권 함.
- #8. 정당한 지시를 했음에도 단지, 그냥 단지 본인이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들어 보이며 '칠 테면 쳐봐'라는 훈련병들이 간혹 있음.
- #9. 애매함. 매번 "훈련" < "개인시간"이 더 많음.
- #10. A 교관이 정당한 결과 보고를 위해 해당 사항을 사진 촬영 중 B 훈련병은 "사진 찍지 마십쇼. 인권 침해입니다."라고 발언하며 교관에게 대든 사건(사진에 얼굴 등 신원 확인 가능한 부위는 안 나옴).

#### □ 000 신병훈련소

- #1. 태도 불량(부적절한 태도로 용무 신청 등)으로 훈육했을 때 신고함.
- #2. 한 훈련병이 자신이 왜 급양지원 소대를 가느냐 혹은 학과를 왜 듣느냐 등 너무 많음.
- #3. 자신의 인권을 들먹이며 거부함.
- #4. 훈련에 참여하기 싫어서 총기 소지 상황에서 조교를 협박함.
- #5. 훈련병들의 인권은 하루빨리 개선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조교들 인권 보장을 못하는 것 같다. 서로의 입장이 아닌 훈련병 입장만 들

어주는 것 같음. 어느 정도 군기강이 필요한 훈련소에서 기강이 사라지고 무너지는 느낌 받음. 조교 및 교관들도 훈련병들 상대로 인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생각.

#6. 종교. 회피. 심리적 문제.

#7. 더운 여름 “뛰어” 라고 한다고 민원 제기함.

## □ 000 신병훈련소

#1. 훈련 초부터 몸이 아프다며 모든 훈련날 의무실 가고 뛰는 걸음 한 번도 안 하고 수료한 훈련병이 있다.

#2. 취사지원, 세탁추진, 높은 사람 방문 전 청소 같은 없던 일이 생기는 경우 개인 정비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시간을 뺏겨 별로 쉬지 못함.

#3. 훈련간 지장이 없는 상태임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혹은 다양한 사유로 훈련 열외하고 있음. 훈련소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임.

#4. 몸이 아파서 훈련 열외를 군의관 허락 하에 진행하였다.

#5.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교육훈련을 안하고 보충교육을 받겠다 하는 훈련병이 많음.

#6. 낙후된 시설개선이 시급. 낙후된 시설에서 좋은 공간과 불비한 여건에서의 훈련은 교관, 조교뿐 아니라 훈련병까지 힘듦이 가중됨.

#7. 의무실 이용 후 군의관이 휴식하라고 하여 훈련 참석 거부.

#8. 중대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만을 갖고 부정적으로 표출한 사례(예: 청소. 식당정리. 백신접종 다수자가 쉬고 있을 시 미 접종자로 배식 도우미 편성하면 미 접종자는 죄인 취급이다 왜 우리만 시키느냐 등의 불만 토로).

#9. 훈련 가능 함에도 컨디션이 안 좋다며 훈련을 열외 받는 경우.

#10. 다 훈련 미 참여를 위한 핑계다.

#11. 단체시설에서는 샤워를 못 하겠다. 현재 아프지는 않지만 아플 것

같이 훈련 열외하고 싶다.

- #12. 격리 생활로 인해 식사가 늦어지고 세면·양치 시간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훈련 불가.
- #13. 의학적 소견은 없으나 힘들다며 개인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훈련 거부함 .
- #14. 훈련을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냐고 물어보는 훈련병들이 종종 있습니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을 정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각개전투 행군을 열외 하였다. 아픈 곳도 없었고 그냥 정말 하기 싫은 데 억지로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훈련을 거부했다.
- #2. 전문 의료인들의 소견에서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신체적 불편 호소하여 열외 하는 인원 다수 확인함.
- #3. 아픈 사실을 숨기다 훈련이 시작되고서야 나타남. 시간만 대충 보내고 가려는 훈련병 많음. 옆에서 열심히 훈련하는 동기들 교육하는 교관 및 조교들에게는 무례하다며 본인의 위치를 악용해 열외한다.
- #4. 집 보내달라며 조교 및 교관에게 욕을 하며 주머니에 손을 넣음.
- #5. 저녁 점호 시 관물대 개방을 요구했으나 인권 문제로 거절함.
- #6. 체력 단련이나 힘든 훈련을 교묘하게 하지 않는 인원이 있으며 문제 제기나 지적 시 인권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인원도 있음.
- #7. 힘든 훈련을 꾀병을 부려 열외를 시도 한다.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훈련병 치고 내무생활을 너무 잘한다. 따라서 실제로 아픈 사람이 의료혜택을 못 받기도 함.

문제44. 귀하는 교육훈련 중 신병 훈련의 목표 달성 등 직무상의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을 침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44-1.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000 신병훈련소

#1. 각개 주간에 안부 편지 미 발송 - 뿌릴 시간도 없거니와 훈련병들이 편지 읽느라 잠을 안 자 원활한 훈련 진행에 부적합.

00사단 신병교육대

#1. 훈련병의 인권보장, 진료 보장을 위해 진료를 보내주려 했을 때 일이다. 개인화기 등 정해진 일정과 교육을 할 때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와 교육이 중복되어 훈련병에게 선택을 하게 하였다. 후에 마음의 편지에서 둘 중 하나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해명해야 했을 때 매우 기분이 좋지 않았다.

00사단 신병교육대

#1. 인권이 포괄적이다. 아침에 기상 후 점호 후 양치, 세면, 화장실 이용을 원하는 만큼 시킨다면 1교시 시작 시간을 맞추는게 가능할까? 학교에서 쉬는 시간 동안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인권침해인가? 아닌가?.

#2.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하게 사실과 달리 과장하여 작성하는 훈련병들을 보고 조교를 난처하게 하기 위해 작성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3. 현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감행해야 하는 통제(코로나 등)가 있습니다.

다. 그 통제로 인해 조교 또한 불편하고 수고스럽지만 필요한 일  
기에 합니다. 훈련병들에게 이해 교육을 시키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평과 과도한(과장된) 소원 수리로 필요한 통제를 못하고 훈련병  
의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4. 교육시간을 맞추기 위한 샤워시간 축소 등

####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어디까지가 인권 침해인지 모르겠지만, TV 끄고 교육준비 시키고 샤  
워시간 적게 준 적 있다.

#2. 흡연 제한. 훈련으로 인해 간부·조교도 같이 하기 때문 관참음.

#3. 훈련병중 한명이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설문에 적어서 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생활관에 들어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의 심정은 정말 억울했  
고 창피했습니다.

#4. 쫓기는 시간에 세면시간 단축. 집합시간 강요.

#5. 음해성 투고.

####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인권의 의미가 너무 포괄적임 통신의 자유도 기본권이나, 교육훈련  
을 하며 동시에 개인위생 등을 챙기고 (의식주). 전화까지 사용하  
기에는 매우 시간이 빠듯함. 이와 같은 사항이 교육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 000 신병훈련소

#1. 과업시간을 준수하고자 위생·용변 시간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못



하였다. 그러다 보니 훈련병들까지 '샤우팅'하고 '음박'지르는 경우가 발생함.

#2. 악순환의 연속인 것 같다. 예를 들어 훈련병은 아무리 용변을 봐도 정작과정이라던 지 행군 출발하기 직전에 30~40명씩 또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훈련병들은 통제하기에는 인권에 위배되고, 그렇다고 기다리기에는 600명 이상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지정된 시간은 있고 진행하려보면 이러한 제한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침해 한 인권이 어떤 종류를 말하는지 모르겠음. 신체의 자유, 당연히 억압해야 하고 훈련을 하려면 당연한 건데 싸잡아서 인권이라 표현하는 것 자체가 웃김.

문제45. 귀하는 훈련병들의 소원수리(마음의 편지 포함)로 인해 자신이나 동료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직접 경험하시거나 목격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제45-4.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이나 느낌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 000 신병훈련소

- #1.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입장에서 어이없게 신고 받음.
- #2. 대다수의 훈련병들은 군 특수성과 훈련병 신분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 등을 이해하며 훈련에 임하지만, 가끔 인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음.
- #3. 사실상 훈련병>조교 같음.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훈련소에서 조교 찢러라 같은 문구와 방법이 나와 있음.
- #4. 소원 수리함을 통해 조교에 대해 욕설이나 병적인 환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있음.
- #5. 현재 훈련단에서 훈련병의 인권에 대한 사항을 강조하여 다수의 훈련병을 지휘하고 인솔하며, 훈육하는 입장에서 불편사항 다수 발생 중. 훈육요원도 가르치는 입장에서의 훈육자 인권의 보장 필요함. 특히, 민원제기의 경우 훈육 요원들 또한 열심히 하는 도중 발생하는 돌발 상황이 많은데 책임 넘기기의 경우가 생기는 것 같음.
- #6. 훈련병들의 거짓된 의견으로 인해서 동료 조교들이 욕설을 했다거나 구타를 했다는 허구를 지어내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겠지만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함.
- #7. 감정이 너무 들어간 압박감.

- #8. 병 조교 입장에서 매 차수 비교육적 사례를 접했을 때 허위신고가 태반. 심지어 훈련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부정당하는 경우가 있음. 평가처에서는 조교들만 추궁함. 자율성이 강조되는 훈련단을 만들려면 개인의 책임도 강조해야 한다.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책임 필요함.
- #9. 군 기강을 꼭 다시 잡자. 같이 근무하는 병사들만 봐도 훈련병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마음의 편지를 적는 것 같음. 정작 조교의 이름도 모르면서 이름을 지어내고 가혹한 체력단련을 시킨 적이 없는데 이름이 적히곤 한다. 훈련소는 군인을 만드는 곳이다. 체력이 약한 친구들은 체력을 길러서 나가야 하는 것이 군대인데 훈련병들은 궤병을 이유로 훈련에 참여치 않으려 한다. 훈련에 열외 되어 환자인 척 자는 이들도 대다수다. 간부후보생들도 군 기강이 매우 낮다. 간부후보생, 훈련병들을 적당한 군기로 군인화 시켜야 하는 입장인데 훈련소는 조교가 아닌 보육원 선생님을 원하는 것 같다. 훈련병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면 한다. 무너져 가는 기강을 훈련소에서부터 잡아서 밖에서도 당나라 군대라는 욕을 먹는 이 군대를 다시 고쳐가야 할 것 같음.
- #10. 매 차수마다 수료할 때쯤 훈련병들의 신고 등으로 훈육요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음. 비정상적인 몇몇의 훈련병들 때문에 교육 질이 떨어짐.
- #11. 생명이 달린 훈련 중 돌발행동을 해서 뒷 목을 잡고 위험하다며 뒤로 뺐는데 나중에 훈련병이 목살을 잡았다고 신고함. 훈련병 자신이 잘못된 걸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 봤다고만 생각해 교육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이해 안 됨.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는데 훈련병들이 인권만 중시하고 있어서 아쉽다.
- #12. 있지 않은 개인적인 원인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음. 훈련소에 들어온 취지를 망각한 채 자유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인해 이를 당연히 통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 못하고 마음의 편지에 씬.

- #13. 훈련병의 근거 없는 모함. 없는 사실에 대한 허위신고로 훈육관이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임. 훈련병의 인권이 강조되는 만큼 훈육관의 인권도 보장 필요.

#### □ 000 신병훈련소

- #1. 단체로 한명의 조교를 찌른 경우에 속수무책. 악의적인 보복성의 소원수리.
- #2. 훈련병이 분대장의 영덩이를 갖고 놀리자 분대장이 참지 못하고 욕을 하니 감찰 설문에 적어 해임시켰다. 같은 군인으로서 우리가 직책이 높다고 해서 부당한 걸 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음. 훈련병들의 인권을 더 높이면 분대장 또는 소대장 권위는 상대적으로 더 내려갈 것임. 그럼 지금보다 더 군 기강이 흔들릴 것임. 이렇게 해도 군 기강이 유지된다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3. 훈련병의 설문내용에 조교·교관들의 없는 사실을 부풀려 과장해 기록하며 사실조사를 받는 등 난처한 상황임. 사실이 아니라고 끝났지만 조사받는 과정. 유연비어로 인해 사후에 영향이 있음.
- #4. 훈련소의 특성상 조금 더 엄격한 위계질서가 요구되고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함. 하지만 현재의 훈련소 시스템은 철저히 훈련병이 갇히 되는 구조임. 단순히 조교·교관의 지시가 싫어서 설문과 마음의 편지를 통해 과장된 악의적 내용을 남길 경우 피해는 조교와 간부만 입고 있음. 제대로 된 사실조사와 훈련병의 하극상 및 규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이 필요함. 일방적으로 훈련병이 갇히 되어서는 안됨.
- #5. 실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으나 훈련병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분대장이었다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음.
- #6. 마음의 편지에 조교들의 생활지도 방식을 고발하여 징계(휴가 제한

등) 받음. 조교로서 훈련병을 통제하고 지도하는 건 필수적임. 이제는 그러나 어르고 달래야 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어버린 것 같음. 훈련병의 인권보장도 좋지만 조교와 교관의 인권과 권한도 높여야 하는 게 군인으로서 맞다고 생각함. 조교 인권도 개선되어야 함.

- #7. 훈련병이 둔부를 만져 욕설을 사용한 조교 후임이 징계 받고 전출된 것을 목격. 욕설사용은 안되지만 충분한 조사 후 조치가 아닌 일방적 징계 구조의 조치였던 것이 충격적이었음. 마음의 편지가 고발의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합당한 행동을 만들어내기 보다는 마음의 편지만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된 분위기임.
- #8. 조교를 싫어하는 훈련병이 마음의 편지를 통해 고의로 피해를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한 사례가 있다. 훈련병들이 마음의 편지 위력이 강한 것을 알아 조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했다면 꼬투리를 잡으려는 느낌이다. 조교들도 마음의 편지가 힘이 강한 걸 알고 무서워서 강한 통제가 힘들다.
- #9. 사실보다 더 과장해서 씬으로써 동료가 교관한테 지적받은 걸 본적 있고 해명할 기회가 없었다.
- #10. 훈련병 인권 존중에 찬성. 단, 조교(분대장) 인권도 존중 필요. 훈련병들만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가끔 분대장들의 인권은 뒷전인 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오히려 훈련병들에게 주눅이 드는 사례도 있음.
- #11. 훈련병들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면 과도하게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있음.
- #12. 제대로 된 상황조사 이전에 우선 설문에 나온 분소대장 잘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크다. 훈련병들은 사회에서 군대에 입대할 때에도 마음의 편지, 감찰 설문이라는 것을 알고 온다. 그래서 착한 분대장·소대장이 아니거나 본인이 마음에 안 든다면 의도적으로 깎아내려 설문을 써내는 인원도 대다수며 특히, 분대장들이 피해

를 보는 경우가 많다.

#13. 불펜 선물 감사합니다.

#14. 감찰설문에 훈련병이 악감정으로 쓴 내용에 대해 소명하여 처분은 안 되었지만 훈련병이 그런 내용을 썼다는 것에 의욕 저하. 소명을 위한 노력으로 열정이 꺾이고 식어감. 특히, 간부들은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낌.

#15. 동료 분대장의 욕설로 휴가가 제한됨.

#16. 정확한 상황 파악은 않은 채 책임자 문책만 한다. 항상 훈련병 애기만 듣고 교관·조교를 문책한다. 설문에서도 자신의 잘못임에도 혼난 사실만 화가 나서 왜곡 내용을 쓰는 경우가 많다. 전후 상황을 따져서 설문 결과를 조치하면 좋겠다.

#17. 악의적인 설문. 과장되게 소원수리 적은 훈련병으로 인해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상처 받거나 무기력해진 모습을 종종 본다. 칭찬은 묵인하고 안 좋은 소리에만 집중해서 힘들다. 소원수리는 꼭 필요하지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8. 입소 초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낀 상태로 교육할 때 생활관에 들어갈 수도 없어 밖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다 보니 훈련병이 계속 화낸다고 설문에 적은 일이 있음.

#19. 마땅히 통제해야하는 교관이자 조교로서 정당한 상황, 근거에 의한 통제를 취했지만 단지 통제받는 입장인 훈련병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지적 및 경고를 받는 사례를 종종 목격함. 이런 상황이 지속되었다간 앞으로 교관과 조교 직책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의구심 생김. 훈련소 내에서 훈련병의 권리가 어디까지 지켜져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함.

#20. 훈련병이 잘못 인식하고 소원수리해서 실제 있지 않았던 사람이 문제가 된 사례 발생. 훈련병의 일방적 소원수리로 인해 훈육에 어려움 발생. 단호히 지도해야할 상황에서도 오히려 위축되어 적절한 지도를 하지 못할까 걱정됨.

- #21. 분대장도 사람이다 보니 감정이 있음. 조금 짜증나는 말투라고 해서 훈련병들이 짜증났다고 쓰게 되면 분대장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감.
- #22. 데리고 있었던 분대장이 평소 욕하는 기질이 강해 소대 내의 후임 분대장에게 막 대하는 것 같다는 훈련병의 설문을 통해 사실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해당 인원은 징계 및 야전 방출하였음. 담당 소대장으로서 여러 차례 격려 등을 했음에도 상황이 지속되어 처분은 했으나 업무능력이 월등하여 안타까웠음.
- #23. 보급품 사이즈가 문제가 없음에도 핏에 욕심을 부려 계속 교체를 요구했고 이해시키려 했으나 훈련병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00장 마음의 편지에 보급품 사이즈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적음. 이로 인해 보급계원만 억울하고, 행정보급관이 사태를 정리하느라 고생한 것 생각하면 마음의 편지 하나로 조교와 간부들의 질책 여부가 좌지우지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듦.
- #24. 군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조교들이 감정노동에 시달림. 훈련병은 훈련병답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본질을 지켜야 한다.
- #25. 잘못된 행동을 지적한 분대장에게 사과를 요구함(기분이 나빠 인권침해이다 → 조치는 군대내 적합한 교육이었음을 확인 후 이해 교육 실시).
- #26. 감찰설문이나 헬프콜을 통해 접수된 내용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해결하라는 상급부대 지시 등.
- #27.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거짓된 내용을 적어 동료가 피해를 보고 불합리한 진술서 작성을 강요받음.
- #28. 훈련병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타당한 훈육(얼차려 아님)임에도 훈련병이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설문이나 마음의 편지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적는 경우가 있음. 훈련병 인권 이슈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악용되는 사례도 있고 군인으로서의 기본적 군기는 가지지 않는 훈련병이 있어 안타까움.
- #29. 방탄 헬멧이 안전한 지 훈련병이 물어봐서 돌에 맞아도 안전하다

고 대답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 투입이 미뤄짐. 재미있게 설명해 준 것임에도 피해를 입어서 당황함.

- #30. 조교 직책이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데 폭언·욕설도 아닌 집중을 안 한다고 다소 큰소리로 말한 것에 대해 찢린 조교들이 있다.
- #31. 내 동료는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했지만 소원수리가 매 기수마다 여러 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환경과 각자 다른 생각, 신념, 성격 등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에게는 괜찮지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훈련병들도 인권이 존중받아야 마땅한 우리나라의 국민이지만 조교 또한 사람이기에 그러한 상황 발생이 어쩔 수 없다고 본다.
- #32. 악의적 목적으로 평소 마음에 안 들던 조교 분대장이 욕설, 폭언했다고 마음의 편지에 적었고 이를 같은 생활관 동기들이 동조하여 사실이 아님에도 기정사실화 하였고 이로 인해 조교분대장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음. 다수 훈련병이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확실히 하지 않고 처리해버려 용사의 인권 침해사례라고 생각함. 조교 분대장들 입장에서 코로나와 변화되는 군대 분위기 속에서 너무 고생하고 억울한 점도 많으나 비춰지지 않아 속상함.
- #33. 훈련과정 중 다수 통제로 인해 소수의 인권이 피해가 가는 상황 발생. 이후 다른 조교들에게 현 사태에 대해 본인이 느낀 것, 당시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 드렸고 개선방안 논의, 교육 등으로 양측이 서로 이해가 되었던 경험이 있었음.
- #34. 그저 정량 배식판에 따라 배식하라 했을 뿐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글을 보고 황당했음.
- #35. 기분이 나쁘다고 마음의 편지에 적고. 위험한 개인화기 주간 차에 목소리를 크게 하라 했더니 그조차 적었다. 아주 비일비재하다. 실상은 훈련병들에게 폭언·고성·폭행·얼차려는 전혀 안 하지만 훈련병들은 마치 자기가 당한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함.
- #36. 사소한 불편사항이 크게 번져 소대원이 다른 소대로 이동하고 본



인 소대는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음. 충분한 대화, 설명 없이 훈련병의 편지 하나로 용사들에게 과하게 처벌이 주어진다. 오히려 조교들의 잘못만 강조하여 용사의 편이 없는 게 서운하다.

- #37. 더 잘했음 하는 마음에서 훈련병들을 강하게 이끌다가 마음의 편지로 인해 진급 누락,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너무 훈련병 입장만 생각해서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싶고 조교의 입장과 상황도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다.
- #38. 훈련병들은 SNS나 각종 매체를 통해 훈련소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함. 조교와 교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의 편지를 쓰면 된다. 혹은 신고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입영하는 친구들도 여럿 있다. 지난 기수 훈련병을 예시로 조교가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로 마음의 편지에 누구 조교와 맞짱을 뜨고 싶다는 내용을 적는 훈련병도 있었으며 조교에 대한 희롱도 많은 사례가 빈번히 발각되었음. ‘훈련병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해 준다’ 라고 하여 현 군대에서는 많은 개선 방안을 세우고 달라지고 있는 게 보임. 그러나 이로 인해 현 상황에서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함. 선택적 인권이 아니라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훈련병들의 인권침해가 되면 SNS나 뉴스기사에 엄청난 문제로 보도됨. 그 반대로 조교나 교관의 인권적인 문제는 한 번도 조명된 적 없음.
- #39. 몇몇 훈련병들의 악의적 소원수리가 발생하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과장·왜곡된 사례를 본 적이 있음. 이에 동료 조교들이 징계 및 주의를 받은 적 있음. 교관 및 조교의 입장, 해당 상황에 대한 전반적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소원수리의 무조건적 수용은 전혀 건설적 대책이 아님. 훈련병 인권은 조치되어야 하지만 제반 여건의 미흡과 군인이라는 인식 부족 속에서 그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은 올바른 인권신장이라 할 수 없음.

- #40. 다소 과장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곡시켜 당사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음.
- #41. 훈련병들 중 드물게 조교·교관에게 악한 마음을 품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경우에도 해당 인원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미지가 안 좋아짐.
- #42. 실제 안한 내용이나 규정에 맞게 통제했음에도 훈련병이 감찰설문에 피해를 받았다고 작성을 하면 처분을 받거나 부대에서 소문이나 교관 및 조교로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훈련병의 잘못을 보고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묵인하는 경우가 생김.
- #43. 폭언·욕설을 과장되게 표현한 점. 사실 왜곡에 대해서 매우 불편감을 느꼈으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설명과 사과, 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음.
- #44. 같은 소대 조교 분대장의 통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훈련병들끼리 작당하여 감찰에 악의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쓴다. 이로 인해 회의감에 빠진다. 훈련병이 없는 시간에는 오히려 훈련병에게 어떻게 하면 안 찢릴 지 대화하는 교관·조교를 보면 훈련병 인권만 챙기고 조교·교관의 여건과 실태를 보장해지지 않는 이 상황이 개탄스럽다.
- #45. 4주차 감찰설문 진행 시 5주차(수료주차)에 결과가 종합이 되고 훈련병들은 자대 배출이 된 상태에서 사실 확인 없이 감찰설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만 실시함. 일부 인원은 과장·왜곡된 내용 작성후 “자대가면 그만이다” 라는 식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피해를 본다. 인권강조 및 SNS, 언론, 폐복을 의식하는 지휘관의 조치가 직접 통제를 하는 간부와 조교들이 손을 쓸 수 없게 바뀌어 가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 요즘은 악용 인원. 군대를 군으로 보지 않는 느낌. 권리만을 주장하는 분위기가 훈련소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다.
- #46. 마음의 편지 관련 사실 확인 이전에 피해자의 인식을 가지고 상급

부대의 조사가 이루어짐. 자연스럽게 훈육 지휘관·조교·교관들은 가해자가 되며 그 시점부터 훈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음. 사실 확인 시 부조리가 없었다 해도 작성 자체가 역부조리라고 생각함. 인권보장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훈련병에게만 과도하다면 군을 이끌어 나갈 MZ세대 간부들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 #47.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그 상황을 글로 확대하여 정확한 조사 없이 누가 쓰지도 모르는 글만 가지고 처벌이 이루어짐. 규정대로 훈련을 진행했음에도 그런 적이 있어 속상하였음.
- #48. 2019년 훈련병이 하사분대장에게 초콜릿, 감동이 하사님이라는 발언을 하여 훈육으로 벌점을 주고 넘어갔으나 마음의 편지에 “체벌 당함”이라 적어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 사과를 한 사례가 있음. 훈련병은 정작 어떤 피해도 받지 않고 야전으로 감.
- #49. 허위진술(욕설을 안 했으나 자신의 느낌에 따라 욕설했다) 함. 다수 인원 통제를 위해 멀리 있는 인원에게 내용을 전달하고자 큰 목소리로 통제했음에도 협박·폭언·소리를 질러 겁을 줬다 함. 눈 앞에서 훈련병들끼리 욕설을 하여 이를 구두 교육했으나 타 인원들이 보는 것은 통제력이 부족하다, 안 무섭다는 조롱을 받음. 위와 같이 통제하는 입장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도 피해자는 훈련병, 가해자는 조교·교관이다. 사실조사와 관계없이 처벌 받고 이미지 손실, 의욕 저하 등 임무 수행에 회의감을 느끼는 인원이 다수임. 군대는 군대의 특성이 있는데 이를 포기하고 부대 구성원을 버리며 훈련병의 인권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모습이 매우 힘듦.

#### □ 000 신병훈련소

- #1.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신세대 장병들이 있지도 않은 일을 부풀려서 악의적 신고사례 다수.

- #2. 훈련병들의 소원수리함에서 훈련교관의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되게 신고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훈련교관들의 입장을 생각 안하고 오로지 훈련병들에게만 의견을 수렴 받는 겁니다.
- #3. 본인이 개인적으로 잘못하여 혼났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대해 없는 얘기를 지어내 불이익을 보게 하는 훈련병 몇몇이 있다(알고 보면 사실이 아님). \* 저번 기수 때 이런 일이 종종 있었음.

#### □ 000 신병훈련소

- #1. 훈련교관의 의도는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또 고려하지 않은 채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만으로 의욕 넘치고 성실한 훈련교관들을 보직해임하거나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훈련병의 상황 진술로만(너무 과장되고 본인 위주의 진술) 대상자를 판단하고 벌하려고 수시로 확인 감독하는 현 상황이 매우 부당함. 훈련소, 군인, 군대, 국가방위의 목적 본질을 벗어날 때 북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과연 이러한 용사들과 같이 전쟁하여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아야 정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패배할 것 만 같다.
- #2. 무엇을 원하는 질문인지 이해가 어렵다.
- #3.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작성 조사 확인 결과 무혐의. 작성한 훈련병은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음. 이렇게 피해를 입은 교관 조교는? 인권만 중요할 뿐 무고죄에 대한 대책도 필요.
- #4. 정당한 통제였다고 해도 훈련병들이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설문에 적혀 피해보는 조교도 많고. 인권 보장을 위해 훈련병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비 시간도 포기하고 훈련

병들을 통제하는 일이 많다.

- #5. 소원수리 하나면 모두 다 처벌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말만 듣고 통제 안 따르고 교육집중 안 해서 교육하면 부당하다고 소원수리 쓰고 그럼 또 통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훈련소 개판되고 진짜 이게 군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거면 여기서 격리만 되고 자대 보내는게 좋아요. 진짜!.
- #6. 마음의 편지를 무기 삼아서 익명으로 적으면 확인할 방법도 없이 문책 당한다.
- #7. 과장, 허위 사실로 인해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
- #8. 동기가 전출 갔다. 저런 벌레들 때문에 내 동기가 간다고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다. 맨날 훈련병 인권만 챙기다가는 더 심한 역차별이 생길 것이고 조교나 간부가 훈련병들 눈치를 봐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웃긴다. 빨리 탈출하고 싶다.
- #9. 본인이 겪은 사항은 과대 포장하여 말 잘함.
- #10. 관물대 검사가 기분 나빴다는 설문으로 동기가 불려가 진술서 작성 후 훈련병들에게 사과함.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훈련병들의 입장에서 봐주고 받들어 모시듯 하려면 차라리 조교라는 보직을 없애고 직업 군인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직접 전체 통제하는 것이 나을 듯 하다.
- #11.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 아닌 전혀 없었던 일을 작성한 일부 훈련병들 때문에 몇 달 감찰부에 조사 다니며 마음의 상처와 업무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 간에 그 누구도 간부의 편은 없었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잘못이라며 관련 없는 일까지 들추고 모두 처벌하겠다고 채찍만 하는 실정이니, 오히려 전투력의 중추들의 사기는 끝도 없이 저하되나, 그들의 마음은 누구도 보살피지 않고, 직장인인 그들은 하소연하지도 못한다.
- #12. 다수의 인원을 교육 하는 상황에 통제가 되지 않는 인원에게 대해 소리를 쳐서 주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폭언으로 들릴 수도 있음.

- #13. 결론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의 자존감과 명예는 많이 실추되었음.
- #14. 큰 문제가 있었던 상황도 아닌데 마음의 편지에 나오면 일이 과하게 벌어지는 듯 한 느낌이 있음. 마음의 편지 내용에 나온 인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밖에 없었거나 이해가 되는 상황이면 부대 차원·지휘관이 나서서 보호해주면 좋겠음.
- #15. 군대가 맨날 단체생활을 강조하지만 왜 맨날 한두 명이 쓴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2명이 좋게 쓰고 1명이 조금 이상하게 써도 나쁜 조교이고, 사실 확인이 정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요즘 보면 조교와 훈련병들이 동등한 입장이어야 하지만 훈련병들이 왕이고 이런 식이면 누가 조교를 하려고 할지 의문이고 조교가 필요 없을 것 같다. 서비스직 희생정신 강조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훈련병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조교로서 당연히 어느 정도 희생하고 훈련병들을 배려해야 하지만 현 상태는 너무 과하다.
- #16. 동료를 해하기 위해 없는 일을 작성. 주변 동료들 확인 시 전혀 하지 않은 일임.
- #17.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과장되고 와전된 마음의 편지로 인해 억울하게 진술서를 2번 쓴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조사가 들어와도 잘못된 점이 없었던 저는 중대장님이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썼습니다. 훈련병들을 인격체로 보고 잘 대해주고 있던 저는 당시 억울했습니다.
- #18. 교육을 한 것뿐인데 얼차려를 줬다고 설문에 나와 전출을 감. 교육에 굉장한 불편을 느낌. 코로나 관련 통제를 한 것뿐인데 이점에 대해 과장되게 소원수리를 하여 조교들의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고, 조교 임무를 하는데 후회를 느끼게 함. 군 생활이 힘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사실과 달리 과장해서 조교의 언행에 대해 얘기하여 동기가 한번 피해를 볼 뻔 한 경우를 겪고는 훈련병을 좋은 군인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보다 견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2. 통제를 하는 과정에서 통제 방법에 불만을 가져 마음의 편지를 쓴 경우가 있었고 그 방법에 대해 잘못되었다 생각하지 않지만 그로 인해 경고를 받은 적 있음.
- #3. 조교의 입장으로 훈련병을 훈육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훈련병들의 과도한 요구(배식조 제외. 경계근무 축소)로 조교들이 고충을 갖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훈련병들을 위하는 길은 훈련병의 요구를 무조건 전적으로 수긍하고 훈련병들의 마음의 편지에 좌우되는 훈련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 #4. 몇몇 훈련병들이 장난이든 진심이든 조교들에게 설문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조교들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 #5. 마음의 편지, 감찰 설문 등 대대에서 실시하는 설문들로 훈련병들이 조교를 협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조교·교관들 인권 설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6. 훈육을 위해 훈련병에게 여러 번의 강조와 전달, 교육을 해도 수료 때까지 조차 마음대로 하기에 몇 조교들은 집중과 훈육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게 되는데 그때마다 (조교가 화를 너무 많이 낸다. 항상 화가 나 있다. 사회 나가면 별 것도 아닌 게) 라는 등의 의사소통을 하며 조교를 비판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훈련병은 매 기수마다 있다. 화를 내는 것도, 혼을 내는 것도 아닌 훈육을 해도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인권을 왜. 훈련병만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7. 1기수. 대략 37-44일 정도 간의 훈련병 입소부터 배출까지 조교들

은 식사 도우미, 교육 준비, 식사 추진, 야간 교육, 훈육, 당직, 분리수거, 청소까지 임무를 돌아가며 15명 안팎의 인원들이 쉴 새 없이 일을 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너무 힘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4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 역시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훈련병이 설문에 적어버리면 기수 위로 휴가도 받지 못하고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혹서기 일과에 코로나로 인한 예방적 격리 차원에서 식사 추진 (조교들이 모든 생활관 배식 후 비표 및 식판 수정 등을 설거지). 야간 교육까지 하면서 업무강도와 업무량이 너무 심합니다. 조교들의 인권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고 기수 위로 휴가도 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8. 간부님과 조교가 훈련병들을 생각해 과자와 음료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병 몇몇이 그것을 왜 주냐며 부정적으로 적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비군인지 훈련병인지 모르겠을 정도로 군기가 없고 조교에게 “형이라 해봐” 라는 등 옳지 않은 발언을 합니다.
- #9. 조교로서 훈련병들을 훈육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 우리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것이 임무이고, 그 관점에서 감정을 실지 않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말하지만 훈련병들은 그냥 자기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생각한다. 전우조 이용, 동기끼리의 경어 사용,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치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들에 대해 훈련병들은 마음의 편지라는 익명으로 과장해서 말하곤 하여 조교로서 허탈감이 들고, 내가 하는 것이 조교인지 서비스 직업인지 하는 후회도 든다.
- #10. 훈련병 마음의 편지를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전후 사정 거의 없고 단순히 기분 나쁘면 적는 경우가 다수. 물론 그것으로 징계를 받지는 않지만 경고를 받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쁨.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개의 불만은 당연한데 이것을 제로화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됨.
- #11. 마음의 편지에는 개인 고충뿐만 아니라 주변 전우가 힘들어 하거



나 다양한 내용을 이야기함.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

- #12.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 절차 없이 설문에 언급되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처벌 등)이 있었다.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
- #13. 훈련병 인권 존중의 명분 하에 한 명의 목소리 만으로도 교관·조교는 다친다. 나태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만 선을 넘진 않는 인원들을 통제할 수단 결여. 적절하고 정확한 통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며 한 순간에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 보니 점점 통제를 기피.
- #14. 주로 동료 교관이나 조교들에게 그런 일들이 발생하였으며, 훈련이 고되다, 어느 조교가 못살게 군다 등 부정적인 내용들에 열성을 가지고 임하는 동료들이 혼나고 풀이 죽고 조사를 받는 모습들을 보면 회의감이 들 때가 많았다.  
\* 훈련병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관·조교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강압적으로 훈련을 시켰다는 내용과 샤워 시간 부적절. 개인 정비 시간 침해 등 야간 교육 시 발생 훈련병 입장에서는 당연하다는 생각. 교관들은 교육해야겠다고 충돌이 발생함.
- #2. 통제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과도하게 부풀려 작성해서 상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후에는 마음의 편지로 바뀌는 태도를 보고 분대장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이 보였다. 당시에는 정말 하기 싫다고 생각을 했다.
- #3. 훈련병의 고의적 왜곡이나 과장이 있는 특정 인원의 주장이 조교에 대한 질책으로 이어짐.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나 가슴 아픈 현실.
- #4. 매우 기분이 좋지 않다. 적응하는 동물인 인간에게 지휘관 위치가 정해져 갑과 을을 따지는 것이 아닌 군인으로 훈련 목적에 대해 지

적을 수차례.

#5. 인터넷 편지.

#6. 요즘 세대는 헬리콥터 부모라고 하는 극성 부모들이 자신의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대를 불신부터 하는 경향이 있음. 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대군 신뢰도 회복도 군의 역할이긴 하나 사소한 것을 ‘인권위에 신고하겠다, 국민신문고에 제보하겠다’ 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정성을 다해 신병 교육하고 싶어도 힘이 빠짐.

#7. 교관 및 조교들이 본인들의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소를 하다 보니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하고 본인들이 조금만 불편하면 바로 불만 토로를 하며 심부름꾼을 부리듯이 생활하여 피해를 보는 동료들을 목격함.

#8. 마음의 편지로 교관·조교의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9. 다음엔 내가 될 수도 있겠네. 인접 혹은 본인의 중대가 설문에 대해 지적받을 때 고생했지만 결국 설문 한 번에 잘하고 못하고가 결정되네. 잘해주기만 하면 마음은 편하다. 설문도 안 나오고 그럴지만 목표달성이 될지는 모르겠다.

## □ 000 신병훈련소

#1. 훈련교관의 인권은 보장되지 않으며 훈련병의 말만 듣고 처벌하는 게 이상함. 훈련병이 잘못했다면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하는데 교관에게만 책임을 물음.

#2. 의욕이 떨어지고, 교관들과 훈련병은 다른 종류의 인간인가 하는 생각이 듦. 훈련병 보장은 철저하게 되고 교관들은 전혀 도움 보장되지 않음. 살얼음판이다. 훈련병의 정확하지 않는 문제제기로 누군가는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불덩이가 찾아온다. 훈련병은 처음이

라서, 약해서, 요즘 세대라서 라고 한다면 훈련소의 기본 모토와 규정부터 다 바뀌어야 한다. 솔직히 훈육이 안 된다. 학교 느낌이다. 군기 확립은 이제는 없는 일이다. 소대장·지휘관·간부들이 더 힘들다.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희생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다.

- #3. 허위 사실과 다소 과장된 사실을 보고 무조건 처벌부터 하려는 경우가 있다.
- #4. 제대로 된 사실 여부도 파악하지 않고 휴가 중이던 교관을 불러서 조사하고 추궁하는 것을 보았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확인과 정확한 추적이 진행 되어야지 설문이 나왔다는 이유로 잘못을 추궁하면 교관들의 이미지, 군생활의 타격이 있을 것 같다.
- #5. 마음의 편지가 나오면 피해자 말만 듣고, 양측의 말을 다 듣지 않는다. 양쪽 상황을 모두 고려를 해줬으면 함.
- #6. 없는 내용들로 인해 인식개선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신분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며 정확한 상황 등에 인지가 없는 상태 또는 모든 내용이 훈련병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문제라고 생각이 듦.
- #7. 근데 왜 훈련병 인권만 중요시 여기는지 모르겠음. 이 설문지에 훈련병이 훈련교관을 무시하거나 인권에 침해 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8. 물론 훈련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 교관의 임무라 생각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존중이 되니 교관과 훈련병의 사이 또는 관계가 더 허물어져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훈련병들에게 무시당하고 앞에서 잘난 척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면 안전사고와 관계되고 통제하려하니 제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물론 수많은 훈련병들 중에 일부 인원들이 문제된다.
- #9. 저희 교관들은 훈련병들의 소원수리 등으로 인해 피해보는 상황들이 있음.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음. 단, 훈련병(교육생) 들이 1급

과실 유급과 관련된 행동을 했을 때 위에서 넘어가고 그냥 수료시키는 부분이 있음.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을 보고 훈련병들은 교관들에게 태도가 불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인권 존중을 해도 당연한 생각과 불성실하고 불인정한 교육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함. 위에서 그런 교관 대 교육생의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교관들은 잘못해서 처벌 받고, 교육생은 안고 가고 마치 교관이 교육생 눈치 보며 비위 맞춰주는 상황이 불편하고 이런 사실은 알리고 싶다.

- #10. A교관이 A훈련병에게 B내용의 전달을 위해 했던 말을 훈련병은 C라는 내용으로 알아들어 소원 수리하였고 이에 따라 A교관이 질타 먹은 적 있음. B교관이 B훈련병에게 빼놓아진 방탄 헬멧을 바로 잡아 주고자 헬멧을 잡고 똑바로 돌린 행위를 B훈련병은 불만을 품고 헬멧을 막 잡고 흔들었다고 하여 B교관은 일정기간 직무 정지당함. 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도대체 훈련병들만 생각하고 이해해주면 우리 교관들은 누가 생각해주고 이해해주나? 라고 생각됨. 현실은 우리 교관들을 더 사지로 몰아넣는 기분이고 부하들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다고 느껴진다. (교관)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규정대로 나와 있는 얼차려를 받은 것을 부당하다고 고발. 반말한다고 고발. 너무 많아서 못쓰겠음. 군인다운 자세로서 최선을 다해 군인화에 희생하고 노력하는 군인 교관은 시대에 뒤쳐진 군인 취급을 받고 훈련병들의 실수를 못 본척하면서 웃어주는 무능한 간부가 인정받는 시대가 왔다. 강력한 국방력 또는 놀다가 병영캠프? 국가인권위원회의 생각은 어떨습니까? 인권 타령 전쟁이 나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통제 간 소리를 질렀던 친구가 있습니다. 훈련병이 잘못된 상황이었고, 사실조사로도 밝혀졌지만, 어쩔 수없이 보여주기 식으로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설문은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훈련병의 인권’을 위한 것입니까?. 통제하는 입장에서 이런 설문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권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수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수치를 채워야 되는 듯이 남들의 인권을 굶어모아 한 명의 인권을 채우는 듯이 하는 것이 도대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2.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적인 질책이 대다수임.
- #3. 훈련병이 분대장에게 직접적으로 “자꾸 이러면 설문에 찌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정당한 명령에도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감찰/군사경찰

문1-1. 최근 1년 간 훈련병을 대상으로 수사나 조사를 진행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000 신병훈련소

- #1. 훈련병 상호 폭행.
- #2. 분대장 또는 소대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
- #3. 폭행. 상관모욕. 강제추행 등 정말 다양한 사건이 있음.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상관 모욕. 폭행. 모욕. 군인 등 강제추행. 협박.
- #2. 훈련병 상호 폭언. 욕설. 병영 갈등 등 복합적임.
- #3. 부대 내 병영 부조리나 폭행·가혹행위 여부 등 .
- #4. 훈련병이 동료 훈련병을 대상으로 폭언·욕설, 폭행을 하거나, 상관(간부) 및 조교(용사)를 대상으로 뒤에서 뒷담화(모욕)하여 수사함.

#### 000 신병훈련소

- #1. 훈련병들끼리 폭행 및 욕설 행위.
- #2.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일 때 저질렀던 각종 사건 사고(폭행, 성 관련 사고, 사기 등).
- #3. 상호폭행. 폭언. 욕설. 성추행.

□ 000 신병훈련소

- #1. 명예 훼손. 폭행 / 가혹행위.
- #2. 동기생들에 의한 폭행. 조교에 의한 폭언과 협박.
- #3. 폭행 사건.
- #4. 조교가 훈련병에게 협박. 훈련병 간 폭행. 조교가 훈련병에게 폭행.

문2-1. 훈련병들이 소원수리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 000 신병훈련소

- #1. 분대장이나 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
- #2. 생활관 개선 요구.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교관. 조교들의 불친절.
- #2. 피복 사이즈가 안 맞음.
- #3. 보급품(특히 피복류). '거구자' 등 특이체형 인원은 적시 보급 제한.
- #4. 급식량 부족 : 훈련병은 식사량이 많아 시간 부족 호소.
- #5. 현역병 수준의 개인정비 여건 보장(전화 통화. PX 이용 등).

□ 000 신병훈련소

- #1. 전화 통화 및 편지 관련 내용.
- #2.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에 대한 처리.

문2-2. 소원수리 처리 결과는 어떻게 전달하시나요?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한 훈련병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 000 신병훈련소

#1. 관련 내용을 종합해서 연대에 전달하면 연대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훈련병에게 설명해주고 있음.

□ 00사단 신병교육대

#1. 코로나19로 인해 감찰부에서 실시하지 않고 신병교육대 지원과장(대위)이 설문을 주관 후 설문 결과를 감찰부 협조 서명 후 사단장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수료 전 신병교육 대대장이 신병들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2. 설문 결과를 사단장에게 보고 후 대대장에 의한 후속 조치(설명).

#3. 직접 처리사항(폭행, 폭언 등)이 아니면 해부대 지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 받고 있음. 훈련병들은 퇴소 후 직접적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반응은 모름.

#4. 훈련병 매 기수별 소원수리 접수 - 종합 - 지휘관(사단장) 결재 후 신교대대 전파 - 후속 조치 결과 보고 지시.

문3-1. 귀하는 훈련병 대상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다른 동료가 침해하는 것을 목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오히려 수사관 등 조사관이 인권침해를 당함. 예를 들어 피해 신고를 한 인원 또는 신고인원을 만나 수사 및 조사 시 해당 인원에게 “야 왜 군사경찰에 신고하냐. 말하냐. 저 새끼들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 것은 부대에 말하라” 라는 등 인권을 무시당함.
- #2. 훈련병들은 동기생들과 생활하고 있어 병 상호간 갈등이 적음. 교관·조교들은 인권 의식 함양으로 인권 학대 행위 감소(존칭 사용).

문5. 훈련소 운영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 등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지속적인 관심 유지와 모두의 이야기에 귀 기울임. 현재 충분히 여건이 보장되고 있음.
- #2. 건물 노후화에 대한 개선.
- #3. 훈련병들이 군인화가 되는 과정에서 사회에서의 습관 개선이 쉽지 않고 훈련병들의 인권보다 근무하는 간부들이 훈련병들의 눈치를 보는 사례들도 생길 것 같다. 훈련병이라는 특정 신분보다 군인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코로나19 및 여러 사회적인 상황 등으로 훈련병들은 서로 간에 욕설 및 상관에 대한 범행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질환,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인원은 병무청 단계에

서부터 제외하여 군에 입대하지 않게 하는 것이 군의 명예와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훈련소는 병사들이 군에 처음 입대하여 군이라는 조직의 특징, 운영 등 기초적인 사항을 교육받고,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을 위해 배워야 하는 곳이지만, 훈련병을 관리하는 지휘관·지휘자(교관 제외)는 별도의 교육·선발 등이 부족(미흡)한 채 임무를 수행하여 훈련병을 양성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교관은 시험과 교육으로 전문성이 있으나 훈련병들의 기본적인 생활 등을 훈육하고 관리하는 간부들의 자질이 떨어져 훈련병 간 문제 등 병영갈등에 대한 문제해결 능력 부족으로 훈련병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다. 훈련병이라는 특성에 맞춰 전문성 있고 책임감 넘치는 우수 자원으로 선발하여 기본적인 여건 등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 #3. 아직 고위직 간부들 중 일부는 임무에 비해 인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위직을 대상으로 추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4. 훈련 부사관 제도가 도입되어 우수자원들이 교관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훈련 부사관에 대한 대우가 낮아져(진급 등) 지친 경우가 있음.
- #5. 훈련병 및 군내 인권문제의 출발점은 강제로 징집하여 군복무를 하는데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모병제의 빠른 도입 필요합니다.
- #6. 현재도 충분히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오히려 교관 및 조교가 훈련병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7. 훈련소별 적용하는 범위가 일부 상이하여 통일이 필요함.

#### □ 000 신병훈련소

- #1. 교육을 진행하는 교관, 민간 강사, 지휘관도 중요하지만 개인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함.
- #2. 훈련소에서까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면 훈련 전 또는 후에 해야 하

며 훈련 중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됨. 훈련 중에는 훈련기관에서 별도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없음.

□ 000 신병훈련소

- #1. 교육훈련단이라는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감찰실 민원 업무를 1명이 하고 있음. 이에 국민신문고 및 전화 관련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 감찰업무 및 민원상담 업무를 하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교육생들의 인권에 대한 전문 인력이 필요함.

□ 000 신병훈련소

- #1. 훈련병만 인권이 증진되면 안 될 것 같다. 요즘 훈련병들의 인권이 증진되면서 교관 및 조교들이 힘들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이 좋겠습니다.
- #2. 훈련병들이 교관 / 조교들에게 대들고, 싫은 소리를 하면 무조건 신고를 하고 있는 추세이다.

#### 4.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문1. 최근 1개월 동안 훈련병과의 상담은 총 몇 건 정도 진행하셨나요.

000 신병훈련소

- #1. 80건
- #2. 60~70건
- #3. 50건
- #4. 40건
- #5. 50건
- #6. 5건

00사단 신병교육대

- #1. 59건
- #2. 40건
- #3. 200건
- #4. 90건

000 신병훈련소

- #1. 30건
- #2. 90~100건

000 신병훈련소

- #1. 124건
- #2. 48건

□ 000 신병훈련소

#1. 66건

문2. 훈련병과의 상담이 신청된 경로를 아래와 같이 구분했을 때, 최근 1개월 동안 각 경로별로 상담 건수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구분	훈련병이 직접 상담관에게 전화로 신청한 경우	훈련병이 지휘계통(소대장 등)을 거쳐 신청한 경우	부대에서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경우
000	전화불가	5	25
	전화불가	70	20~30
000	0	49	10
	0	2	38
	0	5	195
	0	10	80
000	6	15	45
000	0	3	121
	0	0	48
000	0	0	80
	0	3~5	50~55
	2	8	40
	0	40	0
	0	25	25
	0	2	3

#### 문4. 훈련병들이 상담과정에서 주로 제기하는 고충 내용은 무엇입니까?

##### □ 000 신병훈련소

- #1. 군대 적응 문제. 가족 및 여자 친구에 대한 걱정. 건강문제. 훈련소 내의 인간관계 등.
- #2. 복무 부적응. 가족·여자 친구와 분리된 여건. 자유감 상실. 통제·대인관계 어려움. 우울. 자살 충동. 감정조절 어려움. 스트레스. 집단생활 어려움 등.
- #3. 우울감 및 불안감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 사회와의 단절감. 고립감. 통제와 제한이 많은 환경 및 분위기. 해결되지 않은 가족문제.
- #4. 적응. 대인관계. 통제. 명령 체계.
- #5. 병원 진료가 시급한 경우 예약과정 등의 이유로 치료 시기가 늦어져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
- #6. 격리감 호소.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점.
- #7. 심리적인 분야(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등).
- #8. 육체적인 분야(개인 질병).
- #9. 환경적인 분야(군대 환경에서의 부적응에 대한 현실 문제. 통제된 삶에 대한 답답함 등).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피해의식. 우울. 불안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
- #2. 낯선 환경에서 적응의 어려움 호소.
- #3. 떨어진 가족. 애인 등에 대한 염려.
- #4. 통제된 환경. 단체생활 적응의 어려움.
- #5. 입대 전 성장환경에서의 트라우마가 입대 후 발현.
- #6. 최근 코로나 격리기간 동안의 답답함,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편입니다. 또한 격리 이후 생활관 합류 시 부적응(대인 관계 측면)할 것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을 주로 호소합니다. 부대 환경(코로나 격리)과 별개로는 사회에서부터 경험한 우울감과 무기력감, 전역 후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많은 편입니다.

#7. 통제된 환경, 수면 문제.

#### □ 000 신병훈련소

- #1. 집에 가고 싶다(가입영 이후에는 귀가 조치 불가). 사회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 호소. 자대배치 이후 함정 근무에 대한 불안감. 대인관계의 어려움. 왜 군대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
- #2. 갇힌 느낌이 든다. 군에서 나가고 싶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입대전후). 자해를 한 적이 있다(입대 전후). 엄마가 보고 싶다. 여자 친구가 보고 싶다. 훈련을 잘 해내지 못 할까봐 걱정된다.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다. 배를 타는 것이 너무 두렵다. 선임과의 관계가 걱정된다. 내가 군에 있다는 사실이 힘들다. 생활관 동기들과의 관계가 어렵다. 혼자 있고 싶고 단체생활 싫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우울. 불안. 자신의 무기력. 체력 저하. 통제된 생활. 낯선 환경.
- #2. 막내로서의 군 생활 적응 문제. 선후임 갈등. 진로문제. 이성문제.

#### □ 000 신병훈련소

- #1. 입대 전 과거력에서부터 우울. 불안. 대인관계 불편함 등을 겪다 훈련소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스트레스 대처 방법(혼자 있기, 담배, 게임 등)이 어려워지자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

문7. 훈련소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 등을 위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000 신병훈련소

- #1. 훈련병의 인권은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이를 뒷받침하는 분대장들의 인권보장은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대장들도 군복무를 하는 장병임을 기억해 주셔서 분대장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2. 원활한 의사소통이 미흡해서 발생하는 일이 많은 편이므로 대인관계와 의사소통능력 증진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감을 향상(대체로 잘하고 있으나 개인별 대인관계, 의사소통 능력이 미흡한 경우에 대비한 교육이나 인식 개선 지도).
- #3.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체제와 제도의 불변성. 변화가 어려운 제도 및 절차(코로나 상황에서도 입대 인원이 조절이 되지 않음으로써 통제와 제재가 증가함. 절차와 대응에 대한 유연함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4.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예민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조직의 인권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권교육 및 인권 감수성 교육이 자주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 #5. 군에 민간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 여기에 비해 군인과 민간인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제도적 장치도 없는 것이 현실임. 코로나 국면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상담관과 지휘관과의 관계가 사무적이다 보니 서로가 조심스럽고 쉽게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때로는 답답함이 있음.
- #6. 정신과 진료. 특히 공황증세 호소하는 훈련병이 바로 정신과 진료를 예약하여도 2주 후에나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을 무작



정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요.

- #7. 시설의 협소로 인한 기본권 제한(화장실 사용, 세면장 사용 등) : 00부대의 경우 0개 중대 훈련병이 200명으로 가정 시 중대에서 사용 가능한 변기 개수는 23개로 고정되어 있다. 변기 1개당 9명이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통 가정의 경우 화장실 2개를 5명 정도가 쓴다면 이것은 인권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현재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은 대체로 좋아진 편임.
- #2. 현 부대에서는 기준을 잘 지켜 실행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인권 감수성을 발휘하여 훈련병 신상 관리 시 훈련병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경계를 잘 설정하여 인원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 #3.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화장실 이용 시 시간제한, 샤워실 이용(격리기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훈련병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보다는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시설의 한계성이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훈련소 건물 내부 구성이 현실에 맞게 다시 재정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 코로나19로 격리되어있는 인원들이 무력감을 호소합니다. 격리 중에도 무언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인권교육의 대상자가 훈련병만 있는 것이 아님. 실무자 중심의 인

권교육이 실시되었을 때 참석하였으나 훈련병이나 부사관 후보생 등 훈련 대상자들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들었음.

- #2. 훈련소의 발전 및 군 조직의 발전을 위해 인권은 누구에게나 있음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A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B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함.
- #3. 인권침해와 관련한 인식이 증가하면 시설 및 환경의 변화도 뒤따라 함께 가야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많을 때 결국 또 누군가는 괴로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함.
- #4. 훈련병 서로 간의 인권침해도 있음. 훈련병들에게도 보다 실질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함.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고 싶다면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함을 가르쳐야 함.
- #5. 훈련병들이 직접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생활관에 전화기 설치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야간에 계속(매일) 상주할 수 없고(상담관) 상담 중에 있을 경우가 많아 전화 접수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6. 훈련병들이 사용하는 수통이 많이 낡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위생과 관련해서 재질이나 재사용에 대한 부분에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있기를 바랍니다(전군 조사 필요).
- #7. 주말에 책을 볼 수 있는 시간과 도서 제공 등의 자유시간이 보장되면 좋겠습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풍족한 급양. 생활환경의 현대화. 훈련담당관의 인권보장도 필요
- #2. 신임 지휘관 부임 이후 생활관과 시설이 바뀌고 있다. 환경이 깨끗해졌고 상담하는 부분도 변화가 생겼다. 간부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교육받는 장병들을 우선으로 개선되는 것 같다. 상급 지휘관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셨으면 한다.

## □ 000 신병훈련소

- #1. 호실 당 배정 인원을 40명 이하로 하여 쾌적한 휴식 공간 및 취침 환경 제공.
- #2. 식사시간 및 음식의 질이 높은 식사 제공.
- #3. 편안한 훈련복 제공.
- #4.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되는 퇴소 조치(가입단 기간 외).
- #5. 의무복무에 대한 향후 10년간 다양한 복지혜택(공공주택 청약 당첨 조건). 인센티브(군복무 가산점).
- #6. 훈련조교들의 인권이 보장된(업무시간) 업무환경 제공.
- #7. 훈련소 1주차(가입단 기간)에 어려움이 식별되어도 훈련병 의사를 존중하여 입소되는 경우가 있음. 전문의의 판단이 귀가조치여도 추후 훈련병 / 가족들의 민원 제기로 의사가 존중되는 듯함. 병무청에서부터 식별이 잘되면 좋겠음.
- #8. 훈련병이 현재 0군 기준 입대일로부터 7일까지만 귀가조치가 가능함. 이 기간이 늘어나면 힘든 친구들이 사회에서 치료받고 입대할 수 있을 것 같음.
- #9. 조리(급양) 특기 복무기간 단축.
- #10. 훈련병 인권이 존중되어 품행 장애나 복무 회피성 훈련병들에 대한 훈육관들의 관리가 어려움. 이들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 5. 군 의무인력

문2. 훈련병들이 진료를 원하는 질병이나 부상은 주로 어떤 것인가요?

### 000 신병훈련소

- #1. 정형외과적 질환(요통, 염좌 등), 피부과 질환.
- #2. 정형외과적 질환(무릎, 발목, 허리통증 등)이 주를 이룬다. 복통, 두통 등의 질환으로 진료도 많으며 환절기 및 겨울철에는 감기 환자가 많아서 내과 및 이비인후과 환자가 증가하는 편임. 정형외과는 1년 내내 많다.
- #3. 관절염좌, 소화불량, 두통 등.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감기, 허리통증, 발목 통증, 허리통증.
- #2. 근육통.
- #3. 감기, 근골격계 질환.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발가락 염증, 변비, 허리통증, 각종 근골격계 통증.
- #2. 내성 발톱, 허리통증, 변비.
- #3. 찰과상, 변비, 근골격계 통증 등.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외상(상처소독, 발목염좌 등), 감기(목, 콧물 등).

- #2. 근골격계 질환.
- #3. 안과 진료(정형외과).

□ 000 신병훈련소

- #1. 염좌. 통증. 허리통증 등.
- #2. 감기몸살. 정형외과적 통증.
- #3. 정형외과. 피부과. 단순외상.
- #4. 훈련받고 난 후 정형외과적 진료희망자가 많고 주로. 허리부상, 발목, 손목 등 부상으로 내원.
- #5. 훈련 후 정형외과적인 환자가 대다수임. 피부과·외과·이비인후과·내과 등 환자 및 정신적으로 힘든 환자들도 상담 및 진료를 위해 의무실에 내원함.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허리. 다리 통증. 감기 증상 등 다양.
- #2. 허리. 다리. 무릎 통증.
- #3. 허리통증. 다리통증.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훈련에서 발생한 정형외과적 부상.
- #2. 관절. 피부. 상기도 증상.

□ 000 신병훈련소

- #1. 근골격계통, 호흡기, 피부, 두통.

- #2. 염좌, 감기.
- #3. 단순 감기, 염좌, 상처 소독.
- #4. 감기, 허리통증, 기저질환, 훈련 중 발생한 염좌 드레싱 등. 간혹 골절이나 상처봉합이 있음.
- #5. 정형외과 질환 80%.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안과, 피부과 질환 20%.
- #6. 염좌, 온열 손상.

□ 000 신병훈련소

- #1. 발목, 허리 통증 등 정형외과적 부상.
- #2. 호흡기계통 질환이나 근골격 계통 질환.
- #3. 감기, 발목 염좌.
- #4. 근골격 질환.

문3-1. 어떤 점에서 진료 과정에서 훈련병과 기간병 간에 차이나 차별점이 있다고 보는가?

□ 000 신병훈련소

- #1. 야간 위생 점호를 통해 진료 희망 인원을 따로 조사(훈련병).  
- 오전(훈련병 위주 진료)/오후(실무인원 위주 진료).
- #2. 오전(훈련병), 오후(기간장병) 진료를 보고 있음.
- #3. 오전 진료는 훈련병, 부사관후보생, 사관후보생들 위주로 접수 및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기간장병 및 교육생 위주로 진료를 하여 환자가 최대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음.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기간병은 마음대로 진료 요청 가능. 훈련병은 의무계통을 통해 간다.
- #2. 훈련병들은 중대 및 일정으로 인해 사전 예약 조율 필요. 기간병들은 본인이 희망할 때 진료 가능.
- #3. 훈련병은 의무계통 통해서, 기간병은 본인 희망시 진료 가능.

□ 000 신병훈련소

- #1. 훈련병은 인원이 많아서 접수 시 단체 접수를 주로 하고 있음.
- #2. 기간병은 전문과 진료, 훈련병 등 교육생은 교육생 전담 진료실 운영. 각 성분의 진료 지연 및 대기 시간 감소.
- #3. 훈련병은 단체로 접수를 일괄함.
- #4. 정형외과 진료(발목, 무릎, 허리 통증 등).
- #5. 훈련병은 조교 통해서 신청.

문4. 현재 훈련병 의료지원과 관련 가장 큰 문제점이나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 000 신병훈련소

- #1. 현재 훈련병 진료에 관하여 의무대에서는 적극적인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간단한 진통제(타이레놀 등)을 처방받기 위해 진료를 온다는 것이다. 환자가 많을수록 환자 개개인의 군의관 진료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일과시간 내에 환자를 다 보려면 정말 아픈 인원들은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정말 간단한 진통제만 필요한 환자들은 신병대 훈

육요원들이 의무대에서 상비약을 요청하여 구비 후에 훈련병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현재 훈련병 인원은 다수이나 진료 인력은 부족함. 그러므로 진료의 질이 떨어지며 진료에 필요한 검사기구도 부족함.
- #2. 격리기간이 길어져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언론에 소개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함.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단체 생활의 특성상 상기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임.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현재 민간병원 진료비지원 사업과 격오지 외래환자 위탁 진료비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훈련병들이 민간병원 진료에 매우 혼돈스러워 함.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지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임.
- #2. 진료를 위한 의료 장비가 필요함.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의료인력의 부족(수도병원의 진료대기가 길다). 약물 처방의 제한(필요한 약이 제때 보급이 어렵다). 응급환자가 아님에도 응급으로 취급된다.
- #2. 훈련병 신분으로 진행해야 하는 훈련이 있기에 회복이 다소 더딘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이 아쉽다.
- #3. 불필요한 진료가 너무 많다. 의무실 이용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다. 과하게 사소한 이유로 이용함. 응급이 아닌 경우도 응급으



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환자·조교·교관의 말에 따르면 아프면 응급이다라는 말이 있다).

#### □ 000 신병훈련소

- #1. 의료(군의원, 부사관), 의무병 인력 보충, 편성 정원 보강, 의무지원과 진료를 동시 진행 시 진료가 제한됨.
- #2. 무분별하게 진료를 희망하여 불필요한 진료를 보는 경우가 많아 필요한 진료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
- #3. 시급한 환자가 아닌 단순 진료환자들이 많이 내원해서 정말 아픈 환자를 늦게 보는 경우가 많음.
- #4. 무분별한 환자로 인해 진료를 정말 받아야 하는 훈련병의 진료 제한이 있는 경우.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의료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나 응급도가 낮은 환자가 먼저 오는 등 우선순위 선정이 되지 않고 있음.
- #2. 훈련 참여 및 훈련성적으로 인해 본인이 질병이 있음에도 진료를 보러 못 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음. 비 의료인력(중대간부 등)의 임의 판단으로 응급인원 진료 누락. 한정적 시간과 의료인력으로 기존 일정과 함께 많은 훈련병들의 진료를 보는 것이 제한됨.
- #3. 중대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응급 인원이 누락. 훈련에 빠지면 불이익이 있다는 인식으로 진료를 안 보아 추후 악화되는 다수의 인원 발생.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약 보급이 느림. 신청 약이 나오지 않음. 다 떨어진 약도 보급에 하세월 걸림.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훌륭한 의료지원을 받고 있다.
- #2. 무릎, 허리 보호대 등의 물자 부족.

## □ 000 신병훈련소

- #1. 의무대 내 적절한 검사장비 부재로 과도한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이 많이 발생.
- #2. 진료 인원이 감축되었음. 훈련 열외는 군의관 소견서 없이도 할 수 있는 시스템 희망. 현재 시스템상 훈련을 열외하려면 군의관 소견서 등 필요. 진료가 꼭 필요한 인원 외 훈련 열외를 목적으로 진료를 보러오는 환자가 너무 많음. 진료 시 본인이 원하는 훈련 열외 소견서를 얻을 때 까지 계속 새로운 증상을 주장하여 진료시간이 길어짐. 3교육대가 있을 경우 2,400명을 군의관 3명이 진료하는 의료 인력의 현실적인 제한으로 꼭 진료가 필요한 인원이 진료를 보지 못하는 경우 발생. 진료 인원이 많으면 애당초 진료를 신청하지 않고 참는 경우가 있음.
- #3. 훈련으로 인해 제 시간에 진료를 오지 않는 경우, 아픔을 참다가 심해진 경우, 유급이 두려워 지속적 통증이 있어도 내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개선 필요.
- #4. 대부분 단순 근육통, 찰과상, 감기몸살.
- #5. 사소한 질환이 너무 많아 정작 중요한 질환은 진료를 못 보는 경우가 많다.

000 신병훈련소

- #1. 응급상황이 아닌데 야간에 응급실 진료하는 것 등 개인적 이유로 야간 진료 신청(예: 약이 다 떨어져 약 받으러 옴. 교육성적이 떨어진다 고 주간엔 안 오고 야간에 옴).
- #2. 의료지원을 받아야 할 훈련병 대비 의료인력이 너무 부족.

문6. 훈련소 의료지원 체계 발전이나 훈련병 인권 증진을 위해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000 신병훈련소

- #1. 장기복무 군의관이 의무대에 배치된다면 훈련소 내 의료지원 등이 더 적극적,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과 외 업무 협조사항이나 의사 외 의무요원의 권한을 넘는 부분에 있어 (진료 시간 외 의료조언이 필요한 부분 등) 책임감 있게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인력 필요.
- #2. 훈련 간 교육 성적도 중요하지만 개인 부상을 더 중하게 생각하여 즉시 진료 받는 여건 분위기 조성 필요.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의료시설 독립성. 시설의 청결. 노후된 환경개선.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응급을 응급이라 부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법률상 고의로 꺾병을 부릴 때 그에 따른 제제가 있음을 교육받았으나,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진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본인이 과업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진료를 보러오는 경우가 많아 이에 따라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진료를 못 보게 된다. 훈련소 내 소대장들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진료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 #2.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총원 필요. 코로나19 이후 업무는 현저히 늘었으나 인원은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임. 제발 도와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 #3. 하루에 환자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다들 단순 환자들 뿐, 그래서 1차에서 한 번 거르고 의무실 지원을 바랍니다. 저희 군의관이 말해도 잘 되지 않음.
- #4. 환자 수에 비례하여 정형외과적 환자가 대다수이며 환자를 볼 수 있는 정형외과 군의관이 부족함. 정형외과 군의관 혼자 많은 환자를 보다보면 진료의 질이 저하될 수 있음.

##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고급인력을 데려다 놓고 쓸데없는 짓 하지말기 바람. 의료관련 업무 진행시에는 의무계통의 의견을 받아들여 주길 바람.
- #2. 제한된 자원 내에서도 충분히 수행 중.
- #3. 충분하다고 생각함. 대대급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 환경을 지원 중임.

□ 00사단 신병교육대

- #1. 없음. 훈련병의 인권과 의료지원을 억지 말아줬으면 한다. 인권교육에 쓸데없는 예산 낭비 없기를 바란다.
- #2. 아픈 사람에게 억지로 훈련받지 않게 하기. 정말 아픔을 참고 있다면 바로 진료 신청하기. 유급될까 두려워하는 인원들 해소시켜 주기.
- #3. 훈련병들의 진료수요에 비해 의료인력이 부족. 코로나 상황에서 진단, 검사, 지원 업무량도 매우 늘어서 업무과중 상태에서 육군 훈련소의 많은 진료량 감당에 애로가 있음. 의무사 등에서 지원인력 필요.

□ 000 신병훈련소

- #1. 의료장비 및 의료인력 추가 증원 필요. 끝.

## 2021 군 훈련소 인권상황 실태조사

| 인쇄일 | 2021년 12월

| 발행일 | 2021년 12월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 주 소 |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 문의전화 | 군인권조사과 02)2125-9663

| F A X | 02)2125-0927

| 연구수행기관 |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 031)8020-3920

| 제작 |

ISBN : 978-89-6114-871-9 93390 <비매품 >